Road to Sustainability

2026 현대자동차 지속가능성 보고서

(FY2025)

HYUNDAI

Contents

Introduction

CEO Message	003
Hyundai at a Glance	005
Business Performance	007
Sustainability Highlights	009
Sustainability Governance	010
Sustainability Framework	012
Stakeholder Engagement	014
Materiality Assessment	016

Environmental

기후변화 대응 Material Topic	022
순환경제와 자원사용 Material Topic	042
오염 및 수자원	048
생물다양성	053

Social

안전보건 Material Topic	060
지속가능한 공급망 Material Topic	067
고객경험 혁신 Material Topic	081
인권경영 및 인적자원 관리	090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111
CSV 이니셔티브	114

Governance

이사회 책임 경영	119
주주 친화 경영	123
윤리·준법 경영	125
리스크 경영	130

Sustainability Factbook

지표 및 데이터	134
인증 및 특허 현황	148
GRI Index	149
TCFD Index	152
SASB Index	153
Global Network	154
제3자 검증의견서	155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157
보고서 개요	162

CEO Message



Jose Munoz

호세 무뇨스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사장

‘인류를 위한 진보(Progress for Humanity)’라는 비전 아래,
현대자동차는 전동화 모빌리티로의 전환이 단순한 비즈니스 전략을 넘어
더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기업의 중대한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대자동차가 추구하는 진보는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흔들림 없는 실천과 결단,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가 오랜 시간 축적되어 맺은 결실입니다. ‘인류를 위한 진보(Progress for Humanity)’라는 비전 아래, 당사는 전동화 모빌리티로의 전환이 단순한 비즈니스 전략을 넘어 더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기업의 중대한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비전에는 혁신과 성장이 고객, 지역사회,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변치 않는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담겨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현대자동차 임직원들은 과감한 결단과 엄격한 기준,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경영 전반에서 이러한 철학을 묵묵히 실천해 왔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첨단 기술 모빌리티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당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즈니스와 지속가능성을 바라보고 운영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제조와 공급망, 임직원과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우리의 핵심 과제들은 기술 혁신, 동반 성장, 그리고 장기적 성과 창출이라는 목표와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지속가능성은 현대자동차의 진화와 분리될 수 없는, 진화 그 자체입니다.

본 보고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당사가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와 함께,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임직원들이 만들어낸 결실에 깊은 자부심을 느끼는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책임 또한 무겁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동화와 기후변화 대응을 향한 확고한 의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상당 부분이 운송 부문, 특히 자동차를 비롯한 도로 교통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전동화’를 미래 모빌리티로의 진화를 위한 핵심 동력이자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25년 당사의 글로벌 전동화 차량 판매는 전년 대비 27% 증가하며 100만 대에 육박했고, 순수 전기차(EV) 판매 역시 26% 성장한 27만 6천 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동화 모빌리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시장을 재편하는 가운데, 이러한 성과는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현대자동차가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사는 이 같은 장기적 변화에 발맞춰 제품, 생산, 기술 전반에 걸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나아가 2027년까지 유럽 시장에서 판매되는 전 차종에 전동화 라인업을 구축하고, 북미 시장에서는 1회 충전으로 600마일 이상 주행이 가능한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EREV)를 선보이며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제품뿐만 아니라 사업장 운영에 있어서도 재생에너지 전환을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2025년 현대자동차는 유럽, 북미, 인도 지역의 전 사업장에서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거나 재생 전력 인증 등을 통해 상쇄함으로써 해당 권역 RE100 달성이라는 뜻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미국 조지아주 신공장(HMGMA)은 그룹 차원에서 147MW 규모의 태양광 전력 구매 계약(PPA)을 체결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더욱 가속화하겠습니다.

CEO Message

차세대 모빌리티 기술 리더십 확보

전동화는 현대자동차가 그리는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여정의 전부가 아닌 일부로서, 현대자동차는 더 넓은 영역으로 모빌리티의 개념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소 생태계 구축, SDV(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플랫폼 고도화를 비롯해, 장기적이고 견고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필수적인 AI와 로보틱스 등 차세대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미래 모빌리티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 기술 플랫폼인 '플레오스(Pleos)'를 기반으로 SDV 및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하여, 차량을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고객의 삶과 연결되는 혁신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나아가 당사는 배터리 기반의 전동화만으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한계가 있는 산업 분야에서 수소 에너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현대자동차의 엑시언트 수소연료전지 트럭은 이미 북미와 유럽 등 주요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상업 운행을 이어가고 있으며, 당사의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브랜드 'HTWO'의 기술력은 자동차를 넘어 선박, 발전 등 다양한 산업으로 그 영역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2030년까지 단행될 총 125조 원 규모의 대규모 국내 투자를 통해 구체화될 것입니다. 특히 이 중 50조 5천억 원은 현대자동차의 미래를 정의할 핵심 기술과 역량 확보에 집중 투입되어, 당사가 글로벌 모빌리티 산업의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신뢰의 기반, 제품 책임과 공급망 관리

현대자동차의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당사를 선택해 주신 모든 고객과 그 가족분들의 신뢰를 얻고 굳건히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는 뛰어난 경제성과 실용성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고객이 어떠한 순간에도 전적으로 믿고 탈 수 있는 안전한 차량을 완성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노력은 객관적인 지표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J.D. Power 신차품질조사(IQS)에서는 2022년 12위였던 순위를 2025년 2위까지 끌어올리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 주관 충돌안전평가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의 총 21개 차종이 최고 등급 (TSP 및 TSP+)을 획득하며, 2년 연속 글로벌 자동차 그룹 최다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중 16개 차종이 현대자동차와 제네시스 브랜드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연구개발, 생산, 품질 등 전 부문에 걸쳐 매일같이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사명으로 삼고 헌신해 온 수천 명의 임직원들이 만들어낸 값진 결실입니다.

나아가 고객과 지속가능성을 향한 우리의 책임이 차량이 도로를 달리기 훨씬 이전 단계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차량의 품질을 넘어, 엄격한 준법정신과 공정한 경쟁 문화를 전사적으로 확립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법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기업의 단순한 의무를 넘어, 고객의 굳건한 신뢰를 지켜 나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당사는 배터리 핵심 광물 조달과 관련하여 광산 및 제련소 현장 실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지속가능성 기준에 미달하는 협력사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공급망 전반에 걸쳐 실시간 강제노동 리스크 스크리닝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관리 감독 체계를 고도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47개 사업장에 대한 인권 실사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매우 세밀하고 까다로우며, 때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류를 향한 진보'라는 비전을 품은 기업으로서, 현대자동차는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함에 있어 어떠한 타협이나 예외도 두지 않겠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당사의 가장 큰 자산, 임직원

이 모든 성과는 매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12만 명의 임직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2025년 현대자동차의 조직문화 진단 점수는 3년 연속 상승했으며, 자발적 이직률은 최근 3년 새 절반 이하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또한, TIME지가 선정한 '세계 최고 기업' 평가에서 글로벌 33위, 아시아 자동차 제조사 중 1위에 오르는 의미 있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데 있어 분명한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모여 시너지를 내는 고성과 조직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조직 전반에 걸쳐 다양성과 포용성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사회적 책임과 나눔

현대자동차가 내부적으로 단단하게 다져온 핵심 가치들은 우리가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에도 고스란히 투영됩니다. 2025년, 소아암 퇴치를 위한 당사의 대표적인 프로젝트 '현대 호프온휠스(Hyundai Hope on Wheels)'는 캐나다와 멕시코로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글로벌 누적 기부금 3억 2천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 숫자 이면에는 당사가 후원한 연구를 통해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한 수많은 아이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자동차가 실천하고자 하는 진정한 기업의 존재 이유이자 가치입니다.

이와 함께, 당사는 환경을 보호하고 가꾸는 기업의 책임을 흔들림 없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CSV 프로젝트인 '아이오닉 포레스트(IONIQ Forest)'를 통해 한국, 미국, 브라질, 인도 등 전 세계 13개국에 200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를 통해 훼손된 생물 다양성을 복원하고,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해양 환경 보전 단체인 '헬시 씨즈(Healthy Seas)'와의 굳건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전 세계 10개국에서 320톤에 달하는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글로벌 해양 생태계 보전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넘어 미래를 향한 도약

현대자동차는 항상 '빠르게 실행하고(빨리빨리), 선제적으로 준비하며(미리미리),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을 강조하는 정의선 회장의 리더십 아래, 끊임없이 도전하며 혁신합니다. 이러한 철학을 우리의 지속가능경영에 비추어 보면, 규제에 앞서 선제적으로 행동하고, 투명성을 부담이 아닌 새로운 경쟁력으로 삼으며, 현재의 성과에 결코 안주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과 같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길은 결코 짧지 않은 여정입니다. 혁신을 향한 흔들림 없는 의지와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만이 다가올 미래를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여정에 늘 아낌없는 성원과 신뢰를 보내주시는 주주, 고객, 파트너,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보고서에는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현대자동차가 쉼 없이 달려온 진정성 있는 발자취가 담겨 있습니다.

2026년, 현대자동차는 더 큰 혁신과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Hyundai at a Glance

현대자동차는 1967년 창립 이래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해 왔으며, 그 여정의 중심에는 인류애(Humanity)가 자리해 왔습니다. 기술 발전은 인류를 향한 가치 위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신념 아래,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제조를 넘어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며 사람과 사람, 공간과 사물을 연결하고 고객의 시간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전동화 모빌리티 확대, 수소 생태계 구축, 탄소중립 추진 등 지속가능경영을 강화하여 환경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창출하며 인류를 향한 지속가능한 진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개요

회사명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의선, 호세 무뇨스, 최영일
설립일	1967년 12월 29일	대표업종	자동차 제조업
상장일	1974년 6월 28일	상장시장	한국거래소(KRX) 유가증권시장
본사주소	대한민국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2		

신용등급

국내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AAA	AAA	AAA

해외

Moody's	S&P	Fitch
A3	A-	A-

생산 현황



- 국내 1,846,837 (45%)
- 해외 2,269,669 (55%)

판매 현황



- 국내 712,954 (17%)
- 해외 3,425,435 (83%)

* 2025년 도매 기준

주요 재무지표

(단위: 십억 원)

매출



186조 2,545억 원

영업이익



11조 4,679억 원

당기순이익



10조 3,648억 원

자산총계



368조 8,448억 원

자본총계



127조 6,482억 원

* 2025년 12월 31일, 연결 기준

Hyundai at a Glance

현대자동차는 2025년 말 기준, 전 세계 190여 개국에 진출하여 글로벌 고객과 만나고 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 합리적 가격대,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편의·기술·안전 사양을 갖춘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 2025년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시장에서 약 414만 대를 판매하며 견조한 판매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판매 상위 차종으로 투싼, 아반떼, 크레타, 코나, 싼타페 등이 자리하며 주요 모델의 고른 판매가 전체 실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판매 상위차종

(단위: 대)

투싼
656,840
ICE, HEV, PHEV 포함



아반떼
383,265
ICE, HEV 포함



크레타
370,724
ICE, EV 포함



코나
304,653
ICE, EV, HEV 포함



싼타페
252,558
ICE, HEV, PHEV 포함



* 2025년 12월 31일, 도매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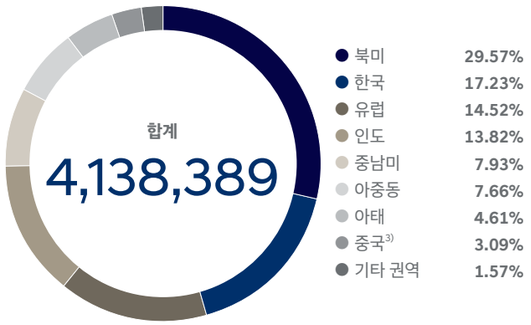
Business Performance

현대자동차는 전국 직영 지점 및 대리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고객 최우선 경영을 실천하며, 현장 맞춤형 판촉과 차별화된 마케팅을 통해 판매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심화되는 시장 경쟁에 대응하여,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전동화 라인업을 지속 확대하고, 기술 및 디자인 역량 기반의 질적 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수 딜러 중심의 판매 네트워크 재편, 온라인 마케팅 고도화, 그리고 진정성 있는 공유가치창출(CSV) 활동을 전개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브랜드 위상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 SDV: Software Defined Vehicle
[2] EREV: Extended Range Electrified Vehicle

주요 시장별 판매 구성비

(단위: 대)



[3] BHMC

* 2025년 도매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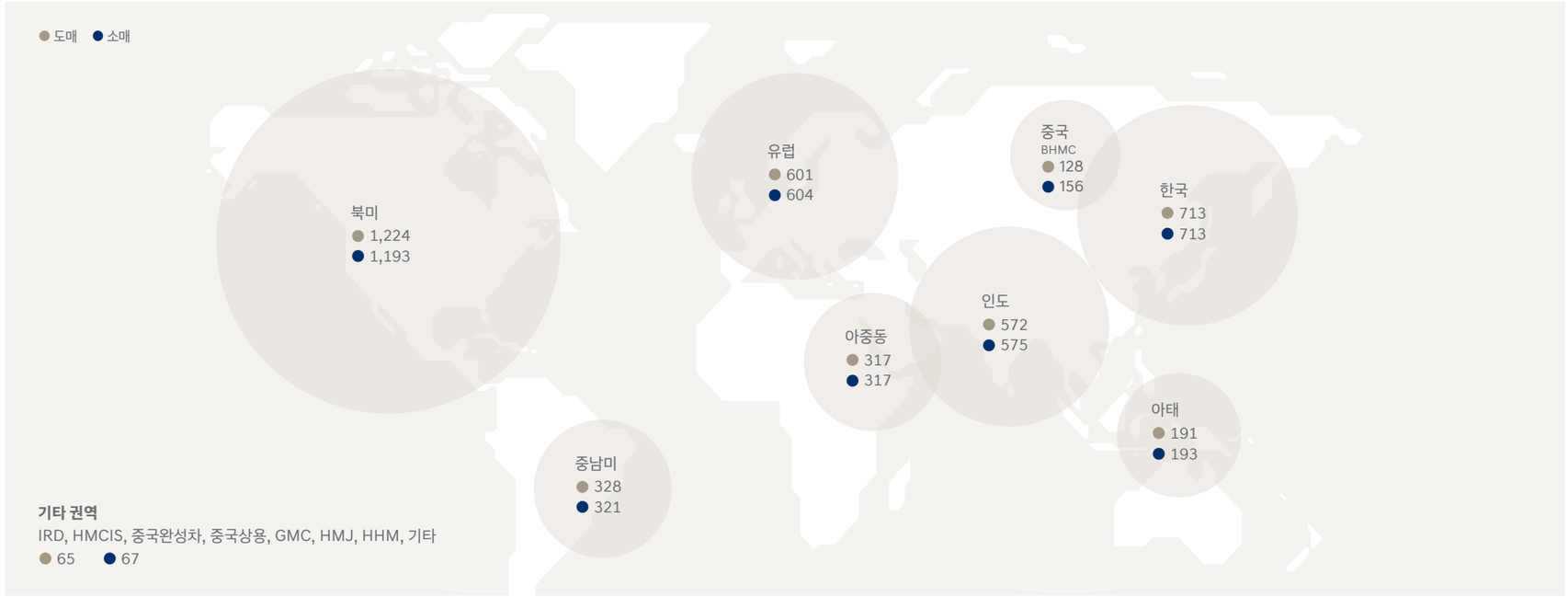
비즈니스 전략

현대자동차는 급변하는 모빌리티 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고객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발맞춰 미래 모빌리티 기반의 신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는 권역별 현지 법인을 중심으로 각국의 규제 및 시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판매 전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SDV[1] 체제로의 전환과 차세대 배터리 기술 내재화를 위한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의 본격 가동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HMGMA 내 하이브리드 혼류 생산 체계 구축과 차세대 하이브리드 및 EREV[2] 라인업 확대는 전동화 전환기의 시장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고객에게 더욱 지능적인 이동 경험을 제공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이와 더불어 가치사슬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탄소 저감된 철강재 적용 확대,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 도입, 로보틱스 기술을 활용한 위험 공정 자동화 등을 추진하여 탄소 배출 저감과 작업장 안전을 동시에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방위적 혁신은 당사의 비전인 '인류를 위한 진보'를 실현하고,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견고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주요 시장별 판매

(단위: 천 대)



* 2025년 기준

Business Perform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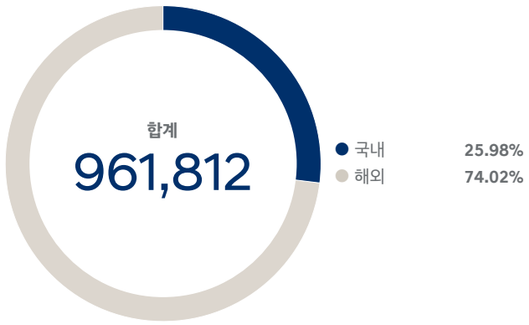
성과로 증명되는 전동화 전략

현대자동차는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구현을 위해 전동화와 수소 에너지 중심의 사업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이브리드(HEV) 등 고부가가치 차종 중심의 판매 믹스 개선을 통해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하며 견고한 펀더멘털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50개 이상의 계열사와 연계된 수직계열화 구조와 전기차(EV)·하이브리드(HEV)·수소전기차(FCEV)를 아우르는 전동화 라인업은 다양한 고객 니즈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핵심 경쟁력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연간 330만 대의 전동화 차량 판매를 목표로 설정하고, 글로벌 전동화 시장에서의 선도적 입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외 시장별 전동화 차량[1] 판매 구성비

(단위: 대)



[1] 전동화 차량: EV, HEV, PHEV, FCEV

파워트레인별 전동화 차량 판매 실적

(단위: 대)

EV

2025년 현대자동차는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을 필두로 글로벌 EV 시장에서 견조한 판매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아이오닉 5'는 당사 전기차 모델 중 글로벌 최다 판매를 기록하며 전동화 실적을 강력하게 견인했으며, '코나 일렉트릭', '캐스퍼 일렉트릭'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EV 라인업을 바탕으로 다양한 고객 니즈를 충족하며 글로벌 전동화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275,669



HEV, PHEV

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HEV 라인업 및 판매 비중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 HEV 부문 최다 판매 차종인 '투싼'을 비롯해 '싼타페', '팰리세이드', '코나' 등 SUV 중심의 HEV 모델이 높은 고객 선호를 받으며, 수익성 확보와 전동화 전환을 동시에 견인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679,017



FCEV

수소전기차(FCEV) 부문은 '넥쏘(NEXO)'를 중심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상품성을 대폭 개선한 2세대 넥쏘 출시를 기점으로, 전체 전동화 차량 내 비중은 제한적이나마 꾸준한 판매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독보적인 수소 연료전지 기술력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수소 생태계 주도권을 지속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7,126



* 2025년 도매 기준

Sustainability Highlights

현대자동차는 전동화 차량 판매 확대, 재생에너지 전환, 수소 및 SDV 기반의 미래기술 고도화, 그리고 공급망·인권·이사회 책임 강화에 이르기까지 지속가능경영의 실행 범위를 전사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147MW
HMGMA
태양광 PPA 체결
(그룹사 전체 조달 기준)

자발적 이직률
53%↓
2022년 6.8% → 2025년 3.2%

83%
LCA 수행 비율

전동화 차량 판매량
96.2만 대
전년 대비 27% 증가



미국 신차품질조사
J.D. Power IQS*
2위

* IQS(Initial Quality Study): 신차 구입 후 초기 90일간의 품질 불만 건수를 측정한 지표

조직문화 진단 결과
3년 연속 상승
(2025년 80.2점)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A등급
Moody's, S&P, Fitch

이사회 구성 다양성
여성 이사 구성비 33%
전체 12명 중 여성 이사 4명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
이사회 독립성 및 투명성 제고



수소 생태계 리더십 확대
선박, 발전, 항공 등 비자동차 부문으로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HTWO) 적용 확대

공급망 지속가능성 책임 강화
배터리 공급망 광산·제련소 실사 수행
콩고민주공화국(코발트·구리) 및 인도네시아(니켈) 현장 실사 수행

충돌안전평가 최고 등급 16개 차종* 획득
IIHS TSP/TSP+ (그룹 합산 2년 연속 글로벌 최다)

* IIHS(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 충돌 평가 최고/우수 안전 등급(TSP+/TSP) 획득 차종 수, 현대/제네시스 포함

북미·유럽·인도 내 전 사업장 RE100 달성
2027년 전 해외 사업장,
2045년 글로벌 RE100 달성 추진



글로벌 사업장 인권·윤리 실사 수행
생산·판매법인 및 연구소 등 47개 사업장 대상

글로벌 현대 호프온휠스* 누적 기부금
3.2억 USD
* 소아암 연구 및 치료 지원 사회공헌

Hyundai Hope on Wheels



Sustainability Governance

현대자동차는 ESG와 관련한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한 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ESG 요소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신사업의 기회를 모색하고 새로운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서 반기 1회 주기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ESG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매년 중점추진 과제를 선정 및 추진하여 그 과정과 결과를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속가능경영 관련 주요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실무분과별 추진 목표를 수립하며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하는 등 각 조직이 주체적으로 ESG 개선활동을 수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전사적인 ESG 경영 내재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중심 의사결정

지속가능경영 거버넌스 구축

현대자동차는 ESG 경영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자리잡은 'ESG 패러다임'에 발맞추어, ESG 중심의 의사결정 및 협력관계를 강화하고자 지속가능경영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당사의 지속가능성 사안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및 권한을 가지고 중요한 영향,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ESG 리스크 및 성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요 ESG 현안과 관련된 현업부서가 참여하는 ESG협의체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성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거버넌스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총 8명의 이사(사외이사 7명, 사내이사 1명)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실천 및 내부거래 투명성, 윤리경영 및 ESG 성과개선 추진 등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하며, 전략·활동·성과·목표·계획에 대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심의·의결합니다. 또한, 점차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안전 및 보건 관련 주요 계획 및 이행점검과 더불어 공급망 ESG 이슈에 대해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C-level 경영위원회(Management Committee Meeting)

현대자동차는 CEO 및 다양한 부문의 주요 경영진이 참여하는 C-level 경영위원회(Management Committee Meeting, MCM)를 통해, ESG 중점과제 및 주요 안건의 추진방향과 실행계획을 논의하고, 이행현황 및 성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CM은 매월 정기적으로 여러 이슈 및 주제에 대한 논의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검토 결과 시급을 요하는 주요 리스크 요인 및 중장기 사업전략과 연계되어 성과 개선이 필요한 사안, 기타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심의 및 승인이 필요한 사안은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경영전략담당

CEO 산하 경영전략담당은 전사 지속가능경영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속가능기획팀의 관리·감독과 지속가능성 전략의 수립 및 이행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 주요 지속가능성 이슈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전사 차원의 성과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사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주요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대응 역량과 성과 관리를 강화하여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Sustainability Governance

지속가능경영 전문성 및 역량 개발

현대자동차는 금융, 법무, 미래기술, 전문경영, 글로벌 비즈니스, 재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국내외 공장 및 연구소 정기 방문, 주요 부문 경영진과의 면담 등을 통해 사외이사의 역량을 강화하여 충실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윤희 사외이사의 경우 준법경영 담당 사외이사로서 활동하는 등 당사 사외이사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사회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사외이사의 사업 이해도 증진을 위해 사업현황, ESG 정보공시 규제, 사업 관련 주요 리스크, 신사업 등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외이사 역할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성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이사회 교육 현황

교육 일자	교육 내용
01.21	스마트화 관련 중국 기술 발전속도 현황
04.22	미국 관세 관련 당사 대응 진행사항
07.16	상법 개정안 시행 관련 대응 방안
07.24	부정의 발생패턴과 내부통제
10.24	상법 개정 동향 및 이사회 운영 개선 방안
10.28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 현안 및 당사 대응 방안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 자동차 산업의 전략적 과제

지속가능성 사안에 대한 관리·감독

준법경영

현대자동차 이사회는 준법경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법적 리스크를 검토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노력으로, 현대자동차는 준법경영을 확대하고 이사회의 준법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 전문성을 갖춘 최윤희 사외이사를 준법경영 담당으로 지정하여, 회사의 준법경영을 위한 적극적인 감독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임직원 대상으로 준법자가점검, 준법 교육 등을 실시하여 회사 내 준법문화를 전사적으로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현대자동차는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감독 하에 내부거래 투명성 및 윤리경영 추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리경영 관련 정책, 윤리규범 제·개정 등에 대한 의결과 심의를 통해 개선 사항을 회사 윤리헌장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현대자동차는 매년 회사의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 이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안전보건 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내이사를 선임하고, 안전보건 주요 계획 및 이행점검에 대한 지속가능경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성과관리

현대자동차는 ESG 관련 대내외 주요 리스크와 기회들을 포착하고, 리스크 최소화 및 비즈니스 가치 창출을 위해 매년 중점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핵심광물 조달 ESG 리스크 검토, 책임광물 공급망 관리 강화, 자원 순환성 전략 체계 구축 등 8개의 중점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과제별 목표를 수립하고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ESG 관련 주요 정책과 개선 계획 등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으며, 중점추진 과제의 선정 배경과 추진 성과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진행 경과 등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ESG KPI

현대자동차는 ESG 경영을 통해 다양한 리스크를 예방하고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ESG 성과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ESG 주요 항목별 KPI를 설정하여 정기적으로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행 현황 및 달성 수준은 경영진을 포함한 임직원의 성과평가 과정에서 주요 평가 요소입니다. 향후, 신시장 진출, 신사업 개발, 프로젝트 수행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ESG 리스크를 식별하고, 발생 가능성 또는 사업 영향력이 높은 ESG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방·관리하는 형태의 KPI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도입할 계획입니다.

Sustainability Framework

현대자동차는 원자재 및 부품 조달부터 연구개발, 차량 제조, 판매, 그리고 고객의 차량 운행 및 서비스에 이르는 완성차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에 걸쳐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가치사슬 내에서 발생하는 지속가능성 관련 영향(Impact), 위험(Risk) 및 기회(Opportunity)를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이를 핵심 비즈니스 전략과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및 가치사슬

UPSTREAM	OWN OPERATION	DOWNSTREAM
협력사 | 지역사회 | 정부 | 투자자	임직원 | 지역사회 | 정부 | 투자자	고객 | 딜러 | 협력사 | 정부 | 투자자
원재료 채굴 → 소재·부품 생산 → 부품·모듈 공급	연구개발 → 생산·제조 → 영업·마케팅	운송·판매 → 차량 주행·정비 → 차량 순환 (폐차·재활용)

INPUT
- 원재료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 부품/원부자재 (모듈, 시트, 강판, 페인트 등)
- 에너지 (전력, 재생에너지)
- 기술·IP (SDV, 수소, 자율주행)
- 인적 자원 (글로벌 임직원)
- 재무 자원 (자본, 금융)

OUTPUT
- 제품(승용, SUV, 상용차) 판매
- 서비스 (금융, 모빌리티)

지속가능성 관련 영향, 위험 및 기회

I 긍정 | I 부정 | R 위험 | O 기회

UPSTREAM	OWN OPERATION	DOWNSTREAM
• 부품 제조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 I R	• 자사 제조 공정의 온실가스 배출 I R	• 전동화 전환을 통한 주행 단계 탄소 배출 감축 I I O
• 기계 설비 공정 내 산업안전 리스크 I R	• 재생에너지 조달 경쟁 심화 R	• 배출가스 규제 및 내연기관 판매 금지 대응 R
• 공급망 내 아동노동·강제노동 리스크 R	• 중대재해·산업안전 법규 대응 I R	• 배터리/부품 품질 결함에 따른 제품안전 리스크 I R
		• 핵심자원 순환체계 및 EU환경규제 리스크 대응 R
		• 전기차의 글로벌 수요 일시적 정체 현상 R

비즈니스 모델과의 연계

UPSTREAM	OWN OPERATION	DOWNSTREAM
공급망 강건화 및 재편: 인권·환경 실사 규제 리스크(EU CSDDD 등)와 핵심광물 조달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ESG 진단·실사를 2차 협력사까지 확대하고, 책임광물 관리 체계 구축 및 EUDR 원산지 추적 체계 도입을 통해 공급망 투명성과 복원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투자와 전동화 전환:** 산업안전 리스크 심화와 RE100 전환 과제에 대응하여 2030 안전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재생에너지 PPA를 체결하는 등 사업장 중심의 자본 배분을 추진 중입니다. 동시에 주행 단계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전기·수소차 R&D 및 생산설비 투자를 확대하여 전동화 전환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계 탄소저감 및 순환경제:** 차량 주행 단계의 탄소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전동화 기술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전동화 캐즘 및 IRA 보조금 정책 변동 등 시장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투자 및 재활용 소재 적용 확대를 통해 차량 사용 종료 이후의 환경적 가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관리 주제

기후변화 대응	순환경제와 자원사용	오염 및 수자원	생물다양성	인권경영 및 인적자원 관리	다양성·포용	안전보건	지속가능한 공급망	고객경험 혁신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윤리·준법 경영

Sustainability Framework

지속가능성 목표 및 추진 전략

현대자동차는 가치사슬 전반을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중요 주제를 식별하고 있으며, 환경·사회·거버넌스 전 영역을 아우르는 총 11개의 지속가능성 관리 주제를 선정하여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각 주제별로 명확한 목표와 실행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사업 특성과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지속가능경영을 미래 경쟁력의 기반으로 삼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Up | Own | Down

현대자동차는 기후변화 대응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국내외 전 사업장 RE100 달성 및 지속적인 전동화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Scope 1+2 배출은 2027년 해외 전 사업장 RE100 달성 등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2024년 대비 2030년까지 약 42%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매된 차량의 사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Scope 3 (Category 11) 배출은 2024년 대비 2035년까지 약 63% 감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전동화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순환경제와 자원사용

Own | Down

현대자동차는 자원 사용 저감과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재활용·바이오 소재 적용과 배터리 순환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 사용, 회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순환형 밸류체인을 확대해 자원 효율성과 전기차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염 및 수자원

Up | Own | Down

현대자동차는 오염물질 배출과 수자원 사용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산 계획 대비 감축 목표를 기반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 및 용수 사용량 목표는 생산 물량을 기반으로 매년 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Up | Own | Down

현대자동차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밸류체인 전반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사업 활동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육지 생태계에서는 203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누적 약 3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을 목표로 지역 생태계 회복을 추진하고, 해양 생태계에서는 2027년까지 해양 폐기물 400톤 수거를 목표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및 인적자원 관리

Up | Own | Down

현대자동차는 인권헌장에 기반해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고객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인권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교육, 선언, 실사, 구제의 5대 인권경영 추진 체계를 바탕으로 매년 현황과 미흡사항을 분석해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회사의 중장기 전략과 연계한 H-SENSE 기반 인재육성 체계를 운영하며, 2030년까지 모든 임직원의 전사 필수 콘텐츠 이수율 80% 이상, 온보딩 및 리더십 콘텐츠 활용도 80% 이상, 해외 법인의 H-SENSE 콘텐츠 활용도 8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성/포용

Own

현대자동차는 균형 있는 리더십 체계와 포용적 근무환경 조성을 목표로 다양성과 포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국내 여성 관리자 15%, 해외 여성 관리자 27%를 추진하고, 글로벌 주요 사업장 임직원 대상 무의식적 편견 교육과 국내 장애인 3개년 누적 450명 채용을 통해 포용적 조직문화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Up | Own

현대자동차는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핵심 목표로, 사람과 기술 중심의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 작업환경 개선, 비상대응, 협력사 지원 등 예방 중심 전략을 통해 사업장과 공급망 전반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안전사고에 대한 근원적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연간 2,000억 원 규모의 집중 개선 투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속가능한 공급망

Up | Own

현대자동차는 공급망 전반의 인권·환경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책임 있는 조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체 1차 부품사, 핵심 2차사, 일정 거래금액을 초과하는 비부품사까지 총 2,086개사를 대상으로 리스크 진단과 실사를 실시하고, 부정적 영향이 확인된 25개 협력사에 대해서는 개선계획 수립과 이행 완료까지 연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객경험 혁신

Own | Down

현대자동차는 제품 기획부터 판매, 정비, 디지털 서비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고객경험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대고객경험지수(HCXI) 71.9점, 국내 정비서비스 만족도(HCXI) 73.3점 1위, 해외 판매 고객만족도(NPS) 93.4점, 해외 정비서비스 만족도(NPS) 84.3점을 기록했으며, VoC 4,932,017건을 기반으로 품질과 서비스 혁신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Own | Down

현대자동차는 정보자산과 고객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보안위원회와 정보보호책임자(CISO)·전사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중심의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목적 외 데이터 사용 0건, 정보보안 사고 0건을 유지하고 있으며, 모의 해킹, 취약점 점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디지털 신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윤리·준법 경영

Up | Own | Down

현대자동차는 법규 위반과 부패 리스크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매년 준법·윤리 경영 실천서약을 실시하여 서약률 94.3% 달성 및 임원 준법교육 이수율 90.4%를 바탕으로 준법문화의 실행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Stakeholder Engagement

현대자동차는 완성차 산업 특성과 현안을 고려하여 고객, 딜러,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정부, 주주·투자자 등 7대 이해관계자 그룹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그룹별 주요 관심사, 당사에 대한 기대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가 제시하는 주요 의견은 사업계획 등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여 경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교류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중요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등 상호 건전한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해관계자 참여 확산 및 채널 최적화

이해관계자 참여 절차

현대자동차는 이해관계자 참여 및 의견 수렴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채널을 통해 접수받은 의견 중 당사의 중장기 사업전략 및 경영활동과 관련된 현안이거나, 사회·환경적 영향력이 높은 이슈는 C-level 경영위원회(Management Committee Meeting) 및 지속가능경영위원회(이사회 산하)로 보고되며, 내부 검토 및 심의결과 중요한 이슈는 사업운영 과정에 적용하거나 개선활동을 추진합니다. 사업운영 과정 적용 여부, 개선활동 추진 현황 등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에게 이행현황 및 경과 등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	의견 수렴	내부 보고	개선 활동	모니터링
이해관계자별 채널, 방식 최적화	활동 및 안건 설명,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사업 영향력 높은 이슈 지속가능경영 거버넌스 보고	사업운영 과정 적용, 개선과제 도출	적용 여부, 개선과제 이행 점검

구분	고객	딜러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정부	주주·투자자
그룹 정의	• 현대자동차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경험하는 이해관계자로, 당사는 고객의 구매·경험 경로를 최적화하고 최고 수준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고객과 직접 대면하여 현대자동차의 제품·서비스와 브랜드 가치·경험을 전달하는 접점으로 당사와 동반자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 제품 개발·생산·판매·지원 활동에 관여하는 현대자동차 소속 구성원으로, 이들의 역량이 곧 당사의 역량입니다. 내부 이해관계자인 동시에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해 당사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 당사가 우수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부품이나 자재를 공급하는 이해관계자로, 이들의 품질과 기술력 및 지속가능성은 당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 사업장 인근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지자체는 물론, 당사의 활동에 영향을 받는 모든 글로벌 시민을 의미하며, 당사는 이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법규를 제정하거나, 기업운영에 관한 규제 수준을 결정함으로써 당사의 사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자입니다.	• 현대자동차가 다양한 미래사업 전략을 추진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며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사에 재무 자본을 제공하는 이해관계자입니다.
주요 채널	• 오프라인 거점(판매/서비스) • 온라인(공식 홈페이지, App, SNS) • 동호회, 인플루언서 • 대고객 프로모션 (모터쇼, 전시·시승회) • 고객만족도 조사 • 스포츠 후원 및 스폰서	• 온라인 딜러 포탈 • 딜러 대회 및 초청 행사 • 정기 딜러 협의회 • 당사 지역관리 담당자의 정기 딜러 방문	• 노사협의회 • 조직문화 진단 및 직원 만족도 조사 • 온·오프라인 고충 접수 채널 •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 각종 간담회, 행사 등 • 근골격계 질환 예방 관리위원회 • 직무·안전 관련 교육·훈련	• 동반성장 포털사이트[1] • 투명구매실천을 위한 건의함[2] 운영 • 상생협력실천센터 사이트[3] • 글로벌상생협력센터(GPC포털)[4] • HMG파트너시스템[5] • 세미나 및 교육	•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임직원 참여 봉사, 교육 문화 지원, 모빌리티 부문 지원) • 사업장 인근 지역사회와 소통 활동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협의체) • 채용 프로그램(지역 인재 대상 채용 홍보) • 지역 문화체육예술행사 등 단합행사	• 정책수립 공청회 • 정책 간담회 및 설명회	• 주주총회 • 기업설명회 및 컨퍼런스 • IR 면담 • Non-Deal Roadshow • CEO Investor Day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 IR 홈페이지
주요 활동	• 상품·가격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 투자·개발 • 제품 안전·품질 관리 강화 • 미래 모빌리티·자율주행·전동화 시장 선도 • 고객만족도 향상 • 브랜드 이미지 제고	• 차량 Line-Up 확대 • 딜러 마진 및 보상 체계 개선 • 상품·가격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 투자·개발 • 브랜드 이미지 제고	• 임직원 역량 개발 • 임직원 인권 및 다양성 제고 • 조직문화 및 평가·보상 개선 • 노사관계 개선 •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강화	• 협력사 ESG 경영 지원 • 협력사 탄소 배출 감축 지원 • 협력사 사업장 안전 관리 지원 • 협력사 정보보안 관리 지원 • 협력사 미래 모빌리티 도약 지원 • 중소협력사 상생프로그램 지원	• 고용 창출 및 유지 • 지역사회 맞춤형 사회공헌 추진 (아동학대 예방, 자립준비 청년 지원 등) • 사업장 환경 효율성 제고 • 사업활동 관련 생물다양성 평가 및 보호 • 지역사회 인프라 지원 (관광 진흥, 시설물 설치 등) • 저출산 문제 해결을 통한 지역 소멸 예방	• 전동화 차량 보급 및 차량 안전 강화 • 중소협력사 전동화 지원 • 글로벌 공급망 및 통상 이슈 지원 • 로봇, AAM 등 신사업 사업화 지원	• 글로벌 기업가치 제고 및 펀더멘탈 개선 • 중장기 미래사업 전략 수립 및 추진 • ESG 지배구조 역할 강화 • 이사회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 운영 • 기후변화 관련 재무적 영향 관리 강화 • 공급망 ESG 관리 강화 • 임직원 다양성 증진 •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강화

[1] 동반성장 포털사이트: 당사의 동반성장 활동 및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포털사이트 (1차 협력사 대상 공지사항, 동반성장 소식, 교육 및 협력사 채용정보 알림 등)
[2] 투명구매실천을 위한 건의함 운영: 투명구매 실천을 위한 투명·윤리 실천 건의함 및 2·3차 협력사 소리함 운영
[3] 상생협력실천센터 사이트: 당사의 2·3차 협력사와 소통을 하기 위한 전용 사이트 (당사가 지원하는 주요 경영지원 및 상생협력 프로그램 안내, 건의사항을 청취 및 피드백 등)
[4] 글로벌상생협력센터(GPC 포털): 협력사 미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시설 (현대자동차그룹 및 1·2차 협력사 대상 교육지원 제공, 세미나 및 신기술 전시회 장소 제공, 협력사 자체교육을 위한 교육시설 및 강사 지원 등)
[5] HMG파트너시스템: 현대자동차그룹과 협력사와의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공급망 관리 시스템 (정보 공유, 생산·품질·R&D·구매 영역의 협업 업무 지원 등)

Stakeholder Engagement

주주·투자자 참여 및 의견 수렴(Engagement)

주주·투자자 참여 및 의견 수렴 목적

현대자동차 투자자는 당사가 다양한 미래사업 전략을 추진하거나, 사업 운영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유지에 필요한 재무 자본을 제공하는 주요 이해관계자입니다. 당사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기관과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및 의견 수렴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투자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사업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이자 향후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전략, 공급망 관리, 근로자 인권, 거버넌스 등 다방면에서 투자자의 투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에 따라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및 의견 수렴 활동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사회 및 경영진 역할

현대자동차가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이자 글로벌 선도 전기차 브랜드로 도약하는 데 있어, 투자자와의 적극적인 논의는 자본시장의 목소리를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자 출처입니다. 따라서 현대자동차 이사회 및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기관투자자와 커뮤니케이션 및 의견 수렴을 통해 당사의 경영활동과 ESG 전반에 걸친 성과에 대해 피드백 받고 있습니다.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서는 ESG 관련 리스크와 성과개선 실적에 대한 논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투자자와 회사의 미래 사업전략 방향성과 ESG 관리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담당합니다.

주주·투자자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현대자동차 IR(Investor Relations) 사업부는 NDR, 기업설명회, 증권사 컨퍼런스, 투자자 면담을 통해 당사의 ESG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을 전달하고 있으며, 글로벌 ESG 트렌드에 부합하여 자본시장에서 당사에게 요구하는 ESG 추진방향에 관한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ESG 면담 적극 확대

자본시장의 ESG 관심 증가에 따라, 당사의 ESG 현황 및 목표에 대한 관심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 외 기관 투자자 인게이지먼트 외에도, ESG 평가기관, 신용평가사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의 면담을 적극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IR 홈페이지

당사는 판매실적을 포함한 분기 경영실적 자료 등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IR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주·투자자 기대수준 부합

현대자동차의 ESG 경영은 곧 지속가능한 미래를 의미합니다. 핵심 이해관계자 그룹인 투자자는 현대자동차의 ESG 개선실적, 단·중·장기 계획, 계획 대비 이행 현황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자의 기대수준에 부합하여 최선의 대응을 하는 것은 당사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현대자동차가 2021년 선언한 '2045 탄소중립'과 'RE100' 등의 중장기 목표는 당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투자자는 이에 대한 단기 수행 성과를 바탕으로 투자적격 여부를 판단 및 의사 결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투자 신뢰를 확보하게 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재생에너지 사용량 확대, 탄소 상쇄 기술 활용 등 ESG 관련 투자 계획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불가피한 과제이며, 현대자동차는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인게이지먼트를 통해 우호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글로벌 ESG 평가기관과의 인게이지먼트를 통해 당사의 주요 ESG 활동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와의 직접적인 인게이지먼트 외에도 당사의 대외 평판 관리에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사 모니터링

현대자동차는 국내 및 해외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을 부여받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의 투자 결정과 채권 발행 등의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 활동에 있어서 당사의 신용등급은 중요한 지표가 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중요합니다. 과거 재무 성과 비중이 대부분이었던 신용평가사 또한 최근 글로벌 ESG 중요도 확대 트렌드에 발맞춰 고유의 평가 지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업의 재무적 신용도뿐만 아니라 ESG 신용도 역시 투자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에게 유의미한 지표가 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주·투자자 신뢰 강화(Risk Management)

글로벌 기업 현대자동차는 다양한 국가에 사업장과 판매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의 환경 규제를 충족해야 하며 글로벌 전역에 걸친 공급망 관리 또한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는 기회임과 동시에 다수의 리스크 요인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리스크 방지를 위해 현대자동차는 공급망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본 체계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국의 환경규제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통해 현대자동차는 투자자, 주주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와의 신뢰관계를 견고히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크 발생 시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향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리스크 발생 시 당사는 투자자에게 투자 확신과 신뢰를 부여하기 위해 당사의 대응 과정과 결과를 홈페이지 또는 주주서한을 통해 공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선제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우호적인 신뢰관계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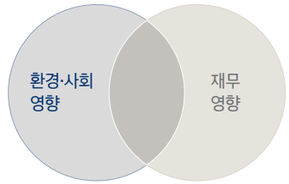
향후 방향성

현대자동차는 'Progress for Humanity'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혁신적인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투자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 참여 및 의견 수렴 활동을 통해, 당사의 ESG 개선 실적 및 향후 전략 방향성을 꾸준히 공유해 나갈 것입니다. 당사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자와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을 투자자 커뮤니티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입니다.

Materiality Assessment

현대자동차는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중요 정보 공개를 위하여 매년 이중 중대성 평가(Double Materiality) 원칙에 근거하여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영향(Outward Impact) 평가와 외부 이해관계자가 현대자동차의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위험 및 기회(Risk & Opportunity) 평가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이전 보고 기간 대비 중대하게 변경된 프로세스는 없습니다. 당해 보고기간 평가 결과, 환경·사회 영향 측면 중대 주제는 기후변화 완화, 소비자 안전보건, 근로자 안전보건 3개로 선정되었으며, 재무적 위험 및 기회 측면 중대 주제는 환경·사회 영향 측면 중대 주제 3개를 포함하여 에너지, 제품 관련 자원순환, 공급망 노동인권 총 6개 주제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중 중대성 평가(Double Materiality) 개념



영향 (Outward Impact) | 위험 및 기회 (Risk & Opportunity)

이중 중대성 평가(Double Materiality) 프로세스

단계	선별 Selection	식별 Identification	평가 Assessment	우선순위 결정 Prioritization & Disclosure Determination
설명	지속가능성 관련 주제 선별 방대한 지속가능성 주제 중 현대자동차와 관련이 있는 주제를 선별하는 과정입니다. 분류 기준으로는 EU CSRD 지속가능성보고표준(ESRS), 지속가능성 관련 회사 내부자료, 지속가능성 공시 및 평가 지표 등을 활용하였고, 이 단계를 거쳐 39개의 관련 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2026년 이중 중대성 평가는 가치사슬 관점의 산업별 중요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지속가능성 주제 관련 영향, 위험 및 기회 식별 선별된 주제의 영향과 위험/기회(IRO)를 식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과정입니다. 사업 보고서, 산업 전망 자료, 투자자·NGO·고객사 질의 사항 등 자동차 산업의 가치 사슬별 특징을 분석하여 관련 활동을 정의하고,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여 환경·사회적 영향(34개)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사회 이슈와 지속가능성 규제/컴플라이언스 등을 분석하여 재무적 위험 및 기회 요인(38개)을 도출하였습니다.	지속가능성 주제 평가 식별된 영향과 위험/기회(R/O)에 대해 점수를 평가하는 과정으로 평가의 신뢰도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대자동차의 가치사슬 및 지속가능성 주제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있는 인원들을 평가자로 선정하였습니다. EU ESRS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영향 관점에서는 심각성과 발생가능성을 정량화하고, 위험 및 기회 관점에서는 잠재적 재무 영향의 크기와 발생가능성을 정량화(1~5점)하였습니다.	중대 주제 우선순위화 및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반영 정량화된 평가 결과를 반영,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최종적으로 중요 공시 주제를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각 주제의 IRO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위해 평가점수의 임계값(Threshold)을 설정하여 2026년은 영향 측면 3개, 위험 및 기회 측면 6개의 주제가 중대 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전 보고 기간과 비교하여 위험 및 기회 측면에서 '노사관계'가 제외되고, '에너지'가 추가되었습니다. 중대성 평가 결과는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 보고되고 있으며, 선정된 중대 주제는 전사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ERM)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절차	회사 가치사슬별 활동 (차량 부문) 업스트림: 원료 취득, 부품 생산 / 자체 운영: 수송, 조립 (제조) / 다운스트림: 유통, 운행 (사용), 폐기/재활용 ⊕ 주요 주제 선정 Long List: ESRS 전체 주제 및 회사 지정 추가 주제 (39) Short List: 선별 기준에 의해 선별된 IRO[1] 검토 주제 (22) 선별 기준 • 이사회 주요 안건 • 지속가능성 공시 및 평가지표: SASB, MSCI, Sustainalytics 등 • 지속가능성 규제 및 미디어 • 투자자, NGO 및 고객사 질의사항 • 동종기업 벤치마킹	IRO 식별 대상 기후변화 • 기후변화 완화 • 기후변화 적응 • 에너지 오염/물 • 대기오염 • 수질오염 • 물 사용 • 미세 플라스틱 생물다양성/순환경제 • 생물다양성 • 생태계 서비스 • 자원 유입 • 제품 관련 자원순환 근로자[2] • 근로자 안전보건 • 근로조건 • 교육 및 역량 개발 • 노사관계 • 다양성 • 공급망 노동인권 고객 • 소비자 안전보건 • 소비자 정보보호 비즈니스 활동 • 윤리경영 • 공급업체 관계 관리 • 책임 있는 AI 환경·사회 영향: Impact (34) / 재무 영향: Risk/Opportunity (38) 영향분류 유형: 부정적 / 긍정적 / 단기[3] / 중기/장기[3] / 잠재적 / 실재적 / 위험 / 기회 / 단기[3] / 중기/장기[3]	환경·사회 영향: 심각성 (규모, 범위, 복구불가능성)	발생가능성 재무 영향: 크기	발생가능성 Impact 평가 예시 환경·사회 영향 / 심각성[4] 규모 / 범위 / 복구불가능성[5] / 발생가능성 기후 변화 완화: 4 / 4 / 4 / 4 소비자 안전: 5 / 4 / 4 / 4 R/O 평가 예시 재무 영향 / 크기[6] / 발생가능성[7] 기후변화 완화: 5 / 4 에너지: 3 / 4 자원순환: 3 / 3 최종 평가 점수 도출 과정 ESG 총괄부서 ⊕ IRO 유관 부서 ⊕ 외부 전문가 ⊕ 주요 협력사 = 각 주제의 Impact 점수: 심각성 및 발생가능성 평균값 각 주제의 R/O 점수: 잠재적 재무 영향의 크기 및 발생가능성 평균값	재무 영향 기후변화 완화 대기오염[8] 소비자 안전보건 제품 관련 자원순환 근로자 안전보건 공급망 노동인권 에너지 임계값 임계값 환경·사회 영향

[1] IRO: 회사가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환경·사회적 영향(Impact), 이해관계자가 회사 재무에 미치는 위험과 기회(Risk & Opportunity)

[2] 임직원 및 가치사슬 내 근로자

[3] 단기 = 현재 보고연도, 중기 = 최대 5년, 장기 = 5년 이상

[4] • Scale(규모): 환경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grave) 정도
• Scope(범위): 환경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영역이 넓은 정도
• Irremediability(복구불가능성): 환경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복구가능한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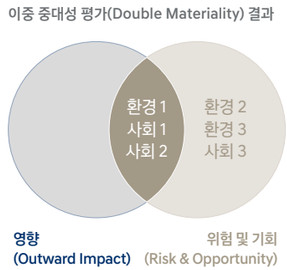
[5] Irremediability(복구불가능성)는 부정적 영향인 경우에만 평가

[6] Magnitude(크기):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재무 영향의 규모

[7] Likelihood(발생가능성):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확률

[8] '대기오염' 주제는 내연기관 차량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IRO임에 따라, '기후변화 완화(차량 전동화)' 주제에 통합

Materiality Assessment



2026 중대성 평가 결과 상세

현대자동차는 이중 중대성 평가에서 일정 점수(임계값) 이상을 획득한 모든 지속가능성 주제를 중요한 이슈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정 주제가 ①환경·사회 영향 관점 중대성과 ②재무적 관점 중대성 두 가지 측면 중 어느 하나라도 임계값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였을 경우 최종 중대 이슈로 선정하였습니다.

영향(Outward Impact)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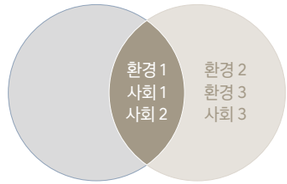
ESG	주제	가치 사슬 내 위치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내부 요인	산출지표	영향 평가					영향 지표
					영향 분류			이해관계자 평가 영역	사회적 비용에 대한 설명	
환경 1	**기후변화 완화** (전동화 전환)	다운스트림	• 주행 단계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내연기관 차량 중심의 사업구조를 전동화 차량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를 지속 개발·생산	동일 주행거리 기준 내연기관 차량 대비 전기차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정도	긍정적 영향 (Positive Impact)	실재적 (Actual)	단기-장기	환경	• **사회적 비용 회피 (Social cost avoided)**[1] - 현대자동차의 2025년 글로벌 EV 판매 차종(대형 상용차종 제외)과 내연기관 차종의 기준거리(200,000km) 주행 시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결과, 연료생산단계부터 주행 시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2] 연간 1,986,351tCO_2-eq의 감축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사회적 비용 695,452백만 원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695,452백만 원 = (200,000km 주행 시 내연기관 기준 차량 대당 온실가스 배출량 - EV 차량 대당 온실가스 배출량) X 2025년 EV 차량 판매량[2] X 온실가스 사회적 비용[3]
	기후변화 완화 (온실가스 배출)	자체 운영	• 자동차 제조 과정에서 화석연료(LNG 등) 및 비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Scope 1, 2 온실가스 배출량	부정적 영향 (Negative Impact)	실재적 (Actual)	단기-장기	환경	• **사회적 비용 발생 (Social cost caused)** - 현대자동차는 2025년 1,911,084tCO_2-eq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였습니다. 온실가스는 기상이변, 강수량 변화, 해수면 상승, 사막화, 물 부족, 열대성 질병의 확산, 생물종의 감소 등 부정적 환경영향의 원인이 되며, 현대자동차의 2025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인해 669,100백만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669,100백만 원 = 2025년 Scope 1+2 온실가스 배출량 X 온실가스 사회적 비용[3]
		업스트림	•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부품(엔진, 배터리, 모터, 타이어, 조향/변속 장치, 내장재 등)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화석연료(LNG 등) 및 비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부정적 영향 (Negative Impact)	실재적 (Actual)	단기-장기	환경	• **사회적 비용 발생 (Social cost caused)** - 현대자동차 공급망의 Scope 3 온실가스 배출은 기상이변, 강수량 변화, 해수면 상승, 사막화, 물 부족, 열대성 질병의 확산, 생물종의 감소 등 부정적 환경영향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향후 강화될 탄소 규제에 대한 취약성은 제품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쳐 최종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증가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운스트림	• 고객에게 자동차 제품을 운송 및 배송하는 과정에서 비재생 에너지 연료 사용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부정적 영향 (Negative Impact)	실재적 (Actual)	단기-장기	환경	• **사회적 비용 발생 (Social cost caused)** - 현대자동차의 제품을 운송 및 배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은 기상이변, 강수량 변화, 해수면 상승, 사막화, 물 부족, 열대성 질병의 확산, 생물종의 감소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주행거리 통계(2023)'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산정
[2] 2025년 글로벌 EV 판매 차량 중 승용 차종만 산정 (승합/상용 차종의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주행거리 통계(2023)'에 Baseline 차종 부재하므로 제외): 262,442대
[3] PwC TIMM(Total Impact Measurement and Management) 방법론에 따른 환경 영향 연구결과에 따라 온실가스의 톤당 SCC(Social Cost of Carbon) 평균값은 USD244/tCO_2-eq로 평가되었습니다.

Materiality Assessment

2026 중대성 평가 결과 상세

이중 중대성 평가(Double Materiality)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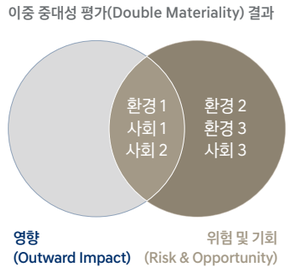
영향(Outward Impact) 측면

ESG	주제	가치 사슬 내 위치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내부 요인	산출지표	영향 평가					영향 지표
					영향 분류			이해관계자 평가 영역	사회적 비용에 대한 설명	
사회 1	소비자 안전보건	다운스트림	• 전기차는 특성상 미흡한 제조 및 보관 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배터리를 핵심부품으로 사용 (리튬이온 셀로 구성, 셀 내부 단락 시 열폭주(Thermal Runaway)로 인화성 전해질 분해 및 가연성 가스 분출에 따른 발화·폭발 가능성 등) • 전기차에 장착되는 배터리의 미흡한 제조 및 보관 시, 과부하로 인한 전기차 및 충전소 화재 발생 가능	배터리 폭발 사고로 인한 사용자의 신체적, 금전적 손실액	부정적 영향 (Negative Impact)	잠재적 (Potential)	중기-장기	소비자	• **사회적 비용 발생 (Social cost caused)** - 모빌리티 산업 내 배터리와 관련된 품질하락으로 인한 안전 사고는 소비자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신체적 손상이나 정신적 트라우마는 개인의 일상생활에 장기적 영향을 미치며,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하락은 전동화 전환을 지연시켜 자동차 산업의 주행 단계 탄소 배출 감축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다운스트림	• 모빌리티 산업 특성상 부품 품질 하락 및 안전 장치 기능 미흡 시, 사고 가능성 증가	차량 결함에 의한 소비자 피해액	부정적 영향 (Negative Impact)	잠재적 (Potential)	중기-장기	소비자	• **사회적 비용 발생 (Social cost caused)** - 제품 안전 보장 미흡은 차량 관련 물적 피해 발생 및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소비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고 이동 수단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사회 2	근로자 안전보건	자체운영	• 공정 내 기계 설비를 다루는 등 작업 과정에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존재	임직원 LTIFR[4]	부정적 영향 (Negative Impact)	실재적 (Actual)	단기-장기	사회	• **사회적 비용 발생 (Social cost caused)** - 근로자 안전보건 문제는 근로자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중대한 사회적 손실입니다. 안전사고나 건강 악화는 가정 경제 및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숙련된 노동력의 상실로 이어져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업스트림		협력사 LTIFR	부정적 영향 (Negative Impact)	실재적 (Actual)	단기-장기	사회		

[4] Lost Time Injury Frequency Rate (근로손실재해율)

Materiality Assessment

2026 중대성 평가 결과 상세



위험 및 기회(Risk & Opportunity) 측면[1)]

ESG	주제	가치 사슬 내 위치	재무적 위험 및 기회를 유발하는 외부 요인	회사에 미치는 영향	영향 지표		
환경 1	기후변화 완화 (전동화 전환)	다운스트림	• 사회: 전기차의 일시적 수요 정체(캐즘) 현상 • 정책: - 미국과 EU의 내연기관차 규제 완화 및 전기차 혜택 축소 - EU 친환경 표시 지침: 그린워싱 방지 조치로 과학적 근거 의무화, 명확한 표기 등을 요구하며, 주요 페널티로 제품 판매 금지, 과징금, 시정명령,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시	• 전기차 수요 감소로 매출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U 친환경 표시 지침 규제 대응 및 관리를 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규제 위반 시 과징금 등의 금전적 페널티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위험	중기-장기
		자체 운영 다운스트림	• 사회: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정적 변화 • 기술: Price Parity 달성 속도 등 전동화 전환 기술 발달, 기후변화 대응 기술혁신 가속화 •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내연기관차 운행 제한 관련 규제	• 전기차 경쟁력 확보 시, 중장기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익	기회	중기-장기
				• 전기차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비용, 인프라 투자 등의 자본적 지출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내연기관차 판매량 하락으로 매출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비용	위험	중기-장기
	기후변화 완화 (온실가스 배출)	업스트림	• 규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EU 산림전용방지규정(EUDR)	• 원재료의 가격 상승 또는 대체 원재료 확보로 인한 구매 비용이 상승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제 위반 시 과징금 등의 금전적 페널티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위험	중기-장기
환경 2	에너지	자체 운영	• 사회: AI 사용으로 인한 데이터센터의 급격한 전기 수요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RE100 목표 달성을 위한 기업의 재생에너지(전기) 조달 경쟁 심화 • 규제: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2) 감축 관련 규제 (국내 배출권 거래제 등)	•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비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목표 미달성으로 인한 배출권 구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용	위험	중기-장기
환경 3	제품 관련 자원순환	업스트림	• 규제: EU 차량순환성 및 폐차관리 규정(ELVR), EU 산림전용방지규정(EUDR)	•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로의 전환 비용 및 산림벌채 없는 대체 원료 조달 비용이 발생하며, 관련 법/규제 위반 시 수입 및 판매 금지 조치로 매출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비용	위험	중기-장기
		업스트림	• 규제: EU 배터리 규정(Battery Regulation)	• 폐배터리 회수 및 재활용 관련 연구개발 비용, 배터리 광물 공급망 실사 비용, 배터리 탄소발자국 추적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제 위반 시 판매 금지 조치로 매출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비용	위험	중기-장기
사회 1	소비자 안전보건	다운스트림	• 사회: 기술 결함 및 관리 소홀로 인한 전기차 배터리 화재 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전기차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이 전기차 확산 장애 요인으로 작용	• 배터리 안전 및 품질 제고를 위한 투자 비용과 리콜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전기차 판매 감소로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용	위험	중기-장기
		다운스트림	• 사회: 주요 판매 시장에서 차량 안전 관련 소송 및 리콜 발생 • 규제: 자동차 관리법, 제조물 책임법	• 자동차 안전 및 품질 제고를 위한 투자 비용과 리콜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동차 제품 판매 감소로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용	위험	중기-장기
사회 2	근로자 안전보건	다운스트림	• 규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국가별 안전보건 관련 규제	• 조업 중단에 따른 생산성 및 매출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상 및 회사 귀책 여부에 따른 소송 비용, 재발 방지를 위한 작업장 및 근로자의 안전 보장을 위한 조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용	위험	중기-장기
사회 3	공급망 노동인권	업스트림	• 사회: 아동, 강제노동 관련 노동인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 사회적 인식 • 규제: UN 아동에 대한 협약, 국제노동기구 아동 노동에 관한 기본 원칙과 권장 지침, EU 강제노동금지규제(AFLR),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캐나다 공급망 강제/아동노동 금지법	• 공급망 인권 리스크 평가 및 위험 완화, 개선 조치 이행을 위한 비용과 평판 악화로 인한 자본 유입 감소 등의 손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럽 및 미국 지역 내 공급망 강제노동 관련 조사 대응 미흡 시 통관 금지 조치로 매출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비용	위험	중기-장기

[1)] 동일 주제, 가치 사슬 내 위치한 위험 및 기회는 통합하여 서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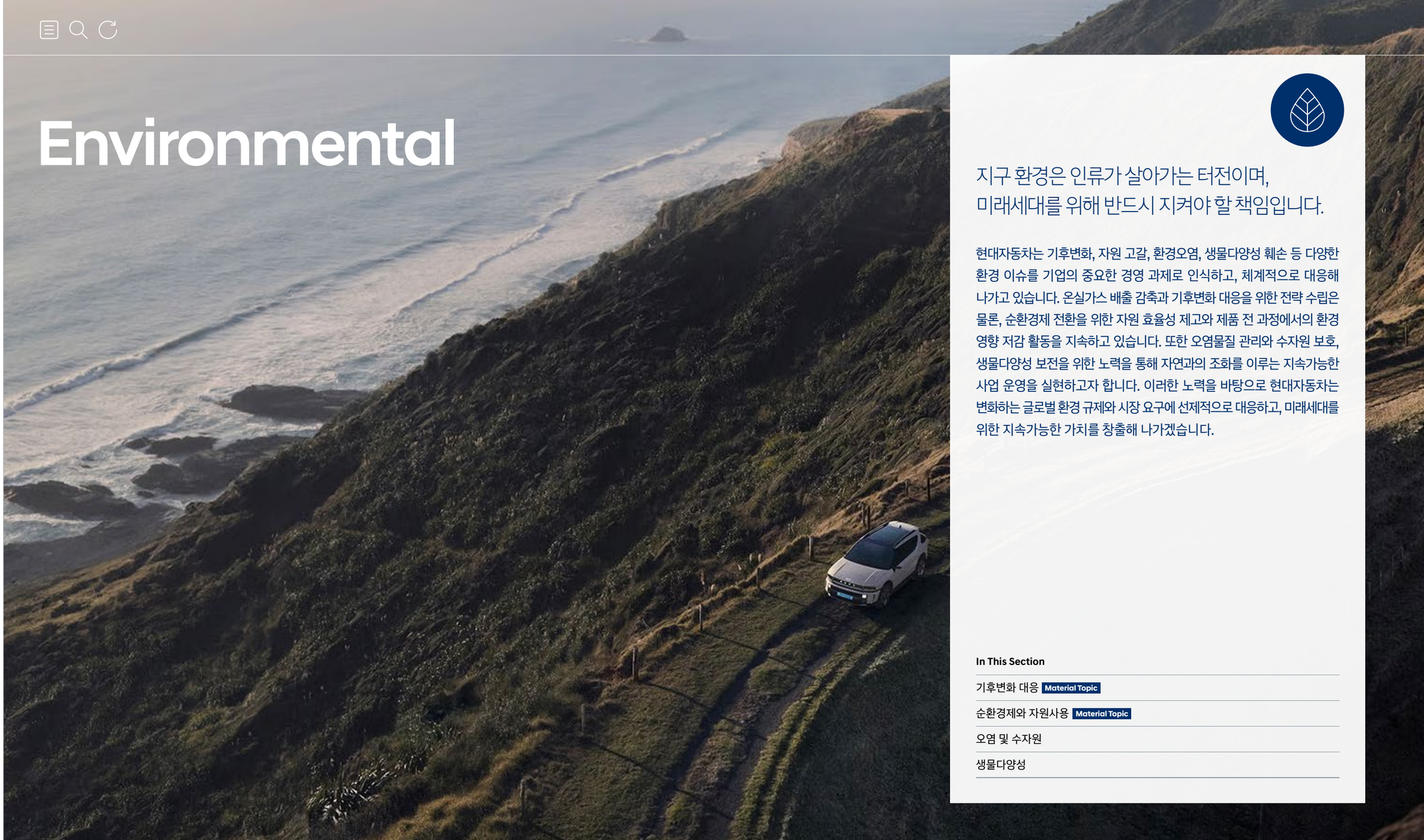
Materiality Assessment

중대 주제에 대한 관리 전략 및 경영진 보상 연계 (KPI)

ESG	주제	비즈니스 전략	2025년 이행 실적	핵심 성과 지표 (KPI)[1]	중장기 목표
환경 1	**기후변화 완화 (전동화 전환)**	현대자동차는 기존 내연기관 중심에서 유연한 판매 전략을 통해 급변하는 시장 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자 전동화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R&D 투자 및 개발 역량 내재화를 통해 배터리 기술의 차별성 확보, 글로벌 공장 신/증설을 통한 전기차 생산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용차를 중심으로 다양한 모빌리티 및 에너지 영역으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의 적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2025년 전체 전동화 차량(EV, HEV, PHEV, FCEV) 961,812대 판매 • 2025년 전기차 275,669대 판매 • 2025년 수소전기차 7,126대 판매 * 2025년 도매 기준	• 전동화 제품 매출 • 전동화 제품 관련 활동 • 전기차 판매량 및 판매 비중	• 2030년 전동화 차량 330만 대 판매 (전체 판매비중 60%) 달성
	기후변화 완화 (온실가스 배출)	현대자동차는 전동화, 수소사회, 순환경제 생태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 중장기 계획과 관련한 이행 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원부자재 구매·조달, 차량의 설계·생산·판매, 차량의 사용·폐기·회수 등 가치사슬 전반의 온실가스 감축 및 상쇄 활동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SBTi(과학기반감축목표) 승인 • Scope 3 - Category 11 (판매된 제품의 사용) 배출량 Well-to-Tank 포함 감축 목표 범위 확대 • 울산 연안 150ha 규모 바다숲 2개소 복원을 통한 탄소흡수 잠재력 확보	• 탄소중립 이행 체계 구축 및 목표 달성률	• Scope 1+2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연도(2024년) 대비 2030년까지 42% 감축 • Scope 3 - Category 11 (판매된 제품의 사용)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연도(2024년) 대비 2035년까지 63% 감축
환경 2	**에너지**	RE100 로드맵과 연계하여 전기에너지부터 우선 전환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소사회 구현과 연계하여 주요 제조 공정에 그린수소 적용과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유럽, 북미, 인도 소재 전 사업장 RE100 달성 • 미국 전기차 신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147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전력구매계약(PPA) 체결 (현대자동차 지분율 반영 시 약 75MW 규모) • 2025년 글로벌 사업장 사용 전기의 재생에너지 전환율 35% 달성 (해외사업장 전환율 88% 달성)	•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률	• 2027년까지 전 해외사업장 RE100 달성 • 2045년까지 글로벌 전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전기에너지 100% 재생에너지 전환
사회3	**공급망 노동인권**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공급망 내 아동노동, 강제노동, 이주노동자 착취 문제 등 공급망 노동인권 리스크를 중대한 관리 이슈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채굴부터 부품 제조에 이르는 전 공급망 단계에서 인권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식별·평가하며, 리스크 수준에 따라 개선 요구 및 페널티(입찰 제한) 등의 단계적 조치를 적용합니다.	• 국내외 총 2,086개 협력사 대상 ESG 서면진단 실시 • 국내외 총 127개 협력사 대상 ESG 현장실사 수행 • 핵심 2차 협력사와 비부품 협력사로 ESG 평가 대상 확대 및 평가 결과 입찰 절차 연계 • 자동화 기반 상시 강제노동 리스크 스크리닝 전산시스템 구축 • 강제노동 현장실사 매뉴얼 수립 및 강제노동 리스크 대응 표준 절차 제도화 • 배터리 핵심광물 광산·제련소 대상 현장실사 수행	• 협력사 ESG 점검률/실사율 • 협력사 리스크 개선조치율 • 협력사 ESG 수준 관리	• 리스크 기반의 공급망 ESG 관리 체계 지속 강화 - 중점관리 및 고위험 협력사 선정기준 보완/업데이트, 선정사 대상 현장실사(on-site audit) 강화 • 중점관리 협력사 ESG 서면진단율 100% 달성 • 협력사 ESG 서면진단 최소 요건 준수율 100% 달성 • 인증 제련소 조달 비율 지속 향상 • 글로벌 규제 대응을 위한 핵심 테마별 차별화 관리 - 2028년까지 수자원 및 생물다양성 고위험사 100% 서면진단 시행

[1] KPI는 CEO를 포함한 경영진 보상과 연계

Environmental



지구 환경은 인류가 살아가는 터전이며,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입니다.

현대자동차는 기후변화, 자원 고갈, 환경오염, 생물다양성 훼손 등 다양한 환경 이슈를 기업의 중요한 경영 과제로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략 수립은 물론,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자원 효율성 제고와 제품 전 과정에서의 환경 영향 저감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염물질 관리와 수자원 보호,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노력을 통해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현대자동차는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규제와 시장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In This Section

기후변화 대응 Material Topic
순환경제와 자원사용 Material Topic
오염 및 수자원
생물다양성

Material Topic

기후변화 대응

현대자동차는 기후변화 이슈에 전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위험과 기회 요인을 식별·평가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를 통해 주요 기후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후변화가 사업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력을 분석하고, 법·규제 변화 등으로 인한 거시적 사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위험 관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회요소를 발굴하고 있으며, 전동화 모빌리티 라인업 확대와 자율주행, 커넥티드 카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변화하는 시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거버넌스

의사결정기구

지속가능경영위원회

현대자동차의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하는 최상위 의사결정기구는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입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규정' 제3조 및 '환경경영 정책' 3. 추진체계에 명시된 위임권한에 따라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ESG 정책·계획·주요 활동 등을 심의, 의결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집니다. 기후변화를 포함한 ESG 주요 현안에 대해 반기마다 논의하며, 탄소감축, 기후변화 대응, 제품 전과정에서의 환경영향, 공급망 ESG 관리 등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핵심이슈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중장기적 계획, 개선 추진활동에 대한 사항을 결의하고 감독합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구성 현황 | 2025년 이사회 교육 현황

경영진

C-level 경영위원회(Management Committee Meeting)

현대자동차는 CEO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이 참여하는 C-level 경영위원회(Management Committee Meeting)를 통해 탄소중립을 비롯한 주요 ESG 이슈와 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MCM에서 검토된 결과에 따라, 주요 리스크 요인, 중장기 사업 전략과 연계된 성과 개선 필요사항, 그리고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심의·승인이 필요한 사안 등은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 상정됩니다.

협의체 및 전담 조직

현대자동차 탄소중립 협의체 현대자동차는 탄소중립추진팀 주관 아래 사업장 부문과 공급망 부문 각각의 탄소중립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사 내 관련 부서장들로 구성된 탄소중립 협의체는 분기별로 개최되며, 사업장 에너지 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공급망 탄소 감축 등의 탄소중립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사 기획조직 현대자동차는 2021년 탄소중립추진팀 신설을 시작으로, R&D본부, 구매본부 등 유관 부문에 탄소중립 전담 조직을 구축하여 전사적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대자동차는 사업 활동의 다양한 영역에서 탄소 감축과 더불어 중장기 탄소중립 로드맵의 실행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5년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관점을 고려한 주요 안건

의사결정기구	일자	구분	주요 의안 내용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고려 사항
지속가능경영위원회	04.24	승인	• 2025년 현대자동차 ESG 추진 전략 승인의 건	• 탄소중립 전략 2.0 이행 (감축방안 최적화, 감축수단 확대)
이사회	09.18	승인	• 중장기 전략 및 재무 목표 승인의 건	• 전동화 차량 라인업 확대 • 통합 수직계열화 기반의 그룹사 시너지 활용 (저탄소 공급망 구축, 차세대 배터리 투자 등)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보상

현대자동차는 기후변화 관리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EO, 권역본부장, 공장장(생산법인장), 직원(유관 조직)의 성과평가 항목(KPIs)에 기후변화 관련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성과평가 결과는 인센티브 및 연봉체계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경영진 KPI에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등 기후 전환 및 기후변화 관련 목표를 포함시킴으로써, 해당 목표 및 이행실적이 경영진 차원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 조직의 담당 직원들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관련 달성 목표를 수립하여 개인 성과평가 항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주요 지표에 대한 달성률 및 이행평가를 통하여 연봉의 일정 비율을 해당 성과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성과 연계 보상

대상	KPIs	보상
CEO	1) 탄소중립 목표 대비 이행률 2) 탄소중립 이행 체계 구축 수준	금전적 보상 (상여금 산정 시 반영)
권역본부장	1) RE100 목표 달성률 2) Scope 3 데이터 관리 고도화	
공장장 (생산법인장)	1) RE100 목표 달성률 2) Scope 1&2 감축량	
직원 (유관 조직)	각 유관 조직 담당자별 달성 목표를 수립 후 개인 성과평가 항목에 반영	

전략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영향, 위험 및 기회 식별

유형			위험 및 기회 요인	사업모형 및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영향 예상
전환	위험	현재 규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및 규제	• 국가별 배출권 거래제 규제 강화 및 탄소 가격 상승 • 국가 단위의 넷제로 목표 보유	✓ 단기 ✓ 중기 ✓ 장기
		신규 규제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 시행으로 유럽 수출 제품에 대한 탄소 비용 부담 증가 및 미국 등 주요국의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 도입 논의 확산 • 미국 IRA 전기차 보조금 정책의 북미 현지 생산, 공급망 재편 요구 증가 등 요건 강화와 이에 따른 투자 및 운영 구조 변화	✓ 단기 ✓ 중기 ✓ 장기
		기술	전동화 차량 기술 개발 경쟁 가속화	• 기술 변화 선도 실패 시 시장 점유율 하락	✓ 단기 ✓ 중기 ✓ 장기
		법률	내연기관 차량의 연비 규제 강화	• 규제치 미준수로 벌금 부과 시 대응 비용 증가 • 연비 관련 소송으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하락, 투자 철회 및 고객 이탈	✓ 단기 ✓ 중기 ✓ 장기
		시장	원자재 가격 불안정성	• EV 배터리 수요와 주요 원료(리튬, 코발트, 니켈) 공급 간의 불균형으로 인한 원자재 조달 비용 상승 및 공급망 안정성 저하	✓ 단기 ✓ 중기 ✓ 장기
		평판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의 기후변화 대응 요구 강화	• 기후 대응 미흡 시 ESG 평가 및 투자자 신뢰도 하락, 자본 조달 여건 악화	✓ 단기 ✓ 중기 ✓ 장기
	기회	제품 및 서비스	전동화 전환 속도 가속화	• 전동화 전환 가속에 따른 제품 포트폴리오 변화 및 수익구조 재편	✓ 단기 ✓ 중기 ✓ 장기
		시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 혁신 확산	• 전동화 기술 발전 및 비용 구조 개선에 따른 전기차 시장 확대 • 기후테크 R&D로 인한 수소 시장 활성화 • AI 및 소프트웨어 기술 발전에 따른 차량 기능 고도화 및 신규 수익모델 창출	○ 단기 ✓ 중기 ✓ 장기
		에너지원		•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에 따른 에너지 비용 효율성 개선	✓ 단기 ✓ 중기 ✓ 장기
		자원효율성		• 자원 순환 확대와 재활용 소재 활용 증가를 통한 원가 절감 및 자연 자원 보존	○ 단기 ✓ 중기 ✓ 장기
물리	급성 위험		강풍, 산불, 침수, 우박/뇌우, 폭우	• 기후재해에 의한 자산가치(건물, 설비, 재고) 손상 및 매출 감소(생산중단)	✓ 단기 ✓ 중기 ✓ 장기
	만성 위험		폭염, 가뭄, 한파	• 만성적 기후 패턴 변화에 의한 생산성 하락으로 매출 감소	○ 단기 ✓ 중기 ✓ 장기

기후 위험 및 기회 관리 적용기간 및 범위 현대자동차의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식별, 평가 및 관리에 적용되는 기간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기간	적용 범위
✓ 단기(0-3년) ✓ 중기(3-10년) ✓ 장기(10-25년)	✓ **사업장:** 글로벌 전 사업장(신규 사업장 포함, 설비 예상 수명 고려) ✓ **업스트림:** 공급망, 자본재, 업스트림 유통망 ✓ **다운스트림:** 운송, 사용(고객), 폐기 및 재활용

기후변화 대응

전략

전략 1 사업장 에너지 저감

에너지 효율화

현대자동차는 사업장별로 에너지 사용량 분석 및 진단을 통해 개선 기회를 식별하여 도출된 방안을 실천합니다. 에너지 진단 및 감사를 통해 개선 테마를 식별하고 각 공정·설비 특성을 정밀 분석하여 에너지 효율화 전략을 수립합니다. 2025년에는 전사 차원의 에너지·탄소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글로벌 탄소 배출 종합관리시스템과 스마트 생산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설비별 에너지 소비량, 고장 및 노후도, 투자 대비 절감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해 에너지 집약 공정을 파악하고,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영역을 결정하는데 활용됩니다. 개선 영역 파악 후, 고효율 모터 및 인버터 적용, 전력회생장치, 유틸리티 열원 변경(스팀 → LNG), 폐열 회수 시스템 구축 등 주요 개선 방안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솔루션을 확대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1,112억 원의 투자를 통해 전기 250,412MWh 및 LNG 48,880천Nm^3 감축 목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개선과제는 완료 후 성과 분석을 통해 절감 효과를 검증하고, 절감 활동의 실질적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업장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 기술 및 설비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임직원 이해도를 제고하고, 냉난방 기준 온도 준수와 에너지 낭비 예방 등 실천 중심의 활동을 통해 조직 전반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전체 자동차 제조 공정 중 가장 많은 에너지(약 40%)를 사용하는 도장 공정에서 저온 경화 도장 기술을 자체 개발하여 경화 온도를 기존 140°C에서 90°C로 낮추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 시간을 유지하면서도 동일 품질을 확보해 약 40%의 에너지 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 울산 전기차 공장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에너지 사용 비중 약 20%를 차지하는 엔진 공장에서는 모터 부하 가변제어와 에어 스마트 제어시스템을 도입해 대기 전력 손실을 크게 줄이고 있으며, 해당 기술은 유사 설비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대자동차는 전 생산공장의 에너지 효율 혁신을 꾸준히 확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제조 환경 구축을 위한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주요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 현황

울산공장 울산공장은 운영 효율화와 설비 투자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다이어트 10' 캠페인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KEEP 30'와 같은 정부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팀 생산설비 보완, 소각로 차압발전기 보완, 노후 가스 계량기 교체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산공장 아산공장은 생산설비의 효율화를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체계적으로 저감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생산라인에서는 드롭 리프트가 상하로 움직이는 특성을 활용하여 전력회생 유닛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설비가 하강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전기로 회수하여 재사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전력 손실을 막는 방식입니다. 엔진 생산라인에서는 대용량 펌프에 가변제어 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산 가동 외 시간에는 자동으로 절전 모드로 전환되도록 개선했습니다. 생산 설비 외에도 급탕 시스템 분산화 작업을 통해 에너지 낭비를 줄였으며, 노후화된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는 작업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소 국내 연구소는 에너지 효율화와 폐열 활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조명 자동제어 시스템과 고효율 LED 교체를 통한 전력 절감, 냉방용 변압기 분리 운영을 통한 대기부하 감소 등 다각도의 효율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 처리 시 발생하는 열을 스팀으로 활용하여 보일러 가동량을 줄이는 등 순환형 에너지 활용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미국생산법인 미국생산법인(HMMA)은 2025년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실시한 에너지 진단을 통해 주요 설비의 개선 기회를 발굴하였으며, 엔진 생산공장의 압축공기 누수 실태조사를 통해 에너지 손실 구간을 파악하여 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HMGMA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는 체계적인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명, 냉난방, 생산설비 등 비사용 설비의 전원을 철저히 차단하고 전력 피크 시간대에는 절전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장 에너지 관리 시스템(FEMS)을 구축하여 전력, 냉난방, 조명, 생산설비 등을 건물 단위로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를 전사에 공지하여 구성원들의 절감 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BUSINESS CASE

ZERO 에너지 팩토리 표준 구축

신공장 적용을 위한 건물에너지 설계표준 수립

현대자동차는 기아, 현대엔지니어링과 공동으로 생산공장의 건물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ZERO 에너지 팩토리(ZEF)' 구축을 위해 건물에너지 성능평가방법론 및 설계표준안을 개발하였습니다. 본 표준안은 생산공장의 특성을 고려해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부문 전반에 걸친 에너지 최적화 요소기술을 정리하고, 기획·설계·건설·운영 전 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성능평가 프로세스를 제시합니다. 특히 건물 배치, 외피 성능, 설비 용량 산정, 고효율 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적용 여부를 정량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에너지 소요량 분석과 ECO2-OD[1] 기반 평가체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설계표준안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와 2025년 이후 강화 예정인 비주거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고려하여, 법적 기준 준수와 동시에 합리적인 투자비 검토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공장 신축 시 기술요소별 필수·권장·검토 항목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공장 유형과 여건에 따라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본 방법론과 설계표준안을 향후 신공장 및 주요 생산시설 구축 시 단계적으로 활용해, 에너지 효율 향상과 ZERO 에너지 팩토리(ZEF)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 친환경주택 에너지성능평가

기후변화 대응

전략

전략 2 재생에너지 전환

RE100 이행 계획

현대자동차는 주요 그룹사인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와 함께 2021년 전기에너지의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 RE100 가입을 선언하였고, 2022년 4월 이를 승인받았습니다. 현대자동차는 RE100의 글로벌 목표인 2050년보다 앞선 2045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전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현대자동차는 국가별 재생에너지 수급 환경과 정부 정책 및 규제, 그리고 공장별 여건을 고려하여 2045년까지 주요 사업장에 태양광 패널 설치, 재생에너지 인증서 구매,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 등 재생에너지 점진적 확대 적용을 목표로 최적의 솔루션을 적용할 것입니다. 2025년을 기점으로 재생에너지 환경이 우수한 북미, 유럽, 인도 지역에 소재한 전 사업장의 RE100을 달성하였으며, 한국을 제외한 전 해외사업장 사용 전기의 재생에너지 전환 비율은 88%를 달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장 재생에너지 도입 현황

국내 사업장 현대자동차는 2024년 444MW 규모의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여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공장, 연구소 등 국내 주요 사업장에 매년 약 610GWh의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연간 약 28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태양광 자가발전 인프라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울산공장은 물류타워 주차장 옥상 및 EV공장 옥상에 약 15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운영 중이며, 아산공장은 완성차 치장장에 9.3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주공장은 공장 지붕에 2MW 규모의 태양광 자가발전 설비를 운영 중이며, 약 5MW 규모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국내 연구소의 태양광 발전설비는 기존 약 4MW에 더해 6MW 규모를 추가로 설치 중이며, 이는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입니다.

튀르키예생산법인 튀르키예생산법인은 2025년을 기점으로 재생에너지 인증서 구매를 통해 RE100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태양광 자가발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2026년 내 구축할 예정입니다.

인도권역본부(생산) 인도 첸나이공장은 2025년 RE100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사업장 유휴부지에 설치한 태양광 자가발전 설비, 전력구매계약, 재생에너지 인증서 등 다양한 이행 수단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로컬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지분투자형 PPA를 체결하여 2025년부터 무탄소 전력을 조달받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인도에서 본격 가동을 시작한 푸네공장은 자가발전 설비 운영 및 재생에너지 인증서 구매를 통해 준공과 동시에 RE100을 달성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생산법인 인도네시아생산법인은 기존 태양광 발전설비의 효율적 운영과 함께 약 11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추가 설치하여 자가발전 역량을 확대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자가 태양광 발전을 통해 약 3,300MWh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였으며, 현지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RE100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체코생산법인 체코생산법인은 2022년부터 RE100을 달성하였으며, 2025년에는 5MW 규모의 태양광 자가발전 설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전력 수급을 위해 가상전력구매계약(vPPA)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RE100 이행 로드맵

2022	2023	2025	2027	2045
• RE100 가입 승인 • 체코생산법인 RE100 달성	• 인도네시아 생산법인 RE100 달성	• 북미, 유럽, 인도 소재 전 사업장 RE100 달성	• 전 해외 사업장 RE100 달성	• 글로벌 RE100 달성

BUSINESS CASE

글로벌 생산거점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체결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현대자동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중심으로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조달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지 계열사와 공동으로 147MW 규모의 장기 태양광 발전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여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생산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력 가격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완화하고, 글로벌 전동화 생산거점의 운영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인도권역본부(첸나이공장)

현대자동차 인도권역본부(첸나이공장)는 생산거점의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조달과 중장기 탄소 배출 감축 이행을 위해, 인도 현지 재생에너지 기업과 지분투자형 PPA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전력 구매를 넘어, 재생에너지 발전소 지분을 직접 확보하는 구조를 통해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장기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인도권역본부는 타밀나두 지역에 신규로 조성되는 태양광·풍력 발전소 총 117.9MW 규모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연계한 25년 장기 PPA를 추진하고, 해당 발전소 운영 법인의 지분 26%를 취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첸나이공장을 포함한 주요 생산시설의 전력 수요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변동성이 큰 전력 시장 환경 속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전력 조달 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러한 지분투자형 PPA를 통해 재생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글로벌 생산거점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전략

전략 3 전동화 전환

전동화 전환 방향

현대자동차는 차량 사용 단계에서의 탄소 배출 감축을 추진하는 한편, 전동화 중심의 사업구조 전환과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파워트레인 전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전기차 및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 Extended Range Electrified Vehicle) 등 다양한 전동화 기술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지역별 수요 및 규제 환경에 대응하는 전동화 모빌리티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Software-Defined Vehicle) 아키텍처 개발을 통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한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적인 수익성 확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은 상용차를 중심으로 모빌리티 및 에너지 분야로 적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전기 및 수소 인프라 확산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기반의 생태계 구축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러한 전략을 통해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기술 및 사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전동화 전략

현대자동차는 전동화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차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 거점을 확대하고, 지역별 수요에 대응하는 생산 체계 최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배터리 모듈화 및 원가 경쟁력 강화를 포함한 배터리 종합 전략을 통해 전동화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으며, 하드웨어 성능 개선과 함께 소프트웨어 기반 기능 고도화를 통해 전기차 상품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전동화 전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역별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현지 생산 확대를 통해 시장 대응력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전동화 전환 계획

최근 주요 시장에서 전동화 수요 성장세가 일부 조정되는 가운데, 하이브리드 차량을 중심으로 한 전동화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지역별 정책 및 인프라 여건에 따라 전환 속도의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수단의 전동화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핵심 과제로서 중장기적인 방향성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하이브리드 및 EREV를 포함한 다양한 전동화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수요 대응력을 강화하는 한편, 전기차 생산 역량과 배터리 기술 경쟁력 확보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동화 전환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면서도 중장기적인 전동화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장 수요 대응 현대자동차는 전동화 전환 과정에서의 시장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하이브리드 차량 중심의 판매 확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적용 및 차종 확대를 통해 상품성과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생산거점의 혼류 생산체계를 활용하여 주요 시장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미 HMGMA 공장을 중심으로 하이브리드 생산을 확대하여 지역별 수요 증가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한편, EREV는 전기차 기반 주행 경험을 유지하면서도 엔진을 활용해 배터리를 충전함으로써 주행거리 제약을 보완하는 전동화 모델로, 충전 인프라 및 수요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전환기 솔루션입니다. 현대자동차는 2027년부터 북미 및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EREV 양산을 추진하여, 대형 SUV 및 중형급 모델을 중심으로 전동화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자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이와 같은 하이브리드 및 EREV 기반의 전동화 전략을 통해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점진적인 전동화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 역량 강화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공장 신·증설 및 설비 활용 최적화를 통해 시장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 HMGICS 공장은 로봇, AI, 디지털 트윈 등 스마트 제조 기술을 적용한 혁신 생산 허브이자 태양광 발전을 통한 자체 전력 생산 기반을 갖춘 지속가능한 제조 시설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러한 혁신 생산 기술을 미국 HMGMA에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HMGMA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을 병행 생산하는 유연한 생산체계를 기반으로, 단계적 증설을 통해 2028년까지 연간 최대 50만 대 규모의 생산능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배터리 생산 및 소재 조달과 연계된 현지화 생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북미 시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미국 판매 차량의 현지 생산 비중 확대를 통해 전동화 전환과 공급망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개발 역량 내재화 전기차 배터리는 원가, 주행거리 및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현대자동차는 배터리 개발 역량 내재화를 통해 전동화 전략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셀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시스템 설계,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등 제어 기술까지 통합적으로 개발하며, 배터리 성능과 품질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행, 충전 및 정차 상태 전반에 걸쳐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진단하고, 이상 징후를 사전에 예측·감지하는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 이후에도 일정 기간 배터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발생 시 차량 제어 및 외부 알림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클라우드 기반 BMS를 통해 다양한 운행 환경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다 정밀한 진단과 수명 관리가 가능하도록 기술을 고도화할 것입니다. 배터리 시스템 측면에서도 셀의 폼팩터와 관계없이 열전이를 방지하는 구조와 내화재, 이머전시 벤트 등 다층 안전 설계를 적용하여 배터리 발화 시 열 확산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기차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전략

전략 3 전동화 전환

전동화 차량 확대

전기차(EV) 현대자동차는 2016년 전동화 차량 전용 모델 아이오닉 개발을 시작으로 2018년 소형 SUV 전기차 코나 Electric을 공개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E-GMP 기반의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을 론칭하였으며, 2021년 아이오닉 5, 2022년 아이오닉 6에 이어 2025년 아이오닉 9을 출시하였습니다. 2024년 4월에는 새로운 전동화 비즈니스 플랫폼인 'ST1'의 물류 특화 모델인 카고와 카고 냉동을 출시했고, 2025년에는 ST1 플랫폼 기반 특수목적차(PBV) 라인업 확대 및 글로벌 시장 전개를 통해 전동화 비즈니스 모델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다각화된 라인업을 기반으로 2030년 전기차 판매 비중을 약 3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이브리드(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아반떼, 코나, 쏘나타, 투싼, 싼타페, 그랜저 등 대형 SUV와 소형 세단을 제외한 모든 차종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쏘나타, 투싼, 싼타페 차종에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2030년 하이브리드 판매 비중을 약 28%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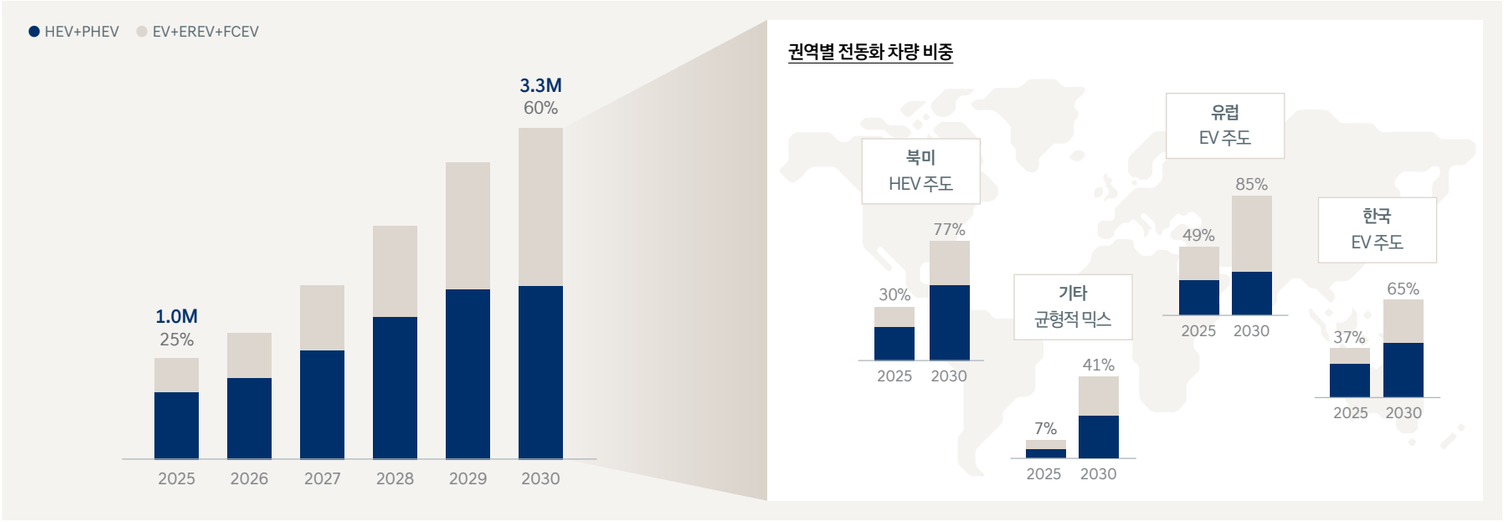
수소전기차(FCEV) 현대자동차가 2018년 최초 출시한 넥쏘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으로 전기를 생산해 구동하는 대표적 수소전기차이며, 당사는 수소전기차 리더십을 확장하여 일렉시티 수소전기 버스와 엑시언트 수소전기 트럭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0월에는 수소전기차 콘셉트카 '이니시움(INITIUM)'을 최초로 공개하였으며, 2025년에는 완전변경된 넥쏘를 통해 주행거리 약 700km 이상 및 성능·안전성이 개선된 차세대 수소전기차를 선보이며 2030년까지 연간 약 19,000대 수소전기차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대체연료 차량 현대자동차는 바이오에탄올과 CNG(압축천연가스) 등을 이용한 지역특화 대체연료 모델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남미의 바이오에탄올 수요에 맞추어 혼합연료차 HB20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향후 2030년까지 혼합연료 차량과 LPG 차량 판매 비중을 각각 3.6%, 1.7%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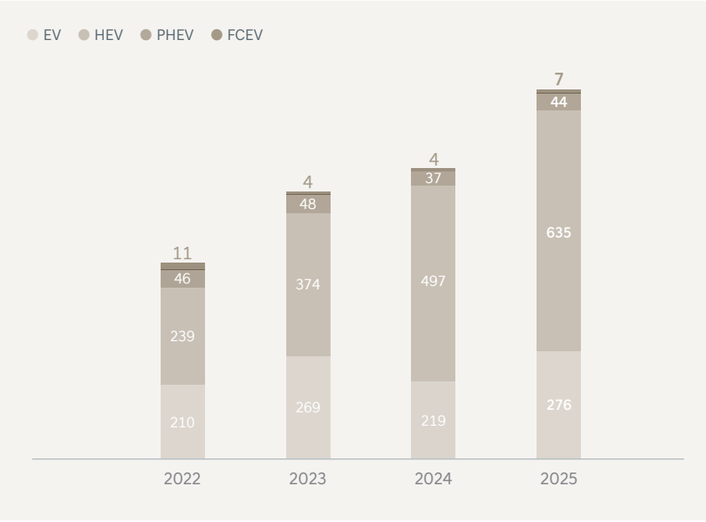
2025년 기타 대체연료 차량 판매량 (단위: 대)

혼합연료 모델	LPG 모델	CNG 모델
191,190	81,826	779

전동화 차량 판매 목표 (판매량 및 판매 비중)*



글로벌 시장 전동화 차량 판매량 (단위: 천 대)



* 2025 CEO Investor Day 발표 기준

기후변화 대응

전략

전략 3 전동화 전환

전기차 배터리 성능 및 효율 최적화

현대자동차 전용 전기차 배터리는 배터리 성능 70~80% 도달 시 최대 250,000~300,000km 주행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는 고객이 연간 20,000km 주행 가정 시 12~15년 누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기차 모델별 공인전비 현황[1)]

모델명	한국	유럽(WLTP)	미국(EPA)
아이오닉 5	5.2 km/kWh	16.0 kWh/100km	114 MPGe
아이오닉 5 N	3.7 km/kWh	17.2 kWh/100km	78 MPGe
아이오닉 6	6.0 km/kWh	13.5 kWh/100km	132 MPGe
아이오닉 6 N	4.2 km/kWh	18.7 kWh/100km	-
아이오닉 9	4.3 km/kWh	19.9 kWh/100km	92 MPGe
코나 Electric	5.5 km/kWh	14.7 kWh/100km	116 MPGe
캐스퍼 Electric	5.6 km/kWh	14.9 kWh/100km	-
GV60	5.1 km/kWh	16.7 kWh/100km	110 MPGe
Electrified GV70	4.5 km/kWh	19.4 kWh/100km	96 MPGe
Electrified G80	4.4 km/kWh	18.1 kWh/100km	96 MPGe

1) 모델별 대표 트림의 복합(combined) 전비 기준

전략 4 연비 개선

연비 테스트 공신력 강화

현대자동차는 한국, 북미, 유럽, 중국, 인도 등 주요 판매국가의 연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연비 인증을 획득하고자 각 국가의 기준에 따라 연비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제된 상황(온사이클)에서 실시하는 연비 및 배출가스 측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한국인정기구(KOLAS), 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 등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연비 측정 시설을 점검받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국책 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연비 테스트를 수행하여 연비 측정 결과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담당임원에게 연 1회 이상 온사이클 테스트 및 오프사이클 테스트 비교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실도로(오프사이클) 연비 테스트 차량의 연비는 주행상황에서의 기어변속, 차량중량, 공조상태 등 내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도로환경, 교통체증 등 외부적인 요인까지 다양한 변수가 작용합니다. 따라서, 현대자동차는 다양한 요인이 통제된 상황(온사이클)에서의 연비 테스트와 더불어, 실제 도로와 유사한 주행 프로파일을 적용하여 오프사이클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3자 기관 협업 현대자동차는 연비 관련 실도로(오프사이클) 테스트 결과와 타 기관들의 연비측정 결과 간의 상관성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EPA, J.D. Power, Consumer Reports 등 제3자 기관이 발표한 연비 데이터와 비교하며, 유럽 시장에서는 Green NCAP, Auto Bild, Spritmonitor 등의 제3자 기관 데이터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별 제3자 기관과 연비 측정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당사 연비 테스트 결과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주요 판매시장 플릿 평균 탄소 배출량(연비) 규제 대응

주요 시장에서는 플릿 평균 CO_2 배출 규제 및 평균연비 기준을 통해 해당 국가들의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자동차 부문의 배출 감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EU는 2023년 개정 규정을 통해 승용차 CO_2 배출량을 2021년 대비 2030년까지 55% 감축, 2035년까지 100% 감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최근에는 자동차 산업의 이행 부담을 고려해 2025~2026년 적용에 일부 유연성을 부여하였습니다. 미국은 2022년 확정된 CAFE 기준에 따라 2026MY 기준 약 49.1mpg 수준의 플릿 평균연비 목표를 제시한 바 있으며, 이후 관련 제도의 재조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주요 지역별 CO_2 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전기차 판매를 확대하여 지역별 플릿 평균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판매물량 계획 시 전기차 물량을 포함한 규제 대응 물량을 산출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단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EU 평균 CO_2 배출량[1)]	g/km	101.4	105.7	111.3	98.6
미국 평균 연비 (복합)	mpg	40.8	41.8	42.0	41.9
중국 평균 연비	L/100km	6.28	6.19	6.24	6.22

1) 2030년 EU 평균 CO_2 배출량 목표: 49.5 g/km

기후변화 대응

전략

전략 5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 방법론

현대자동차는 원소재 채취로부터 부품 제조, 부품 수송, 차량 제조, 차량 유통, 차량 운행, 폐기에 이르기까지 차량의 전과정에 걸친 환경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ISO 14040 및 14044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전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LCA를 수행한 비율은 83%로, 모든 차종의 전과정평가는 Full-LCA 방식으로 수행되었습니다.

LCA는 EU PEF[1]에서 채택하고 있는 EF(Environmental Footprint) 3.1 방법론을 적용하여, 총 13개 지표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표는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미세먼지, 전리방사선, 광화학 오존생성, 산성화, 부영양화(토양, 담수, 해양), 토지 이용, 수자원 부족, 자원고갈(광물 및 금속, 화석연료)입니다. 차량 제조 과정에서 전력 등의 에너지 사용, 오염물질 배출량 등은 사업장에서 측정한 실제 데이터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차의 운행 단계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른 미래의 전력 생산 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평가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국제 표준 ISO 14040/44에 적합하며 과학적/기술적으로 유효하다는 내용의 프로세스 인증을 외부 인증기관(TÜV Rheinland)으로부터 취득하여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방법론으로 LCA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EU Product Environmental Footprint, EU 제품 환경영향 평가 방법론

LCA 활용

현대자동차는 LCA를 통해 차량의 잠재적인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과정 각 단계별 환경영향을 분석하여 차량의 전반적인 환경성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소재 채취 단계에서는 탄소저감 철강 및 재활용 알루미늄 소재 적용을 확대하고, 부품 제작, 차량 생산 단계에서는 RE100 및 자원순환을 실천할 것입니다. 신차 개발 시, 전과정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차량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LCA 결과

2025년에는 주요 전기차 라인업과 고효율 하이브리드 모델, 대표 내연기관 차종 등 기존 평가 대상을 포함해 상용 차종으로 평가 범위를 확대하여 총 41개 차종에 대한 Full-LCA를 수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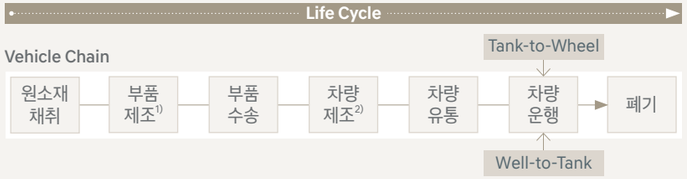
3개년 Full-LCA 수행 차종 판매 비율



LCA 항목 구성

생태계 영향	자원 사용	인체 건강
지구온난화 (GWP) 산성화 (AP) 미세먼지 (PM) 부영양화 (토양, 담수, 해양) 오존층 파괴 (ODP) 광화학 오존형성 (POCP)	자원고갈 (광물, 화석 연료) 토지이용 수자원 부족	전리 방사선

LCA 범위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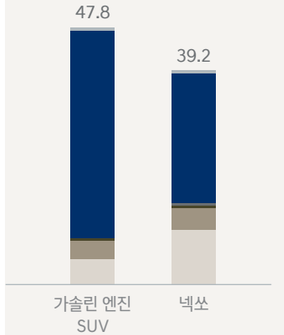
[1] 협력사 부품 제조로 인한 환경 영향은 각 공급사별 에너지 사용량을 활용하여 제한적으로 반영하며, 배터리 셀 등 일부 부품에 대해서는 상용 데이터베이스 적용하여 평가

[2] 차량 제조에 관련된 환경 영향은 현대자동차의 사업장 실 데이터를 반영하여 평가 (에너지 및 용수 사용량, 오염물질 배출량 등)

BUSINESS CASE

2025년 차세대 수소전기차 넥쏘 전과정평가 수행

2025년 완전변경 출시된 2세대 넥쏘는 현대자동차의 대표 수소전기차로,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여 운행 단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전동화 차량입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넥쏘는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주요 모빌리티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LCA 수행 결과, 넥쏘의 지구온난화 영향도(Global Warming Potential, tCO_2-eq)는 동급 가솔린 엔진 SUV 대비 약 18%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넥쏘는 운행 중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수소 생산 과정에서의 환경영향을 고려하더라도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대비 전과정 관점에서 환경적 이점을 보입니다. 다만, 연료전지 시스템과 고압 수소 저장 탱크 등 내연기관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부품과 소재가 사용됨에 따라 원소재 채취 단계에서의 환경영향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향후 청정수소의 확대 등으로 수소 생산 과정의 환경영향이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소재 채취 단계에서의 환경영향은 전과정 관점에서 더욱 중요한 관리 요소로 부각될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러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대체 소재 적용과 재활용 소재의 개발 및 적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위: tCO_2-eq/대)

전과정 단계	가솔린 엔진 SUV	넥쏘
원소재 채취	7.2	12.2
부품 제조	3.0	3.6
부품 수송	0.0	0.0
제조	0.3	0.4
유통	0.0	0.1
운행	36.9	22.5
폐기	0.3	0.4
합계	**47.8**	**39.2**

원소재 채취 ● 부품 제조 ● 부품 수송 ● 제조 ● 유통 ● 운행 ● 폐기

기후변화 대응

전략

전략 6 업스트림 탄소 배출 감축

자동차산업 공급망 탄소 배출 감축 역량 강화

글로벌 탄소 규제 강화와 탄소중립 요구가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협력사 역시 탄소 배출 관리에 대한 책임과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기반으로 공급망 전반의 저탄소화를 가속화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2025년 11월, 정부, 공공기관 및 부품협력사 87개사와 함께 '공급망 탄소 감축 상생 프로그램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협약을 통해 1차 부품 협력사를 대상으로 탄소 감축 설비 교체비를 지원하고, 해당 협력사가 지원 효과를 2차 협력사로 환원하는 구조를 통해 공급망 내 연쇄적인 감축이 확산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탄소 다배출 협력사의 중장기 탄소 감축 계획 수립, 저탄소 설비 도입,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연계하여 협력사의 자발적 감축 기반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협력사의 대응 역량을 높여 강화되는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공급망 전반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025 공급망 탄소 감축 상생 프로그램 업무 협약식

협력사 탄소 배출 감축 계획 수립 지원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의 탄소 배출량과 감축 계획을 수집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협력사 탄소 감축을 지원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공급망 내 협력사들을 배출 규모를 기반으로 탄소 다배출 협력사, 일반 협력사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다배출 협력사를 대상으로 매년 배출량 제3자 검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협력사 사업장 배출량 제3자 검증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총 111개 협력사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지원했으며, 149개 협력사가 배출량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는 사업장 탄소 배출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속적인 감축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였습니다. 2025년 국내 탄소 다배출 협력사의 중장기 감축 목표 수립 지원을 시작으로 2026년부터는 국내 일반 협력사 및 해외 탄소 다배출 협력사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감축 실적 점검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원소재 탄소 배출 감축

현대자동차는 2024년을 기준연도로 설정하고, 2035년까지 알루미늄과 철강 등 주요 원소재의 탄소 집약도($kgCO_2/kg$)를 단계적으로 낮춰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공급망 전반의 탄소 배출 감축을 추진할 것입니다. 알루미늄의 경우, 2035년까지 평균 탄소 배출 집약도를 약 5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활용 알루미늄 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탄소저감 알루미늄 도입을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철강의 경우, 2035년까지 약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기존 대비 탄소 배출을 약 20% 저감한 철스크랩과 전기로를 활용한 복합공정 철강을 최초로 적용하고, 이후 적용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2029년 이후에는 북미 루이지애나 주의 현대제철 전기로 제철소를 통해 약 60~70% 탄소 저감된 철강을 도입하여 감축 효과를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플라스틱의 경우, 2035년까지 재활용 플라스틱 적용률을 25%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규제 요구가 높은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적용을 시작하고, 향후 적용 지역과 차량부품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협력사 부품 LCA 산정 지원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의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인 감축을 돕기 위해 '부품 LCA 산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소재 채취부터 부품 제조 및 수송에 이르는 전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고, 다배출 공정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협력사의 탄소 감축 활동을 적극 지원합니다.

2023년 탄소 다배출 협력사 86개사를 대상으로 부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24년 지원 대상을 국내 전체 1차 협력사로 확대했습니다. 2025년에는 사외기관(K-모빌리티 브릿지 재단)과 연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외 협력사 130개사를 대상으로 부품 LCA 산정 결과물에 대한 중간·최종 단계 검토를 지원하였습니다. 2026년부터는 부품 탄소 배출량을 입찰 단계부터 관리하고, 적용 대상 품목과 차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협력사 탄소 감축 지원 활동

활동명	활동 내용
협력사 대상 교육 및 인식 제고	• 대표자: 협력사 파트너십데이 개최, 현대자동차 탄소중립 전략 공유 • 임직원: 협력사 탄소중립 역량강화 교육 개설·운영 (글로벌상생협력센터)
탄소 감축 관리 역량 강화	• 협력사 탄소중립 전문가 양성 지원 • 협력사 탄소감축 로드맵 수립 및 이행 지원 (1차 협력사 73개사) • 글로벌 탄소규제(CBAM) 대응 컨설팅 지원 (1·2차 협력사 25개사)
부품 LCA 산정 지원	• 원소재 채취부터 부품제조 및 부품수송 단계까지의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국내 협력사 333개사 / 해외 130개사 대상) • 탄소 다배출 제조 공정 파악을 통한 감축 활동 지원
협력사 탄소 감축 설비 구매지원 사업	• 중견/중소기업 대상 에너지 고효율 설비 교체 지원 (1·2차 협력사 79개사) • 협력사 사업장 공정 개선 컨설팅 지원 (1·2차 협력사 100개사) • 탄소 감축 정부지원사업 협력사 참여 지원 (2차 협력사 100개사)

기후변화 대응

전략

전략 7 수소 사업 확장

수소 밸류체인

수소는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저장·운송·활용이 가능하며, 높은 에너지 밀도를 기반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수소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여 수소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CES 2024에서 수소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밸류체인을 공개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수소 밸류체인은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및 활용을 연결하며, 그룹 내 다양한 사업 역량을 기반으로 수소 생태계 확장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현대자동차그룹은 모빌리티를 넘어 에너지 영역으로 사업 범위를 확장하고, 수소 기반의 저탄소 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원순환형 수소 생산 현대자동차그룹은 유기성 폐기물을 수소로 전환하는 W2H(Waste-to-Hydrogen) 기술을 개발하여 자원순환형 수소를 생산함과 동시에 폐기물 자원화 처리를 위한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현재 대한민국 청주와 파주에서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 수소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에너지 활용 체계를 확립하는 등 W2H 생태계 활성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그룹은 인도네시아에서 정부 및 국영기업과 자원순환형 수소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리묵티 매립지를 복토해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복토를 마친 매립지에서 추출한 바이오가스를 현대로템의 수소 개질기를 이용해 자원순환형 수소로 변환할 예정입니다. 이는 국내 자원순환형 수소 생산 실증 사업을 해외로 확장한 첫 사례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홍콩에서는 현대차와 현대건설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와 홍콩 정부 간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홍콩 내 매립지 가스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W2H 시설 구축, 액화수소충전소 건립, 수소 모빌리티 도입 등 수소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항만 및 공항 탄소 배출 감축 현대자동차는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물류 산업 허브의 탄소 감축을 위해 수소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항만 친환경 수소전기트럭 도입 프로젝트 (NorCAL ZERO)'에 참여하여 2023년 9월 오클랜드 항구에 총 30대의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을 공급했습니다. 2026년 5월 말 기준,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30대는 누적 주행거리 59만 1,113마일(약 95만 km)을 달성하였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북미 최대 규모의 대형 수소 연료전지 트럭 단일 배치 사업으로, 기존 탄소 고배출 화물 트럭들을 대체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그룹은 2024년 인천국제공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소전기 버스 도입, 공항 내 차량의 수소전기차 전환, 충전 인프라 확충 등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사업 혁신성장거점 구축 현대자동차그룹은 로봇, AI 및 에너지 솔루션을 중심으로 한 미래 기술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새만금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여 혁신성장거점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특히 로봇 및 피지컬 AI 역량 고도화와 함께 수소 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차세대 산업 경쟁력과 저탄소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지역에는 AI 데이터센터, 로봇 제조 및 부품 클러스터, 태양광 발전,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 설비 등 첨단 밸류체인 구축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 중 수소 사업은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청정 수소 생산 및 활용 체계 구축의 중심 역할을 담당합니다. 태양광 발전과 연계한 수전해 플랜트를 기반으로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을 아우르는 통합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산된 수소를 트램, 버스 등 다양한 모빌리티 에너지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수소 활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라인업 확장 현대자동차그룹은 수소 브랜드이자 비즈니스 플랫폼인 HTWO를 중심으로 수소연료전지 기술의 적용 범위를 차량을 넘어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수소 밸류체인을 기반으로 수소 트램, 선박 등 신규 모빌리티 영역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상에서 만들어져, 일상을 움직이는 에너지로서 수소의 활용 영역을 넓히며, 수소사회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소 밸류체인



기후변화 대응

전략

전략 7 수소 사업 확장

또한 현대자동차는 그룹사와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수소연료전지 기반의 수소 모빌리티 솔루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현대모비스의 수소연료전지사업을 인수하여 개발·생산 기능을 내재화하고, 관련 조직을 재편하는 등 수소 사업의 실행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2025년 10월에는 울산 수소연료전지 신공장 기공식을 개최했으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수소 사업 본격화와 수소 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한 핵심 생산 거점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차세대 모빌리티 플랫폼에 최적화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다양한 모빌리티 및 산업 분야로 적용을 확대하며 수소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수소전기 물류사업 현대자동차그룹은 2024년 초 GLOVIS America와 합작하여 'HTWO Logistics' 법인을 설립하고, 현대자동차그룹 최초의 전기차 전용 공장 HMGMA에 수소전기 물류 사업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HTWO Logistics는 HMGMA 공장의 부품 및 완성차 운송을 위해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을 공급하였으며, 이는 HMGMA 생산 시설의 약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물류 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기존 디젤 트럭 대비 운행 단계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상용차 자율주행 솔루션 전문업체인 미국 PlusAI와의 협업을 통한 자율주행 수소전기트럭 제품 기획 및 기술 개발을 통해 수소전기 물류사업의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수소 산업 협력 강화

수소위원회(Hydrogen Council) 수소위원회(Hydrogen Council)는 수소 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2017년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기간 중 발족한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글로벌 CEO 협의체입니다. 전 세계적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수소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key enabler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현대자동차, 토요타, 린데, 에어리퀴드, 지멘스 에너지 등 수소 밸류체인 전반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 약 140여 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소 산업의 주요 과제 해결을 위해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모아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2020년에는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이 공동의장을 역임했으며, 2024년부터는 장재훈 부회장이 공동의장을 맡아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글로벌 기업 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전략 8 탄소 상쇄

대기중 탄소 포집 및 활용 산학 연구

현대자동차그룹은 대기중 탄소 포집 및 에너지 전환 기술을 개발하고자 국내 5개 대학과 함께 '탄소중립 공동연구실'을 설립하여, 현대자동차그룹과 참여 대학이 공기 중 탄소를 포집하고 이를 소재나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공동연구실은 'DAC(Direct Air Capture, 공기중에서의 탄소포집) 분과'와 'CO_2 활용 분과' 두 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AC 분과'는 대기 중에 0.04% 농도로 존재하는 CO_2를 효율적으로 포집하기 위한 기술을 연구할 예정이며, 'CO_2 활용 분과'는 포집된 CO_2를 메탄올, 메탄, 카본 물질 등으로 변환해 합성연료 및 자동차 구성 소재로 만드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초 기술을 확보한 이후 차량 장착이 가능한 이동형 탄소 포집 장치를 비롯해 사업장과 빌딩 등에 활용이 가능한 대용량 고정형 모듈 시스템 등을 개발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러한 산학 연구를 통해 대기 중의 탄소까지 적극적으로 포집하여 저장하거나 이를 유용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탄소 상쇄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대자동차그룹, 탄소중립 공동연구실 설립

자연자본 기반 탄소 상쇄

현대자동차는 이동수단을 넘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을 기업의 중요한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장기적인 상쇄 전략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해조류 기반 블루카본을 핵심 솔루션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블루카본은 기후변화 대응과 생태계 보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s)의 일환으로, 특히 현대자동차는 해조류 기반 블루카본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상 중심의 탄소흡수 노력에 더해, 해양 생태계의 회복과 탄소흡수 잠재력에 주목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참여 기업으로서 바다숲 조성 관련 커뮤니케이션, 대중 인식 제고, 글로벌 확산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역할을 수행하며, 해양 생태계 보전 활동이 국제적인 기후 논의로 확장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대자동차는 해양 생태계 보호가 특정 산업이나 지역에 국한된 이슈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공동의 책임이라는 메시지를 고객과 사회 전반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현대자동차는 재생에너지, 자원순환, 생물다양성 보호 등과 연계하여 자연자본의 가치를 확대하는 다양한 협력 모델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해조류 기반 바다숲 조성 활동

기후변화 대응

BUSINESS CASE

동해 바다숲 조성 프로젝트

해조류 기반 블루카본은 현대자동차가 독자적인 상쇄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차별화된 영역으로, 기후 리더십을 강화하는 핵심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대자동차는 해양수산부, 한국수산자원공단, 울산시와 협력하여 민간 기업 최초로 국가 바다숲 조성사업(2024~2027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총 40억 원 규모의 매칭 펀드를 기반으로 울산 연안 150ha 규모의 바다숲 복원 프로젝트 두 곳을 추진하며, 연간 약 1,000tCO_2 수준의 흡수 잠재력을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정부·학계·국제기구와 함께 '바다숲 블루카본 포럼'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2025년 10월 해조류가 IPCC의 공식 블루카본 흡수원으로 등재되는 데 있어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바다숲 조성은 탄소 상쇄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향상, 오염 정화 등 해양 생태계 전반의 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입니다. 해조류 생체량의 증가와 더불어 종 다양성을 개선할 수 있으며, 오염물질(질소, 인 등 영양염류) 제거로 해양 수질을 정화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른 수산 자원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통해 지역사회 어업 발전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해조류 블루카본 확대를 위해 탄소 크레딧의 활용 방안 및 바다숲 블루카본 자원량 조사 등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현대자동차는 해조류 기반 블루카본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제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외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포레스트'에 이은 해양 생태계 복원 캠페인, 글로벌 포럼 개최, 스토리텔링 기반의 브랜드 캠페인(이름 없는 숲)을 통해 기업의 해양 생태계 복원 전략을 보다 입체적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2030년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블루카본 크레딧 시장에서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여, 향후 실질적인 탄소 상쇄 비즈니스로의 확장 가능성을 지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례 1. 바다 숲 조성 및 성과 인정: 제14회 바다식목일 대통령상 수상 영예

현대자동차는 해조류 기반 바다숲 조성과 블루카본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바다식목일'을 계기로 정부로부터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번 수상은 해양 생태계 복원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공공적 과제에 대해 기업이 장기적 관점에서 참여해 온 노력이 공식적으로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바다숲 조성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와 더불어, 해양 생태계의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한 인식 제고 활동과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정보 공개는 자연자산을 사회적 자산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로 평가받았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번 수상을 자연 기반 기후 해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책임과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해양·육상 생태계 전반에서 탄소흡수 기반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제14회 바다식목일 기념식

사례 2. '이름 없는 숲': 해양 생태계에 정체성을 더하다

현대자동차는 바다숲의 환경적 가치를 보다 쉽게 전달하고 국민과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바다숲 네이밍 프로젝트'를 기획·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육상의 숲처럼 바다숲에도 이름과 이야기를 부여함으로써, 바다숲을 단순한 정책·관리 대상이 아닌 함께 지켜야 할 환경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가 참여한 바다숲과 일부 천연 바다숲을 디지털 지도 플랫폼과 연계해 공개함으로써, 해양 생태계의 위치와 가치, 의미를 국내외 고객과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양 생태계 보호 활동을 일회성 캠페인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와 참여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이름 없는 숲

기후변화 대응

전략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

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 방법 및 시점

기업이 사용한 시나리오에 대한 정보 현대자동차는 기후변화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기회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정성 및 정량적인 방법론을 활용하여 전환 및 물리 시나리오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용된 시나리오의 원천은 주로 IEA, IPCC이며, 일부 정보의 경우 내부 분석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시나리오		정의	기간 범위	출처	사업범위
전환	NZE (1.5°C)	2050년까지 세계 에너지 부문의 넷제로 달성 경로를 제시하는 시나리오	~2050	IEA World Energy Outlook	현대자동차 자동차 부문 전체
	APS (1.7°C)	각국 정부와 기업이 2023년 8월까지 약속한 기후 목표 달성을 가정하는 시나리오			
	STEPS (2.5°C)	현재 각 부문 및 국가에서 시행 중이거나 발표된 에너지 관련 정책을 기반으로 한 시나리오			
	CPS (2.9°C)	현재 시행 중인 에너지·기후 정책만 유지되는 시나리오			
물리적	SSP1-2.6 (2°C 이하)	2050년 넷제로 달성을 통해 지구 온도 상승을 2도 이하로 억제하는 시나리오	~2050	IPCC	현대자동차 자동차 부문 32개 사업장
	SSP2-4.5 (2~3°C)	온실가스 배출에 의해 기온 상승폭이 2도를 넘는 시나리오			
	SSP5-8.5 (4°C 이상)	온실가스 배출에 의해 기온 상승폭이 4도를 넘는 최악의 시나리오			

전환 시나리오 분석

전환위험 분석

자동차 연비 규제 강화

위험 요인

글로벌 CO_2 배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선진지역(국내, EU, 미국, 캐나다)과 신흥지역(중국, 인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모두 규제 기준을 초과할 경우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대응 현황 및 계획

현대자동차는 연비 규제 대응을 위해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 하며, 내부적으로 연비 실적을 분석 및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기 규제 전망과 실적 예측을 바탕으로 발생 가능한 비용을 추정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 규제 강화

위험 요인

현대자동차는 국내 배출권거래제(K-ETS) 대상으로서, 할당된 연간 배출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 배출권 구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배출권 가격 전망에 따라 기존 집약도(대당 배출량)를 유지할 경우, 2035년 기준(70% 무상할당 가정) 약 최소 959억 원에서 최대 3,318억 원의 배출부채 발생이 예상됩니다.

대응 현황 및 계획

현대자동차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 2045 온실가스 배출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기반하여 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장 설비 개선 및 효율화 등 배출권 구매를 최소화하고 기후 회복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 로드맵 이행 시, 2035년 기준 잉여 배출권 판매로 약 최소 287억 원에서 최대992억 원의 수익 발생이 예상됩니다.

전환기회 분석

전동화 전환 가속화

기회 요인

전동화 전환은 현대자동차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가격 간의 Price Parity가 달성되고 친환경 정책의 영향으로 시장의 전동화 전환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전기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라 현대자동차의 매출은 2035년 기준 최소 약 36조 원(CPS)에서 최대 약 40조 원(STEPS)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응현황 및 계획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전기차의 생산 및 판매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며, 중장기 전동화 로드맵을 고려하였을 때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매출은 2035년 기준 최소 약 79조 원에서 최대 약 89조 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에너지 전환

기회 요인

전기요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탄소 배출 저감은 물론 에너지 비용 절감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현대자동차는 2045년까지 재생에너지 전기 100% 사용(RE100)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응 현황 및 계획

현대자동차는 2045년 RE100 달성을 위해 태양광 패널 설치 및 PPA 계약 체결 등 재생에너지의 점진적 확대 적용을 목표로 최적의 솔루션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을 반영할 시 지속적인 전력비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재생에너지 활용을 적극 확대해 나간다면 환경과 비용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전략

물리적 시나리오 분석

현대자동차는 물리적 리스크의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IPCC 제6차 평가보고서의 저탄소 시나리오(SSP1-2.6)와 고탄소 시나리오(SSP5-8.5)를 활용했습니다. 과학적 분석을 위해 기후 모델링 기반의 기후 리스크 분석 전문 툴인 Jupiter Intelligence를 사용하였으며, 일부 재해의 경우 최대 90m 간격으로 분석 단위를 세분화하여 보다 정밀한 고해상도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급성 위험(강풍, 침수, 산불, 우박/뇌우, 폭우)과 만성 위험(폭염, 가뭄, 한파)의 8가지 재해에 대해 리스크를 분석했으며, 이 중 강풍, 침수, 산불, 폭염에 대해서는 정량적 재무영향을 도출했습니다.

분석 대상은 현대자동차의 전 세계 32개 사업장(14개 생산 법인, 12개 일반 사무실, 6개 연구소)이며 정량적 재무 영향 분석을 위해 2023년 유형자산(건물, 기계장치 등) 및 재고자산과 사업장별 3개년 평균 매출액을 활용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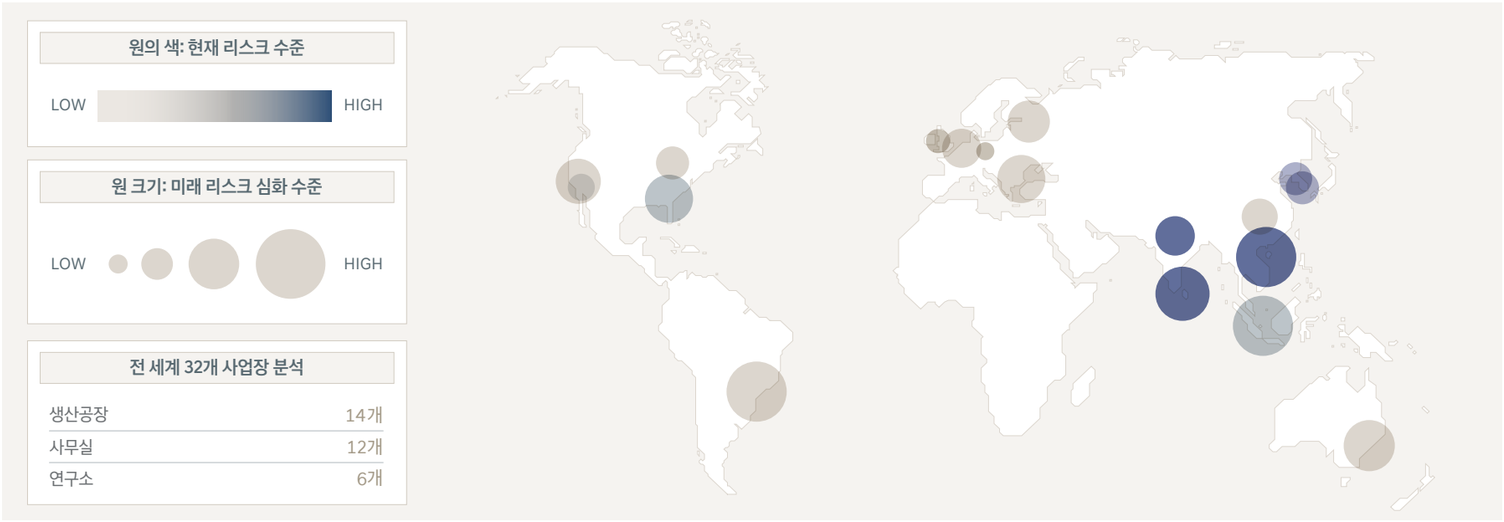
재무영향은 1995년을 기준년도로 5년 단위로 산정되며, 분석 대상 매출 및 자산의 2030년 연간 손실 금액은 약 2,200억 원(SSP1-2.6) ~ 3,000억 원(SSP5-8.5) 수준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재해별 영향경로의 경우 강풍, 침수, 산불 등 급성 재해는 건물, 설비, 재고 등 자산가치를 손상시킬 수 있으며, 이는 판매제품의 생산 중단으로 이어져 매출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폭염에 따른 만성적 기후패턴 변화는 직원들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며 매출 감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위험은 현대자동차의 사업모형 중 '제품의 생산'에 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고위험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전략 수립을 통해 회복탄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30, 2040, 2050년 재무적 영향 분석결과

구분	2030년		2040년		2050년	
시나리오	SSP1-2.6	SSP5-8.5	SSP1-2.6	SSP5-8.5	SSP1-2.6	SSP5-8.5
재무영향 (억 원/년)	2,200	3,000	4,300	7,100	5,500	12,200

SSP5-8.5 시나리오 2050년 물리적 리스크 분석 결과



재해별 영향 분석 결과

재해	분석결과
폭염	• 지구온난화에 의해 모든 사업장의 폭염 리스크는 현재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측
산불	• 현재 산불 리스크는 캘리포니아와 인도에 집중된 반면, 향후 전반적인 지역에서 현재보다 리스크가 상승하여 산불 리스크 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강풍	• 전체 사업장 중 한국(울산)의 강풍 리스크가 가장 높으며, 일부 지역은 현재보다 리스크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
침수	• 독일 및 베트남의 침수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한파	• 지구온난화에 의해 모든 사업장의 한파 리스크는 현재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측
가뭄	•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가뭄 리스크는 미래에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
폭우	• 현재 폭우 리스크는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나, 향후 브라질, 호주, 미국(앨라배마) 등 폭우 리스크 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
우박/뇌우	• 전체 사업장의 우박/뇌우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미미할 것으로 예측

기후변화 대응

전략

지역별 재무영향 분석 결과

Very Low Low Moderate High Very High

지역	시나리오	기후재해 재무영향정도											
		폭염 (Heat)			강풍 (Extreme Wind Speed)			산불 (Wildfire)			침수 (Flood)		
		2030	2040	2050	2030	2040	2050	2030	2040	2050	2030	2040	2050
동북아시아 (한국, 중국)	SSP1-2.6												
	SSP5-8.5												
동남아시아 (베트남 등 3개국)	SSP1-2.6												
	SSP5-8.5												
오세아니아 (호주)	SSP1-2.6												
	SSP5-8.5												
아메리카 (미국 등 3개국)	SSP1-2.6												
	SSP5-8.5												
유럽 (독일 등 5개국)	SSP1-2.6												
	SSP5-8.5												

사업장 유형별 재무영향 분석 결과

Very Low Low Moderate High Very High

사업장	시나리오	기후재해 재무영향정도											
		폭염 (Heat)			강풍 (Extreme Wind Speed)			산불 (Wildfire)			침수 (Flood)		
		2030	2040	2050	2030	2040	2050	2030	2040	2050	2030	2040	2050
생산공장 (울산공장 등 14개)	SSP1-2.6												
	SSP5-8.5												
사무실 (양재본사 등 12개)	SSP1-2.6												
	SSP5-8.5												
연구소 (남양연구소 등 6개)	SSP1-2.6												
	SSP5-8.5												

물리적 위험 요인 및 주요 대응 활동

물리적 위험 요인 식별 및 대응

폭우/침수

위험 요인

- 공장 및 시설 침수 피해 발생
  - 공장 배수로 침수, 딜러 시설 및 차량 침수
- 집중폭우 및 홍수로 인한 인프라 접근성 저하
- 시설 침수 및 고객 접근성 저하로 인한 생산/영업 활동 차질 발생

대응 활동

- 신공장 건설 시 해발고도 기준 반영, 배수능력 최대 확보 등 기상요건 고려
- 침수 예방 및 대응 체계 마련
  - 주기적인 배수로 관리, 노후 배수시설/지붕 점검 및 교체
  - 수방자재 확충 및 전기기구 노출 점검
  - 호우 발생 상황 모니터링 및 공장 외부 침수 제어
  - 물유입 방지 바리케이드 설치 및 도로 교통 통제
- 차량 피해 지원 및 복구 대책 운영
  - 침수차량/시설 지원, 재고차 용자, 딜러 정비 지원 등

강풍 - 태풍/허리케인/사이클론/토네이도 등

위험 요인

- 시설 및 자산 피해
  - 지붕, 건축물 목재, 유리창 손상 등 물리적 피해
- 송전시설 파손으로 인한 전압 강하 및 전력 이용 차질
- 제조 중 차량 및 판매차량 피해 지원 및 복구 비용 증가
- 시설 파손, 차량 공급 차질 등으로 인한 생산/영업 차질 발생

대응 활동

- 시설 보강 및 관리
  - 건축물 안정성 인증 획득
  - 노후시설(지붕, 배관, 거터) 교체, 방풍 식재 이식, 수목 지지대 점검
  - 시설 유틸리티 관리실 및 공급통로 보강 점검 및 피해 방지 설비 구축
  - VPC(Vehicle Processing Center) 등 완성차량 보관 장소(야외 야드)의 정기적 청소
- 비상 대응 체계 운영
  - 신속한 생산 재개를 위한 비상대응팀 운영
  - 토네이도 대피소 운영
  - 미국 연방 재난 관리청(FEMA) 가이드라인 준수 등 비상대응매뉴얼 운영

우박

위험 요인

- VPC 내 대기/재고 차량 덴트 및 손상 발생

대응 활동

- 우박 피해 예방 시스템 구축
  - Anti-hail Cannon 시스템 설치
- 재고 차량 사전 대피 및 보호
- 우박 피해 보험 가입을 통한 손실 최소화

기후변화 대응

위험 관리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리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리 프로세스

현대자동차는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전사 차원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위험과 기회 요인을 식별·평가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권역 및 조직별로 파악된 기후변화 이슈는 경영전략담당으로 전달되며, 경영전략담당은 각 이슈별 위험과 기회 요인을 도출하고, 각 요인들이 회사에 미칠 수 있는 전략적·재무적 영향을 평가하여 전사적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식별단계 식별단계에서는 C-level 경영위원회(Management Committee Meeting)를 통해 기후변화로 현대자동차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험과 기회 요인에 대하여 각 권역 및 조직별 이슈사항을 파악합니다.

평가 및 보고단계 본사 경영전략담당이 식별단계에서 파악된 요인과 이슈가 회사에 미칠 수 있는 전략적·재무적 영향을 파악하여 중대성에 따라 CEO에게 전달되거나 C-level 경영위원회(Management Committee Meeting)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하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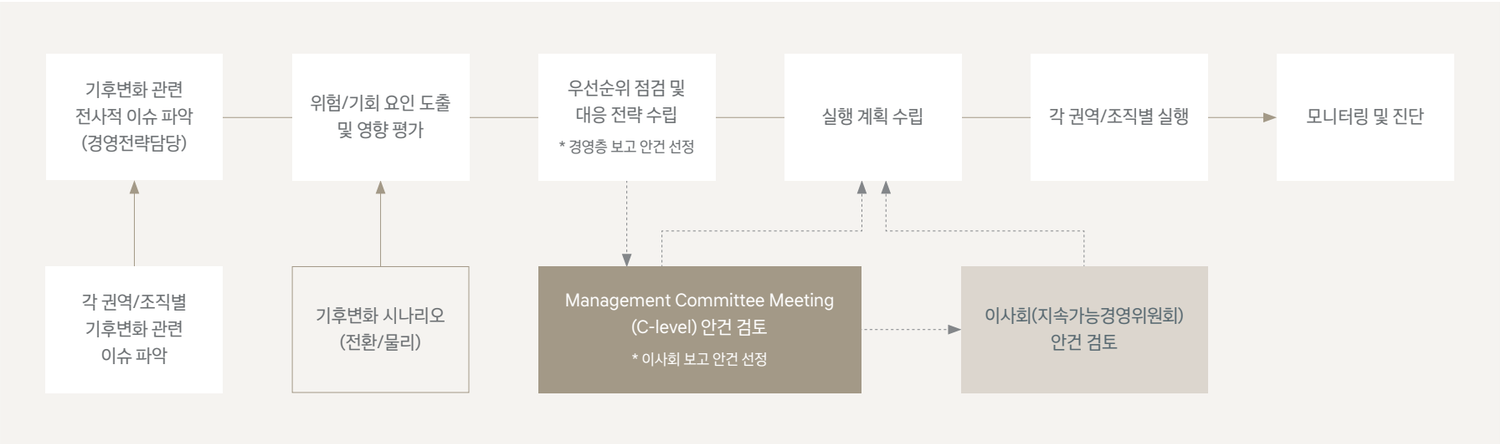
관리단계 의사결정된 기후변화 이슈는 해당 권역·조직의 실무분과별 KPI에 주체적으로 반영됩니다. 경영전략담당과 유관 조직이 협업함으로써 다양한 영역에서 기후변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험 및 기회 식별 및 평가방법

현대자동차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을 활용하여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고 평가합니다. TCFD 권고안을 바탕으로 기후변화가 산업 및 현대자동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STEEP(Social, Technology, Economic, Environmental, Political) 구분별 동력요인(Driving Forces)을 식별했습니다. 이 중 영향도, 불확실성,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핵심 동력요인을 도출했습니다. 영향도는 회사의 사업 모델과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조달, 생산, 판매)과 회사의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예산 책정, 투자 및 R&D, 사업 인수 및 매각, 인재 확보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불확실성은 동력 요인이 회사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가능 정도를 평가했습니다.

핵심 요인이 현대자동차의 재무 및 사업모형에 미치는 영향 경로를 설계하여 IEA의 시나리오에 따라 각 전환 위험 및 기회 요인의 재무영향을 산출하고 영향의 강도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대자동차는 기후변화에 따른 중요한 위험 및 기회 요인을 파악하였으며, 각 요인이 시나리오별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기후 회복력을 제고합니다.

기후변화 위험/기회 식별·평가·관리 프로세스



기후변화 대응

지표 및 목표

기후 관련 지표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tCO_2-eq)

구분		2024년[1]	2025년
Scope 1+2 합계[2]		**2,198,406**	**1,911,084**
Scope 1		729,974	720,642
Scope 2 (지역 기반)		1,786,324	1,858,897
Scope 2 (시장 기반)		1,468,432	1,190,442
Scope 1+2 합계 배출 집약도 (자동차 1대 생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0.530	0.464
Scope 3[3]		**203,863,854**	**199,704,253**
Category 1	구매한 제품 및 서비스	28,974,971	30,976,380
Category 2	자본재	373,758	2,013,738
Category 3	연료 및 에너지 관련 활동	407,693	639,111
Category 4	업스트림 운송 및 유통	2,858,226	2,345,209
Category 5	폐기물	526,117	231,554
Category 6	출장	62,247	118,532
Category 7	통근	133,115	2,316,276
Category 8	임차 자산	-	-
Category 9	다운스트림 운송 및 유통	568,043	-
Category 10	판매된 제품의 가공	6,377	9,470
Category 11	판매된 제품의 사용 (Well-to-Wheel)	165,447,364	157,799,559
Category 12	판매된 제품의 폐기	1,847,207	1,711,368
Category 13	임대 자산	15,551	11,546
Category 14	프랜차이즈	106,794	25,376
Category 15	투자	2,536,391	1,506,134

[1] 2024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SBTi 승인 기준과 연계하여 기준년도(2024년) 배출량을 재산정함에 따라 직전년도 보고 데이터와 차이가 발생함.
[2] 2024년 대비 2025년 산정 대상 해외법인 5개(HMGICS 등) 추가됨.
[3] Category 2, 7, 14의 경우 2025년에 활동데이터, 배출계수, 산정방법론의 고도화가 진행되어 2024년 대비 배출량이 다소 크게 변동됨.

배출량 측정을 위한 접근법

현대자동차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산정·관리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국내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적용하였습니다. 조직 경계 설정에 있어서는 통제력 기준(Control Approach) 중 운영통제력(Operational Control)을 사용하여, 회사가 운영을 통제하는 사업장과 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산정 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Scope 1 및 Scope 2 배출량은 「The Greenhouse Gas Protocol: A Corporate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Revised Edition)」과 「The Greenhouse Gas Protocol: Scope 2 Guidance」를 근거로 산정하였으며, 국내 「탄소중립기본법」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였습니다. 또한 「IPCC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와 관련 Accounting Tool을 활용하였고, 기타 관할 당국 및 상장 거래소에서 요구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Scope 3 배출량은 「GHG Protocol Corporate Value Chain (Scope 3)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2011)」에 따라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기타 간접 배출을 식별하고 산정하였으며, 이산화탄소(CO_2), 메탄(CH_4), 아산화질소(N_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_6)의 6대 온실가스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제5차 및 제6차 평가보고서에서 제시한 100년 기준 지구온난화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를 적용하여 이산화탄소 환산량(tCO_2-eq)으로 변환하여 수치 값을 산정하였습니다.

배출량 차이에 대한 분석

현대자동차는 2025년 10월 SBTi(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에 가입함에 따라, 온실가스 관리의 정합성과 국제 기준 부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직경계를 연결기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SBTi 가이던스에 의거한 온실가스 배출량 재산정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재산정의 기준연도(Base year)는 2024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재산정 과정에서 일부 Scope 3 카테고리에서는 산정 범위 확대 및 방법론 변경에 따라 배출량 증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Category 1(구매한 제품 및 서비스)의 경우 기존 산정 방식에 협력사로부터 직접 수집한 배출량을 추가로 반영함으로써 업스트림 공급망 배출량의 포괄성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Category 4(업스트림 운송 및 유통), Category 10(판매된 제품의 가공), Category 14(프랜차이즈)에 대하여 신규로 배출량 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기타 간접 배출을 보다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Category 11(판매된 제품의 사용)에서는 기존에 적용하던 Tank-to-Wheel 범위에 더하여 연료 생산 및 공급 단계인 Well-to-Tank까지 포함하는 Well-to-Wheel 방식으로 산정 방법론을 확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료 생산 및 공급 단계와 차량 운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이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Category 11의 배출량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산정은 SBTi 기준에 부합하는 목표 설정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향후에도 데이터 품질 개선과 산정 방법론 고도화를 통해 Scope 3 배출량 관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지표 및 목표

투입변수 및 가정 - Scope 1&2

Scope 1&2 현대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 GHG Protocol에 따른 Scope별 정의에 따라 수행하였습니다. Scope 1 배출량은 회사가 직접 소유하거나 운영 통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로 구분하였으며, 고정연소, 이동연소 및 탈루 배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정연소 배출량은 액화천연가스(LNG), 경유, 등유, 프로판 등 연료 사용량을 활동 데이터로 활용하였고, 배출계수는 2006년 IPCC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본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동연소 배출량은 휘발유, 경유, 부탄, 제트용 등유, 압축천연가스(CNG)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연료별 온실가스별 기본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탈루 배출의 경우 냉매가스 누출로 인한 배출을 포함하고 있으며, 관련 활동 데이터 특성상 배출계수는 별도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Scope 2 배출량은 회사가 외부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한 전력과 스팀 사용에 따른 간접 배출을 대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외부 전기의 경우 전력 구매량을 활동 데이터로 활용하였으며, 국가 고유 전력배출계수를 적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외부 스팀의 경우 스팀 구매량을 기준으로 하여, 공급처별 스팀 배출계수를 우선 적용하고, 해당 정보가 없는 경우 국가 스팀 배출계수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Scope 1 및 Scope 2 배출량은 각 배출원별 활동 데이터와 이에 대응하는 공인된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함으로써 산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투입변수 및 가정 - Scope 3

Category 1. 구매한 제품 및 서비스 보고기간 내 현대자동차의 차량 제조와 관련하여 구매한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합니다. 산정 범위는 원료 채굴부터 완성차 제조 이전 단계(cradle to gate)까지로, 산업 특성을 반영해 원자재 채굴, 소재 및 부품 제조, 위탁 생산업체에 의한 차량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포괄합니다. 데이터 가용성과 방법론적 신뢰성을 고려해 하이브리드 접근법을 적용하며, 각 단계별로 가장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소재 생산에 따른 배출량은 차량 생산 대수, 차종별 소재 적용 중량, 소재별 배출계수를 활용한 평균 데이터로 산정하고, 부품 제조 및 위탁 차량 생산에서의 배출량은 협력사로부터 보고받은 Scope 1 및 Scope 2 배출량을 현대자동차의 생산 기여도에 비례하여 할당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단, 공급망 데이터 가용성을 고려하여 주요 국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직접 수집한 1차 데이터(primary data)를 우선 활용하였으며, 이는 국내 1차 협력사 총 배출량의 약 60%를 차지합니다. 본 방법론은 공급망 배출량을 균형 있게 반영함과 동시에 불확실성이 큰 가정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하며, 앞서 언급한 데이터 외에도 내부 전과정평가(LCA) 결과 및 공인된 전과정목록(LCI) 데이터베이스를 산정에 활용합니다.

Category 2. 자본재 보고연도에 취득한 자본재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여기에는 생산 공장 및 건물의 건설·증설, 제조 설비, 물류 및 에너지 인프라, IT 장비, 사무용 자산 등을 포함합니다. 해당 자산의 사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은 Scope 1 또는 Scope 2에 포함되며, 본 카테고리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배출량은 데이터 가용성에 따라 평균 데이터 방식과 지출 기반(spend based) 접근법을 병행하여 산정합니다. 물량 또는 사양 정보가 확보된 자산의 경우 평균 배출계수를 적용하며, 물리적 데이터가 제한적인 자산에 대해서는 산업별 공급망 배출계수를 활용한 지출 기반 추정을 적용합니다. 자본적 지출(CapEx) 기록, 자산 목록, 가용한 물량 데이터, 산업 배출계수, 내부 및 외부 전과정평가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합니다.

Category 3. 연료 및 에너지 관련 활동 Scope 1 및 Scope 2에 포함되지 않은, 현대자동차가 소비한 연료 및 전력의 생산·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스트림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여기에는 연료의 채굴, 가공, 운송 과정에서의 배출량과 전력 송·배전 손실에 따른 배출량이 포함됩니다. 배출량은 Scope 1 및 Scope 2에서 보고된 연료 및 전력 사용량에 생산, 운송 단계 배출계수를 적용하는 평균 데이터 방식으로 산정하고, 국가별 에너지 생산 경로 및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지역별 에너지 믹스 차이를 반영합니다. 산정에는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생산, 운송 단계 배출계수, 공인된 전과정목록 데이터베이스가 활용됩니다.

Category 4. 업스트림 운송 및 유통 현대자동차가 제3자로부터 구매한 운송 및 유통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하며, 부품의 반입 물류와 판매 이전 단계의 완성차 출고 운송이 이에 해당합니다. 배출량은 주로 운송 거리 기반 접근법을 적용하여, 운송 중량, 거리, 운송수단별 배출계수를 활용하여 산정합니다.

Category 5. 폐기물 현대자동차의 소유 또는 통제 하에 있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제3자에 의해 처리·처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사업장 내에서 처리된 폐기물은 Scope 1 또는 Scope 2에 포함됩니다. 배출량은 폐기물 종류별 접근법을 적용하여, 매립, 소각, 재활용 등 처리 방법별 폐기물 발생량과 해당 배출계수를 활용하여 산정하고, 주요 데이터는 폐기물 발생량, 처리 기록, 지역별 배출계수입니다.

Category 6. 출장 항공, 철도, 버스, 개인 차량 등 회사가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임직원 출장에서 발생한 배출량을 포함합니다. 배출량은 가용한 경우 실제 이동 거리를 기준으로 한 거리 기반 방식을 적용하며, 거리 데이터가 제한적인 경우 지출 기반 추정 방식을 활용합니다. 항공 이동의 경우 환승 구간을 포함하여 출장 기록, 이동 거리 및 비용 데이터, 교통수단 정보, 수단별 배출계수를 산정에 활용합니다.

기후변화 대응

지표 및 목표

Category 7. 통근 임직원의 주거지와 근무지 간 통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임직원 수, 통근 수단별 비중, 평균 통근 거리, 근무 일수 등을 반영한 평균 데이터를 활용하며 통근 수단별 배출계수를 적용합니다. 임직원 통계, 통근 설문조사 또는 대체 지표, 교통수단 배출계수가 활용됩니다.

Category 8. 임차 자산 현대자동차가 임차하여 운영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은 회사의 조직 경계 설정 원칙에 따라 이미 Scope 1 및 Scope 2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 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본 카테고리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Category 9. 다운스트림 운송 및 유통 고객에게 판매된 이후 발생하는 완성차의 운송 및 유통 과정에서의 배출량을 포함합니다. 지역별 시장 구조의 차이와 데이터 가용성 및 신뢰성의 한계로 인해, 2025년부터 본 카테고리에 대한 배출량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Category 10. 판매된 제품의 가공 완전 또는 반조립(CKD/SKD) 상태로 판매된 중간재가 제3자에 의해 추가 가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으로, 가정된 가공 에너지 사용량과 국가별 전력 배출계수를 적용한 평균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정합니다. 생산 및 판매 실적, 가공 관련 가정, 국가별 전력 배출계수, 전과정평가 참고 데이터가 활용됩니다.

Category 11. 판매된 제품의 사용 보고연도에 판매된 현대자동차 차량의 사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회사 Scope 3 배출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산정 범위는 전 세계에서 판매된 모든 승용 및 상용 차량을 포함하며, 차량 사용 전 과정에서의 Well-to-Wheel(WTW) 배출량을 반영합니다. WTW 배출량은 Well-to-Tank(WTT)와 Tank-to-Wheel(TTW)로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WTT 배출량은 연료 및 전력의 생산, 가공,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포함하며, 국가별 연료 및 전력 생산 경로를 적용하여 지역별 에너지 믹스 차이를 반영합니다. 전기차의 경우 국가별 전력 배출계수와 차량 전력 소비량을 적용하며, 수소전기차의 경우 수소 생산 방식 및 관련 배출계수를 고려합니다. TTW 배출량은 차량 운행 중 연료 연소로 발생하는 직접 배출량으로, 공인 연비 및 CO_2 배출량 데이터를 판매 대수 가중 방식으로 적용하며, 파워트레인 유형 및 시장 별 주행 사이클을 반영합니다.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는 사용 단계 직접 배출이 없으므로 TTW 배출량은 0으로 처리됩니다. 차량의 생애 주행거리는 산업 관행 및 내부 기술 검토 결과에 기반하여 승용차 200,000km, 상용차 400,000km로 가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전과정 기반의 WTW 접근법을 통해 현대자동차는 차량 전동화, 에너지 전환, 지역별 에너지 시스템 차이가 사용 단계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일관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Category 12. 판매된 제품의 폐기 보고연도에 판매된 차량의 해체, 재활용, 최종 처분 등 수명 종료 단계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으로, 차량 중량, 소재 구성, 국가별 폐기물 처리 비중, 소재별 폐기 단계 배출계수를 적용한 소재 기반 접근법으로 산정합니다. 산정 시 판매 실적, 차량 중량 및 소재 구성 정보, 폐기물 처리 통계, 전과정평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합니다.

Category 13. 임대 자산 현대자동차가 소유하고 제3자에게 임대한 자산의 사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으로, 임대된 면적이 전체 건물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자산의 Scope 1 및 Scope 2 배출량을 할당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건물 에너지 사용 데이터, 임대 면적 정보, Scope 1 및 Scope 2 배출량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Category 14.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거점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으로, 대표 프랜차이즈 사업장의 Scope 1 및 Scope 2 배출량을 전체 프랜차이즈 수에 곱하는 평균 데이터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대표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량, 프랜차이즈 수, 관련 배출계수를 활용합니다.

Category 15. 투자 현대자동차가 운영 통제권을 보유하지 않은 투자 대상 기업과 관련된 Scope 3 배출량으로, 현대자동차의 지분율을 투자 대상 기업이 보고한 Scope 1 및 Scope 2 배출량에 적용하는 지분 기반 접근법으로 산정합니다. 투자 대상 기업 공시 자료, 지분 보유 정보, 재무 보고서, 산업별 배출계수를 활용하며, 기업별 데이터가 부재한 경우에는 산업 평균 배출계수를 보조적으로 활용합니다.

기후 관련 목표

탄소중립 목표

현대자동차는 파리협정의 방향성과 목표를 적극 지지하며,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45년까지 차량의 원소재 채취 단계부터 제조, 제품 사용, 폐기까지 전 밸류체인에서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Scope 1+2 배출량은 기준연도인 2024년 대비 2030년까지 약 42%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1.5°C 감축 시나리오에 부합하는 목표로 SBTi(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원소재 생산 및 부품 제조 단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Scope 3 - Category 1)은 주요 협력사의 에너지 전환 지원 및 핵심 원소재 공급망 관리 등을 통해 감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차체 및 섀시 부품의 주요 원자재인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재활용 소재를 활용하고 탄소 배출이 적은 소재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판매된 차량의 사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Scope 3 - Category 11)은 연료·전력 생산 및 공급 단계(Well to Tank) 배출량과 고객의 차량 운행과정(Tank to Wheel)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Scope 3 - Category 11은 기준연도인 2024년 대비 2035년까지 63%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SBTi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나아가 현대자동차는 목표연도인 2045년 잔여 탄소 배출을 처리하기 위해 탄소 포집과 활용 기술인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 Storage)에 투자하고, 폐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로 재활용하거나 해양 생태계를 복원하는 등의 탄소 상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지표 및 목표

이해관계자 참여

현대자동차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와의 협력을 통해 전기차 보급 확대, 환경규제 대응, 국제 협약 선제 대응 등 수송부문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축소됨에 따라 정책 건의 및 협의를 추진하여 인센티브 보완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를 통한 수송부문 전환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2035 국가감축목표(NDC) 논의 초기 단계부터 업계 공동전선을 구축하여 기술중립 원칙 반영, 감축수단 다변화 등 핵심 요구사항을 사회적 의제로 확산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나아가 자동차 전과정평가(LCA) 관련 국제 협력을 위해 UNECE[1] 산하 GRPE[2] 및 A-LCA IWG(Informal Working Group) 회의에 참여하였고, 데이터 품질 등급화 개념을 국제적으로 공론화하는 등 국내외 LCA 기반 구축을 추진하였습니다.

[1] UNEC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UN 유럽경제위원회
[2] GRPE: UNECE 세계자동차기준조화포럼(WP.29) 산하의 오염 및 에너지 분야 작업반

탄소 배출 감축 투자

현대자동차는 사업장의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약 3.5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태양광 자가발전, 외부 재생에너지 조달과 더불어, 수소 밸류체인 확장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내부 탄소 가격

현대자동차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Scope 1·2 배출량을 대상으로 내부 탄소 가격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부 탄소 가격은 Shadow Price 방식으로 탄소 배출에 따른 잠재적 비용을 가정하여 에너지 효율 개선, 저탄소 투자 검토, 저탄소 사업기회 발굴, 비용 편익 분석 등 일부 사업 의사결정 과정에 활용됩니다. 2025년 기준의 내부 탄소 가격은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TS) 거래 가격 기반으로 USD 7~84/tCO_2-eq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됩니다. 향후 내부 탄소 가격의 적용 범위와 활용 방식을 사업 환경 및 규제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목표 달성 계획

사업장 탄소 배출 감축 현대자동차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및 고효율 모터, 인버터 적용 등 생산 공정의 에너지 효율화, 수소 에너지 등을 활용해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RE100 로드맵과 연계하여 제조 과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에너지부터 우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수소사회 구현과 연계하여 주요 제조 공정에 그린수소 적용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전동화 현대자동차는 주행 단계에서의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내연기관차 판매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글로벌 전역에서 전기차 판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형 트럭 및 버스 등 상용차의 경우, 전동화 확대 노력과 더불어 제품의 기술 및 상품성 강화를 통해 전동화 시대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협력사 탄소 배출 감축 지원 현대자동차는 전 세계적 트렌드인 기후변화, 탄소중립 및 ESG 경영에 발맞추어 협력사의 품질과 기술력 향상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 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주요 협력사를 대상으로 탄소 배출 현황을 점검하고, 핵심관리 협력사를 선정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입니다. 더불어 특성에 따라 그룹화된 협력사별로 감축 활동을 진행하고, 탄소중립 교육과 인식 제고를 비롯한 공급망 협업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탄소 배출 비중이 높은 원소재 업체의 경우, 소재 재활용과 신소재 활용 확대 등 자동차 설계 기술 연계 공동대응을 추진할 것입니다.

탄소 상쇄 및 제거 현대자동차는 탄소 배출 감축 외에도 잔여 배출량에 대한 흡수 및 제거 기술 연구에 꾸준히 참여해왔습니다. 산학 연구를 통해 대기 중 탄소 포집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민관 합동 협력을 기반으로 자연자본을 활용한 탄소 상쇄 활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조류 기반 블루카본을 중심으로 바다숲 조성사업에 참여하여 해양 생태계 복원과 탄소흡수 기능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으며,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블루카본 확산 및 제도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목표에 대한 검토 프로세스

설정된 목표의 제3자 검증 여부 현대자동차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글로벌 과학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인 SBTi(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가이드라인에 따라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2025년에는 Scope 1+2 배출량과 Scope 3 (Category 11) 배출량의 단기 감축 목표에 대해 SBTi 승인을 받았습니다.

SBTi Target Dashboard

목표 검토 프로세스 현대자동차는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설정한 목표에 대한 이행 및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이사회는 탄소중립을 포함한 중장기 환경경영 전략 수립, 환경 투자 등 사업전략 추진 및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안건에 대해 검토·승인합니다. CEO 및 다양한 부문의 주요 경영진이 참여하는 C-level 경영위원회(Management Committee Meeting)에서 전기차 확대 전략, 탄소중립 전략 등을 포함한 전사 주요 환경경영 추진계획 및 이행 현황 점검, 개선 성과 검토, 주요 리스크 대응방안 논의, 그 밖의 환경경영 확산·전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Material Topic

순환경제와 자원사용

기후변화와 자원 고갈 문제에 대응하고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제품 설계부터 생산,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자원순환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순환성을 고려한 설계와 지속가능한 소재 적용을 확대하고, 사용 후 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여 자원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 과정에서 자원 효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며, 각국의 생산자책임 규제를 준수하여 순환경제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경영진

협의체

자원순환 협의체 현대자동차는 EU 차량순환성 및 폐차관리 규정(ELVR), 배터리법(EUBR) 등 재활용 관련 규제 대응 및 공통된 방향성 아래 체계적으로 자원순환을 추진하기 위해 '자원순환 협의체'를 통해 유관 부문과 자원순환 최적화 방안을 공동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 협의체는 어젠다에 따라 정기적(매월)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도출된 주요사항 및 방향성은 경영진 대상으로 보고 및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 철강, 알루미늄, 배터리, 모터 등 5대 소재 및 부품을 대상으로 차량 설계부터 폐자원 회수 및 재사용까지 전체 Closed Loop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출되는 분야별 이슈를 분석하고, 설계부터 차량생산까지 전체 순환 밸류체인 상에서 상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솔루션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전략

영향, 위험 및 기회

순환경제와 자원사용 관련 식별 결과

현대자동차는 순환경제 및 자원사용과 관련하여 가치사슬 전반에서 영향 및 위험을 식별하였습니다.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자원 유출 측면에서, 제품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 소재를 적용하고 수명 종료 후 재활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자원 순환 촉진 및 환경 영향 완화에 기여하는 긍정적 영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다운스트림과 업스트림 모두에서 순환경제·EU 배터리 규제 강화로 소재 전환, 기술 개발, 공급망 실사를 위한 비용이 증가하고 규제 미준수 시 판매 금지 및 과징금 부과 등 시장 접근이 제약되는 재무적 위험이 수반됩니다. 자원 사용을 포함한 자원 유입의 경우, 업스트림에서 지속가능한 소재 기술 개발 지연 시 규제 대응 어려움과 원자재 비용 상승의 재무적 위험이 발생하며, 분쟁광물 규제 강화로 공급망 실사·추적 비용 증가 및 규제 위반 시 평판 훼손과 매출 감소의 재무적 위험이 식별되었습니다.

차량 순환성 제고

지속가능한 소재 개발 및 적용 체계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 적용 현대자동차는 중장기적으로 폐기물 제로화, 자연 자원 보존과 가치사슬 전반의 탄소 배출 감축 달성을 위해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 하에 최근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는 주요국들의 차량 재활용 소재 사용 의무화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차량 재활용 소재 기술개발 및 양산차 적용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양산차 적용 체계 강화를 위해 '재활용 플라스틱 확대 적용 전사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사 협의회에서는 2024년 재활용 플라스틱 개발 관련 제반 사항을 집대성한 재활용 플라스틱 가이드를 제작하였습니다. 이번 가이드를 기반으로 재활용 플라스틱 개발 적용을 일관되게 진행하여 재활용 플라스틱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였고, 전사 임직원들의 관련 부문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재활용 플라스틱을 차량에 의무 적용해야 하는 EU ELVR 시행을 대비하여, 재생원료의 차량 적용 비율을 연도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고, 법규 대응 수준을 모니터링하는 프로세스 및 재활용 정보 관리 시스템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차량 내 플라스틱 부품 비율이 가장 높은 내/외장 부품을 비롯하여 샤시, 차체, 전동화 등 차량 부품에 대해 재활용 플라스틱 개발 계획을 보다 정교하게 차량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바이오 소재 적용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선형 경제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필수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재활용 플라스틱과 더불어 바이오 소재를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천연물은 성장 과정에서 대기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이러한 천연물을 직접 이용하거나 화학적 방법으로 원료화하여 바이오 기반 소재로 변환하고, 자동차 부품에 적용하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지상에 고정시키는 Carbon Fixation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천연섬유, 패각, 사과껍질 등의 다양한 천연 바이오 원료 기반의 기술 개발과 함께, 바이오매스를 출발물질로 합성하여 만들어진 플라스틱의 부품화 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바이오매스 기반의 소프트 도장 소재 개발을 완료하여 내장재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대기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이중의 환경가치를 창출합니다. 현대자동차는 바이오 소재의 성능과 경제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향후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순환경제와 자원사용

전략

Car to Car 프로젝트 현대자동차는 자동차의 자원순환을 위해서 폐차 부품을 재활용하여 개발된 소재를 다시 신차에 적용하는 'Car to Car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자동차 주요 소재인 플라스틱, 철강, 알루미늄과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모터를 5개 Car to Car 핵심 소재 및 부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Car to Car 프로젝트를 통해 5개의 핵심 소재와 부품의 재활용 기술을 내재화하여 고품질의 재생원료를 확보하고, 원가 경쟁력을 갖춰 차량의 순환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자동차 자원순환 공급망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지속가능한 소재 기술개발 협력 현대자동차는 국내외 소재업체, 부품 협력사와 재활용, 바이오 등 지속가능한 소재 개발 및 차량 적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2025년 코오롱글로텍 및 휴비스, PUcore 등과 함께 폐차에서 발생되는 시트 벨트 및 시트폼 등을 물리적 재활용과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차 부품에 적용 가능한 재활용 소재를 개발하였고, 기존 소재와 동등 수준의 부품 성능 확보를 통해서 향후 생산 및 판매 예정인 차종에 카매트 및 도어트림 부품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2025년 폐차 플라스틱 부품인 시트벨트 및 시트폼, 내장트림류 부품 등을 폐차에서 회수하여 카매트 및 도어트림, 시트, 내장 가니시류 부품용 재활용 플라스틱을 개발 완료하였으며, 2026년 판매 차종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EU ELVR 대응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 감축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도 여러 폐차 부품을 다시 자동차 부품에 적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소재 및 재활용 기술 개발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재활용 PET 스웨이드 내장재(헤드라이닝, 선바이저)

지속가능한 소재의 적용 사례

현대자동차는 매년 전기차 신모델 중심으로 재활용 및 천연소재 적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소재의 경우 폐차에서 회수된 폐소재를 재활용하는 '소재 순환체계(Material Closed Loop)'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PET병, 폐어망 등 자동차 산업 외 타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재자원화(Open Loop)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천연소재는 옥수수, 사탕수수, 유채 씨앗 등 자연 부산물에 기반한 바이오 소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이오닉 6 재활용 PET 가공 원사, 바이오 원사, 바이오 TPO 스킨 등의 재생가능한 소재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바다에 버려진 폐어망을 재활용한 재생소재(ECONYL®)가 유럽 판매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 플로어 매트에 적용되었으며, 아이오닉 5 N에 이어 아이오닉 6에도 폐타이어에서 추출된 안료를 첨가한 페인트가 범퍼 로워 커버 등 외장 부품에 사용되었습니다.

아이오닉 9 아이오닉 라인업의 최상위 차종인 아이오닉 9에는 재활용 PET 가공 원사, 바이오 TPO 스킨, 바이오 인조가죽 등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에 사용된 재생가능한 소재가 적용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BIO PU(바이오 폴리우레탄) 이미지가 적용된 크래시패드와 BIO 스웨이드가 적용된 헤드라이너가 추가 적용되었습니다.

제네시스 전기차 GV60, Electrified GV70, Electrified G80의 헤드라이너, 필라트림, 선바이저, 패키지트레이 등에도 재활용 및 바이오 소재가 적용되었으며, Electrified GV70의 경우 헤드레스트 앞면과 시트 사이드에 울(Wool)이 30% 함유된 천연원단을 사용하였으며, Electrified G80에는 자투리 나무조각으로 만든 포지드우드(Forged Wood) 장식이 적용되었습니다.

디 올 뉴 넥쏘 현대자동차 최초로 외장 범퍼 및 클래딩에 적용된 폐차 재활용 플라스틱을 비롯해 바이오 프로세스 가죽, 바이오 폴리우레탄 가죽, 바이오 페인트, 바이오 플라스틱, 재활용 PET 원단, 리넨 원단 등 지속가능한 소재를 내·외장재 곳곳에 적극 사용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소재 개발 현황

부품명	소재 (재활용 함량)	내용
FEM 캐리어	PA6-GF30 (생활계 재생원료 함량 35%)	폐어망을 재활용한 재생원료 35% 이상 소재 개발 중
	PP-LGF40 (생활계 재생원료 함량 30%)	생활계 재생원료 활용하여 유동성 개선 FEM 캐리어용 소재 개발 중
펜더 인슐레이터	PP-TD20 (폐차 부품 재생원료 함량 30%)	폐차 부품 및 생활계 폐기물을 재활용한 재생원료 30% 이상 소재 개발 중
펜더 사이드 커버	PP-TD40 (폐차 부품 재생원료 함량 50%)	폐차 부품을 재활용한 재생원료 50% 소재 개발 중
대시 인슐레이터	PET (PCR[1] 60%) + PU foam (cPIR[2] 3%)	재생원료 60%의 PET와 재활용 폴리올을 적용한 폴리우레탄 폼을 개발 중

[1] PCR: Post-Consumer Recycled, 소비 후 재활용 원료
[2] cPIR: chemically recycled Post-Industrial Recycled, 산업 공정 부산물 화학적 재활용 원료

내장트림
- 폐차 시트벨트 재활용한 재생원료 함량 20% 카매트용 부직포를 개발 중
- 재생원료 70% 함량 생활계 재활용 플라스틱을 필러 트림 및 가니시 트림 부품용으로 개발 중

시트 & 도어트림
- 코인젝션 공법을 활용하여 폐차 범퍼 커버를 재활용하여 무도장 도어 트림 부품 및 소재 개발
- 폐차 시트 패드를 신차 시트 패드로 화학적 재활용하는 기술 선행 개발 완료

캑핏 & 공조
- 폐내장 부품 활용 스피커 그릴용 PP 소재 개발 중이며, 페에어백 활용 엔진 커버 및 실린더 헤드용 재활용 플라스틱 PA66 소재 개발
- 폐차 램프 부품을 재활용하여 내장재용 PC+ABS 소재 개발

순환경제와 자원사용

전략

배터리 순환 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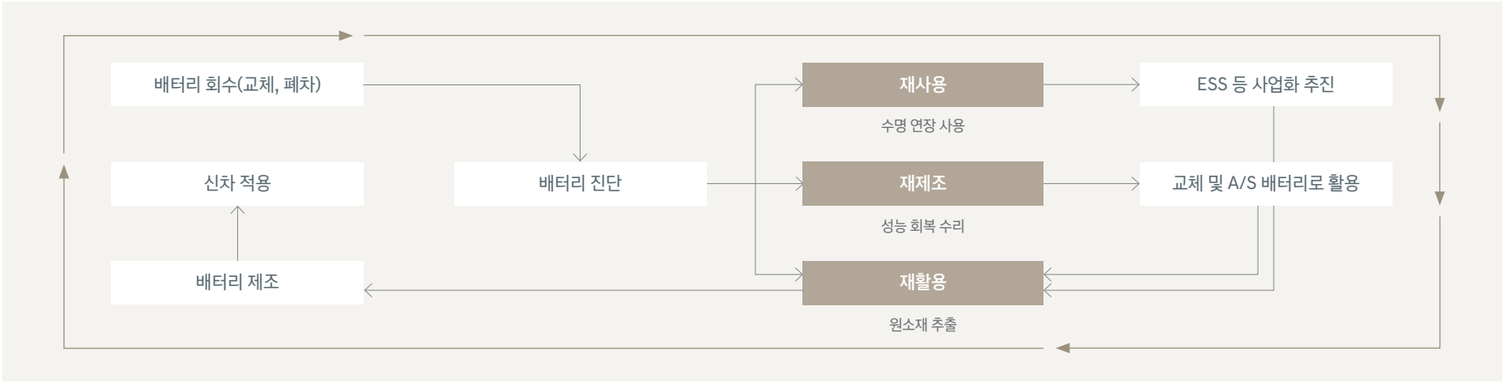
그룹 배터리 순환 협력체계 구축 현대자동차는 배터리 라이프사이클에 기반하여 전기차 폐차 이후 발생하는 폐배터리에 대한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배터리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라이프사이클은 배터리 원소재를 활용한 배터리 셀 제조에서 전기차용 배터리 시스템의 제작,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과 최종 폐기된 배터리의 소재 추출 및 추출된 소재를 배터리 제조에 다시 적용하는 지속가능한 배터리 순환 루프로 구성됩니다. 현대자동차는 배터리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쳐 현대자동차그룹 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배터리 전후방 사업 점검 및 관련 역량 확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판매·서비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폐배터리 확보 체계를 구축하고, 재사용·재제조가 어려운 배터리에서 코발트·리튬·니켈 등 핵심 소재를 회수해 배터리 제조공정에 연결하는 순환체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글로벌 물류망을 기반으로 폐배터리를 재사용, 재활용 사업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회수 배터리를 선별·재제조해 노후 전기차 및 수리용(A/S)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기초소재연구센터에서는 2035년 이후로 예상되는 폐배터리 대량 발생 시점에 대비하여 재활용 기술 개발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재활용 기술력을 보유한 파트너사들과 함께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공정별 요소 기술과 차세대 신기술에 대해 개발 및 실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배터리 재활용 공정의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함과 동시에 재활용 기술 밸류체인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회수 현대자동차는 그룹사인 현대글로비스와 협업하여 전 세계 폐차장과 딜러 및 A/S 센터, BaaS(Battery as a Service) 사업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배출되는 폐배터리를 체계적으로 회수하고 운반하기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운송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글로비스와 협업하여 회수된 배터리에 대한 진단 및 전처리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글로비스는 취급이 까다로운 사용 후 배터리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송할 수 있는 전용 플랫폼 용기를 개발하여 특허를 획득하였으며, 폐배터리 전처리 기술을 보유한 (주)이알과 협업하여 운송이 용이하고 유가금속 확보가 가능한 블랙파우더 확보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가별로 복잡하고 다양한 각종 규제를 충족하는 물류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순환 체계도



폐배터리 재사용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ESS 용도로 재사용하는 실증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국내 최초로 폐배터리 재사용 전력용 ESS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받았으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실증 협력사인 OCI 스페셜티 공주공장에 각각 2MWh, 300kWh급의 ESS를 구축하였습니다. 2021년 1월 태양광 연계 상업운전을 개시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4월에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하여 부산 에코델타스마트시티에 400kWh급 ESS를 신규 구축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그룹사 협업을 통해, 다양한 차종에서 발생하는 폐배터리의 회수·진단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재사용 ESS 실증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술적·사업적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용 배터리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친 순환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재제조 현대자동차는 배터리 생애주기의 비교적 초기 단계에서 발생한 폐배터리 중 잔존수명과 안전성 등 기술적 평가를 통해 최상위 품질의 배터리를 선별해 A/S용 배터리로 재제조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재제조는 사용 수명을 연장해 자원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신규 공정 부담과 부대비용을 최소화해 높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HMG 재제조 표준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회수 배터리의 입고·검사·분해·조립 기준을 체계화하여 품질 확보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요 시장에서 재제조 사업을 본격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북미 지역에서 배터리 전문 재제조사와 협력해 '고객-딜러-물류-재제조사'로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북미 최초로 배터리 재제조 서비스를 도입하여 350건의 재제조품 공급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동안 재제조를 추진해 온 국내와 유럽에서도 다양한 재제조 파트너사와 협력해 대상 차종을 확대해 왔으며, 2025년에는 각각 555건과 722건의 재제조품 공급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도 현대모비스와의 협업을 통해 교체 부품 회수를 포함한 재제조 물류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는 보증수리 중심으로 재제조품이 공급되고 있으나, 향후 일반 수리 영역까지 확대될 경우 고객 선택권이 넓어짐에 따라 고객 가치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순환경제와 자원사용

전략

폐배터리 원소재 재활용 현대자동차의 배터리 순환체계에서 재제조 및 재사용 불가로 판단된 폐배터리는 파쇄하여 리튬, 코발트, 니켈 등 유가 금속을 추출하는 재활용 사업으로 연계됩니다. 현대자동차는 미래에 대량으로 발생하는 폐배터리를 지속가능하고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원소재를 배터리 제조공정에 연결하여 배터리 순환 체계를 완성시키고자 합니다. 특히 국내외 파트너십을 통해 직접재활용 기술과 전기화학방식 금속 회수 기술 등에 대해 PoC(Proof of Concept, 개념 검증)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자동차는 배터리 순환 체계를 통해 권역 내에서의 배터리 원소재 공급 능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전기차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폐배터리 재활용 생태계 구축 현대자동차는 그룹사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외 기업과의 협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룹 배터리 순환 체계 내에서 폐배터리 회수 및 처리하여 재활용 사업에 연결을 담당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는 배터리 재활용 전후방 사업 업무협약 등을 체결함으로써 재활용 사업 밸류체인을 강화하고 있으며, 각각 전처리 및 후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배터리 순환을 위한 기반 체계를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인도네시아 합작법인(JV) 제조 스크랩을 중심으로 한 순환경제를 우선 구축하고 중장기 폐배터리 재활용을 확대하는 중장기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셀제조사 및 소재사들과 재활용 메탈 생산, 제조 라인 투입을 위한 품질 검증까지 단계적으로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화유리사이클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회수한 스크랩과 폐배터리의 전처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고객 배터리 케어 프로그램 현대자동차는 배터리업체와 함께 개발 단계에서 배터리 내구성, 재활용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고객 사용단계에서 배터리 사용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고객이 전기차 리스 시 배터리 잔존가치를 선반영하여 리스가격을 인하하고 배터리 상태가 양호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고객 배터리 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으로 고객들이 스스로 배터리 성능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배터리 사용 효율 제고는 물론 배터리 수명 연장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폐차 순환 체계 구축

폐차 서비스 현대자동차 차량은 폐차장으로 운송되어 회수물질의 실내보관, 모든 회수부품 및 물질의 재활용 등 국내에서 폐차를 희망하는 고객의 요구에 맞추어, 차량의 회수·해체·재활용 등 폐차 처리를 지원하는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폐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현대자동차는 고객이 희망하는 일자 및 장소에서 폐차할 차량을 인수합니다.

폐차 회수 및 재활용 현대자동차는 포장재와 전자제품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자동차 부문 도입 추진의 당위성을 증명하고자 2011년부터 환경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폐자동차 자원순환체계 선진화 시범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폐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차량 해체 매뉴얼 제공 및 교육을 진행하여, 경제성이 있어 유상거래가 가능한 유가자원과 그렇지 않은 비유가 자원을 구분하고 적절한 처리 방법을 안내함으로써 재활용을 용이하게 합니다. 또한, 기후 및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물질인 폐냉매, 차량 파쇄 후 나오는 철 스크랩, 폐차 파쇄잔재물 등의 수거 및 처리를 지원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소재에 대한 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등 폐차 처리업체와 협업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폐차 시 회수한 자원량은 약 20만 톤이며, 폐차 재활용률은 열회수 제외 시 82.8%를 달성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폐차 회수와 재활용을 통해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재활용 업체들에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자동차 산업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원순환을 촉진하려는 노력입니다.

폐차 처리 원칙



자원 사용

투입자원 관리

원자재 공급망 상황, 지정학적 이슈 등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변동은 재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현대자동차는 원자재 사용 효율화 및 재활용 추진을 통해 원자재로부터 촉발될 수 있는 원가 상승, 수급 불안, 자연자본 고갈 등의 대내외 리스크를 대응하고자 합니다. 차량 제조 시 철, 알루미늄, 플라스틱, 유리, 목재, 고무, 핵심광물 등 다양한 소재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생산공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원부자재는 강판(철), 알루미늄, 페인트, 시너 등입니다. 강판(철)과 알루미늄이 주로 차체공장에 사용되고 있으며 프레스 공정에서 발생되는 철과 알루미늄 스크랩의 경우 외부 매각을 통해 전량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유리, 목재, 고무, 핵심광물 등은 부품 협력사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제품개발 단계에서 재활용 소재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소재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소재업체, 부품 협력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핵심광물 전기차 배터리 제조 시 내연기관차 대비 핵심광물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기차가 내연기관차 대비 핵심광물이 6배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또한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 등 핵심광물은 배터리 성능, 내구성 및 에너지 밀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수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대자동차는 핵심광물과 연관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배터리 개발 단계에서 핵심광물 함유를 줄인 보급형 배터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개발하고 있는 보급형 NCM(Ni, Co, Mn) 배터리의 경우 현재 사용되는 NCM 배터리 대비 배터리 개발단계에서 니켈 함유량을 줄여 핵심광물 사용 절감을 실현할 예정입니다.

순환경제와 자원사용

전략

배출물질 관리

폐기물 현대자동차는 각 생산공장별로 유형별, 처리방식별 폐기물 배출량과 재활용량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사업장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는 H-SAT (Hyundai-Safety Assessment Tool)을 통해 국내외 사업장 폐기물 관리 현황을 점검 및 실사 진행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매년 ISO 14001 심사를 통해 폐기물 관리에 대한 제3자 기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특히 생산량 증가와 연동해서 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내외부 환경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폐기물 중 금속류의 폐기물은 재활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폐페인트, 폐신너, 포장재, 슬러지 폐기물까지 재활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별로 폐기물 및 재활용 설비 투자 역시 매년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단일 생산공장별로 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 매립 저감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생산법인은 전사적 폐기물 감축 프로그램을 통해 금속류 스크랩, 폐화합물 절감을 추진하여 연간 폐기물 발생량 883톤을 저감했습니다. 튀르키예생산법인은 전사 폐기물 분리배출 뿐만 아니라 생산 부서의 폐기물 감축 활동 및 자재 재사용을 통해 폐기물 처리량과 처리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아산공장과 브라질생산법인은 폐기물 매립 제로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아산공장은 높은 재활용 비율과 매립 최소화 실적을 기반으로 국제 안전과학 인증 기관 UL 솔루션의 폐기물 매립 제로(Zero Waste To Landfill, ZWTL) 대외 인증에서 Platinum 등급(재활용률 100%)을 획득하였습니다. 브라질공장은 브라질 인증기관 PCN Do Brasil과 브라질 산업품질도량형 연구소(INMETRO)로부터 폐기물 관리 책임기업 인증(Responsible Company Seal) 최고 등급인 다이아몬드 등급을 획득하였으며, ILZB(Instituto Lixo Zero Brasil)로부터 폐기물 제로 인증(Zero Waste Institute)을 획득하였습니다. 전주공장은 폐합성수지 처리 방식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소각 또는 매립 방식에서 벗어나 재활용 및 고형연료화 등 자원순환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대자동차는 매년 환경정책을 기반으로 임직원 대상 환경교육 및 캠페인을 시행함으로써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확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5년 본사는 국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기물 순환성을 향상시키는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산공장에서는 '폐현수막을 활용한 보냉백 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사용 만료된 현수막을 수거하여 공장 아침 간편식 배송용 보냉백으로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 감량은 물론 일회용 비닐 사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전주공장에서는 7년간 추진해온 다회용기 사용 촉진 사업의 일환으로, 다중이용시설 내 다회용 텀블러 사용 캠페인을 전개하여 사내 카페에서 일회용컵 대신 다회용 텀블러 사용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일회용컵 사용을 줄였습니다. 한편 본사에서는 임직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이오닉 등 현대자동차 전기차에 적용된 폐기물 재활용 원료 및 자연재료를 활용한 지속가능 소재 개발 사례를 소개하고, 폐자원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제품인 업사이클 가방, 전등 등을 전시함으로써 폐기물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을 높여 폐기물 재활용 확대를 선도하였습니다.

위험 관리

위험 관리 프로세스

순환경제와 자원사용 관련 위험 관리 방법

현대자동차는 순환경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자원, 공급망 및 운영 리스크를 주요 관리 대상으로 식별하고, 이를 제품 개발과 사업 운영 전반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EU ELVR 개정 등 글로벌 자원순환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규 및 시장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성과 회수가능성을 고려하는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잠재적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EU ELVR 및 글로벌 재활용가능성 기준에 대응하기 위해 재활용가능률 85% 이상, 회수가능률 95% 이상을 안정적으로 충족하는 차량 개발 체계를 구축하여 법규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활용 플라스틱 적용 확대, 배터리 순환 생태계 구축, 대체 소재 개발 등 자원순환 기반의 기술적 대응을 통해 원재료 수급 불안과 핵심 자원 의존도 심화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고 있으며, 물 부족 등 기후·환경 변화로 인한 운영 리스크에 대해서도 고위험 사업장 중심의 예방적 관리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대자동차는 순환경제 관련 리스크를 단순한 환경 이슈가 아닌 중장기적 기업가치와 사업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위험요인으로 인식하고, 전사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환경제와 자원사용

지표 및 목표

지표

원자재 사용량 및 스크랩량

현대자동차는 주요 원부자재 중 철과 알루미늄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스크랩량을 함께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원부자재 사용을 도모합니다.

(단위: 톤)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철/알루미늄 사용량[1]	1,387,729	1,376,276	1,294,483
철/알루미늄 스크랩량	449,781	448,386	512,916

[1] 생산 공장 내로 반입되어 공정에 직접 투입된 양을 기준으로 하며, 외부에서 구매한 반제품, 부품 등의 원자재량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폐기물

현대자동차는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기물 발생량과 전환 실적을 폐기물 유형 및 처리 방법별로 세분화하여 집계합니다. 폐기물 전환량과 전환율을 통해 자원순환 체계의 운영 성과를 확인합니다.

(단위: 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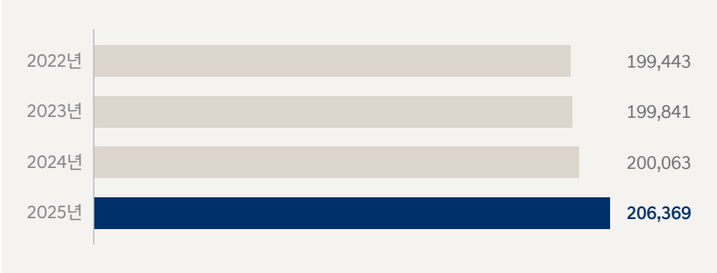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폐기물 발생량[1]	1,026,599	910,206	927,556
폐기물 전환량[2]	960,536	834,571	845,177
폐기물 전환율	93.6	91.7	91.1

[1] 일부 사업장이 과거 데이터를 수정하여 사업장 합산 수치를 정정하여 공시함
[2] 기타 전환을 포함한 전환량

폐차 회수 자원량

현대자동차는 폐차 회수 및 재활용 체계를 통해 철강, 비철금속, 플라스틱 등 다양한 자원을 회수하고, 전체 회수 자원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차 회수 자원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5년에는 국내 기준 약 20만 톤의 자원을 회수함으로써 자원 순환에 기여하였습니다.

(단위: 톤)



오염 및 수자원

현대자동차는 최고의사결정기구가 참여하는 환경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환경경영 정책에 의거하여 전사 차원에서 환경경영 이행을 관리·감독하는 등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을 위한 환경경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오염 및 수자원 관리 활동을 통해 자연과 인간 가치를 존중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생산 공정 전반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설비 교체 및 신규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내 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해물질의 경우 환경 영향뿐만 아니라 유관 부문 임직원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법적 규제는 물론 글로벌 이니셔티브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의사결정기구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환경경영 추진 성과, 주요 리스크 요인 및 개선활동 등을 상시 보고받으며 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기후변화 리스크 재무 영향과 EU 택소노미 재무 실적 산출 프로세스 구축 등을 포함한 7대 ESG 중점과제를 상반기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중장기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업데이트한 2045년 탄소중립 전략에 대해 지속가능경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2025년에는 현대자동차 사업장 환경경영을 포함한 ESG 추진 전략을 승인받았으며, 사업장 ESG 진단실사 결과에 대해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경영진

C-level 경영위원회(Management Committee Meeting)

대표이사(CEO)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이 참여하는 C-level 경영위원회(Management Committee Meeting)를 통해 탄소 배출 감축을 비롯한 ESG 중점과제와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사업장의 안전/환경/보건 관리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인 CSO(Chief Safety Officer)를 선임하여 환경경영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협의체 및 전담 조직

현대자동차는 환경경영 이행을 위해 CEO와 CSO 책임 하에 전사 총괄 조직 및 사업장별 운영 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상호 협의 과정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사 총괄 조직 현대자동차 본사 총괄 조직은 국내외 지속가능한 환경경영 이행 및 사업장 환경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전사 환경경영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합니다. 환경사고 리스크 대응 체계 구축, 환경 관리 KPI(성과지표) 기획 운영, 환경규제 대응, 환경 투자/문화/기술/교육 총괄에 대한 기획 및 관리 등과 같은 업무를 통해 현대자동차의 환경경영 체계 운영에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관리 조직 사업장별 관리 조직은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 환경규제 이행 준수, 사업장 환경효율성 제고, 사업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 관리를 위한 설비 운영, 정책 시행, 환경 리스크 파악 및 개선, 환경경영 확산/전파, 환경 관련 고충 접수와 처리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연구개발 조직 현대자동차 R&D센터를 중심으로 전동화 차량 개발을 통한 차량의 탄소 및 유해가스 배출 저감, 재활용을 고려한 자원순환 설계, 제품 환경영향평가(LCA) 수행, 지속가능한 소재 개발, 유해물질 함유 대체,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개발 등 제품 환경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저탄소 제품 개발 등의 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 정책

현대자동차는 환경을 기업 경영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환경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경영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대내외 환경 규제와 글로벌 환경 이슈, 시장 및 사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기후변화 대응, 오염물질 저감, 생물다양성 보호, 순환경제 구축, 협력사 환경경영 지원 등 주요 환경 관리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대자동차와 모든 자회사 및 사업 단위는 해당 정책을 기반으로 사업활동과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영향을 관리하고 환경성과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와 계약 파트너 등 공급망 전반이 환경경영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책 준수를 권고하고 관련 협력 및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장이 소재한 각 국가의 환경 관련 법·규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관련 규정이 미비한 경우에는 자체 환경경영 정책을 기준으로 환경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환경 인식 제고 교육,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공급망 협력 프로그램 등을 통해 환경경영 정책이 실제 사업 운영 전반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환경경영 정책

환경경영 이행 체계

현대자동차는 1) 법령 및 규제 준수, 2) 환경경영 정책 수립 및 개정, 3)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및 관리규정 도입, 4) 환경 성과 및 데이터 점검, 5) 리스크 점검 및 개선 추진, 6) 환경성과 개선활동 등과 같은 환경경영을 'Plan-Do-Check-Action' 과정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국내 모든 사업장과 해외 생산공장은 환경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14001를 기반으로 환경경영시스템(EMS)을 구축하고 있으며, 신뢰성 및 공신력 확보를 위해 제3자 기관으로부터 ISO 14001 인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사업장의 경우, ISO 14001 통합인증을 통해 전사적으로 일원화된 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 환경경영 수준과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오염 및 수자원

거버넌스

환경투자 계획 및 이행

현대자동차는 중장기 전동화 전략 달성을 위해 2033년까지 120.5조 원(R&D 54.4조 원, 설비투자 51.6조 원, 전략투자 14.4조 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의 2025년 환경투자 예산은 21,786억 원이었고, 실제 투자 이행금액 역시 전년 대비 2배가량 증가한 19,438억 원입니다. 사업장 환경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환경설비 투자에는 21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해외사업장 환경설비 투자는 집계실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신공장 건설 등 대규모 투자 시행에 앞서 환경 영향평가(E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있습니다.

환경사고 및 규제 대응 체계

현대자동차는 국제 안전·보건·환경(SH&E) 표준에 기반하여 각종 환경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상황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본사 및 각 사업장은 비상대응 조직과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방재시설 및 장비 현황을 포함한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임직원에게 숙지시키며, 환경사고 시나리오 기반의 부서별 비상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사업장은 환경 담당자 대상 협의체와 현대차-기아 화학물질 협의체 등을 통해 주요 환경 규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요 해외 사업장인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는 환경사고 예방 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유출사고 대응 모의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략

영향, 위험 및 기회

오염 및 수자원 관련 식별 결과

현대자동차는 오염 및 수자원과 관련하여 가치사슬 전반에서 다음과 같은 중대한 영향 및 위험을 식별하였습니다. 대기오염과 관련하여, 자체 공정 및 다운스트림 내연기관차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이 인간 건강과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배출가스 규제 강화에 따른 판매 제한 확대 및 저배출 차량 개발 비용 증가 등 재무적 위험도 수반됩니다. 수질오염 측면에서는, 생산·운송 과정의 오염물질 유출이 수계·해양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환경 복구 비용·법적 제재 등 재무적 위험이 증가합니다. 미세플라스틱의 경우 업스트림 타이어 마모로 발생한 미세플라스틱이 해양 생태계 및 인간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물 사용과 관련하여 대량 용수 사용이 물 부족 지역의 수자원 가용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수자원 확보 비용 증가 및 생산 차질 등 재무적 위험이 식별되었습니다.

전략 및 의사결정

대기오염물질

현대자동차는 사업장이 소재한 국가의 법적 허용 기준치를 참조해서 사내 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내 관리 기준에 따라 대기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PM)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적 기준치를 준수하여 배출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전 2개년 대기오염물질 배출실적 이하의 목표 범위를 설정하여 매년 사업장별 자체 배출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대비 실적 평가를 통해 배출량이 생산량 증가와 맞물려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사업장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집진시설 및 배기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도장공장의 노후 배기 덕트를 보완하고 유해물질 제거 설비를 정비하였으며, 소재공장에서는 분진 포집 집진기를 교체하고 유기화합물 저장시설에 활성탄집진기를 신규 설치하여 대기 배출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는 Touch-up 공정에서 사용하는 유성도료를 수성도료로 전환함으로써 기존 대비 약 80% 이상 VOC 배출을 감축하여 대기질 개선과 환경 규제 준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물질

현대자동차는 각 생산공장에서 사용한 폐수를 방류하기 전, 각 국가 및 지역에서 규제하는 방류수 오염물질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보다 고도화된 처리를 통해 대부분 법정기준치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방류수에 대한 오염물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생산공장별 방류수 내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총유기탄소량(TOC), 부유물질량(SS) 등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도장 및 세척공장에서 발생하는 총 질소(T-N)과 총 인(T-P) 등의 수질오염물질도 측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 자료와 직전 2개년 수질오염물질 배출 실적 이하의 목표 범위를 설정하여 매년 사업장별 자체 배출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대비 실적 평가를 통해 배출량이 생산량 증가와 맞물려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폐수를 방류하기 전 물리·화학적 처리뿐만 아니라 3차 처리인 고도처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사업장에서는 미처리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노후 펌프 및 배관 교체, 폭기 시스템 개선, 슬러지 처리 설비 신규 도입 등 수질오염물질 저감 및 처리 효율 향상을 위한 공정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염 및 수자원

전략

유해물질

유해물질 관리 현대자동차는 유해물질을 사용금지, 사용제한, 관리강화 3단계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국제 기준 및 국내외 법규를 기반으로 고위험 규제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대체물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수많은 부품이 필요하므로 협력사에도 동일한 유해물질 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납품 제품 내 규제물질 함유를 차단하고 있으며, 협력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내외 유해물질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자체 대응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설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누출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IMDS(International Material Data System) 사용자 교육을 통해 데이터 정합성을 높여 공급망 전반의 유해물질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물질 정보 조사·분석 현대자동차는 EU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미국 TSCA(Toxic Substances Control Act), 한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제하는 물질들의 제품 함유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품 점검은 신차 개발단계와 양산 이후 단계 등 두 단계에 걸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차 개발 및 설계 단계에서 국제 부품 재질 정보 시스템인 IMDS와 내부 차량부품 재질 분석 시스템 MAMS(Material Analysis Management System)를 기반으로 부품 내 화학물질 구성 정보를 파악하여 규제물질 함유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1차 물질 정보 점검 결과를 토대로 고위험 부품 대상으로 프로토 및 파일럿 시제 부품들을 분석하여 해당 부품에 대한 함유 여부를 추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양산 이후에는 협력사 대상 정기 점검조사 시, 부품 실물 및 재료 분석 조사를 실시하여 양산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는 물질 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규제 및 이니셔티브 대응 현대자동차는 유해물질에 대한 국제적 규제와 기준, 이니셔티브를 지지합니다.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에 대한 사용 금지·제한 규제가 확정되기 이전부터 대체물질을 개발·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가장 선도적으로 유해물질을 규제하는 EU ELVR(End-of-Life Cycle Regulation) 및 REACH 규제, 미국의 TSCA뿐만 아니라 브라질, 인도 등에서 규제하는 고위험 물질에 대해서도 대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살생물제 규제와 관련하여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정부와 합동으로 '살생물제 규제대응 가이드라인-자동차편'을 제작하여 대응하는 등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럽과 북미에서 규제가 논의 중인 과불화화합물(PFAS)에 대해서는 예상 규제시점(2029년 전망) 이전 사용금지를 목표로 대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대자동차는 과불화화합물의 대체물질을 파악하고 적용하기 위해 원소재 및 부품업체와 협력하고 있으며 R&D센터 내 유해물질 관리 조직과 재료 및 설계파트, 구매본부 등이 참여하는 전사 PFAS 협의체를 구축하여 대응 중입니다. 향후 현대자동차는 과불화화합물 규제 대상 차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대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용수

현대자동차는 각 생산공장별로 용수 사용량, 재활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장 평가와 ISO 14001 인증 심사 결과를 기반으로 용수 효율성 관리 및 수질오염물질 저감의 기회요인들을 파악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량 증가와 연동해서 용수 사용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용수 효율성을 관리하고 있으며, 용수 재활용량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현대자동차는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s Institute)의 수자원 리스크 평가 도구(Aqueduct Water Risk Atlas)를 토대로 사업장별 용수 리스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경현대기차유한공사, 현대상용기차유한공사, 인도권역본부 첸나이 공장, 푸네 공장, 현대 멕시코의 용수 리스크가 매우 높은 것으로(Extremely High) 파악되었고, 용수 리스크가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용수 효율 개선과 재활용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일 생산공장별로 용수 사용량 감축과 재활용 확대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극심한 물부족을 겪고 있는 인도 첸나이지역에 위치한 첸나이공장과 국내 아산공장은 폐수 무방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용수를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첸나이공장은 물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용수 자급자족 달성을 목표로 용수 재활용 및 빗물 집수·저장 체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무방류 시스템을 통해 용수를 재활용하고, 빗물 집수 시스템과 6개의 저수지(최대 33.5만 톤 저장)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 전역 서비스센터에서는 물 사용 없이 차량을 세차하는 '드라이 워시 서비스'를 도입하여 차량 1대당 약 120리터의 물 사용을 절감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6억 5천만 리터 이상의 용수 절감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튀르키예생산법인의 경우 전체 용수 사용량의 약 38%를 산업단지 관리주체로부터 공급수로 대체하여 수자원 사용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생산법인은 냉각수 재사용 주기를 기존 3~4회에서 최대 8회까지 확대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26년 말까지 연간 냉각수 용수 사용량을 약 33% 수준으로 감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경현대기차유한공사는 수자원의 전 생애주기를 고려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절수형 설비 도입, 정기적인 설비 유지보수, 직원 대상 생활용수 절약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생산법인은 도장공장 내 스프레이 세척 공정에서 발생하는 물을 재이용함으로써 연간 약 2,560톤의 용수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매년 환경정책 기반으로 임직원 대상 환경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용수 절감 및 재활용 확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센터에서는 임직원 대상 용수 및 에너지 절감을 촉구하는 SNS 문자메시지를 공유하며 용수 절약을 유도하였으며, 첸나이공장은 UN이 지정한 세계 물의 날(3월 22일)에 맞추어 임직원을 대상으로 물의 중요성과 위급성을 알리는 포스터를 전시하고 물을 절약할 수 있는 실천 팁(Water Saving Tips)들을 제시하며 물 절약을 유도하였습니다.

오염 및 수자원

전략

환경경영 지원

환경교육 현대자동차는 환경 규제, 전사 환경경영 목표 및 계획, 환경경영 우수사례 및 주요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기타 벤치마킹 결과 등을 반영하여 매년 환경 교육과정을 최신화하고, 환경 담당자 역량 향상을 위한 환경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법, 규제 등 전문 교육, 세미나 및 박람회 참석, ISO 심사원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총 55,737명의 임직원이 환경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임직원이 이수한 교육 프로그램의 총 운영시간은 105,638시간입니다. 임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사 대상으로도 환경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ESG 교육 과정을 통해 환경경영 필요성 및 협력사의 역할을 전달하고 있으며, 별도 집체과정, 세미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 채널 임직원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환경 관련 고충을 접수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된 고충은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리·통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하거나, 지역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등 법·규제 위반가능성이 높은 고충은 법무실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BUSINESS CASE

사업장 환경 이니셔티브

현대자동차는 국내 및 해외 사업장별 정량적 환경 지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함과 동시에 정성적 측면에서 국내 및 해외사업장별 환경개선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성적 활동들도 정량적 지표와 더불어 사업장의 성과지표에 포함되어 사업장들의 환경성과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생산법인(HMB)

브라질생산법인은 2018년 자동차 업계 최초로 'Hyundai Zero Landfill' 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제로 웨이스트(Global Zero Waste) 계열사로서 선도적인 폐기물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재활용 가능, 유해, 유기물 등으로 분류하여 안전하게 보관하고, 폐기물 운송 명세서(MTR) 발행을 통해 운송 및 최종 처리 과정까지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Antares사와 협력하여 차량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산염 슬러지를 재활용 비료의 원료로 전환하는 선구적인 프로젝트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70톤의 지속가능한 비료 생산이 가능하며, 인과 아연 등의 원료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미국생산법인(HMMA)

미국생산법인은 냉각탑 용수 화학 개선 프로젝트를 통해 수자원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현지 상수도의 높은 미네랄 함량으로 인한 스케일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 엔지니어링팀은 화학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산성 약품 주입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화학 약품 주입 시스템 설치, 배관 및 시스템 최적화 등의 개선 작업을 통해 냉각 시스템의 스케일 방지 성능을 향상시켰으며, 이를 통해 연간 용수 사용량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프로젝트는 운영 비용 절감과 수자원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수처리 공정 혁신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생산법인(HMMI)

인도네시아생산법인은 2025년 11월 '현대 에코 서밋 생물다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 국립공원과 협력하여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국립공원 관계자, 임직원, 지역 커뮤니티가 참여한 가운데 멸종위기종 및 고유종 나무 100그루를 식재하였으며, 국립공원팀과 협력하여 식재된 나무의 생존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국립공원과 장기 협력 협약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자연 보전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HMMI,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위기종 전달



HMMI,
이해관계자 협력 기반 생물다양성 프로그램

오염 및 수자원

전략

환경 기회요인 분석

	기회
정의	현대자동차는 완성차 생산을 위해 냉각/세척/도장공정에서 다량의 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를 포함하여 미국, 중국, 인도 등 해외 생산공장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기업활동을 위해서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용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공정 내에서의 효율적인 사용이 필요합니다.
재무 영향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공업용수를 감축하기 위해 용수 절감은 물론 용수 재활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당사는 2025년 기준 총 1,569,871톤의 용수를 재활용하였습니다. 용수 재활용으로 약 13억 원의 운영비를 절감한 효과입니다. * 재무 영향 산출근거: 2025년 총 용수 재활용량(1,569,871톤) × 수도요금(톤당 829원, 2024년 대한민국 기준)
대응 전략	'물 스트레스 지역'에 위치한 아산공장과 첸나이 공장의 경우 폐수 무방류 시스템을 운영하여 용수를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울산공장은 폐수처리장 방류수를 도장부스의 세정식 집진기 순환수로 재이용할 수 있도록 용수 이송배관을 포함한 폐수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처럼 현대자동차는 주요 사업장별로 용수 재활용량을 확대함으로써 용수 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위험 관리

위험 관리 프로세스

오염 및 수자원 관련 위험 관리 방법

현대자동차는 사업장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는 H-SAT(Hyundai- Safety Assessment Tool)을 통해 글로벌 사업장의 환경경영 이행 현황을 함께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사업장별 환경관리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분석하고, 취약부문을 개선하여 리스크를 관리함과 동시에 환경경영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현장평가 시에는 오염물질 배출 시설 및 유해물질 취급 시설을 점검함으로써 환경 오염 등의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잠재적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관리 수준 평가 결과는 경영진 및 사업장 관리자의 성과지표(KPIs)와 연계하여, 환경경영 리더십 강화와 현장의 위험 관리 활동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표 및 목표

지표

오염물질 배출

오염물질 관련 지표는 사업장과 물질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생산 활동을 고려한 대당 배출량을 함께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 배출량[1] (단위: 톤)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2]	1,591	1,738	861
수질오염물질 배출량[3]	533	600	1,075

[1] 일부 사업장이 과거 데이터를 수정하여 사업장 합산 수치를 정정하여 공시함
[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NOx, SOx, PM을 포함함
[3]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은 TOC(COD), BOD, SS를 포함함

용수 사용 및 재활용

용수 관련 지표는 사용량과 재활용량으로 구분하여 집계하고 있으며, 생산 계획 및 물량을 반영한 대당 사용량을 함께 모니터링함으로써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용수 사용량 및 재활용량[1] (단위: 톤, 톤/대)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용수 사용량[2]	11,223,441	11,382,647	10,243,259
용수 사용량 집약도	2.62	2.75	2.49
용수 재활용량	1,799,380	1,684,054	1,569,871

[1] 일부 사업장이 과거 데이터를 수정하여 사업장 합산 수치를 정정하여 공시함
[2] 용수 사용량은 취수량에서 방류량을 뺀 값임

목표

오염물질 배출

오염물질 배출량 목표는 사업장별로 수립하여 추진 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생산 계획 물량을 반영한 예상 배출량 대비 5% 감축 수준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수 사용

2025년 용수 사용량 목표는 2025년 생산 계획 물량을 기반으로 산출된 예상 용수 사용량 대비 5% 감축한 10,754,372톤으로 설정되었으며, 실제로 10,243,259톤을 사용하였습니다.

생물다양성

현대자동차는 생물다양성이 식량 안전, 보건, 대기, 수질, 원자재 공급 등 자연자본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지하고, TNFD LEAP 분석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ENCORE, IBAT, WWF Biodiversity Risk Filter 및 사업장별 환경영향평가에서 도출된 자사와 공급망을 둘러싼 생물다양성 관련 의존성, 영향, 위험 및 기회를 진단·평가하고 있습니다. 이후 TNFD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4가지 사항(지배구조, 전략, 위험 관리, 지표 및 목표)을 중심으로 정보를 구성했습니다. 도출된 위험의 부정적 영향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사업장 인근 지역사회의 고위험종 보호, 육지와 해양 생태계 재생 등 다양한 생물다양성 보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관련 의존도, 영향, 위험, 기회에 대한 LEAP 기반 분석

단계 / 설명

식별 Locate

의존성, 영향, 위험 및 기회(DIRO)의 분석 범위 설정

현대자동차는 국내 본사, 연구소, 생산공장 및 미국, 체코, 브라질 등 주요국가를 포함하여 총 20개 사업장을 생물다양성 관련 의존성, 영향, 위험 및 기회의 분석 범위로 설정하였습니다.

국내	본사	양재 본사
	생산공장	울산, 아산, 전주 공장
	연구소	남양, 의왕, 마북 연구소
해외	미국	미국생산법인,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중국	북경현대기차유한공사, 현대상용기차유한공사
	인도	인도권역본부(첸나이 공장, 푸네 공장)
	브라질	브라질생산법인
	튀르키예	튀르키예생산법인
	체코	체코생산법인
	싱가포르	현대자동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혁신센터
	베트남	베트남생산법인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생산법인
	멕시코	현대 멕시코

TNFD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
(TNFD, 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 2021년 6월 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UNEP FI),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자연기금(WWF) 등 국제기구의 주도로 설립
- 2023년 9월 자연관련 리스크 관리 및 공시에 대한 최종 권고안(TNFD 권고안)을 발표
- 기업의 자연 관련 의존도, 영향, 리스크와 기회를 확인·평가·관리하고 공시할 경우 'LEAP' 접근법을 활용하도록 권장

진단 Evaluate

의존성 및 영향(DI)의 진단, 위험 및 기회(RO)의 평가

TNFD는 자연자본이 사업활동에 미치는 요인으로 의존성, 영향, 위험 그리고 기회 총 4가지 요인으로 유형화하고 있습니다. 4가지 유형은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자동차는 생물다양성 관련 글로벌 Tool 및 사업장별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자동차 제조업 및 밸류체인, 생산 사업장별 의존성 및 영향에 대해 진단했습니다. 또한 생물다양성 관련 규제, 생산 사업장별 위험 및 기회를 평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대자동차는 TNFD 공시 요구사항인 거버넌스, 전략, 위험 관리, 지표 및 목표 4가지 주요 공시 사항에 대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평가 Assessment

의존성 (Dependency)	영향 (Impact)	위험 (Risk)	기회 (Opportunity)

Industry	Country/Region	Specific Location
ENCORE	IBAT	사업장별 환경영향평가

Industry	Country/Region	Specific Location
EU 산림전용방지규정 (EUDR)	WWF Biodiversity Risk Filter	사업장별 환경영향평가

대응 Prepare

DIRO 완화/대응 활동

현대자동차는 생물다양성 관련 DIRO(의존성, 영향,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과학 기반 감축목표 네트워크(SBTN, Science Based Targets Network)에서 제시하는 행동 프레임워크 AR3T를 바탕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다양성 관련 정보를 TNFD 공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올해 최초로 공시했습니다.

SBTN AR3T Framework

AR3T는 DIRO 중 부정적 영향 (Negative Impact)을 '회피, 저감, 전환, 복원, 재생' 5가지 방식으로 대응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부정 영향 완화는 의존성, 위험, 기회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존성은 기업의 자연자본에 대한 영향을 키우며, AR3T 기반의 영향 완화 여부가 기업의 위험 및 기회의 규모, 발생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회피(Avoid)	저감(Reduce)	전환(Transform)
복원(Restore)	재생(Regenerate)	

공시

현대자동차는 TNFD 요구사항에 맞춘 공시를 도입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거버넌스 | 전략 | 위험 관리 | 지표 및 목표

거버넌스

경영진

생물다양성 거버넌스

현대자동차는 기업 경영 전반에 걸쳐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생물다양성 복원 및 증진 공약 수립, 생물다양성 정책의 선언 및 제·개정, 생물다양성 평가와 영향 저감 활동 계획 수립, 산림파괴 방지 및 재조림 프로젝트 기획·실행 등 핵심 과제를 전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요 의사결정 사항은 경영진(C-Level)의 검토 및 최종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담 조직

현대자동차는 생물다양성 이슈를 전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영전략담당 산하 지속가능기획팀을 생물다양성 전담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기획팀은 TNFD 프레임워크 기반 공시 대응 및 자연자본 관련 전략 수립·이행 관리를 담당하며 CSO 등 유관 부문과 함께 사업장별 자연자본 특성을 고려한 생물다양성 현장 활동 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보호 정책

현대자동차는 국제 협약 및 가이드라인 등을 기반으로 생물다양성 보호 정책을 제정하였습니다. 사업장 인근의 생물다양성 증진, 자연 서식지 보존, 산림·토양·수자원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하는 한편, 본 정책을 기반으로 사업운영 전반에서 생물다양성 보전·복원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생물다양성 보호 정책

이해관계자 참여

현대자동차는 주요 원자재 조달 및 사업 운영 과정에서 지역 생태계와 원주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고, 생물다양성 보전과 원주민 권리 보호를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프로젝트 계획 수립 시 해당 공동체의 자유로운 사전인지동의(FPIC,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지역 자연자본과 원주민의 고유한 문화·가치가 존중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브라질, 베트남 등에서는 자연자본을 영위하는 지역주민의 생계를 고려한 생물다양성 증진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

의존성, 영향, 위험 및 기회 (DIRO)

자동차 산업 및 밸류체인

현대자동차는 산업별 생물다양성 정보를 제공하는 ENCORE를 활용하여 자사 및 공급망 업종의 자연자본에 대한 잠재적 의존성과 영향을 식별했습니다. 의존성(Dependency) 측면에서는 수자원 관련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비철금속 광업에서 수질 정화, 강우 패턴 조절, 물 흐름 유지가 높았으며, 자사(자동차 제조)도 수질 정화, 물 흐름 유지, 홍수 완화 등에서 중간 수준의 의존도를 보였습니다. 영향(Impact) 측면에서는 공해(소음, 빛 등)와 물과 토양으로의 유독성 오염 물질 배출이 자사 및 비철금속 광업, 기초 철강·금속 제조 업종에서 매우 높음으로 평가되었으며, 비철금속 광업은 담수 사용 면적, 해저 이용 면적 등 토지·수역 이용 영향도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현대자동차의 자연자본 관련 리스크는 자사 사업장보다 상류 공급망, 특히 비철금속 광업 및 기초 철강·금속 제조 업종에 집중되어 있으며, 핵심 의존 서비스는 물 공급, 수질 정화, 물 흐름 유지 등 수자원 생태계 서비스, 핵심 영향 요인은 공해, 유독성 오염물질 배출, 대기오염물질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매우 높음 ● 높음 ● 중간 ● 낮음 ● 매우 낮음

		현대자동차	공급망 관련 업종					
		자동차 제조	비철금속 광업	고무 제품 제조	철강 주조	기초 귀금속 및 기타 비철금속 제조	배터리 및 축전지 제조	자동차 부품 제조
의존성	바이오매스 제공 서비스							
	물 공급 서비스		●					
	전 지구적 기후 조절 서비스		●					
	강우 패턴 조절 서비스 (아대륙 규모)		●					
	지역(소/중규모) 기후 조절 서비스							
	대기 정화 서비스							
	토양 품질 조절 서비스							
	토양 및 퇴적물 유지 서비스							
	고형 폐기물 정화 서비스							
	수질 정화 서비스		●					
	물 흐름 유지 서비스		●					
	홍수 완화 서비스		●					
	태풍 완화 서비스							
	소음 완화 서비스							
	기타 조절 및 유지 서비스 – 대기 및 생태계를 통한 희석							
	기타 조절 및 유지 서비스 – 감각적 영향의 중재(소음을 제외한)							
영향	공해(소음, 빛 등)	●	●		●	●		
	담수 사용 면적		●					
	온실가스 배출							
	해저 이용 면적		●					
	온실가스 외 대기오염물질		●			●		
	비생물적 자원 채취		●					
	고형 폐기물의 생성 및 배출		●					
	토지 이용 면적							
	물과 토양으로의 유독성 오염 물질 배출		●		●	●	●	
	물과 토양으로의 영양 오염 물질 배출				●	●		
	물 사용량		●					
	침입종 도입							

생물다양성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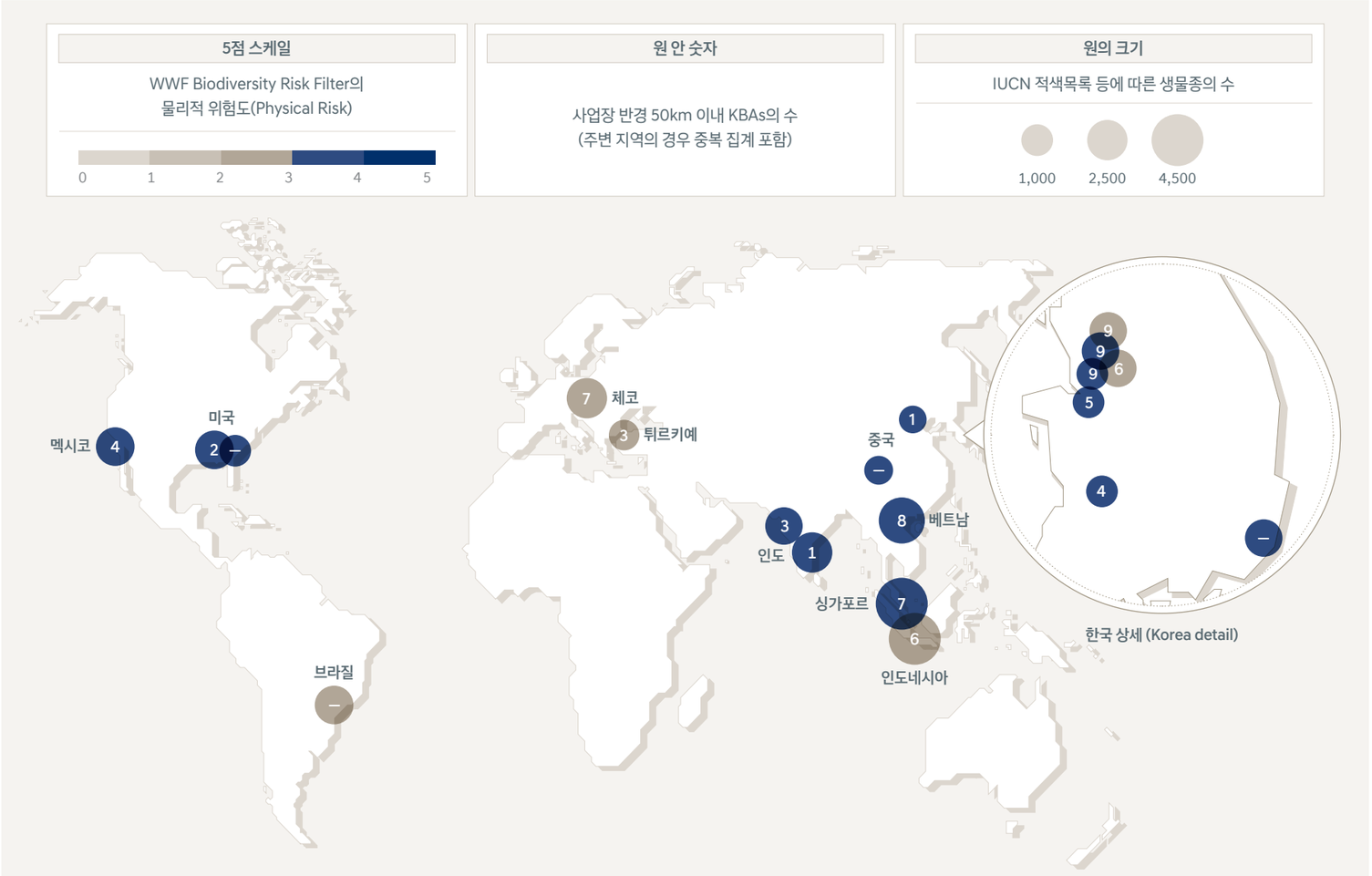
주요 국가 및 지역

생물다양성 영향 분석 현대자동차는 사업장 인근의 생물다양성 민감 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핵심 지역(KBAs), 보호 지역(PAs),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 등재 보호종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글로벌 생물다양성 평가 도구인 IBAT(Integrated Biodiversity Assessment Tool)을 활용하였습니다. 양재 본사(HQ), 울산공장 등 국내외 20개 주요 사업장의 좌표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보호 지역은 EU Natura 2000 등 법적 보호 지역이 다수 중첩된 체코생산법인에서 가장 많았으며, IUCN 적색목록 등재 보호종은 열대 연안·해양 생태계에 인접한 인도네시아생산법인에서 가장 높은 다양성을 보였습니다.

생물다양성 위험 분석 현대자동차는 세계자연기금(World Wide Fund for Nature)에서 제공하는 생물다양성 평가 툴인 WWF Biodiversity Risk Filter를 활용하여 국내외 20개 주요 사업장의 물리적 리스크와 평판 리스크를 평가하였습니다. 물리적 리스크 관점에서 중간 정도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단, 국내 생산공장, 베트남생산법인은 높음 수준으로 판단되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예정입니다. 평판 리스크의 경우 모든 사업장이 낮음 또는 중간으로 식별되었습니다.

사업장 환경영향 평가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생물다양성 진단 툴과 함께 글로벌 사업장별 구체적인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각 생산사업장별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해당 사업장의 위치에 따른 주변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면밀히 식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진단과 대응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특성에 맞춘 대응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생물다양성 DIRO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업장 생물다양성 DIRO 현황



생물다양성

전략

사업모형 및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생물다양성 관련 주요 요인 현대자동차는 다양한 생물다양성 정보분석 툴을 활용하여 전 세계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현대자동차에 미치는 의존성, 영향, 위험 및 기회 요인을 식별했습니다.

주요 요인	사업모형 및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공급망 원자재 조달의 생태계 의존	• 비철금속 광업의 수자원 생태계 서비스 의존도가 높아, 채굴 지역의 생태계 변화(수자원 고갈, 서식지 훼손 등)가 원자재 조달 안정성에 직접적 영향 • 유독성 오염 물질 배출 및 토지·수역 이용 영향으로 인한 채굴 지역 환경 규제 강화 시 공급 차질 가능성
사업장 수자원 부족 및 보호종 리스크	• 잠재적인 공급망 수자원 부족 리스크, 수자원 변화가 보호종 서식 환경에 간접적 영향을 미쳐 환경 규제·인허가 리스크로 확대 가능
EU 산림전용방지규정 (EUDR) 시행에 따른 공급망 규제 리스크	• 2025년 시행된 EUDR에 따라 가죽·고무 등 우선 적용 품목이 차량 내 시트, 타이어 부품 등에 적용 • 산림벌채 연관 고무·가죽 원소재 사용 시 유럽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한 관련 부품 조달 지연·중단 리스크 발생 가능성 증가
전기차 전환에 따른 생물다양성 리스크 저감	• 전기차 전환에 따른 부품 수 감소로 원자재 투입량 및 제조 공정 축소는 비철금속 광업 조달 의존도 저하 및 공급망 전반의 생물다양성 리스크 노출을 감소
순환경제 확대를 통한 공급망 안정성 확보	• 배터리 재활용·재제조 등 순환경제 체계 확대 시 신규 채굴 수요 감소하며 원자재 조달 비용 변동성 완화 및 공급망 안정성 확보 기여
생태계 복원 활동을 통한 사업 운영 불확실성 저감	• 사업장 인근 보호종 서식지·KBAs 연계 생태계 복원 활동 선제적 추진으로 환경 규제 강화 대응력 확보 • 사업 확장·인허가 과정에서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및 중장기 사업 운영 불확실성 감소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조치 활동

생물다양성 관리 방향성 수자원 부족과 보호종 서식이 중첩되는 인도권역본부·현대 멕시코·북경현대기차유한공사 사업장을 중심으로 용수 관리 및 지역 생태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후 재해 노출이 높은 베트남·국내 사업장은 기후 적응 관점에서의 생물다양성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울산공장 및 미국생산법인 등 보호종·KBAs 인접 사업장은 사업 운영·확장 시 생태계 영향 평가와 이해관계자 소통을 강화하여 규제 대응력과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공급망 전반의 생물다양성 리스크 노출을 완화하는 관리 방향성으로 나아갈 예정입니다.

SBTN(Science Based Targets Network)의 AR3T 프레임워크 현대자동차는 도출된 생물다양성 관리 우선순위 사항에 대해 SBTN의 AR3T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사업장 및 공급망 전반의 생물다양성 대응 활동을 단계적으로 수립·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AR3T는 기업이 자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단계별 대응 프레임워크로, Avoid(회피), Reduce(완화), Restore(복원), Regenerate(재생), Transform(전환)의 5단계로 구성됩니다. 먼저 생물다양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회피하고, 불가피한 영향은 최소화하며, 이미 훼손된 생태계는 복원·재생하는 순차적 접근을 취합니다. 나아가 전환 단계를 통해 생물다양성 손실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공급망·사업 모델 등 시스템 차원의 전환까지 포괄합니다.

완화 방식	주요 활동
회피 (Avoid)	•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신축·변경·증설을 추진하기 전 해당 활동으로 인해 사업 예정 부지 및 주변 지역의 생물다양성(동식물상)을 포함한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등 자연자본 전체에 미칠 영향을 선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진행 또는 제한·보류 여부를 결정함
완화 (Reduce)	• 물 부족과 낮은 수질은 생물다양성 손실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조 시 사용되는 용수의 사용 효율화를 제고하고 있으며 내부 관리 기준을 기반으로 폐수를 관리 중임
복원 (Restore)	• 멸종위기에 처한 고위험종과 기후변화 위기종, 훼손된 생태계에 대한 복원 추진 – 동물 복원: 울산시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과 협업하여 태화강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흰목물떼새와 천연기념물인 독수리에 대한 보호구역 설정 등을 통해 종 보존 및 복원 추진 – 식물 복원: 홍천지역의 기후변화 위기종인 구상나무 양묘 및 식재 사업에 이어 국립공원공단과 협업하여 덕유산에서 광릉요강꽃, 날개하늘나리 등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된 식물 복원사업 추진 – 생태계 복원: 아산시와 함께 민관 공동 사업으로 아산지역 내 생태계가 훼손된 지역(약 9,000㎡)에 대한 복원 및 생태공원 조성 사업 추진
재생 (Regenerate)	• 육지·해양 생태계 재생 프로젝트 추진 – 육지 생태계: '아이오닉 포레스트'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남미, 북미, 유럽 등 13개국에서 2025년까지 222만 그루 나무를 식재하여 육지생물 개체수 증대 유도를 위한 서식지 확대 추진 – 해양 생태계: 헬시 씨즈(Healthy Seas)와 협업하여 2025년까지 유럽(그리스, 이탈리아 등 유럽 8개국), 한국, 미국에서 해양 폐기물(폐그물 등) 총 320톤 수거 활동 추진, 해양어종 회귀 등 해양생물 개체수 증대 유도
변경 (Transform)	• 내연기관차 대비 탄소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전기차 중심 사업 모델로 전환 추진 중 (LCA 평가 결과 최대 약 67%까지 감축 가능) • 차량 제조 시 금속, 고무, 가죽 등 다양한 원소재가 사용되고 있어 원소재 채굴 시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속가능한 소재 적용을 추진하고 있음 • 민관협력 생태계 복원 신기술 개발·확산 추진 –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협력하여 아이오닉 9 씨드볼 드론 스테이션을 활용한 산불 피해지 생태 복원 방법론 연구

생물다양성

전략

아시아 대륙 현대자동차는 인도네시아생산법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외부 제3자 기관을 통해 생물다양성 평가를 실시했으며, 사업장 주변 지역에서 총 747종의 꽃과 32종의 식물이 식별되었습니다. 또한 공장 주변 녹지화 및 녹지 공간 조성과 같은 해당 법인의 활동은 생물다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토지 이용 변화와 대기 및 소음 공해 등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오염물질 저감 설비 운영과 완충 녹지 확대를 통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베트남생산법인·북경현대기차유한공사·튀르키예생산법인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생물 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수, 분진, 각종 폐기물에 대한 안전한 처리를 통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인도권역본부에서는 수자원 리스크 해소를 위해 자체적으로 수자원 절감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사업장 인근을 중심으로 약 110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싱가포르 글로벌혁신센터의 경우 환경 영향이 낮은 편이나, 지리적 입지에 따른 생물다양성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현대자동차는 국내 사업장 인근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공장에서는 태화강 깃대종 각시붕어 복원 사업 및 물새류 서식지 보호 활동, 아산공장에서는 삽교천 자연환경훼손지 생태환경 개선 및 철새 서식지 복원 사업과 더불어 곡교천 치어 방류, 영인산 히어리 꽃, 병아리 꽃나무 심기 활동 등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전주공장은 덕유산국립공원과 함께 광릉요강꽃, 세뿔투구꽃, 날개하늘나리 등 멸종위기종 모니터링 및 인공 증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 대륙 EU 산림전용방지규정 리스크 예방을 위해 본사 차원에서 유럽 현지생산 및 수출차종의 가죽·고무 부품 대상 사전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본사 및 EU 구매 실무팀과 해당 협력사를 대상으로 EU 산림전용방지규정 대응 가이드라인 사전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협력사와 함께 산림벌채 연관 리스크 식별을 포함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체코생산법인 주변에는 베스키디 산맥(Beskydy Mountains)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산맥은 유럽에서 중요한 생물다양성 지역 중 하나로,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자연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현대자동차는 2021년부터 해당 지역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1,000그루의 전나무 묘목을 심고 희귀 나비 모니터링을 위한 시설 200개를 설치하였으며 10,000,000립의 초본 씨앗을 파종하는 등 50헥타르의 초지를 보존하였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현대자동차는 생물다양성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생물종의 순증진(Net Positive Impact)을 위한 서식지 질적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미국생산법인 주변 하천 인근 지역 숲 조성사업을 통해 토종식물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사업장 인근 지역에 5만 그루의 나무 식재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부터 연 2회씩 주변 야생지역 동식물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TNC(The Nature Conservancy)와 협업하여 브라질생산법인이 위치한 상파울루주와 인근 미나스 제라이스(Minas Gerais) 주 내 40헥타르 지역에 총 10만 그루의 자생종을 식재하여 육지 생물종의 서식지를 추가로 개선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및 현대 멕시코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생물 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수, 분진, 각종 폐기물에 대한 안전한 처리를 통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관련 정성적 재무 영향

글로벌 생물다양성 관련 규제(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산림전용방지규정 등) 강화에 따라 배터리 핵심 원자재의 조달 비용 변동과 공급망 실사·모니터링 비용 증가가 예상되며, 수자원 부족과 보호종 서식이 중첩되는 사업장에서는 용수 확보 비용 상승 및 환경 규제 대응 지출이 잠재적 비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동화 및 순환경제를 통한 원자재 사용량 감소와 공급망 다변화는 조달 비용 안정화에 기여하며, 사업장 인근 생태계 보전 활동은 평판 리스크 저감과 사업 허가·확장 시 사회적 수용성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험 관리

위험 관리 프로세스

생물다양성 관련 위험 관리 프로세스

리스크 식별 현대자동차는 생물다양성 이슈가 자사 사업 운영과 공급망 전반에 걸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양방향 관리 접근법을 수립하였습니다. 자동차 산업 특성상 생물다양성 관련 의존도와 영향은 자사 생산 사업장뿐만 아니라 비철금속 광업·철강 제조 등 상류 공급망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합니다. 이에 현대자동차는 산업 및 가치사슬 수준에서 거시적 리스크 구조를 조망하는 하향식 평가와, 개별 생산 사업장 단위에서 현장의 세부 위험·기회를 식별하는 상향식 평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식별된 생물다양성 이슈는 단계적 평가를 통해 관리 우선순위를 선별하며,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 자연자본 이슈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리스크 관리 현대자동차는 양방향 접근법을 통해 식별된 생물다양성 이슈를 사업장과 공급망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차원에서는 각 사업장별 자연자본 특성과 생태계 민감도를 고려하여 영향 저감 및 보전 활동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급망 차원에서는 협력사 행동규범을 중심으로 배터리 광물 채굴 과정에서의 생태계 영향, 지역 원주민 권리 보호 등 다양한 관점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관련 중요 이슈는 전사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ERM)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향 평가 프로세스

사업장 생물다양성 영향 평가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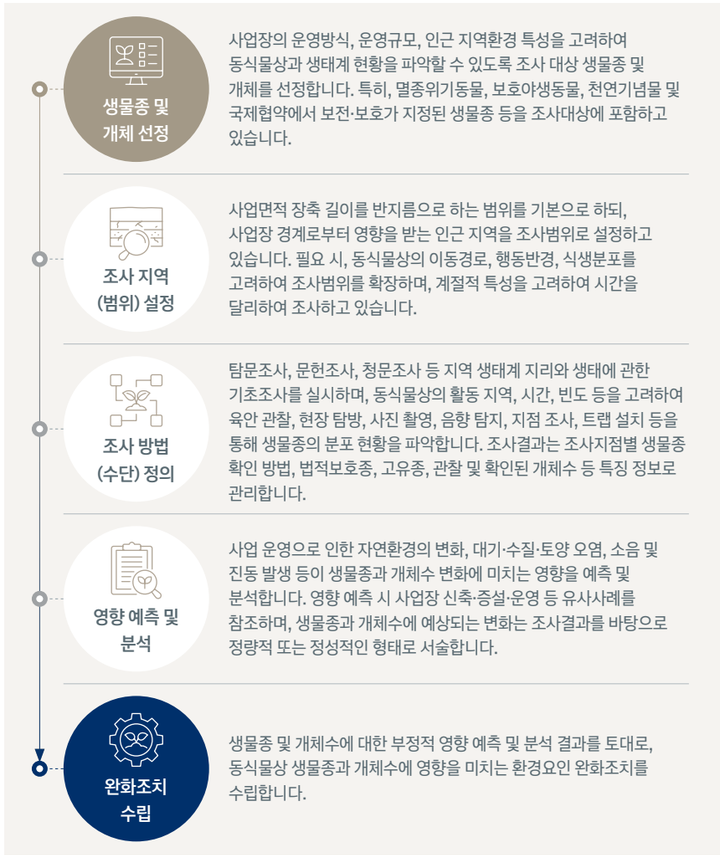
현대자동차는 사업장을 신축·증설하거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요인이 주민생활 및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자, 국가별 관련 법·규제에 근거하여 대규모 사업장에 한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시,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동식물상 등을 평가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를 통해 주요 영향을 파악하고 완화조치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생산법인에서는 동식물상 분포와 생태계 현황을 파악하는 생물다양성 영향평가를 별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특정 생물종 및 개체수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완화조치를 마련합니다.

생물다양성

위험 관리

이 외에도, 각 사업장별로 생물다양성 보호 및 서식지 보호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호 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 비영리 단체, 전문기관 등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생물다양성 영향 평가 프로세스 - 동식물상 분포 조사 및 영향 분석



지표 및 목표

지표

육지 생태계

현대자동차는 2016년부터 미국, 브라질, 독일, 튀르키예, 필리핀, 인도 등 13개국에서 숲을 조성하는 '아이오닉 포레스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아이오닉 9 씨드볼 드론 스테이션을 신규 구축하고,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협력하여 울진 산불 피해지를 대상으로 산림 생태 복원을 추진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사업장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110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했으며, 베트남에서는 IUCN과 함께 메콩강 삼각주에서 8만 그루 규모의 맹그로브 숲 복원에 나섰습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산불 피해지에 11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등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아이오닉 포레스트 프로젝트를 통해 2025년까지 총 약 222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해양 생태계

해양 생태계 보존을 위해 현대자동차는 2021년부터 유럽, 한국, 미국에서 해양 폐기물을 수거하고, 이를 재활용하는 업사이클링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력 파트너 헬시 씨즈(Healthy Seas)와 함께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유실 어망 및 해양 폐기물을 수거하여 해양 생태계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해양 환경 교육과 인식 제고 활동도 함께 추진하며, 해양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헬시 씨즈와 함께 2025년까지 누적 320톤의 해양 폐기물을 수거하고 4,861명에게 해양 환경 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목표

육지 생태계

203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누적 약 3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예정입니다. 한국, 미국 등의 산불 피해지 숲을 복원하고 사업장 인근 지역 등에 숲을 조성함으로써 생태계 복원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이오닉 5 및 9 드론 스테이션 글로벌 확장 전개를 통해 친환경적이고 효과적인 산림경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해양 생태계

현대자동차는 지속적인 활동 지역 확대를 통해 2027년까지 해양 폐기물 400톤을 수거할 예정입니다. 유럽 8개국 외에 한국, 미국에서도 해양 쓰레기 수거 활동을 추진하며 폐어망을 포함한 해양 폐기물 수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분	측정 지표	추진 목표	추진 실적	목표 달성 세부 전략
육지 생태계	• 재생 면적 • 숲 조성 위한 나무 식재 수	• 재생 면적: 2035년까지 3,000헥타르 육지 생태계 (숲, 초지) 재생 • 나무 식재: 2035년까지 300만 그루 식재	• 재생 면적: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총 2,218헥타르 숲, 초지 등 육지생태계 재생 완료 • 나무 식재: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총 2,221,156그루 식재 완료	• 한국, 미국, 브라질, 체코 등 당사 생산공장이 위치한 주요 국가들에서 생태계 재생 프로젝트 신규 전개 및 아이오닉 포레스트 글로벌 확대 전개를 통해 목표 달성 추진
해양 생태계	• 폐어망 포함 해양 쓰레기 수거량	• 2027년까지 해양 쓰레기 누적 400톤 수거	•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유럽 내 8개국과 한국, 미국에서 약 86회에 걸쳐 누적 320.9톤의 해양쓰레기 수거 완료 (2025년 41.6톤 수거 완료)	• 유럽 8개국 외에 한국, 미국에서도 해양 쓰레기 수거 활동 추진 등 해양쓰레기 수거 지역 확대 통해 목표 달성 추진

Social



오늘날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단순한 성과를 넘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의해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경제적 가치 창출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제적인 안전보건 체계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공급망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과 서비스 전 과정에서 고객의 목소리를 반영한 혁신을 이어가고 있으며, 글로벌 기준의 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권 존중과 다양성·포용을 기반으로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CSV 이니셔티브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과 미래 가치 창출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이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며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In This Section

안전보건 Material Topic
지속가능한 공급망 Material Topic
고객경험 혁신 Material Topic
인권경영 및 인적자원 관리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CSV 이니셔티브

Material Topic

안전보건

현대자동차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안전보건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안전보건 증진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사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법·규제를 준수하는 한편,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근로자의 건강 증진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 로드맵과 핵심 성과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성과목표 달성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투입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목표 달성 및 이행 현황 정보를 공유하여 참여와 소통 기반의 안전보건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거버넌스

의사결정기구

이사회

현대자동차는 안전을 단순한 규정 준수를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보건 관련 활동과 계획들은 체계적으로 관리되며, 연간 안전보건 체계 운영 및 목표, 실행 계획, 이행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회사의 안전보건 전략과 실행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안전 관련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지도·감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영진

안전보건 최고책임자(CSO)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은 월별 실적 및 주요 성과를 점검·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 총괄 거버넌스 운영을 위해 안전보건 최고책임자(대표이사 겸 Chief Safety Officer)를 선임하였으며, 전사 안전보건 담당 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최고책임자 총괄 아래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며, 전사 또는 사업장 단위별 안전보건관리자와 직원이 참여하여 안전보건 리스크를 발굴·공유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 외부 전문가가 사업장 안전보건 실태를 점검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해 파악하며, 사후조사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영진, 리더, 현장관리자 등 안전보건 관련 책임이 있는 임직원의 안전보건 관리 성과목표(KPI)를 설정하며, 목표 대비 이행 현황에 따라 성과를 평가합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협의체 및 전담 조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현대자동차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최적의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기별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사 합동으로 운영되는 이 위원회는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 안전보건교육 실행, 작업환경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중대재해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 산업재해 통계 관리, 유해·위험 기계·설비 도입 시 안전조치 등 안전보건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또한, 전사 차원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연 1회 통합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안전보건 정책을 논의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

국내외 모든 사업장은 안전보건 실행계획 수립,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활동 수행, 안전보건 활동 이행실적 평가, 활동 분석 기반 개선조치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각 사업장별로 추진하던 안전보건 인증을 전사 통합 인증 체계로 개편하고, 업무절차와 각종 안전보건 규정을 일원화하는 등 표준화를 통해 안전 관리 수준을 향상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각 생산공장에서는 법·규제, 시장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별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제3자 인증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가 자체적으로 안전보건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유도·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KPI 운영

현대자동차는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안전을 기업 경영의 한 축으로 인식하여, 매년 안전관리 KPI를 수립하고 평가합니다. 현대자동차 전 조직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각 조직의 사업적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지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평가지표는 선행지표(예방활동)와 후행지표(관리실적)로 구성되며, 선행지표로는 안전환경관리수준평가(H-SAT), 중대위험 요인 발굴 및 개선, 안전리더십 활동 등이 있으며, 후행지표로는 중대재해 발생여부, 재해지표(재해·부재율) 목표달성률 등의 지표를 운영하여 생산거점 외 비생산부문까지 현대자동차 전 영역의 안전관리 활동에 대해 빈틈없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구분		주요 평가지표	
		후행지표	선행지표
생산부문	3개 본부 11개 사업부 2개 실	• 재해율/부재율[1] 목표달성률 • 오염물질 배출량 목표달성률 • 안전사고 발생률 등	• H-SAT • 중대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등
비생산부문	31개 본부 19개 사업부	• 재해지표 목표달성률 • 중대재해 발생여부 등	• H-SAT • 안전리더십 • 법정안전교육 이수 등

[1] 전체 근무 가능 일수 대비 실제 결근한 일수의 비율로, 사업장 안전보건 수준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 사업장

국내외 전체 생산법인

100%

안전보건

전략

영향, 위험 및 기회

안전보건 관련 식별 결과

현대자동차는 안전보건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기 위해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안전보건 관련 위험에는 생산·비정형 작업 중 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 위험, 협력업체 안전사고 위험, 안전보건 법규 위반 위험,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포함됩니다. 주요 기회에는 안전문화 정착을 통한 안전의식 내재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통한 글로벌 안전 스탠다드 시행, 협력업체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위험과 기회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규·규제·정책 강화 등 대외 환경 변화와 이해관계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기대 수준 증가를 고려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업모형과 가치사슬

안전보건 관련 위험 및 기회는 현대자동차의 사업모형에 다음과 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생산라인 일시 중단, 숙련 인력 이탈, 안전 유관 법규 위반에 따른 법적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강화로 안정적 생산 환경 유지 및 임직원 건강 보호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우수 인력 확보 기회가 됩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 처벌, 사업장 가동 중단, 고객 신뢰도 하락이 예상됩니다. 반면, 선제적인 안전투자로 재해예방비용 절감과 지속가능성 관련 대외 평가 결과 개선, 기업가치 제고 기회가 있습니다.

안전보건 관련 위험 및 기회는 협력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협력사 산업재해 발생 시 부품 공급 차질로 생산 지연과 도급인 연대책임에 따른 법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반면, 협력사 안전역량 강화 시 공급망 안정성 확보 및 우수 협력사와의 장기 파트너십 기회가 됩니다. 향후 공급망 내 중대재해 발생 시 공급망 실사 관련 규제 리스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공급망 안전수준 향상은 지속가능성 관련 대외 공급망 평가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략 및 의사결정

안전비전전략 로드맵

2030 안전경영 전략 현대자동차는 SDV(Software Defined Vehicle)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로의 전환에 대비하는 동시에, 다변화하고 있는 산업환경 및 안전환경 리스크와 강화되는 산업안전보건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30 안전경영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안전을 생각하고, 동료와 함께 위험을 예방하며, 사람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안전문화를 만들어가는 실천을 'Together for BAROZERO'라는 안전경영 비전으로 설정하였으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선제적으로 진단하여, 근원적인 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 구축을 위한 '예측하고 대비하는 안전관리', 데이터 기반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공정 전반의 일하는 방식 변화를 통한 중대사고 예방 역량 향상을 위한 '효율적 일하는 방식의 변화', 안전브랜드 기반 문화활동, 안전 교육 체계 혁신, 안전인력 양성 및 임직원 안전의식 내재화를 위한 '모두가 참여하는 일상 안전'을 중점 사업전략으로 삼고, 3대 사업전략, 9개 추진 전략, 28대 실천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2026년 제1차 이사회에서 '2030 안전경영 전략'을 보고하고 승인받았으며, 향후 '2030 안전경영 전략' 달성을 위한 업무를 지속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2030 안전경영 전략 주요 내용



안전보건

전략

안전보건 활동 추진

안전보건 관리 활동 현대자동차는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진단, 소음 및 유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과 비상상황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업환경, 기계·기구·설비 등의 안전조치와 건강장해 예방 및 증진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월 안전점검의 날 운영 및 고위험설비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개선하고, 위험성평가단 운영을 통해 위험성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등 현장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인자에 대한 조사·평가를 실시하고, 개인별 건강검진과 치료 등 사후조치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자 생활습관 개선과 직무 스트레스 예방 활동도 지속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에서는 금연 클리닉, 금연 캠프 운영, 금연 클린 공장 홍보 등을 포함한 보건관리 홍보 활동을 기획·추진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 예방관리 체계 수립 현대자동차는 근골격계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근골격계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의 현장 임직원으로 구성된 근골격계 실행위원회는 월 2회 노사합동 현장 점검을 통해 고위험 직원 면담 및 위험요인 발굴을 진행하며, 월 1회 예방대책회의를 통해 사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행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연간 32시간 이상의 전문 교육을 제공하여 예방관리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비상상황 종합 훈련 현대자동차는 비상조치훈련 계획에 따라 화재, 폭발, 누출과 같은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피 및 대응을 통하여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모의 훈련을 연 2회 실시합니다. 비상 상황 종합 훈련을 통해 비상상황 대처 능력을 유지·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종합 훈련은 위험성 평가 결과 주요 위험요인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상황별 시나리오 작성, 비상상황별 행동요령 이행, 개인별 분반 및 임무 수행으로 구성됩니다. 종합 훈련 담당자는 훈련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하며, 평가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정함으로써 훈련 수준 및 강도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관리 활동 종류

위험성 평가
작업환경,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작업행동 등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하며, 위험 및 장해 예방 조치합니다.

안전보건 표지 부착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표지, 비상상황 시 대응하기 위한 안내 등을 식별가능한 위치에 부착합니다.

작업환경 안전조치
작업환경 내 추락, 붕괴, 낙하, 기타 위험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별 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유지·보수·점검합니다.

기계·기구·설비 안전조치
기계·기구·설비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하여 방호조치를 취하며, 잠재적 위험이 없도록 유지·보수·점검합니다.

건강장해 예방·보건조치
원재료, 가스, 증기, 고온, 소음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예방·보건조치를 취합니다.

개인 보호장비 지급
작업환경 등에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예비보호구를 비치·관리하는 등 보호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안전보건 진단
추락, 붕괴, 화재, 폭발, 유해물질 누출 등 재해 발생의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 진단을 실시합니다.

비상상황 대응
추락, 붕괴, 화재, 유해물질 누출 등 비상상황 시나리오에 따라 훈련하고, 소방장비 등의 기능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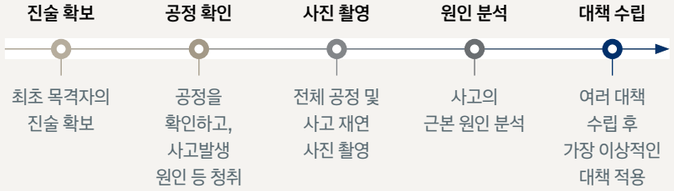
유해물질 관리
취급 유해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목록화 및 비치하며, 물리적·화학적 유해인자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개선 조치합니다.

건강증진 활동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호흡기, 근골격계 등 업무상 질병예방과 직무 스트레스 관리 등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협력사 안전보건 지원
협력사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험성 평가를 내실화하며, 진단·교육·협의 밀착관리로 재해예방을 강화합니다.

재해 조사
재해 발생 시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며, 산업재해 등 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성과개선 목표에 반영합니다.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단계별 행동요령



* 사고조사 행동요령: 사고 발생 시 상기 단계에 따라 확인하며, 누락시키거나 서두르지 않도록 함
** '6하 원칙'을 기초로 한 사고 조사 진행하여 정보 누락을 방지하고, 큰 원인부터 작은 원인(Top Down 방식)으로 확인함

단계별 안전관리



안전보건

전략

중대시민재해 대응 강화

중대시민재해 대응 역량 강화 활동 현대자동차는 원료·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 가능한 재해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경영책임자인 CSO의 안전보건 거버넌스 강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원료 부문은 안전보건관계법령 중 현대자동차에서 준수하고 이행해야 하는 17개 법령(환경, 소방, 위험물, 가스, 원자력 등)에 대해 인력, 예산, 점검/개선, 교육 등 안전보건체계가 잘 운영되는지를 반기 1회 주기로 점검하고 보고합니다. 보고 결과에 대한 CSO 의견을 사업장에 전파하고 있으며, 전파된 내용이 현장에서 적용되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합니다.

제조물 부문은 현대자동차의 차량 개발부터 생산(차체·도장·조립 및 완성차 검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사적인 안전·품질 활동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잠재적 문제를 도출해 개선·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를 이용하는 고객의 사고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품질 결함 발생 시에는 신속한 리콜·캠페인 조치와 유효성 점검을 통해 고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중이용시설(시설물, 다중이용시설 등) 부문은 용도와 면적에 따라 1~3종 시설로 구분하고, 각 건축물 별 안전계획서를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계획서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현대자동차 12대 자체 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등 법정점검 뿐 아니라 자체점검(30년 이상의 노후 건물 등)을 통해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에서 주최하는 대(對)고객 행사에 대해 자체 안전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그 기준에 따라 안전계획 수립, 안전협의체 운영, 현장 안전점검 등 단계별 안전관리를 통해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안전보건 문화 확산 및 교육

안전보건 문화 확산 현대자동차는 2025년 안전 브랜드 '바로제로'를 노/사 합동 선포식을 시작으로 최초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안전은 바로, 위험은 제로'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안전문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 브랜드 바로제로 도입을 통하여 통일되고 구조화된 안전 메시지 체계를 구성함으로써 임직원들이 '바로 실행, 바로 개선, 조급함 제로, 소홀함 제로'라는 바로제로의 가치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문화 전파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 안전의식 함양 활동 CSO 안전메시지, 사업부장 안전카드 뉴스, H-안전투게더, 상시 안전포상 제도 마련, 전사 필수 안전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임직원 안전 의식 함양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참여 강화를 위해 H-안전체험관 신설, SHE 아이디어 공모전 '함께해요! 바로제로' 등 참여형 안전 포상활동을 확대하였으며,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건물 내/외부 및 구내차량에 바로제로 가치가 반영된 디자인을 적용하였습니다.

전사 안전공감 미디어 도입 현대자동차는 임직원의 안전 의식 제고와 조직 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전사 대상 안전공감 미디어 콘텐츠 '당연한 하루가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을 때'를 제작·배포하였습니다. 본 콘텐츠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는 당연한 하루가 안전이라는 기반 위에서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스토리 기반의 감성적 연출을 통해 일상 속에서 쉽게 간과될 수 있는 안전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임직원 스스로 안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정보 전달 중심 교육에서 나아가 공감과 인식을 환기하고, 이를 통해 조직 전반의 안전 공감대 형성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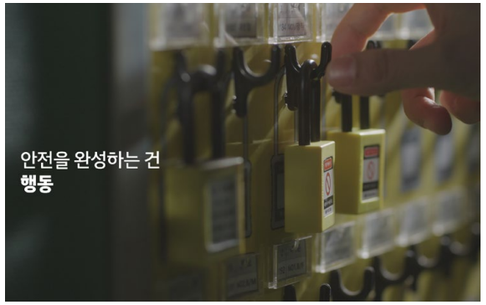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활동

구분	활동 내용
모바일 정기 안전점검	• 작업공정 및 운영설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모바일 점검 도입
스마트 모션센서 설치	• 안전관리 사각지대 중심 해당 센서를 설치하여 중대재해 예방
인체감지 센서 설치	• 지게차 등 운반기계 조작 시 근로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 위험성 저감 위한 인체감지 센서 등 설치
안전관리 규정서 개발	• 비정형 공사 작업 안전관리를 위해 설계부터 시공까지 단계별 안전관리 규정서 개발
고위험 설비 점검	• 협력사 납품 차량, 프레스공장 크레인, 이동식 간이 리프트 등 고위험설비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안전브랜드 캐릭터: 바로제로





전사 안전공감 미디어

안전보건

전략

H-안전 체험관 현대자동차는 국내 최초로 실제 생산현장을 프로젝션 맵핑 기술로 구현한 'H-안전체험관'을 2026년 8월 울산공장에 신설할 예정입니다. 2025년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2026년 2월 착공한 H-안전체험관은 울산공장 부지 내 연면적 280평 규모로 조성되며, 웰컴존, 세이프티존, 교통안전존, 사고체험존, 위험성평가존, 감성안전존 등 6개 구역에서 실제 사고사례 기반 체험교육을 통해 안전의식 내재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협력사 및 시민사회까지 단계적으로 개방하여 안전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구분	사업장	오픈일	설비 (종)
안전 체험관	울산공장	2026.08 (신설 예정)	체험존 6개
	전주공장	2024.10 (리모델링)	13종
	남양연구소	2024.11	9종
VR 체험기기	아산공장	2023.11	VR부스 2개



H-안전투게더

H-안전투게더 개최 2025년 현대자동차는 '나의 안전이 회사의 안전이고 곧 가정의 행복'이라는 함께 만드는 안전문화를 실현하고자 'H-안전투게더'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는 전사 대상으로 진행된 최초의 임직원과 가족들이 함께 하는 대규모 안전문화 활동으로, 약 2,000명의 임직원 및 가족이 함께 하였습니다. '모두의 안전' 프로그램을 통해 나와 동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인지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고, '가족안전 골든벨'을 통해 가족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안전의 소중함을 느끼는 등 참가자 모두가 안전으로 하나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안전보건 교육 실시 현대자동차는 안전교육 플랫폼이라는 자체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임직원이 온라인·모바일 환경에서 쉽고 편리하게 안전 보건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 교육 콘텐츠는 총 128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전수칙, 사고예방, 중대재해 예방 등에 대해 영상별 단편영화, 예능, 토크쇼 등 다양한 콘셉트를 적용하여 흥미 있고 유익한 안전 교육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무역량 교육 실시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Safety Academy 직무역량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CSO 조직과 사업부 안전팀, 안전추진자 등 전체 Safety 인력을 대상으로 연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부문 내 전문 역량의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실무 중심의 참여형 교육과정을 신규 개발하고, 실제 사례 기반의 실습형 콘텐츠를 도입함으로써 구성원들이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전문가 육성을 위한 사내강사 제도를 도입하여 자발적 성장 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체계는 모든 구성원의 안전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안전 전문 자격증 취득 지원 현대자동차는 임직원의 현장 안전 관리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산업)기사는 산업현장의 안전 관리 전문가로서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검증하는 국가 기술 자격증이며, 2023년 울산공장에서 시작하여 2024년에는 아산공장, 전주공장, 연구소, 판매/정비 부문까지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2025년 하반기까지 총 1,346명의 임직원이 시험에 응시하고, 1,117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83%의 높은 합격률을 기록하여 현장의 안전관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안전보건 지원

협력사 중대재해 예방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안전교육 지원 및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 안전관리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여 협력사의 재해 예방 역량을 사전에 평가하고, 적격 수급인을 선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협력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 정보 등록부터 협력사 안전관리 역량평가,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 합동점검 등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협력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의식 강화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의 안전 관리 수준 향상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협력사의 자율 안전 관리 체계 구축 및 안전 보건 수준 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전년도 평가결과가 미흡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 및 취약점을 발굴하고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안전관리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산업안전상생재단을 통해 2025년 최초로 2차 협력사의 안전보건 수준을 진단하였고, 1차 협력사와 협업하여 취약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의 근본적인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 상생협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차 부품사를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컨설팅을 지원하여 자체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돕고 있으며, 분기별 안전보건 상생협의체를 통해 협력사와 안전 동향 및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안전사고 외에도 화재, 폭발 및 배터리 화재 사고 등 공급망을 위협하는 다양한 안전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방 안전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공정안전관리), 도장 공정, 가스 시설 및 배터리 시스템을 보유한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구매본부와 공장 소방팀 합동으로 사업장 전기 시설, 접지, 정전기 및 배터리 보관 등 주요 발화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법적 규정에 맞는 소화전 설치 및 경보 설비 등 다양한 화재 예방 조치를 권고하여 협력사의 화재 예방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안전보건

전략

또한, 협력사의 안전 의식 강화를 위해 1·2차 협력사의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안전 관리 세미나 및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활동을 위한 현대자동차의 안전 보건 정책 및 핵심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신정부의 산업안전 정책 대응방안 등을 공유하였습니다. 특히, 지게차 안전 장치, 안전 센서, 스마트 글라스 및 AMR(Autonomous Mobile Robot) 시연 등 최신 안전 기술을 선보여 협력사들이 현장에 필요한 안전 설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1·2차 협력사의 안전장치 비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위험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LOTO(Log out Tag out), 안전센서 및 지게차 안전장치를 지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협력사 안전 팀장과 담당자들의 안전관리 실무업무 지원을 위해 안전 아카데미, 안전 세미나를 실시하였고, 특히 협력사의 안전의식 수준을 측정하여 사업장의 안전문화 내재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상생협력센터, 산업안전상생재단을 통해 모든 협력사와 동종 산업 중소기업에게 안전보건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대자동차는 사업장 내 작업 및 공사를 위해 출입하는 모든 협력사를 대상으로 출입 전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요구하는 등 임직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

안전보건 위험은 매출액 측면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생산라인 중단 및 협력사 부품 공급 차질로 인한 매출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판매관리비는 안전설비 투자비로 증가할 수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형자산인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가치 훼손이라는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반면, 선제적인 안전투자는 재해손실비용 절감으로 영업이익 개선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으며, 지속가능경영 관련 대외평가 결과 향상은 기업 신뢰도 제고로 잠재적인 자본조달비용 절감 및 영업현금흐름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위험 관리

위험 관리 프로세스

안전보건 관련 위험 예방 및 모니터링

고위험요인(SIF) 중심의 사고관리 현대자동차는 고위험요인(Serious Injuries and Fatalities) 중점관리 개념을 도입하여, 중대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정을 선정하고 해당 공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면밀히 조사하여 개선하는 중대재해예방 밀착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재해율과 선행지표인 안전보건경영 체계 개선, 산업재해 재발방지 활동 실행력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과정과 행위를 측정합니다. 2025년 재해율은 국내 사업장 기준 0.73으로서, 0.80을 기록한 2024년 대비 약 8.8%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정 개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집중 관리한 것에 주로 기인합니다. 현대자동차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근로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중대재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문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사 합동 정기점검 수행 현대자동차는 지난 2023년 노사 공동선언을 통해 사업장 내 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 간 협력, 적극적인 투자 및 전문 인력 보강 등 안전관리 활동 강화 등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 사업부가 현장 위험요인 개선 및 법규 준수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일터 조성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부장 및 실장 주관 하에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노안분과장 및 노안분과위원 등의 참여와 근무자 면담을 통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실시합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위험요소 발굴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개선 조치 및 보완 공사를 진행합니다. 2025년에는 안전장치 보완 설치, 끼임위험 공정 출입금지 조치 등 105건의 개선을 진행하였고, 보완투자를 추진함으로써 중대재해 위험공정 및 설비에서 발견된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안전환경 관리수준 평가(H-SAT) 현대자동차는 안전환경 관리수준 상향 평준화를 목표로, 평가 제도인 'H-SAT(Hyundai - SHE Assessment Tool)'을 자체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환경 관리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분석 후 취약점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해당 평가 결과는 경영층 및 관리책임자 성과지표(KPIs)와 연계하여, 안전보건 리더십 강화와 현장 사고예방 활동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H-SAT는 안전·보건, 환경, 소방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대재해 예방활동, 현장 안전관리, 리더의 안전보건 책임과 역할 등의 264개 세부 지표를 평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총 1,201건의 안전환경 경영체계 보완점 및 현장 문제점을 발견하였으며, 개선 이행률 평가를 통해 100%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안전환경종합평가(H-SAT) 결과 및 개선 현황

구분	안전	보건	소방	환경
관리체계 평가항목	• 중대재해 예방활동 •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활동 • 법정·자체 보건 프로그램 등	• 종합비상대응훈련 • 소방계획서 등	• 수질/대기 환경시설 관리 등
현장점검 항목	• 유해위험기계기구 • 무인공정 안전장치 등	• 작업환경 측정관리 공정 • 유해화학물질	• 법정 위험물/가스 관리 개소 • 화재 취약지	• 법정 환경시설 관리 • 오염물질 관리 등
개선필요 항목	• 자동화설비 출입예방조치 미흡 • 위험성평가 위험요인 개선조치 미흡	• MSDS 정보 현장 최신화 미흡 등	• 소방용기 관리 미흡 등	• 토양오염대상시설 신고관리 미흡 등
개선율	100%	100%	100%	100%

안전보건

지표 및 목표

지표

안전보건 사고 및 재해율

현대자동차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고 발생 현황 및 재해율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구분	단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임직원 사망 사고자 수	명	2	2	0	
사내 협력사[1] 사망 사고자 수	명	0	0	0	
산업재해자 수	명	596	566	539	업무상 질병 146건, 업무 관련 사망사고 0건
산업재해율	%	0.58	0.57	0.54	
임직원 LTIFR[2]	건수/백만 근로시간	1.90	1.92	1.54	
사내 협력사 LTIFR[2]	건수/백만 근로시간	2.03[4]	2.41[4]	0.82	
임직원 TRIR[3]	건수/이십만 근로시간	0.97	1.79	1.34	
사내 협력사 TRIR[3]	건수/이십만 근로시간	0.40[4]	0.48[4]	0.21	

* 데이터 집계 범위: 국내 사업장(공장, 연구소, 국내사업) 및 해외 생산법인
** HMGICS 추가 집계로 인한 임직원, 사내 협력사 재해율 지표 정정 공시함
1) 현대자동차 사업장 내 상주 협력사
2) 근로손실재해율(LTIFR, Lost-Time Injury Frequency Rate) = (사고성재해건수 x 1,000,000)/연 근로시간
3) 총기록가능한산업재해율(TRIR, Total Recordable Incident Rate) = (기록 가능한 사고 건수)/(총 작업시간) x 200,000
4) 사내 협력사 근로시간 집계 오류로 2023년, 2024년 데이터 정정 공시함

안전보건 교육 운영 현황

현대자동차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위험도별 맞춤형 안전보건 교육을 운영하고, 교육 이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안전 역량 강화를 추진함으로써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교육 이수 (명)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반기 6 시간 이상	**총합: 554,670** 집체: 162,675 모바일: 391,995
	그 외 근로자	판매업 종사자	반기 6 시간 이상	
		그 외 종사자	반기 12 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1주 이하		1시간 이상	신규 채용자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1주 초과 1개월 이하		4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		8시간 이상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현황

안전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사업장의 응시자 합격률은 83%이며, 사업장별 자격 취득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울산	아산	전주	연구소	판매/정비	총합
응시자 (명)	754	105	129	237	121	**1,346**
합격자 (명)	626	88	117	196	90	**1,117**
합격률 (%)	83%	83%	90%	83%	74%	**83%**

목표

안전보건 관련 투자 확대

현대자동차는 안전사고에 대한 근원적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연간 2,000억 원 규모의 집중 개선 투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한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에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의미합니다.

안전보건 분야는 법적 기준을 상회하는 설비 안전성 강화 및 작업환경을 개선함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업재해 발생률을 현저히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소방 분야는 노후화된 대기/수질 환경 설비를 전면 교체하고, 전동화 전환에 따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배터리 화재 예방에 집중 투자할 예정입니다. 특히, 친환경 경영과 안전관리를 동시에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기업 활동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내 생산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운영 조직에 더해, 2030년까지 비생산, 신사업, 해외 안전관리 거버넌스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사업장 전반에 걸쳐 일관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임직원이 안전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Material Topic

지속가능한 공급망

현대자동차는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기업 경영의 필수 요소로 인식하고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성 전략과 목표를 수립하고,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급망 실사를 통해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개선하고,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협력을 통해 공급망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협력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과 고충처리 절차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및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기반하여 공급망 전반의 부정적 인권·환경 영향을 식별·예방·개선하고 있으며, 향후 공급망 내 실질적 영향과 위험을 중심으로 공시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거버넌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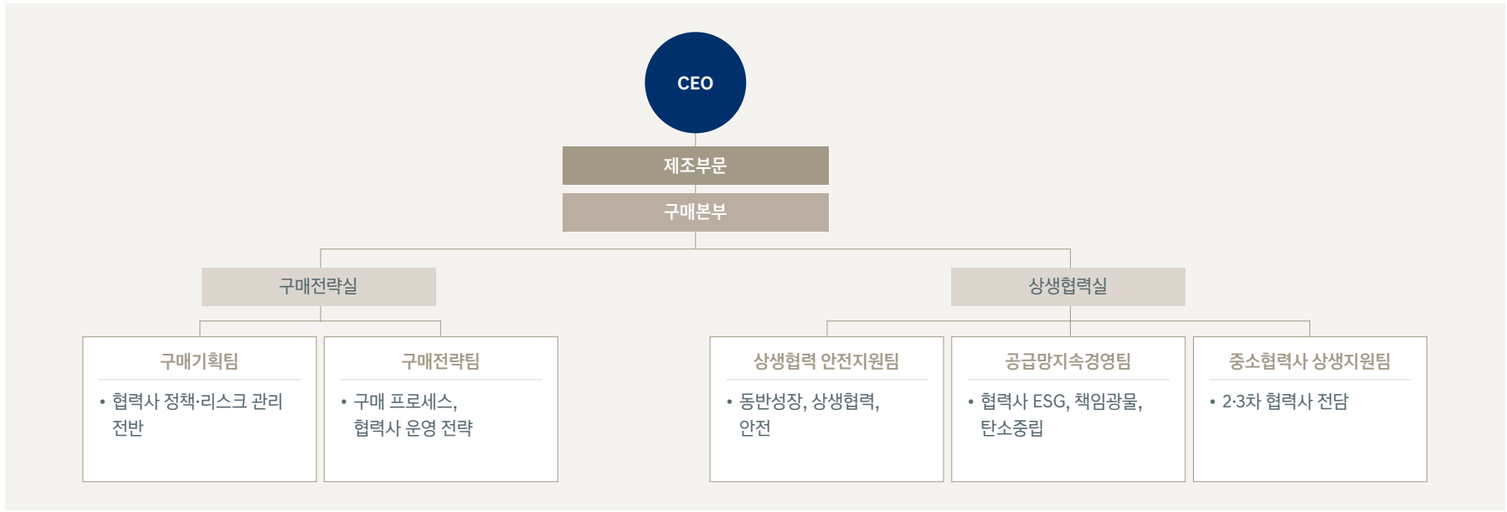
경영진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거버넌스

현대자동차는 공급망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구매본부 산하에 상생협력안전지원팀과 중소협력사상생지원팀을 두어 협력사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급망지속경영팀은 공급망 내 지속가능성 리스크를 관리 및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이슈 발생 시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 현황을 보고하고, 공급망ESG 관련 주요 성과지표는 조직 KPI와도 연계되어 연간 단위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분쟁 및 고위험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를 근절하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광물 정책 준수 및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 분쟁 지역의 환경 오염과 인권 침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거버넌스



협의체 및 전담 조직

공급망 지속가능협의체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ESG 규제 강화와 이해관계자의 정보 공개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지속가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급망지속경영팀을 주관으로 지속가능성 주관 부서, 법무, 리스크, 이해관계자 대응 부서 등 유관 부서가 정기적으로 참여하며, 글로벌 이슈에 대한 법무검토, 주관부서 선정 및 대응방안 수립, 공급망 지속가능성 이슈 공유 체계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을 논의합니다. 협의체는 분기별로 시행하며, 주요 안건 발생 시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리스크를 다각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내부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법률 및 평판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 담당 조직 현대자동차는 구매본부 내 전담조직을 통해 강화되는 글로벌 공급망 실사 규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와 협력사 탄소중립 추진을 총괄하여, 국내외 완성차 공장에 공급되는 부품, 원부자재, 설비 등의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에 적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구매 실무 담당자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책임 있는 조달체계 강화를 위해 구매 실무 담당자들은 각 권역에서 규제 환경과 공급망 특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지역별 구매조직의 ESG 이해도 및 관리 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유럽, 인도·인도네시아, 북미 주요 권역을 직접 방문하여 현지 구매 주재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ESG 관련 법규(EUDR, EUBR, CSDDD, FLR 등), 본사 주요 정책, 인권·환경 리스크 관리 지표, 그리고 탄소배출량 관리 절차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속가능한 공급망

전략

영향, 위험 및 기회

공급망 관련 식별 결과

현대자동차는 공급망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ESG 이슈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스트림 공급망에서는 협력사의 환경 및 사회적 책임 영역에서 다양한 부정적 영향과 위험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부족은 근로자의 산업재해 위험을 증가시키며, 아동노동, 강제노동, 분쟁광물 사용 등 기본적 인권 침해 사안은 해당 지역 근로자와 아동의 권리를 중대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망 내 이슈들은 협력사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법적 제재, 생산 차질, 평판 훼손 등을 통해 현대자동차의 재무적 위험으로도 전이될 수 있어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공급망 관리가 필요합니다.

전략 및 의사결정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

공급망 지속가능성 전략 및 목표 현대자동차의 이해관계자는 차량의 설계부터 생산, 유통, 서비스 및 폐기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참여하는 공급업체, 유통업체, 고객, 규제기관, 지역사회 등을 포함합니다. 이해관계자는 공정한 계약과 투명한 대금 지급을 통해 신뢰 관계를 구축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고, 현대자동차는 품질 경쟁력, 기술 경쟁력 강화, 공급 안정성, 친환경 생산체계를 통해 제품 신뢰성 및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기회를 모색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함께 품질·기술 경쟁력 확보, 안정적 공급망 운영, 공정거래 및 친환경 생산체계 구축 등 위험 및 기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망 관리 전략을 도출하고,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협력사 지속가능성 리스크 진단·실사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망 관리 전략은 ESG 측면의 지속가능성뿐 아니라 품질·비용·납기 안정성 확보와 사업 연속성 리스크 관리를 포함한 통합적 관점에서 운영됩니다.

2022년부터 전 세계 1차 협력사 모두를 대상으로 공급망 지속가능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모든 1차 협력사가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획득할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 지속가능성 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까지 안전설비 구축, 보안시스템 구축, 탄소 배출 저감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공급망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고위험사 현장실사 실시율, 개선조치 이행률, 인증 제련소 조달비율 등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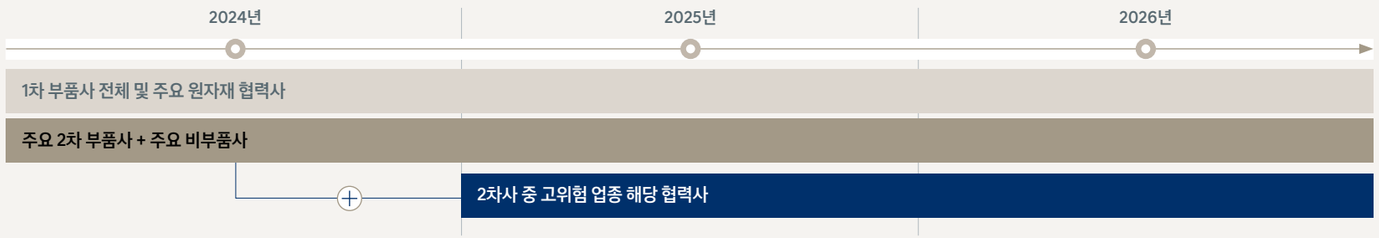
공급망 지속가능성 진단 실사 수행 3개년 로드맵 현대자동차는 전체 1차 부품사 대상으로 공급망 지속가능성 진단 실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차사의 경우, 환경·인권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식별된 도장, 도금, 주조 및 단조 업종을 주요 리스크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해당 업종 2차사와 거래하는 1차사에게는 2차사 실사 등 강화된 하위공급망 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분포 현황 현대자동차의 협력사는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한국, 미국, 중국, 유럽, 인도, 중남미, 동남아 등). 이 중 핵심부품(수소 연료전지 부품, 배터리 부품, 제어 부품, 전동화 부품 등)을 공급하거나 타 협력사로의 대체가능성이 낮은 협력사, 그리고 거래규모가 큰 협력사들을 중점관리(핵심) 협력사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5년 등록 및 관리하고 있는 1차 협력사는 1,690개(구매 비중 100%)로 국내 379개, 해외 1,311개입니다. 1차 협력사 중 중점관리 협력사는 93개(구매 비중 71%)입니다. 중점관리 협력사 선정 시에는 핵심 부품 공급 여부 및 거래 규모뿐 아니라, ESG 실사 결과 고위험으로 확인된 협력사도 포함하여 강화된 관리 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사업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2차 협력사도 파악하고 있으며, 2차 이상 협력사 중 중점관리 협력사는 39개입니다.

공급망 관리 5대 전략 방향

5대 전략방향	성과 지표
품질 경쟁력	입고불량률, 클레임변제율, 품질경영, 제조공정 현장평가, 외주사 관리
기술 경쟁력	기초역량, 수행능력, 미래역량, 신뢰성 시험역량, S/W 검증역량
공급 안정성	원활한 부품공급(생산라인 정지 예방), A/S부품 납입률, KD부품 납입률
공정 거래	대금지급 조건, 계약 공정성, 법/규제 준수, 상생협력 활동(동반성장 지원)
친환경 생산체계	환경경영시스템, 에너지 사용, 대기오염물질, 폐기품, 유해화학물질 관리

공급망 지속가능성 진단 실사 수행 3개년 로드맵



지속가능한 공급망

전략

공급망 내 주요 인권·노동권 리스크 및 분포 현대자동차의 공급망은 완성차 부품 조달부터 원자재 채굴에 이르기까지 복수의 국가와 산업에 걸쳐 있으며, 공급망의 단계와 지역에 따라 상이한 인권·노동권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현대자동차는 RBA(책임 있는 비즈니스 연합) 리스크 평가 플랫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및 외부 전문기관의 글로벌 리스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자동차 산업 공급망의 구조적 리스크를 파악하고, 이를 당사 실사 프로세스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지속가능성 확산

협력사 행동규범 현대자동차 협력사 행동규범은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모든 협력사가 준수해야 할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분야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범은 UN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ILO 핵심협약,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UNGC 10대 원칙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여 수립되었습니다. 특히 1차 협력사에게는 행동규범의 하위 공급망 전개(cascade) 의무를 부여하여, 2·3차 이상의 N차 협력사까지 행동규범 준수 요구사항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력사는 경영 의사결정 및 사업 운영 과정에서 협력사 행동규범의 원칙을 반영해야 하며, 현대자동차가 직접 또는 제3자 기관을 통해 수행하는 지속가능성 리스크 진단 및 실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또한, 현대자동차의 리스크 개선 권고에 따라 상호 협의를 통해 리스크 완화 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이행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협력사 행동규범 정책 개정 시 본부 직원 및 협력사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 계획 및 프로그램과 관련한 주요 사항은 이사회 차원에서 감독 및 검토를 거쳐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개정 내용은 내부 교육을 통해 구매본부 및 관련 부문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특히, 협력사 행동규범에는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공급망 내 어떠한 단계에서도 직·간접적으로 강제노동과 연계된 원재료, 부품 및 구성품을 조달하지 않으며, 협력사에도 강제노동 사용 금지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제노동과 관련된 공급망 실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여 공급망 내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책임 있는 조달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현대자동차 협력사 행동규범

입찰제도 내 지속가능성 반영 현대자동차는 안전보건 및 환경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 배포, 지속가능성 리스크 진단·실사 등을 통해 협력사의 안전·환경 사고 발생 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협력사에 대해서는 입찰 시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신규 협력사 선정 시 지속가능성 및 안전·보안 등에 대한 평가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를 거래조건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기존 거래 협력사들도 해당 평가 결과를 입찰제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협력사가 평가를 통과한 경우, 협력사의 평가보고서, 실태조사서뿐만 아니라, 윤리서약서, 친환경 부품공급 협정서, 품질보증협정서 등 지속가능성 향상에 관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공급망 실사 규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공식 홈페이지 및 기본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정된 지속가능성 규정은 협력사와의 계약 갱신 시점에 맞추어 신규 계약서에 적용함으로써 협력사가 협력사 행동규범을 준수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시 신속히 시정 또는 중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협력사의 계약위반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현대자동차는 견적요청서에 강제노동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등 협력사가 실질적인 지속가능성 관리를 이행하도록 계약 체결 및 갱신 과정에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주요 리스크

리스크 유형	발생 단계	고위험 지역/업종	현대자동차 공급망 관련성
강제노동 (채용 수수료 등)	원자재 채굴 ~ 1/2차 부품 제조	• 이주노동자 의존도 높은 업종 • 정부-기업 강제 배치 프로그램 운영 지역/업종	해외 현지 부품 공급망
아동노동	원자재 채굴 ~ 1/2차 부품 제조	• 광물 채굴 현장 (OECD CAHRA[1] 국가 등) • 이주노동자 고용 비율이 높은 제조업	해외 현지 부품 공급망 배터리 원자재 공급망
산업안전보건 미흡	원자재 채굴 ~ 1/2차 부품 제조	• 현지 법규 취약 국가 • 화학·분진 노출 등 고위험 공정 보유 업종	2차사 리스크 우선 관리 업종 (주조·단조·도장·도금 등)
환경 오염 (수자원, 생태계, 산림 등)	원자재 채굴	• 코발트·리튬·니켈 등 배터리 광물 채굴 지역	배터리 원자재 공급망
원주민 권리 침해 (FPIC 미준수)	원자재 채굴 및 가공	• 코발트·리튬·니켈 등 배터리 광물 채굴 지역 • EUDR 적용 대상 원자재 (고무 등)	배터리 원자재 공급망 EUDR 적용대상 품목 (타이어 등)

[1] CAHRA: 분쟁영향 및 고위험 지역, Conflict-Affected and High-Risk Areas

지속가능한 공급망

전략

책임 있는 광물 관리

책임광물 관리 로드맵 현대자동차는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의 핵심 요소로서 책임광물 관리의 단계별 로드맵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광물 중대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분쟁광물(주석, 탄탈럼, 텅스텐, 금)과 코발트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관리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2025년에는 관리 대상 광물을 22종으로 확대하고, 중대성 평가를 통해 해당 광물 중 니켈, 리튬, 천연흑연 등 배터리 소재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추가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책임광물 정책을 개정하고, 관리 프로세스를 고도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추가 선정된 중점 관리 대상 광물에 대해 공급망 서면/현장실사를 수행하여 실질적인 리스크를 식별 및 관리 중에 있습니다. 2026년에는 중점 관리 대상 광물을 기타 광물까지 확대하여 실질적인 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현대자동차는 책임광물 공급망의 투명성과 회복력을 제고하고 인권 존중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책임광물 관리 방안

구분	주요 리스크	관리방안
분쟁광물	무장단체 자금 지원 등	RMAP[1] 인증 제련소 여부 확인 (CMRT[2])
배터리 소재	아동/강제노동, 환경오염, 수자원 고갈, 원주민 권리침해 등	인증 제련소 여부 확인 (EMRT[3]), OECD 가이드라인 기반 현장실사
기타 광물		LPPM[4] 등 관련 인증 여부 확인, OECD 가이드라인 기반 리스크 식별 및 완화 조치 수행

[1] RMAP(Responsible Minerals Assurance Process): RMI(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에서 운영하는 책임 있는 광물 보증 프로세스로, 공급망 내 분쟁광물 사용 여부 확인 및 책임 있는 광물 조달을 위한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평가하여 인증 부여

[2] CMRT(Conflict Minerals Reporting Template): 분쟁광물 보고 템플릿

[3] EMRT(Extended Minerals Reporting Template): 책임광물 보고 템플릿

[4] LPPM(London Platinum and Palladium Market): 런던 귀금속 시장의 백금 및 팔라듐 거래 감독 기관으로, 해당 기관에서 백금 및 팔라듐 공급망의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 책임 있는 원자재 조달 인증 프로그램 운영

책임 있는 원부자재 조달 정책 현대자동차는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불법 관행으로 인한 환경 피해 및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책임 있는 원부자재 조달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원부자재의 환경·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 프로세스 내 참여가 필요한 유관 부서 임직원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조달 과정에서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보고하도록 장려합니다. 나아가 현대자동차는 원부자재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법률 및 규제 준수, 산업 동향을 고려해 성과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합니다.

현대자동차 책임 있는 원부자재 조달 정책

책임광물 정책 현대자동차는 분쟁지역에서 인권 침해, 환경 파괴 등 비윤리적으로 채굴 및 유통되는 분쟁광물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분쟁지역에서 비윤리적으로 채굴되는 분쟁광물(주석, 탄탈럼, 텅스텐, 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적법하고 윤리적인 유통과정을 거친 제품을 제공한다'는 기본방침에 따라, 협력사와 공동으로 분쟁광물 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하여 제품 내 분쟁광물 포함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콩고민주공화국 코발트 광산의 아동노동 이슈 등을 관리하고자 OECD Due Diligence Guidance에 따라 코발트 공급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ILO 기준을 반영한 아동·강제노동 문구 관련 표현 보완과 관리 원칙 명확화 등을 포함해 정책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협력사에 대해 OECD 실사 가이던스(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s of Minerals from Conflict-Affected and High-Risk Areas) 준수를 요구하며, 이를 협력사와의 계약 조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에게 분쟁광물 관리 가이드를 제공하고 관련 설명회를 지원해 분쟁광물에 대한 인식 제고를 돕고 있으며, 나아가 협력사의 거래처에도 분쟁광물 미사용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를 촉구하는 광물 구매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책임광물 정책

협력사 분쟁광물 인식 제고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의 분쟁광물 현황 조사를 통해 주요 전기차종 생산에 투입되는 품목이 분쟁광물이나 코발트를 사용하고 있는지 사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분쟁광물을 사용하는 1·2차 협력사, 전기차 배터리 협력사, 당사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분쟁광물 관리 배경, 주요국 분쟁광물 규제 동향, 당사 분쟁광물 관리방침, CMRT·EMRT 소개 및 조사 계획, RMAP 인증 제련소 거래 여부 등에 대한 설명회와 교육을 실시하는 등 분쟁광물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제고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현대자동차는 별도의 서면평가/현장실사 또는 1차사 계약조항을 통해 N차사 협력사를 대상으로 분쟁광물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주민 인권 보호를 위한 FPIC 절차 준수 현대자동차는 주요 원자재 조달과 관련된 공급망 내 사업 운영이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프로젝트 계획 수립 과정에서 해당 원주민 공동체의 자유로운 사전인지동의(FPIC,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를 확보하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동의 절차를 넘어, 해당 공동체에게 충분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의 고유한 문화와 가치, 그리고 의사 결정 구조를 존중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아울러 현대자동차는 유엔 원주민 권리선언(UNDRIP)의 취지를 존중하며, 협력사 행동규범을 통해 토지 취득·사용 시 원주민 권리 존중, 불법 강제퇴거 금지, 이해관계자 협의 절차 마련 등을 협력사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FPIC 관련 우려사항은 당사의 고충처리 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이 확인될 경우 해당 협력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원주민 권리 지원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당사의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 권리 및 원주민 권리를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공급망

전략

EU 산림전용방지규정 대응을 위한 원부자재 공급망 관리 현대자동차는 EU 산림전용방지규정(EUDR, EU Deforestation Regulation)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규제 대상인 목재, 고무, 팜유 등 7개 원자재의 원산지 지리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EU 역내로 수입되는 품목뿐만 아니라, EU 역내에서 EU 역외 생산법인으로 수출되는 품목까지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주요 원산지는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으로 확인되었으며, 외부 전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국가별 산림전용 및 인권 위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단계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 평가에는 원주민 인권 침해, 토지사용 전환, 원산지에 대한 산림전용 등 EUDR에서 요구하는 핵심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유럽공장이 직접, 간접적으로 수입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EUDR 규제 대상 여부와 대응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며 공급망 전반에 걸쳐 EUDR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규 적용 품목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간접 공급 품목에 대해서는 협력사 대상으로 EUDR 규제 준수 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EUDR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직접 공급품목과 관련하여 EUDR 직접 적용 대상사는 2개사이고, 이 중 원산지가 확인된 1사에 대해서는 위험성 평가를 시행한 결과 중대 리스크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1개사는 원산지가 명확히 확인된 후 위험성 평가를 통해 법규 준수가 가능한 경우 거래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이와 같이 공급망 내에 중대한 위험요소가 식별될 경우, 이를 완화 또는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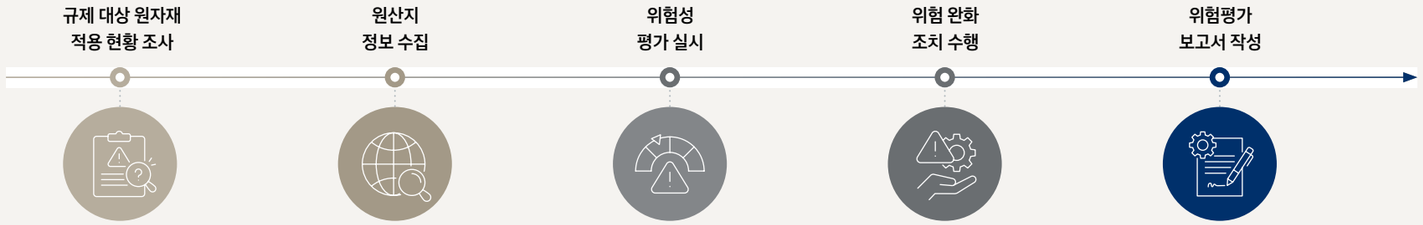
협력사 역량 강화

글로벌상생협력센터 글로벌상생협력센터(GPC)는 '현대자동차와 협력사가 동반성장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이라는 기본철학을 바탕으로, 자동차 산업 전반의 역량강화 및 경쟁력 향상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협력사가 자체 교육을 필요로 할 경우 교육시설 및 강사를 지원합니다. 현재 글로벌상생협력센터는 1·2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미래 경쟁력, 글로벌 역량, 리더십, 자동차 산업 전문가 양성, 직무 기본 교육 등 5가지 카테고리에 대해 17개 트랙과 650여 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K-모빌리티 브릿지 재단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부품 협력사의 품질 기술 경영의 전반적인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K-모빌리티 브릿지 재단과 협력하여 현장지도 활동, 분야별 교육 등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차 부품 산업계의 품질 및 기술력 향상과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협력사경영컨설팅 협력사가 R&D, 생산, 품질, 물류, 원가, 경영활동 분야 관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경험 및 노하우를 전수하는 경영컨설팅 활동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U 산림전용방지규정 대응 프로세스



2025년 협력사 대상 교육 현황 (단위: 명)

구분		교육 참여자	비고
K-모빌리티 브릿지 재단	품질아카데미	3,456	맞춤교육 과정 17개
	일반 교육 등	4,869	경영일반교육 및 세미나 등
글로벌상생협력센터	업종별 교육 등	93,806	650여 개 과정 운영
합계		**102,131**	

지속가능한 공급망

전략

협력사 기술지도 프레스, 열처리, 용접, 도금, 단조 등 금속분야, 고무, 도장, 전기전자, IT 등 비금속분야 협력사의 부품 품질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K-모빌리티 브릿지 재단을 통한 기술지도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협력사의 품질불량 개선, 원재료 구매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술 지도 및 경영 컨설팅 지원 실적 (단위: 개사)

구분	구성	지도분야	2023년	2024년	2025년
기술 지도 (품질기술지원단)	업종별 전문위원	품질/기술 중점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개선을 지원	108	192	218
경영 컨설팅 (경영혁신지원단)	분야별 경영전문위원	연구개발, 생산기술, 품질관리, 기획 등의 경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 지원	30	12	12

협력사 대상 지속가능경영 확산·전파

동반성장소식지 배포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산업 안전, 정보보안, 지속가능경영 분야의 주요 정책 및 활동을 협력사와 공유하고자 동반성장 소식지인 '상생협력 Letter'를 제작하여 대외문, 동반성장 포털, 협력회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1차 협력사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동반성장 포털

협력사 ESG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현대자동차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및 책임 있는 조달을 실현하기 위해, 협력사의 사업장 인권·환경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업스트림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협력사의 주요 인권·환경 담당자를 대상으로 ESG 관리 역량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교육에서는 공급망 및 인권 관련 규제 동향, 주요 개념, 현대자동차의 '공급망 지속가능성 진단실사' 수행 지표에 대한 세부 가이드를 제공하였으며, 타 협력사의 인권·환경 리스크 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협력사의 실무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협력사가 글로벌 규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시, 산림전용방지 등 주요 규제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와의 탄소 전략을 조화롭게 연계하기 위해 자사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며, 공급망 전반의 기후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5년 협력사 ESG 역량 강화 교육 (단위: 개사)

구분	주요 내용	참여 협력사
ESG 역량 강화	ESG 심사원 양성과정 (1차사 대상)	352
	ESG 평가대응 기초 교육 (2차사/비부품사 대상)	925

2025년 협력사 ESG 세미나 운영 (단위: 명)

구분	주요 내용	참여 인원
글로벌 규제 대응	책임광물 관련 설명회	1,893
	EU 산림전용방지규정 대응 방안	150
ESG 정책 전파 교육	협력사 행동규범 등 ESG 정책 개정사항 교육	2,096

품질 경쟁력 제고

5스타 제도 협력사의 품질·기술·납입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제공하여, 협력사가 개선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5스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스타 인증 결과는 협력사 종합평가 항목 중 하나로 반영되며, 인증 취득은 협력사의 종합평가 점수 향상에 기여합니다. 협력사는 이를 통해 신차 개발 시 부품 공급 우선 검토 등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혜택을 기대할 수 있으며, 품질관리 비용 절감 및 독자 수출능력 확보 등의 효과도 함께 도모할 수 있습니다.

5스타 평가항목

품질 5스타	기술 5스타	납입 5스타
• 입고 불량률 • 클레임비용 변제율 • 품질경영체제 • 외주사 관리 등	• 기술개발 인력, 장비, 투자 • 신기술 실적, 특허, 신기술 센싱 • 제품개발절차 R&D 활동 수행수준	• 생산라인 정지 건수, 시간, 변제율 • A/S 부품 납입률 • KD 부품 납입률

지속가능한 공급망

전략

2·3차 협력사 품질평가 (SQ 마크 인증)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부품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자재·부자재 공급사(2·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공급자 품질인증제도(Supplier Quality Mark, SQ 마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1차 협력사에 원자재 및 부품을 납품하는 2차 이하 협력사의 시설 및 품질 공정을 정기적으로 심사·인증함으로써, 원자재 단계까지 품질 관리 체계를 확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평가는 전기·전자, 고무, 주·단조, 열처리, 도금·도장 등 19개 업종(44개 세부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 항목은 생산조건관리, 검사시험, 설비관리, 자재관리, 품질경영체제의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규 및 특별 평가는 현대자동차의 평가원이 직접 방문하여 시설 및 공정을 점검하고, 연1회 주기로 진행되는 정기평가는 1차 협력사 주관으로 시행됩니다. 평가 기준 점수(1,000점 만점 기준 600점 이상) 충족 협력사에 SQ 마크 인증을 부여하며, 인증 후에도 정기적인 사후 관리 평가를 통해 품질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협력사 대상 품질교육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의 품질 경쟁력을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내 1·2차 협력사 대상 품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상생협력센터에서 온라인 플랫폼 운영 및 집체 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품질경영 시스템 구축, 품질 기술, 관리 및 보증 등 품질 전반에 대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또한 GPC 품질전문가 제도를 운영하여 인증평가를 실시하고, 인증된 인력의 전문가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협력사의 품질관리 역량이 현장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품질 역량 강화 및 육성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의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 1차 협력사 대상 '품질 세미나'를 연 1회 개최하여 품질 이슈 개선 사례 및 공급망 품질 관리 방안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격월로 해외 현지 협력사 대표가 참여하는 동반진출 협력사 전체를 대상으로 '협력사 품질 월간 회의'를 실시하여 품질 동향 및 노하우를 공유하고, 동반 진출 협력사 법인장 대상 세미나를 실시하여 품질 관련 동향 및 품질 향상을 위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차 협력사에는 자동차 전문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를 파견하여 품질·기술·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현장 품질 경쟁력 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게스트 엔지니어 제도 자동차 부품 협력사의 R&D 부문 연구원이 현대자동차의 신차 부품 설계 및 개발에 참여하는 게스트 엔지니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협력사 연구원이 상주할 수 있는 사무환경과 부품성능 평가에 필요한 시설·장비·시험장을 무상으로 지원하며, 당사의 부품설계 및 성능개발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신차 부품설계 및 성능개발 협업을 통해 현대자동차와 협력사는 부품 및 성능개발 효율성 증대, 조기 품질 확보, 협력사 기술인력 육성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력 향상

협력사 기술 역량 강화 및 육성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의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당사가 보유한 R&D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력사별 부족 부문을 사전 분석하여 맞춤형 기술지원 및 신기술·신공법 활용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R&D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보유한 특허를 협력사에 무상으로 이전하고, 이전된 특허의 R&D 고도화 및 제품 적용 사례를 공유하는 신기술전시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2차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생산 전 과정을 ICT 기술로 통합하는 스마트공장 육성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협력사의 생산설비 현황을 고려하여 기초·중간·고도화 수준으로 구분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총 350억 원을 출연하여 1,054개 협력사의 스마트공장 전환을 지원하였습니다.

협력사 기술 보호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협력사의 핵심 기술 유출 및 분쟁 발생 시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하는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와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함과 동시에 특허도 공동으로 출원하여, 중소 협력사가 기술 및 특허를 침해 받을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특허출원 및 특허검색방법 등에 대한 온라인 기반 특허교육 실시, 협력사의 특허출원 비용 절감 지원 등 직·간접적으로 협력사 기술보호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품질안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결과 (협력사)

구분	교육 내용	대상 협력사	이수 인원	주기
1·2차 협력사	도장·사출·용접·열처리·절삭가공·전기전자 등 분야별 품질 기술 교육, 품질경영시스템 구축, 전자제품 품질 보증, 품질검사 실무, 설계품질 관리 등	4,682	15,514	상시

* 국내 모든 협력사 대상(100% 범위) 교육 시행

지속가능한 공급망

전략

지속성장 기반 강화

납품대금 현금 지급 및 원자재 가격 조정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에게 납품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매출액 5,000억 원 이상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게는 어음(60일)으로 지급하며, 주 1회 단위로 납품대금을 지급합니다. 수출용 부품을 납품하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에게는 납품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월 1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원자재가격 인상으로 인한 협력사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원자재가격 변화로 인한 영향을 당사가 흡수하고 있습니다. 철판, 귀금속의 경우, 현대자동차가 국제가격 기준으로 직접 구매하여 협력사에 공급하는 사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은 국제가격 등에 따라, 협력사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조정하는 연동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대상 주요 자금지원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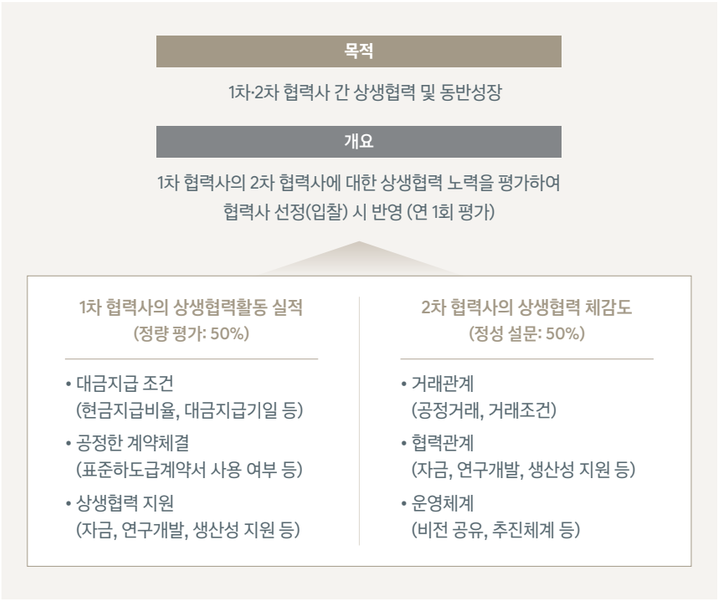
미래성장 상생펀드	• 374억 원 예치, 935억 원 지원 • 1·2차 협력사의 품질개선 및 생산성 향상 위한 투자자금을 저금리로 지원 (IBK기업은행)
미래성장 동반펀드	• 1,500억 원 예치, 2,250억 원 지원 • 1·2차 협력사의 품질개선 및 생산성 향상 위한 투자자금을 저금리로 지원 (현대커머셜)
2·3차 협력사 전용 대출 펀드	• 2,000억 원 예치, 2,000억 원 지원[1] • 2·3차 협력사의 경영환경 개선 위한 투자자금 및 운영자금을 저금리로 지원 (우리은행, 신한은행)
사업 다각화 지원펀드	• 500억 원 예치, 1,000억 원 지원 • 내연기관 부품협력사의 전동화 확대에 따른 사업다각화 투자자금을 저금리로 지원 (하나은행)
원자재가 연동제 지원펀드	• 500억 원 예치, 1,000억 원 지원 • 1차 협력사에 대한 원자재가 연동제를 2·3차사에 확대하기 위해 1차 협력사에 운영자금을 저금리로 지원 (신한은행)
대출이자 지원펀드	• 1,000억 원 예치, 2,000억 원 지원 • 금리 인상에 따른 유동성 지원을 위해 1·2차 협력사의 운영자금을 저금리로 지원 (하나은행, 신한은행)

[1]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모비스 3사 공동 출연

상생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상생협력 5스타 제도 운영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 간 상생협력 강화와 동반성장 문화 조성을 위해, 2차 협력사에 대한 1차 협력사의 상생협력 노력을 평가하여 입찰 과정에 반영하는 '상생협력 5스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차 협력사 대상으로 2차 협력사에 대한 상생협력 활동을 평가하며, 현금지급비율, 대금지급기일 등 대금지급 조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등 계약의 공정성, 경영 자금·연구개발·생산성 지원 등 상생협력 지원을 평가항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차 협력사 대상으로 1차 협력사의 상생협력 활동에 대한 체감도를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공정거래·거래조건 등과 같은 거래관계, 경영자금·연구개발·생산성 등의 협력관계, 비전 공유 및 추진체계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설문항목으로 평가를 실시합니다.

상생협력 5스타 제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획득 동반성장위원회 주관으로 연 1회 200여 개 주요 대기업의 동반성장수준을 평가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2025년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동반성장지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정거래협약 평가'와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 종합평가'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수준을 계량화한 지표입니다. 공정한 계약 체결, 하도급거래 등 법 위반 사전 예방·사후감시 시스템 구축, 상생협력 지원 제도 운영 실적과 중소기업 대상 체감도 설문조사 및 실제 동반성장 제도 실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협력사 네트워킹 강화 현대자동차는 공급망 내 핵심 이해관계자인 협력사와 긴밀히 협력하며, 인권 및 환경 리스크 관리 전략을 공유하고 협력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협력사의 지속가능성 역량을 강화하고, 공급망 전반의 책임 있는 경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국내외 협력사를 대상으로 주요 법규 동향을 체계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내부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시스템을 통해 신규 법규 제정 및 주요 법규 변경사항이 업데이트될 경우, 협력사에 실시간 알림을 제공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ESG 관리 정책 개정 내용을 협력사에 공유하여, 개정된 지속가능경영 기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행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Global Supplier Day에는 국내외 핵심 협력사가 참석하여 미국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 등 공급망 실사 법령 현황 및 컴플라이언스 협조 사항을 공유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법무·구매·ESG 담당자 약 60명 규모의 그룹사 UFLPA 워킹그룹을 운영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규제 집행 동향과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공급망

전략

이해관계자 참여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현대자동차는 공급망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이해관계자와의 대화를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지속가능성 전략을 점검하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공급망 관리의 최신 트렌드를 식별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며, 보다 효과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 환경에서 효과적인 인권·환경 리스크 관리를 위해 업계 및 다자이해관계자(Multi-stakeholder) 이니셔티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RBA 회원사로서 RBA 행동 강령(Code of Conduct)의 기준을 공급망 실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RBA의 검증된 감사 프로그램(VAP)을 현장실사 기준 수립 시 반영하여, 고위험 협력사에 대한 현장실사의 객관성과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합니다. 이와 동시에 RMI 회원사로서 CMRT(분쟁광물보고템플릿) 및 EMRT(책임광물보고템플릿)를 활용하여 협력사 분쟁광물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공급망 내 제련소의 RMAP 인증 여부를 점검합니다. RMI가 운영하는 광물 데이터베이스와 제련소 인증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현대자동차가 단독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글로벌 광물 공급망 데이터에 접근하고, 공급망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의 전략적 파트너십인 Drive Sustainability에도 참여하며, 업계 표준 지속가능성 평가 설문(SAQ)의 주요 지표를 자체 협력사 ESG 서면진단 지표에 반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대자동차의 협력사 평가가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공통 기준에 부합하도록 합니다. 이와 더불어 2025년에는 국내 전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글로벌 ESG 평가 플랫폼인 EcoVadis 평가를 실시하여 국제적 정합성에 대해 추가 검증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는 기업과 NGO, 규제 당국 등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이해관계자 구조로 운영됩니다. 현대자동차는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당사 공급망 관리 정책과 실사 지표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공급망 인권·환경 관리의 실질적 효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와 별개로 NGO, 시민사회조직 등과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일례로 이해관계자로부터 제기된 배터리 소재 공급망 인권실사 강화 요구에 부응하여, EV 배터리 광물을 중점관리대상에 추가하고 공급망 매핑 및 실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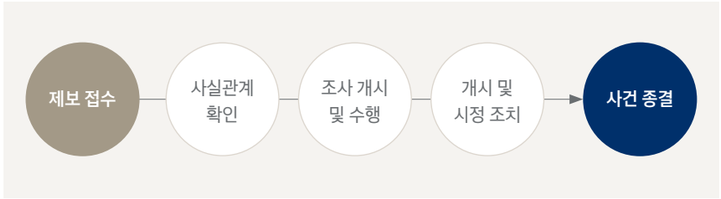
이해관계자 고충처리

협력사 소통 창구 운영 협력사에게 윤리적 행동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당사와 협력사가 공정하고 투명한 상생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현대자동차는 파트너 시스템 내에 공급망 지속경영센터, 협력사 소리함, 투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고충처리 시스템은 책임광물 공급망을 포함한 전체 공급망에 적용됩니다. '협력사 투명·윤리 실천 건의함'과 '2·3차 협력사 소리함'을 통해 협력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협력사로부터 고충이 접수될 경우, 내부적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제보자에게 세부 조사 개시 여부를 회신합니다. 세부 조사는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 최종적으로 마무리됩니다. 또한, 협력사가 현대자동차의 공정거래 법규 위반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당사와의 계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해당 협력사와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 제품·수량을 제한하지 않는 '보복금지정책' 시행 등 협력사 공급망 전반의 공정한 거래 관행 구축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협력사 ESG 고충접수 시스템인 공급망 지속경영센터를 통해 총 19건의 고충이 접수되어 개선조치를 취했으나, 공급망 인권/환경 리스크와 관련된 제보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접수된 고충이 공급망 관리체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접수·검토·후속 관리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고충처리 프로세스



* 각 단계별 진행 현황은 고충 접수자에게 공유

공급망 ESG 관련 고충처리 운영 현황 (단위: 건)

구분	접수 건수	처리 완료
공급망 지속경영센터	19	19

* 당사 공급망에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 제보 접수 채널

HMG 상생협력실천센터

협력사 고충처리 운영 현황 (단위: 건)

구분	접수 건수	처리 완료
협력사 투명·윤리 실천 건의함[1)]	13	13
2, 3차 협력사 소리함[2)]	118	118

1) 금품/향응, 갑질, 비리, 청탁 등 투명/윤리 관련 신고 채널
2) 상생프로그램, 제도/프로세스 등 협력사 일반 고충 접수 채널

현대자동차 투명구매신고센터 협력사 소리함

이해관계자 참여 및 소통 현대자동차는 공급망 리스크 식별 과정에서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과 함께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접수되는 제보와 우려사항을 실사 검토를 위한 주요 기준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언론 보도, NGO 및 시민사회단체, 규제 기관 발표, 학술 연구 등 다양한 외부 채널을 통해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 리스크 관련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신뢰성과 중대성이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즉시 추가 실사 절차를 가동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언론 보도 및 외부 제보를 통해 강제노동 리스크가 인지된 복수의 해외 협력사에 대해, 제3자 감사기관을 통해 산업계에서 널리 활용되는 실사 지표를 적용하여 현장실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실사 결과, 언론 보도 및 제보를 통해 인지된 강제노동 리스크는 실제 현장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접수된 공급망 우려사항의 중대성·신뢰성을 평가하는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자료 요청, 서면 확인, 제3자 독립 감사 등 단계적 대응 절차를 체계화하였으며, 공급망 전반에 걸친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공급망 투명성 제고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공급망

위험 관리

위험 관리 프로세스

공급망 관련 위험 관리 프로세스

리스크 진단·실사 절차 현대자동차의 공급망 지속가능성 리스크 평가관리는 리스크 사전식별(스크리닝)-서면진단-현장실사-개선 및 모니터링 단계로 구성되며, 모든 협력사는 서면/현장실사를 통해 협력사 행동규범 준수 여부를 점검받고 있습니다. 공급망 내 발생가능한 지속가능성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글로벌 동향에 따라 진단지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실사 법령에 대응하기 위하여 강제노동 리스크 관련 공급망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통합적 공급망 지속가능성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공급망 관리 전략 연계 진단·실사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의 품질 경쟁력, 기술 경쟁력, 공급 안정성, 공정거래 준수, 친환경적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공급망 관리 5대 전략방향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5대 전략방향을 달성하기 위해 각 방향별 주요 성과지표(입고불량률, 신뢰성 시험역량, KD부품 납입률, 대금지급 조건, 에너지 사용량 등)를 수립하여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가 당사의 공급망 관리 전략에 참여·이행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전략 연계 관리 지표' 및 '지속가능성 리스크 진단 지표'를 설계하였으며, 해당 지표를 바탕으로 협력사 수준을 진단·실사(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결과는 구매정책에 반영되고 있으며, 신규 거래 협력사의 경우 지속가능성 리스크 진단 평가에서 기준 점수를 충족한 경우에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사전식별(Risk Filter) 현대자동차는 공급망 내 잠재적 및 실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리스크 진단 및 실사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리스크 스크리닝을 수행하며, 스크리닝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망 내 리스크 수준을 '높음', '중간', '낮음'의 3개 레벨로 구분합니다. 리스크 스크리닝 결과에 따라, 정기 모니터링, 추가 실사 등의 후속 조치를 권고 및 이행하고 있으며, 특히 '높음' 이상의 리스크 수준으로 평가된 협력사를 대상으로 공급망 세부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세부점검 대상은 알루미늄, 철강, 타이어, 배터리, 폴리실리콘 등 주요 부품군을 중심으로 하며, 외부 환경 변화 및 신규 리스크 발생 가능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운영됩니다.

리스크 진단·실사 단계

- **사전식별** • 예상되는 리스크를 협력사 소재 국가별, 산업별, 납품 제품별로 분석 • 외부 리스크 데이터 베이스 제공 업체 통해 강제노동 리스크 스크리닝 진행
- **서면진단** • 온라인 시스템(IT)에 접속하여 협력사가 지속가능성 리스크 수준을 자가진단(Check-list) 및 근거문서 증빙
- **현장실사** • 외부 전문가와 공동으로 협력사를 방문하여 현장상황을 확인하거나, 증빙문서 진위 여부를 확인
- **개선조치** • 서면진단 또는 현장실사 과정에서 발견된 고위험 요소는 즉각 개선조치 요청, 또는 개선계획 수립 권고
- **모니터링** • 개선 계획 이행 현황에 대한 지속 모니터링 수행

공급망 리스크 사전 식별 단계

국가·업종·부품 및 원부자재별 리스크 파악

협력사가 소재한 국가별, 업종별, 납입 부품 및 원부자재별 리스크를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국 정부 및 연구기관 발표자료, 각종 미디어 및 소셜 네트워크 자료 등을 활용합니다.

공급망 지속가능성 리스크 진단 결과 분석

확인된 리스크는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등 각 영역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공급망 리스크 개선방안 도출 및 진단지표 개정 등에 반영합니다.

공급망 가시화 시스템 통한 공급망 매핑

1차 ~ N차 협력사의 공급망 현황을 보여주는 공급망 가시화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공급망 가시화 시스템의 N차 공급망 정보를 외부 스크리닝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리스크 식별 및 평가 절차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지속가능한 공급망

위험 관리

특히, UFLPA 관련하여, 미국 CBP(세관국경보호국)의 집행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자동차·항공우주 산업군이 전체 UFLPA 검사 선적의 약 80%를 차지하는 고위험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당사 법무 부서는 수만 개에 달하는 협력사 전체를 대상으로 강제노동 리스크 스크리닝을 상시 수행할 수 있는 자동화 스크리닝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CBP 통관보류 상황을 가정한 모의 통관보류 대응훈련(Mock Detention)을 고위험 협력사 대상으로 실시하여 공급망 증빙 서류 확보 역량을 사전 점검하고, 개선 계획서를 징구하는 등 선제적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면진단(Written Assessment) 현대자동차는 당사만의 차별화된 지표와 기준으로 공급망 지속가능성 리스크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서면진단은 협력사 행동규범 요구사항과 연계된 지표로 구성되며, 국내외 모든 협력사가 접근가능한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됩니다. 협력사는 자가진단방식으로 평가지표에 응답하고 증빙문서를 첨부해야 하며, 서면진단 결과는 협력사의 지속가능성 리스크 확인, 현장실사 대상사 선정, 고위험 협력사 구분 등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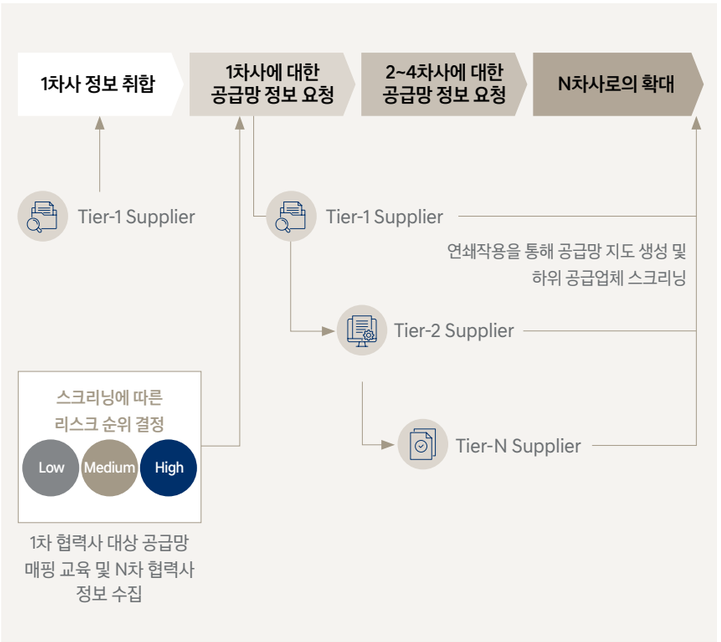
리스크 진단 지표 구성 현대자동차는 공정거래, 환경, 노동, 안전·보건, 공급망 실사 등과 관련된 법규 및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EcoVadis, 책임 있는 사업자 연합(RBA), 자동차부품공급망 관련 이니셔티브(Drive Sustainability) 등의 지표와 기준을 활용하여 현대자동차만의 공급망 지속가능성 리스크 진단 지표를 수립하였습니다. 공급망 지속가능성 리스크 진단지표는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의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협력사의 규모와 핵심지표 충족여부 등을 감안하여 평가결과를 공급망 운영전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평가기관	• 제3자 외부 평가기관을 통해 진행하여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
평가 시 활용한 이니셔티브	•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EU CSDDD) •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 EcoVadis • Drive Sustainability •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UN Global Compact • Carbon Disclosure Project

현장실사(On-site Audit) 현대자동차는 서면진단 결과 및 업체별 인권·환경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장실사 대상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면진단 결과 응답내용 및 증빙자료 제출이 미흡하거나, 잠재적 또는 실재적 지속가능성 리스크가 확인되는 협력사를 현장실사 대상에 우선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총 127개사에 대해 현장실사를 수행하였으며, 현장실사 과정에서는 협력사의 근로 조건 및 노동 환경, 원주민 인권 보호, 폐기물 및 오염물질의 적법 처리, 안전보건 체계, 정보 보안 관리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시스템과 규정을 점검하였습니다. 2025년 현장실사 결과, 국내 및 글로벌 법규 위반 발생 가능성이 있는 25개 협력사 전체에 대해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고위험으로 확정된 협력사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따른 다양한 단계적 리스크 저감 조치를 병행 적용하여, 단순 식별을 넘어 실질적 리스크 차단으로 이어지는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외부 이해관계자 제보 등을 통해 강제노동 리스크가 인지된 해외 협력사에 대해서는 법무 부서 주도 하에 독립적인 제3자 기관을 통한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리스크 실재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실사 결과 중대한 인권 리스크는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고위험 협력사 식별 프로세스



공급망 지속가능성 리스크 진단 지표



지속가능한 공급망

위험 관리

분야별 주요 개선 사항 공급망 지속가능성 리스크 진단 결과 확인된 주요 미흡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협력사에게 벤치마크 기업 평균 점수 및 최고점수와, 미비점 및 개선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평가 결과 보고서를 배포하여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협력사의 실질적인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현대자동차가 제공할 수 있는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리스크 영역	주요 식별 사항	현대자동차 대응 방향
생물다양성·생태계	생물다양성 영향평가 미실시, 생태자원 관리체계 부재	영향평가 수행 요구 및 관리 필요성/방법론 교육 제공
수자원 관리	용수·폐수 관리 체계 미흡, 정량적 수질 지표 관리 부재	용수 관리 지표 설정 지원, 모니터링 체계 구축 권고
업스트림 공급망 관리	협력사 리스크 실사 체계 미흡, 협력사 선정 시 ESG 미반영	공급망 ESG 반영 기준 제공, 협력사 행동규범 업스트림 공급망 전파 강화
온실가스·기후변화	Scope별 목표설정 및 구체적인 감축 로드맵 수립 미흡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관련 교육/정보 제공
책임 있는 원자재 조달	RMAP 미인증 제련소 거래, 원산지 추적 문서 미비	인증 제련소 거래 전환 요구

책임 있는 광물 위험 관리

책임광물 선정 현대자동차는 구매력을 단순히 경영 활동에 필요한 수단을 넘어,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책임 있는 조달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원자재의 출처를 명확히 이해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국제 기준을 준수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책임광물 선정 과정에서는 글로벌 법규 동향, 고위험 지역 분포도, 지역사회에 미치는 인권·환경 리스크 영향도, 당사의 조달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총 22종의 책임광물을 선정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분쟁광물 및 배터리 광물을 최우선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자동차는 주요 광물 공급망에 대해 공급망 매핑, 리스크 평가, 개선조치 이행 등 요구되는 절차를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책임광물 중대성 평가 결과

● 낮음 ● 보통 ● 높음

평가 기준	분쟁 광물 (주석, 텅스텐, 탄탈럼, 금)	배터리소재 (코발트, 리튬, 니켈, 흑연 등)	기타광물 (운모, 백금, 팔라듐, 로듐 등)
글로벌 법규	●	●	●
고위험 지역 분포	●	●	●
인권·환경 리스크	●	●	●
전략적 조달	●	●	●
이해관계자 관심	●	●	●
기타 (인증 여부 등)	●	●	●
중대성 평가 결과	중점관리 대상		일반관리 대상

* 고위험 지역(CAHRA)의 구체적 범위는 OECD 분쟁광물 실사 가이던스 및 관련 법규상 정의를 준용하며, 이는 정기적으로 검토/갱신됨

책임광물 관리 프로세스

책임광물 관리 프로세스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공급망 내 책임 있는 원자재 조달을 실현하기 위해 체계적인 책임광물 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협력사를 대상으로 OECD 공급망 실사 가이드라인(OECD Due Diligence Guidance), RMI(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 EU 배터리 규제(EUBR) 등의 국제 기준 준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단계별 접근 방식을 통해 공급망 내 인권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공급업체 계약 또는 협약에는 분쟁 광물 관련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1차 협력사로부터 'RMAP 적합 판정 제련소 사용 확약서'를 체결하여, 책임 있는 광물 조달을 강화하고, OECD 분쟁광물 실사 지침 Annex 2상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거래를 중단·종료할 수 있습니다.

책임광물 관리 프로세스



지속가능한 공급망

위험 관리

협력사 분쟁광물 현황 조사 및 리스크 확인 현대자동차는 주석, 탄탈럼, 텅스텐, 금을 사용하는 협력사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관련 공급망을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차 협력사로부터 분쟁광물을 사용한 부품을 공급하는 하위 협력사의 CMRT 자료를 접수하고, 협력사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함과 동시에, 분쟁광물 관리 프로세스에 적극 대응해야 함을 재차 설명하는 등 모든 조사대상 협력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협력사가 제출한 CMRT 자료를 바탕으로 협력사가 RMAP 인증 제련소와 거래하고 있는지 점검하였으며, 인증 제련소와 거래하지 않는 협력사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광물 구매 정책 시행 및 RMAP 인증 제련소와의 거래를 요구하였습니다.

광산·제련소 현장실사 현대자동차는 2025년 배터리 핵심 광물 공급망의 인권·환경 리스크를 직접 검증하기 위해 독립적인 제3자 실사 기관(RCS Global)을 통해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니켈·코발트 광산 및 제련소를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사는 OECD 실사 가이드, EU 배터리 규정(EUBR), IRMA 책임광물 기준(Critical Requirements)을 평가 기준으로 적용하여, 인권·노동·환경·거버넌스 전 영역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실사 결과를 협력사에 공유하고 개선 계획 수립을 요청하였으며, 이행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분쟁광물(3TG)·구리·리튬·흑연 관련 협력사를 대상으로 자가평가(SAQ)를 병행하여 공급망 전반의 리스크를 다층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CASE 콩고민주공화국 소재

사례 1
코발트·구리 광산 및 제련소

콩고민주공화국 소재 코발트·구리 광산 및 제련소 통합 운영 시설에 대해 실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사 결과, 강제노동·아동노동·불법 무장세력 연루 등 중대한 인권침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미성년 근로자 부재,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참여 체계 운영, 토지 취득 관련 법적 절차 준수 등 긍정적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OECD 및 EUBR 기준에서 공급망 실사 내부 관리 체계 미흡, ESG 리스크 평가 절차 부재, ISO 14001 인증 일시 중단, 테일링 시설 안전 모니터링 강화 필요 등 개선 과제가 식별되었습니다.

CASE 인도네시아 소재

사례 2
니켈 광산

인도네시아 소재 니켈 광산에 대해 실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사 결과, ISO 14001·ISO 45001 인증 유지, 인도네시아 환경부 PROPER 'Green' 등급 획득,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재생에너지 도입 추진,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 운영, 강제노동·아동노동 부재 등 환경·안전보건 분야의 우수한 관리 수준이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책임광물 조달 정책 공식화 미흡, 공급망 실사 전담 관리 구조 부재, 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고충처리 채널 미비 등 일부 개선 과제가 도출되었습니다.



사례 3
니켈 제련소

인도네시아 소재 니켈 습식제련소에 대해 실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RMI RMAP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ISO 14001·ISO 45001 통합 경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사 결과, 원료 광물의 원산지 추적 시스템 구축, 강제노동·아동노동 부재, 내부 신고 제도(Whistleblower) 운영 등 책임광물 조달 측면의 긍정적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테일링 저장시설의 설계 기준 및 안전 모니터링 체계의 국제 기준 수준 강화 필요, 원료 공급 광산에 대한 업스트림 실사 범위 확대 필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제3자 검증 미비 등 개선 과제가 식별되었습니다.

책임광물 보고서

지속가능한 공급망

지표 및 목표

지표

협력사 현황

전체 협력사를 1차, 2차, 비부품사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핵심 부품 거래 또는 거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 대상을 정의합니다. 전체 협력사 중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되는 1차 협력사의 구매 비중은 71% 수준입니다.

(단위: 개사)

구분	협력사 수	비고
총 관리대상 협력사 수	2,086	전체 1차 부품사, 핵심 2차사, 비부품사 포함 * 비부품사는 일정 거래금액 초과 업체 기준
중점관리 협력사 수	132	거래규모, 부품중요도, 리스크 노출도 고려하여 선정 * 중점관리대상 2차 협력사는 부품 중요도 및 소싱방식 고려하여 선정 * 전체 협력사 중 중점관리 1차 협력사 구매비중 71%

공급망 지속가능성 리스크 진단·실사

전체 1차 부품사, 핵심 2차사 및 주요 비부품사를 대상으로 100% 서면진단을 수행하고 있으며, 서면진단 결과 및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잠재적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되는 협력사를 중심으로 현장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거나 현지 법규위반 등 부정적 영향이 식별된 협력사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단위: 개사)

구분	협력사 수	비고
서면진단을 받은 총 협력사 수	2,086	협력사 서면진단 100% 수행 * 거래금액 기준 미달하는 비부품사 제외
중점관리 협력사 기준	132	
현장감사를 받은 총 협력사 수	127	
중점관리 협력사 기준	5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확인된 총 협력사 수	25	법적 리스크 발생가능성 높은 협력사
중점관리 협력사 기준	1	
개선계획 수립/이행이 완료된 총 협력사 수	25	개선계획 수립/이행 100% 완료
중점관리 협력사 기준	1	
개선 지원을 받은 총 협력사 수	1,477	ESG 교육, 컨설팅 등 지원 프로그램 제공
중점관리 협력사 기준	103	

목표

지속가능성 향상 목표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규제(EUBR, EUDR 등) 및 지속가능성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급망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맞게 협력사 ESG 평가 및 관리 프로세스를 지속·개선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속가능성 테마별 또는 협력사 유형별 평가지표를 지속 개발하고, 서면 평가 최소 요건 준수율 100%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아울러 책임광물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인증제도 준수율을 제고함으로써 공급망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급망 지속가능성 향상 목표

EUBR, EUDR 등 글로벌 지속가능성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테마 차별화 관리 및 책임광물 관리 체계화

협력사 ESG 평가

- 수자원, 생물다양성 등 핵심 테마별 지표, 중소기업용 평가지표 구축
- 협력사 ESG 서면평가 최소요건 준수율 100% 달성

책임광물 관리

- 책임광물 현장실사 확대
- 인증 제련소 조달율 향상

Material Topic

고객경험 혁신

현대자동차는 제품과 서비스가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에게 미치는 실제적·잠재적 영향을 고려하여 '고장 없는 무결점 품질의 자동차'라는 품질철학 아래, 안전 분야의 신기술 개발을 선도하며 운전자는 물론 승객과 보호자 보호에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차량 Life Cycle의 모든 영역에서 품질을 관리하여 고객의 요구가 상품·개발 단계로 지속적으로 피드백되고 품질안전 문제의 대형화를 예방하는 등 전 과정에 걸쳐 품질안전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목소리(VoC)를 청취하고, 차량 이용 주기 전반에 걸쳐 편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최고의 'CAR-LIFE'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브랜드 관리 및 윤리적 마케팅 활동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의사결정기구

이사회

현대자동차 이사회는 고객 안전 및 제품 품질과 연계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이사회 규정에 따른 안건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상정 또는 보고를 통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객 안전 및 제품 품질과 관련된 중요 사안이 사업의 계획과 운영, 주요 투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등에 해당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이사회 차원의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이사회는 회사 전반의 리스크 관리 및 내부 통제 체계 관점에서 관련 사안을 점검하고 있으며, 경영진의 의사결정과 실행이 이사회 규정 및 회사의 관리체계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경영진

고객 안전품질 거버넌스

품질과 안전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에도 양보와 타협이 없는 현대자동차의 최우선 가치이며, 2024년부터 이러한 가치 실현을 위해 안전과 품질을 모두 총괄하는 하나의 통합체제(GSQO, Global Safety & Quality Office)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 안전 및 품질 관리 철학의 근원적 변화를 추진하고 고객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브라이언 라토프(Brian Latouf) 사장을 최고 안전 및 품질 책임자(GCSQO)로 임명하였으며, 차량 개발부터 생산, 판매 이후까지 전 단계에 걸친 품질 관리 정책과 내부 프로세스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협의체 및 전담 조직

품질이슈 의사결정 시스템 현대자동차는 품질문제에 대한 경영층 의사결정이 가능한 정기회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품질회의에는 13개 이상 부문(품질, R&D, 글로벌사업관리 등)이 참석하여 품질에 대하여 경영층 논의와 부문 간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발 단계에서 안전이슈 및 품질문제를 조기 발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차 양산 이전 최종 단계에서는 정기적인 품질 점검을 통해 잠재적 품질 리스크와 조치 결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최고경영층에 공유함으로써 사전 예방 중심의 품질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KASO&QA본부 주관으로 연구개발, 구매, 품질, 생산관리 부서 등이 참여하는 리콜 재발방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장(임원)급이 참여하는 월간 회의를 통해 리콜 원인 분석, 개선 조치 이행 현황 점검, 예방 활동 공유 및 프로세스·제도 개선 논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품질본부, 연구개발본부 등이 협력하여 VoC 개선 프로세스를 운영함으로써 품질 개선 안건을 다각화하고 있으며, 긴급 VoC에 대응하는 등 고객 의견에 기반한 품질 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불편사항은 각 서비스 거점에 전달하여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략

영향, 위험 및 기회

고객안전 및 품질 관련 식별 결과

현대자동차는 고객경험 혁신과 관련하여 가치사슬 전반에서 영향과 위험을 식별하였습니다.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의 안전 측면에서는, 업스트림의 전기차 배터리 제조·보관 과정에서 안전 기준이 미충족될 시 화재·폭발 사고로 인해 생명과 안전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체 운영에서도 제품 설계·제조 단계의 품질 관리 미흡으로 인한 제품 결함이 소비자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재무적 관점에서는 안전 결함 발생 시 대규모 리콜 비용과 소비자 소송·배상 비용이 발생하고, 브랜드 신뢰도 하락에 따른 판매 감소 및 시장 점유율 하락 등 재무적 위험이 업스트림과 자체 운영 양 구간에서 수반될 수 있습니다.

제품 책임

제품품질 관리

품질 검증 역량 강화 현대자동차는 선행, 제조, 시장품질 각 분야의 역할과 주요 업무에 대한 교육을 상시적으로 실시하여 품질 밸류체인 전반의 검증 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교육과정들은 전체 임직원(계약직 포함)을 대상으로,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교육자료나 뉴스레터 배포 등의 방식을 통해 각 과정별로 운영됩니다. 또한 외부 교육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품질검증 전문가 과정을 개발·운영하여 전동화 전환에 따른 신기술 검증, 고객 관점 품질문제 검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품질안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결과 (임직원)

교육과정명	대상	교육 유형/주기	이수자 수
Safety	전사 임직원	상시 콘텐츠	27,965명
GSQO 아카데미	GSQO 일반직	집합 과정 (23차수 운영)	510명
안전품질 뉴스레터	GSQO 전체 임직원	뉴스레터	1,996명

고객경험 혁신

전략

고객안전품질신문고 운영 현대자동차는 고객 안전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 제보 채널 '고객안전품질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채널은 각종 위험(상해, 사고,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고객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개설되었으며, 제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보 내용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게시하며, 실제로 상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제보건을 '잠재 안전품질 문제'로 선정하고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여 고객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합니다. 2021년 8월 운영을 개시한 이후 2026년 2월까지 고객안전품질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누적 727건으로, 검토 중인 22건을 제외하고 접수 건수의 97%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자동차 안전성 평가

충돌 안전성 평가 현대자동차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및 각국의 교통사고 데이터와 함께 국내 서비스 네트워크 및 품질 부문에서 축적된 여러 정보를 연구에 활용하여, 보다 복합적인 사고 유형에 대응하고 그 결과를 개발 프로세스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 2019년에는 세계 최초로 2차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복합 충돌 에어백'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실차 충돌 시험에서 탑승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27종, 170세트의 인체 모형(더미, Dummy)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충돌 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를 정밀하게 계측하고 승객 안전 성능 향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안전성 평가 현대자동차는 전기차의 안전성과 성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 Insurance Institute for Highway Safety) 충돌안전 평가에서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아이오닉 9 등 전기차 모델이 최고 등급인 TSP+(Top Safety Pick +)를 획득했으며, 강화된 평가 기준 하에서도 충돌안전 및 사고예방 성능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전기차 전용 플랫폼(E-GMP)을 기반으로 한 전동화 모델들은 전면·측면 충돌 평가 등 주요 항목에서 최고 등급을 기록하며, 전동화 시대에 요구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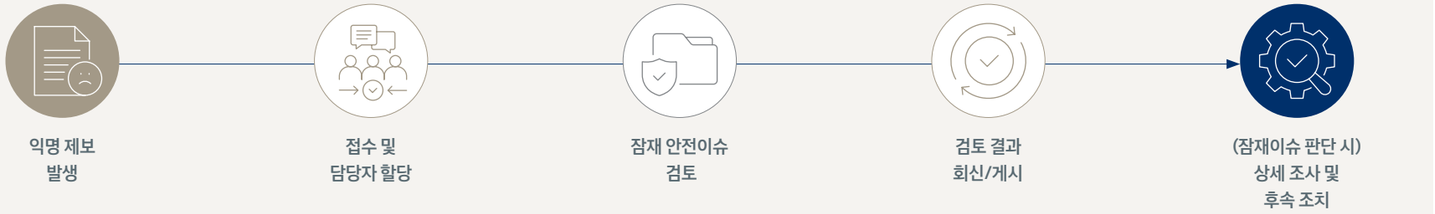
2025년 NCAP 평가 현대자동차는 매년 주요 지역별 대표적인 차량 안전 평가 기관으로부터 안전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차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NCAP, New Car Assessment Program)에서는 넥쏘, 아이오닉 9, 팰리세이드 등 24여 개 차종이 한국, 유럽, 미국, 호주 등 각국에서 최고 등급인 5-star를 획득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IIHS 충돌 평가에서도 우수 등급을 획득 받았으며, 현대자동차는 12개 차종이 TSP 이상의 등급을 받았습니다.

2025년 NCAP 안전성 평가 선정 차량

지역명	5-star(1등급) 획득 차종	비율[1]	평가대상 차종 수
한국	넥쏘, 아이오닉 9, 팰리세이드	100%	총 3개 차종
유럽	넥쏘, 아이오닉 9	66.7%	총 3개 차종
미국	팰리세이드, 싼타크루즈, 아이오닉 6 포함 23개 차종	76.7%	총 30개 차종
호주	아이오닉 9, 팰리세이드	66.7%	총 3개 차종

[1] NCAP 평가는 매년 출시된 모든 브랜드별 신차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NCAP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평가대상 차종 대비, 5-star등급(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차종의 비율임.

고객안전품질신문고(DFS, Drum for Safety)





NCAP(신차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

고객경험 혁신

전략

품질 보증 및 관리

현대자동차는 차량 개발부터 생산까지의 품질관리는 물론, 판매 이후 고객 안전과 보호를 위한 품질 보증 및 관리 활동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상수리 보증 현대자동차는 승용·SUV·상용(트럭, 버스) 등 차량 종류별 평균 수명주기, 내구성 등을 고려하여 무상수리 보증기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전기차·수소전기차에 적용되는 별도의 친환경 주요 부품에 대해서는 무상수리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친환경차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승용·SUV 기준, 차체 및 일반 부품 3년/6만km, 엔진 및 동력전달 부품 5년/10만km, 하이브리드 10년/20만km, 전기차·수소전기차 10년/16만km)[1]. 또한, 과거에 생산된 배출가스 다배출 차량에 대해서는 촉매 장치, 전기 제어장치, 기타 배출가스 부품을 보증하는 등 차량 주행으로 인한 대기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2]

[1] 승용 및 SUV 기준, 상용(트럭, 버스) 포함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2]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보증기간 및 특별 보증차량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자발적 리콜 및 재발 방지 관리 현대자동차는 고객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차량 리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불만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제조상의 결함이 확인되는 경우, 차량 리콜을 확정하고 고객에게 결함 사항, 시정 조치, 무상 서비스 등 보상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콜 및 품질 보증으로 인한 재무적 리스크를 사전 관리하기 위해 판매보증 충당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콜 원인 및 개선책 반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부문별 리콜 예방 활동을 공유하며, 프로세스, 시스템, 제도 개선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품질 관리 현대자동차는 최상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HMGICS 공장 등 주요 생산시설에 도입된 AI 머신비전 검사 시스템은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자동차 외관의 페인트 결함, 스크래치, 찌그러짐 등 미세한 불량을 자동으로 검출하고 분류하여 실시간으로 불량품을 생산라인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빅데이터 플랫폼(Hyundai Big Data Platform)을 통해 생산 현장의 센서 데이터, 차량 운행 데이터, 부품 이력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AI 모델이 이를 분석해 품질 이상 징후를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특정 부품의 미세 결함을 조기에 감지하여 대량 리콜 위험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확한 데이터 확보와 AI 기반 의사결정으로 불필요한 과정을 최소화하여 제품 생산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 극대화

고객응대 및 소통 채널

고객 응대 표준 가이드 운영 현대자동차는 차량 구매와 정비 과정에서의 고객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응대 표준 가이드'를 제작·배포하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는 개별 고객 응대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고객 접점별 핵심 응대요소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일관된 우수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해외 권역 및 판매법인은 고객 서비스 전략 방향을 수립하여, 지역별 시장 특성과 고객의 기대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객 응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고객 응대 역량 강화 차량 판매, 서비스 등 고객접점 채널 임직원의 CS 역량 강화를 위해 '서비스 융복합 교육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ICT 기반의 CS 학습 환경을 통해 임직원들은 차량에 대한 지식과 고객상담 스킬 관련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 'CS Way'라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고객 응대 솔루션을 현장에 전파하여 고객 응대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 공식 서비스 협력사 '블루핸즈'를 운영하는 대표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트렌드와 블루핸즈 CS 향상 방안을 제시하고, 고객 응대 우수사례와 다양한 상황에 따른 맞춤형 응대 방안을 공유하는 등 고객 응대 역량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리콜 수행 프로세스



2025년 CS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결과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수
고객 커뮤니케이션 스킬	5,014
리더십 개발 및 의사결정	179
심화 응대 상황 교육	40

고객경험 혁신

전략

고객의 목소리(VoC) 반영 현대자동차는 고객의 목소리(VoC)를 중요한 경영 요소로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 품질과 제품 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다양한 의견과 피드백을 고객센터, 홈페이지, 마이현대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채널에서 1:1 문의, AI 기반 챗봇, 온라인 양식 제출 등 기능을 통해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이를 서비스 및 제품 품질 향상에 최우선 요소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장애인 및 시니어 고객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VoC로 인입된 제품 품질, 커넥티드 카 서비스(CCS) 및 서비스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관리·분석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모든 고객 이슈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얻고,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이를 통해 더욱 혁신적이고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고객 피해 보상 및 분쟁 해결 현대자동차는 고객 피해 보상 및 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현장 접수, 본사 접수, 고객센터를 통해 불만 및 피해 사실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며, 대부분 전국 하이테크센터 직원들이 고객 상담, 보상 품의 및 지급까지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고객 피해 보상과 관련된 처리 현황은 순차적으로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품질, 제도, 응대 과실을 포함하여 피해의 원인이 당사의 귀책인 경우, 직접(차량 수리비용) 및 간접 손실(대물, 상해 등 확대 피해) 등 확인 가능한 손실액 전체에 대해 서비스, 현물, 현금성으로 보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본사 고객케어 관리 부문의 업무 지원을 통해 원활한 해결을 위한 협업을 진행합니다. 특히 고객불만으로 인한 소송, 장기 미출고, 장기 미해결 건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객서비스솔루션팀에서는 각 센터별 장기 미결 현황 보고를 받고, 해당 사안에 대해 본사 담당자와 종결 지원을 진행합니다. 화재, 차량사고와 같은 소송 건에 대해서는 기술적 자료 작성 및 소송 대응방안 수립을 위해 법무팀, 연구소 및 품질본부와 협의하며, 지속적인 품질문제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 품질 개선 부문과 협업하여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고객 대응방안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거점 및 브랜드 현대자동차는 믿음과 신뢰를 주는 서비스 거점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고객이 최고의 'CAR-LIFE'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직영 하이테크센터와 전국 약 1,200개의 공식 서비스 협력사인 '블루핸즈'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고객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동차 보유 고객을 위해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 수리가 가능한 블루핸즈를 각각 1,000여 개소, 180여 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 피해 보상 및 분쟁 해결 절차



블루핸즈	• 현대자동차 공식 서비스 협력사 –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환경 개선은 물론, 고객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
블루멤버스	• 현대자동차 오너 대상 서비스 – 2007년부터 시작된 현대자동차 오너를 위한 고객 서비스로, 다양한 블루멤버스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고객의 즐겁고 편리한 CAR-LIFE 지원
블루링크	• 현대자동차 커넥티드 카 서비스 – 최신 IT 및 통신기술을 활용해 원격제어, 안전보안, 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넥티드 카 서비스

고객경험 혁신

전략

올 케어 서비스 현대자동차는 올 케어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차량 관리와 안전을 위한 주요 서비스를 '카라이프'와 '카케어'로 구분하여 한눈에 알기 쉽게 제공합니다. 고객의 편리한 카라이프를 위한 서비스로는 방문세차·손세차 서비스와 제네시스 특화 서비스인 '에어포트 서비스'가 있습니다. 전기차 특화 서비스로는 방문 급속충전과 예약형 점검을 포함한 'EV안심케어', 충전 구독 요금제인 '럭키패스 H'가 있습니다. 카케어 부문에서는 보증수리 제도를 안내하고 선택형 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차체 수리 등을 지원하는 부가 서비스와 정기점검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디케어 서비스(외장 수리), 워런티 플러스(보증연장 상품) 등이 포함되며, 사전 예방 관점에서 블루안심점검, 찾아가는 오토케어 서비스 등을 통해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긴급 출동 서비스, 찾아가는 충전 서비스, 수소차 긴급 딜리버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올 케어 서비스(승용)[1]

카라이프

편리한 카라이프 서비스

카라이프 서비스
- 세차
  전국 세차 서비스 예약 서비스
- 에어포트 서비스
  여행 기간 동안 점검 및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용 안심 주차장에 차량을 보관

전기차 특화 서비스 (현대 EV 충전 솔루션)
- EV안심케어
  급속충전(20kWh), 유리 세정, 점검
- 럭키패스 H
  충전 구독 요금제

카케어

보증제도 및 서비스 상품

보증수리 제도
- 차종별, 부품별 보증기간 내 수리

소모품 교환 서비스

선택형 보증제도
-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차체 및 일반 부품 계통의 보증기간을 선택하여 변경

부가 서비스 상품
- 바디케어 서비스
  신차 출고 최대 1년(또는 주행거리 2만km) 동안 단독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차량의 외장 손상에 대해 판금, 도장, 교체 등을 보장
- 워런티 플러스
  추가 계약 기간/주행거리 동안 보증 기간을 연장하는 서비스

사전 예방 및 점검

블루안심점검
- 국내 판매 차량 보유 블루멤버스 회원: 승용 8년 (연 1회), EV 10년 (연 1회), 상용 3년 (총7회)

찾아가는 오토케어 서비스
- 고객이 요청한 장소를 방문하여 엔진오일세트 교체(필수) 및 소모품 교체(선택)

찾아가는 비포서비스
- 고객이 요청한 장소를 방문하여 차량 기본점검 및 정비상담 등을 제공하는 방문 서비스

긴급 상황 및 정비

긴급 출동 서비스
- 차량 고장으로 주행이 어려운 상황에 긴급 출동 및 현장 조치 지원

찾아가는 충전 서비스
- 블루멤버스 회원대상, 긴급 충전 서비스 무상 제공

수소차 긴급 딜리버리
- 차량 문제(방전 및 연료 소진) 발생 시, 견인 서비스 제공

과잉정비 예방 프로그램
- 블루핸즈 과잉정비 발생 시, 보험 조사 및 보상 실시

고객 차량 지원 서비스
- 보증수리 입고 고객을 위해 수리 기간 동안 차량 제공

- **과잉정비 예방 프로그램 운영** 현대자동차는 고객 신뢰도 제고 및 서비스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과잉정비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공식 서비스 네트워크인 블루핸즈를 이용한 고객은 과잉정비가 의심될 경우, 현대자동차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 후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외부 보험사가 주관하는 조사 결과에 따라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과청구 금액 100~1,000% 보상이 진행됩니다.

- **EV 라이프 통합 케어 프로그램** 현대자동차는 2024년 전기차 고객 케어를 강화하기 위해 EV 에브리케어 프로그램을 론칭하고, 고객이 차량을 살 때부터 팔 때까지 전기차를 경험하는 모든 순간을 빠짐없이 케어하고 있습니다. 구매 혜택으로 20만 충전 크레딧을 지원하며, 보유기간 내 EV 바디케어 서비스, 신차교환 프로그램 등을 통해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충전 등 고객 편의 및 긴급 상황 지원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안전한 전기차 운행을 위한 안심 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현대자동차의 지속가능경영 목표 달성에 기여하며, 고객경험을 한층 더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글로벌 고객 서비스 최적화 현대자동차는 최상의 애프터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경험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 판매법인 및 대리점과 함께 혁신적인 서비스 운영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고객 서비스 여정 전반에 대한 프로세스를 표준화하여 재정립하고, 고객 응대시간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인 네트워크 운영 및 신기술 접목을 통한 고객 서비스 역량 향상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부문의 전사 수익성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서비스 운영을 고도화하기 위해 해외 딜러의 역량 강화 및 인력 육성에 힘썼으며, AI 기반 기술정보 추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서비스 기술 플랫폼과 인프라를 강화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앞으로도 시장별 특성과 고객 기대를 반영한 맞춤 전략으로 글로벌 고객 케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1] 국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국가별로 일부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음.

고객경험 혁신

전략

현대 글로벌 One App '마이현대' 현대자동차는 2024년 11월, 기존의 마이현대·블루링크·디지털키(1.0) 앱을 하나로 통합한 새로운 '마이현대' 앱을 국내에 출시했습니다. 이후 2025년 7월에는 유럽 43개국에 동시 출시하며 글로벌 확산을 본격화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까지 약 414.7만 명의 고객이 현대자동차의 통합 모빌리티 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마이현대' 앱은 차량 원격 제어, 충전 상태 확인, 차량 상태 모니터링, 정비 및 세차 서비스 예약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고객은 하나의 앱으로 차량 관리에 필요한 정보와 기능을 하나의 연결된 경험으로 끊김 없이 이용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셔클(모빌리티 서비스) 활용 이동약자 지원 현대자동차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셔클'을 활용하여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도에서 운영중인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Demand Responsive Transit) '이동케어 똑버스'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하며,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쏠라티 특장차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내 CSV 활동 - 모빌리티

지속가능한 브랜드

윤리적 마케팅

광고 및 마케팅 윤리 정책 현대자동차는 고객의 올바른 제품·서비스 구매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건전한 광고 및 마케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광고 및 마케팅 윤리 정책'을 공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대자동차는 제품·서비스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경쟁 기업 또는 제품·서비스를 부당하게 비교하지 않으며, 정보 취약계층을 보호하지 않는 광고 및 마케팅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선언하였고, 이에 더해 제품·서비스에 대한 친환경성 주장을 포함하는 표현을 할 때에는 그에 대한 요건을 갖추어 진행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윤리 정책

제품 환경·안전 정보 라벨링 현대자동차는 차량 제작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량 연비, 배출가스 등 제품 환경 관련 정보는 물론, 안전벨트, 승객 감지 시스템, 카시트 탈부착 장치 등 안전과 관련된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품과 서비스의 환경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허위, 과장, 축소를 엄격히 금지하며, 관련 정보를 라벨링하여 고객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유럽	북미
제품	차종, 차명, 차대번호, 차량 총 중량, 제작연도, 타이어 등 자기인증 정보	차량 ID, VIN(W/screen), 도난방지 정보	차량 ID, 각종 단품 인증 E-마크 (램프, 안전벨트, 경적기, 미러, 글라스 등)	제조사명, 차명(Model), 트림, 연식(Model Year), 차량식별번호(VIN) 등
환경	연비,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정보	연비 정보	디젤엔진 스모크, 배터리 리사이클링, 연료, 냉매 관련 정보	VECI[4], 냉매 정보
안전	에어백 경고, 화물차 차량 총 중량 및 최대 적재량 등의 정보	CCC[1], CRS[2] 경고 에어백 정보	ISOFIX[3] 픽토그램, 임시 스페어타이어 속도, 에어백 경고, 전기차 충전구, 연료 주입구, 냉매 정보 등	타이어 공기압, 안전 인증, 에어백 경고, 고전압 배터리, 도난방지 등 정보

[1]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중국강제인증)
[2] CRS(Child Restraint System, 카시트 등 어린이 안전장치)
[3] ISOFIX: 국제 표준 유아용 카시트 고정 장치
[4] VECI(Vehicle Emission Certification Information, 환경인증정보)

고객경험 혁신

전략

그린워싱 리스크 관리 현대자동차는 강화되는 글로벌 ESG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외 커뮤니케이션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그린워싱 예방 및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했습니다. 콘텐츠 제작 단계에서부터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기획 및 제작 시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시 법무 부문의 검토 및 자문을 통해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검수 단계에서는 글로벌 규제 및 사례를 종합 반영한 자체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가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배포 전 수정 및 보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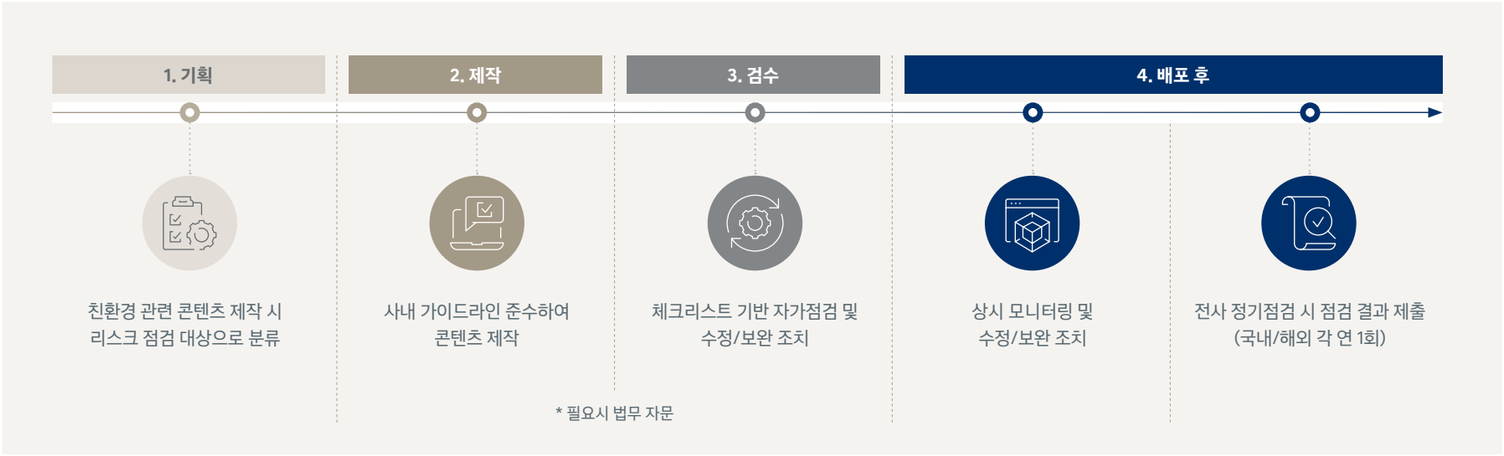
배포 이후에도 연 1회 이상 전사 차원의 국내외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직원 대상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전사적인 그린워싱 예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공개를 통해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브랜드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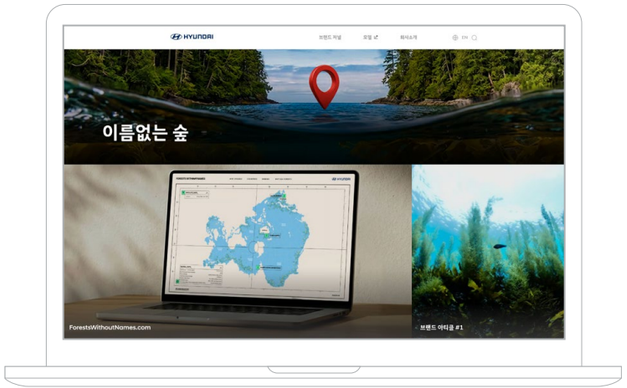
브랜드 지표 추적 조사 브랜드별 가격, 성능, 품질, 친환경성 분야로 구성된 지표를 바탕으로, 고객의 현대자동차 브랜드 인지도, 구매의향, 만족도 등을 확인하기 위한 '브랜드 추적 조사(BTS, Brand Tracking Study)'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브랜드 선호도 측면에서는 당사 브랜드의 신뢰성, 경쟁력, 서비스, 경제성뿐만 아니라, 브랜드가 보유하고 있는 친환경성, 사회적 책임, 진정성 요소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추적 조사는 전동화 브랜드에 대한 고객의 구매의향, 인지도, 선호도, 속성정보(혁신성, 편의성, 친환경성 등)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고객을 대상으로 당사 브랜드 차량의 시장가치를 평가받는 등 브랜드의 시장경쟁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추적 조사 결과는 판매지역별 브랜드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객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를 도출하는 등 마케팅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린워싱 리스크 점검 프로세스



현대자동차 브랜드 저널



고객경험 혁신

위험 관리

위험 관리 프로세스

품질관리시스템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고객의 다양한 품질안전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전사 통합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각 생산사업장 또한 품질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자동차 설계, 부품 개발, 공정 운영, 선행 양산, 생산 등 모든 과정에서 철저하게 품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내부 감사를 통해 제품 제조 과정에서 책임 있는 품질 관리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생산 사업장은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또는 이를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 산업 품질경영시스템 규격 인증을 취득하고 있으며, 품질경영시스템 규격 전환에 맞추어 인증을 전환·갱신하고 있습니다.

품질 리스크 관리

품질관리 체계 및 리스크 관리 현대자동차는 신차 개발부터 양산, 판매 이후까지 전 단계에 걸쳐 품질 리스크를 관리하는 통합적인 품질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차 개발 단계에서는 설계 및 시험 차량 검증을 통해 잠재적인 품질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양산 단계에서는 생산 공정 및 부품 품질 관리를 통해 차량 품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불만 및 품질 이슈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품질 개선 및 품질 보증 활동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 과정에서 확인된 품질 리스크, 불량 사례 및 고객 불만 정보는 전사 사업장은 물론 협력사와도 공유되어 개선 활동에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품질 이슈의 재발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양산 전 단계에서는 시험 차량을 활용한 기능 및 내구성 검증과 함께, 고객 관점의 품질 점검을 통해 품질 수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 현황

대상 사업장 수	제3자 인증 비율
27개	100%

아울러 현대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전동화 차량의 특성을 반영한 품질관리 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품질 점검 결과와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관련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동화 차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산 이후에는 공정 관리 지표, 품질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품질 리스크를 조기에 인지하고, 필요 시 관련 부문이 참여하는 조사 및 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품질관리 활동을 통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리스크를 예방하고, 차량 품질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품질 VoC 대응 현대자동차는 전사 고객불만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VoC(Voice of Customer) 기반의 업무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질본부, 연구개발본부 등과 함께 VoC 개선 프로세스를 운영하여 품질 개선 안건을 다각화하고, 긴급 VoC에 대응하는 등 고객 의견에 기반한 품질 개선에 주력합니다. VoC 데이터를 연계, 통합,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의 불편사항은 각 서비스 거점에 전달하여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 안전과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노력의 연장선으로, 품질 지표를 CEO KPI 중 5%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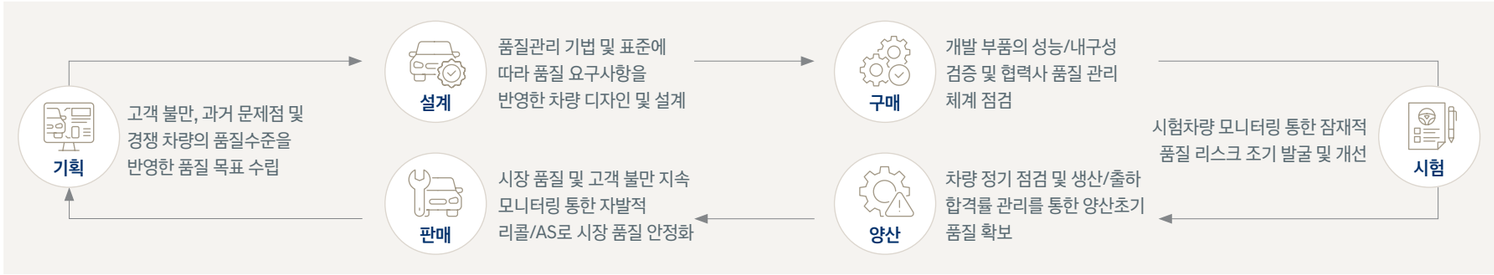
BUSINESS CASE

주요 품질 VoC 대응 사례

제네시스 포함 4개 차종에 대한 자발적 리콜 진행 결정

현대자동차는 2025년 4월, 고객 클레임을 통해 확인된 에어백 제어기(ACU) 소프트웨어 이상 현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안전 최우선 정책에 따라 선제적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GV70을 포함한 총 4개 차종(JK1 PE, JK1 EV PE, RG3 EV PE, ME1)에서 시동 시 에어백 경고등이 점등되고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고객 클레임(국내 3건, 0.03%)이 접수되었습니다. 당사는 해당 사례에 대해 즉시 원인 분석을 수행한 결과, ACU 내부의 사이버보안 모듈(HSM) 초기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로 인해 ACU 부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리셋되는 소프트웨어 로직 문제가 근본 원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현상은 승객 보호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안전 문제로 판단되어, 당사는 총 10,655대 차량을 대상으로 ACU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포함한 자발적 리콜을 선제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동일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프트웨어 설계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사이버보안 모듈 관리 기준을 재정립하는 등 검증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 프로세스



고객경험 혁신

지표 및 목표

리콜 및 판매보증충당금

자발적 리콜 현황

(단위: 만 대, 백만 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리콜 차량 수	548	308	225
리콜 비용	485,173	511,012	179,367

판매보증 충당금 설정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당기 초	10,399,527	9,121,153	9,567,739
해당기간 발생	3,442,626	3,229,923	4,124,557

대외 품질지수*

구분	단위	2023년	2024년	2025년
미국 내구품질지수 (현대)	순위 (점수)	일반 6위 (170점)	일반 9위 (198점)	일반 12위 (222점)
미국 신차품질지수 (현대)	순위 (점수)	일반 10위 (188점)	일반 3위 (161점)	일반 2위 (173점)
미국 내구품질지수 (제네시스)	순위 (점수)	고급 2위 (144점)	고급 5위 (200점)	고급 7위 (213점)
미국 신차품질지수 (제네시스)	순위 (점수)	고급 5위 (176점)	고급 3위 (184점)	고급 3위 (183점)

* J.D. Power 설문조사 기준

VoC 접수

2025년 VoC 접수 현황



구분	건수	비율
1 문의	4,763,344	96.58%
2 불만	159,401	3.23%
3 제안	5,036	0.10%
4 칭찬	4,236	0.09%

2025년 VoC 유형별 분류



구분	건수	비율
1 판매	248,390	5.04%
2 서비스	702,218	14.24%
3 멤버십	176,959	3.59%
4 품질	913,010	18.51%
5 CCS	1,020,886	20.70%
6 긴급출동	1,180,688	23.94%
7 예약	241,265	4.89%
8 인증중고차	100,501	2.04%
9 업무지원	348,100	7.06%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구분	단위	2023년	2024년	2025년
고객만족도 - 현대고객경험지수 (HCXI)	점수	72.2	71.0	71.9[1]
외부기관 평가 - 국가고객만족도 (NCSI)	순위	전 부문 1위	전 부문 1위	전 부문 1위[2]
외부기관 평가 - 한국품질만족지수 (KS-QEI)	순위	10개 부문 1위 (총 14개 부문)	12개 부문 1위 (총 14개 부문)	12개 부문 1위 (총 15개 부문)[3]
외부기관 평가 -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순위	전 부문 1위	전 부문 1위	전 부문 1위[4]
국내 정비서비스 만족도(HCXI)	점수 (순위)	72.5 (1위)	73.0 (1위)	73.3 (1위)[5]
해외 판매 고객 만족도(NPS)	점수 (실시국가)	90.6 (35개국)	93.8 (34개국)	93.4 (34개국)
해외 정비서비스 만족도(NPS)	점수 (실시국가)	78.8 (35개국)	82.3 (34개국)	84.3 (33개국)

[1] 판매 및 서비스 만족도 종합 점수
[2] 컴팩트 승용, 중형, 준대형, 대형, 컴팩트 RV, 대형 RV, 전기차
[3] 승용 전 부문, 전기차, 럭셔리 세단 D/E 세그먼트, 자동차 AS 등 12개 부문
[4] 승용, RV, 경형, 전기차, 프리미엄
[5] 직영/블루핸즈 종합점수 평균값

인권경영 및 인적자원 관리

현대자동차는 인권·노동과 관련한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지지하며,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 사업장을 포함한 공급망에서 인권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4대 이해관계자(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고객 및 소비자)를 정의하고, 매년 인권경영 과제를 선정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며, 사업장 및 협력사 인권 실사를 시행하여 잠재적·실재적 인권 리스크를 발굴하고 적합한 완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적자원 관리 측면에서는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 채용 전략을 시행하고, 임직원 핵심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공정한 성과보상 체계와 맞춤형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가진 임직원이 함께 일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며, 다양성과 포용성이 존중되는 조직문화 구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의사결정기구

이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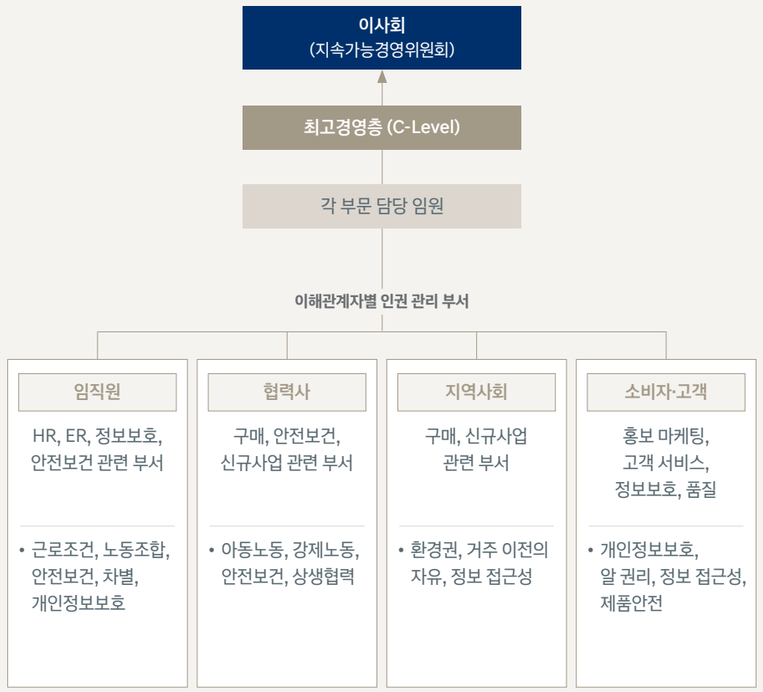
현대자동차의 인권경영 거버넌스는 상시 보고 체계와 이슈 대응 체계로 구분됩니다. 사업장 및 협력사 실사를 통해 식별된 각 사업장·지역별 인권 리스크는 최고경영층(C-Level) 및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 보고하며, 그 외 중대한 인권 관련 안건이 있을 경우 수시로 경영층에 보고합니다. 이러한 보고 체계를 통해 인권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진

협의체 및 전담 조직

현대자동차는 인권경영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 전담조직과 협의체를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별 인권 관리 부서를 기반으로 인권경영 전략 수립과 국내외 사업장 및 협력사 인권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당 지속가능기획팀을 비롯하여 법무, HR 등 인권관리 전담부서에는 총 198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2024년 12월에는 공급망지속가능협의체를 신설하여, 구매, 법무, IR, PR, 지속가능기획 등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공급망 인권 이외에도 더 다양한 인권 이슈를 포괄하는 정기적인 인권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글로벌 인권 리스크를 사전에 센싱/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인권 이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권경영 거버넌스



공급망 지속가능협의체

- 주기: 분기 1회 운영 (필요시 긴급회의 소집)
- 목적: 공급망 인권/환경 리스크 센싱 및 이슈에 대한 내부 의사결정

주요 부서별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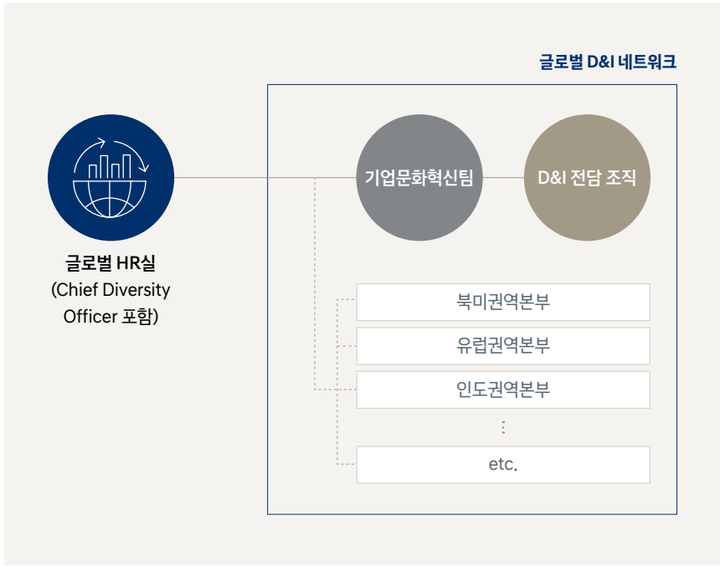
부서	역할
지속가능 기획팀	• 인권경영 전략 수립 및 개선과제 추진 • 국내외 사업장 인권 실사 수행 • 인권 관련 평가대응 및 공시
HR	• 국내외 임직원 고충/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접수, 신고 조사 및 후속 조치 • 임직원 조직문화 개선 활동 수행 • 불합리한 채용 차별 예방 활동 수행
ER	• 국내외 협력적 노사관계 유지
각 사업장	• 사업장 소재지 내 개별 사업장 임직원 인권 보호 활동
법무	• 임직원 대상 준법/윤리경영 활동 • 인권 이슈 관련 사항 법적 검토
구매	• 국내외 협력사 인권 실사 수행 및 지원 • 협력사 인권 리스크 개선 활동 • 협력사 고충 접수 및 관리
개인정보보호	• 임직원/협력사/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 현대/제네시스 프라이버시센터 운영
IR / PR	• 인권 이슈와 관련한 외부 이해관계자 질의 및 소명 요청 대응

인권경영 및 인적자원 관리

거버넌스

다양성 포용 추진 체계

현대자동차는 글로벌HR실 산하 기업문화혁신팀에 글로벌 D&I 전담 조직을 두고, 전사 차원의 다양성·포용 전략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모든 법인이 참여하는 글로벌 D&I 네트워크를 구축해, 일관된 방향성을 바탕으로 각 지역과 법인의 특성과 다양성이 반영된 포용 전략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헌장

현대자동차는 2020년에 최초로 인권헌장을 제정한 이후, 헌장 내 인권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인권헌장은 임직원(임원과 직원), 국내·외 생산 및 판매 법인, 자회사 및 손자회사, 합작투자사(Joint Venture)의 임직원을 모두 대상으로 합니다. 현대자동차 임직원은 공급자 및 판매·서비스 조직을 대할 때에도 본 인권헌장을 따르며, 더 나아가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본 인권헌장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권헌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당사가 지지하는 국제 인권협약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인권경영 의지를 강화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 인권헌장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 목록

세계인권선언	OECD 실사 가이드라인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UN 아동권리협약
국제노동기구헌장	UN 여성차별철폐협약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UN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
UN 원주민 권리 선언	UN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

차별 및 괴롭힘 예방 정책

현대자동차는 직장 내 차별·괴롭힘·성희롱 관련 이슈 및 사고를 예방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관리하기 위해 차별 및 괴롭힘 예방 정책을 선언하였습니다. 본 정책에 따라, 상호 간의 다름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배제·거부하는 행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을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차별 및 괴롭힘 예방 정책

전략

영향, 위험 및 기회

인권 및 인적자원 관련 식별 결과

현대자동차는 인권경영 및 인적자원 관리와 관련하여 가치사슬 전반에서 영향 및 위험을 식별하였습니다. 근로 조건 및 고용 측면에서, 전동화 전환에 따른 생산 체계 재편으로 기존 인력의 고용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근로자의 직무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 결사의 자유 및 노사협의회와 관련하여, 노동3권 보장 및 노사협의체 운영을 통해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긍정적 영향이 발생하나, 노사 갈등 심화 시 생산 중단에 따른 매출 감소 등 재무적 위험도 수반됩니다. 교육 및 역량 개발의 경우, 임직원 교육·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수준과 고용 가능성이 증대되는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기타 노동 관련 인권 측면에서는, 정보보호 관리 미흡 시 임직원 개인정보 유출로 프라이버시 침해의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며, 유출 사고 시 과징금·손해배상 및 기업 신뢰 하락 등 재무적 위험이 식별되었습니다.

인권경영 추진

방향성 및 전략

현대자동차는 인권헌장에 명시한 인권·노동 관련 국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지지하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인권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의 주요 이해관계자는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고객 및 소비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거버넌스, 교육, 선언, 실사, 구제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관련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투자 및 공급망 관련 의사결정 단계에서 인권을 포함한 ESG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고, 임직원 교육과 주요 인권 이슈 예방 활동, 인권 고충 관리 체계 운영을 통해 인권 리스크를 예방·대응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매년 각 영역의 운영 현황과 미흡사항을 점검해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유관 부문과의 협의를 통해 단계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및 인적자원 관리

전략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인권 리스크 검토 프로세스

현대자동차는 2024년부터 공장 신·증설과 관련된 프로젝트 투자 심의 절차 내에 ESG 리스크 스크리닝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공사의 환경사회 지속가능성 성과 표준(IFC Performance Standards on Environmental and Social Sustainability) 및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 등 프로젝트 투자와 관련된 글로벌 표준을 기반으로 체크리스트를 구성함으로써 인권뿐만 아니라 문화유산, 생태계, 지역사회, 토착민 영향 등 다양한 ESG 리스크를 검토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상대적으로 인권 및 환경 리스크 노출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EV 배터리 공급망과 관련된 투자 심의 절차 내에 ESG 리스크 검토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부 투자 심의 과정에서 ESG 측면의 리스크 검토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인권 교육

법정의무교육 및 D&I 교육 현대자동차는 임직원의 인권헌장 원칙 준수 및 인권 의식 제고를 위해 매년 인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권 관련 교육과정은 약 20개로, 성희롱 예방 및 장애인 인식개선 등 법정의무교육과 인권경영 개념, 인권침해 사례, 관련 법제화 및 산업 동향 등을 포함합니다. 2023년부터 확대 진행하고 있는 국내 팀장, 해외 법인장 및 주재원 대상 윤리경영 교육에도 인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특히, 2025년 3월에는 국내외 전사 임직원 약 123,000명을 대상으로 국내외 교육 시스템을 통해 글로벌 D&I(다양성 및 포용성) 교육 영상을 배포하였습니다.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D&I 마인드셋 교육에서는 임직원 상호 간 인권 존중과 차별 방지를 위해서는 조직 내 심리적 안전감 확보와 마이크로어그레션(미세차별)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인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부서를 대상으로 직무별 맞춤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수행 업무와 이해관계자 인권 간 연관성에 대한 임직원 이해도를 제고하였습니다.

글로벌 인권 교육

① (전 직원 대상) D&I 마인드셋 교육: 다양성 및 포용성 개념 소개, D&I 마인드셋 3원칙 제시
② 직무별 인권경영 교육: 인권경영 개념 소개, 수행 업무와 이해관계자 인권 간 연관성 설명
- HR, ER, 안전보건, 구매, 홍보마케팅, 고객 서비스 등 인권경영 거버넌스 참여 부서 대상

2025년 인권 관련 교육 실시 결과

D&I 교육 (국내 + 해외)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국내)
교육 대상자 수	교육 대상자 수
약 123,000 명	약 73,000 명

임직원 인권 보호

아동노동 현대자동차는 인권헌장과 각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의 법률을 기반으로 아동을 고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아동노동을 예방하기 위해 채용 과정에서 연령 확인 절차를 실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노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 및 피해 복구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 구제 프로그램에는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현재 상태 진단, 아동 및 아동의 가족, 또는 제3자 기관과 협력하여 적절한 구제 방안 검토, 필요 시 거주지로의 안전한 복귀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아동노동 사례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합니다.

강제노동 현대자동차는 인턴 등 인권 침해로부터 취약한 계층이 있음을 인지하고, 임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강제노동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임직원에게 채용과 관련된 비용을 부당 청구하지 않으며,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문서 원본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근로에 대해 부당한 공제 없이 합당한 보수를 지급하고, 정당한 임금 공제 사항은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내용을 알립니다. 이러한 원칙은 현대자동차와 거래하는 에이전시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사안의 심각성이나 적극적 피해복구/시정 여부에 따라 거래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강제노동 예방 및 모니터링 사례

방식	지역
입사지원서에 어떠한 수수료도 받지 않음을 명확히 기재	멕시코판매법인
채용 후 직원에게 중개기관의 수수료 청구 여부 확인	튀르키예생산법인

인권경영 및 인적자원 관리

전략

구제 절차

인권 고충처리 현대자동차는 차별, 괴롭힘, 성희롱 등과 같이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일으키는 사건뿐 아니라, 조직 문화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안을 접수-처리-조치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 채널은 우편, 핫라인, 사이버감사실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형태로 운영하여 제보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고충 제보자의 익명성과 신분 비밀을 보장하며, 고충 제보로 인한 보복·신분노출·인사상 불이익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충이 접수되면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상황 파악을 진행하며, 필요시 고충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 제도나 업무 방식을 개선하기도 합니다.

또한 차별, 괴롭힘 등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일으킨 임직원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징계규정 등에 명시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인사조치를 검토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담당 조직의 모니터링 등을 통해 실제 이행 여부가 관리되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필요 시 제3자와 협조하거나 고위 경영진을 포함하여 논의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임직원 고충 접수 및 처리 결과*

총 접수 건	처리 완료 건	고충처리율
67 건	67 건	100 %

* One Click HR을 통해 접수된 건 한정 (국내)

고충처리 절차



고충처리 메커니즘 모니터링 및 개선 임직원은 회사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이해관계자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개별 직원, 근로자 대표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고충처리 메커니즘을 모니터링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점검 과정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임직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유사 고충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절차·제도·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국내

- 피해자/제보자에 대한 보복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임직원 고충처리 관련 내부 규정을 보완
- 직장 내 성희롱 대응 절차를 점검하고 2차 가해 및 유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의견 청취 및 징계 처리 방식 개선
- 직원 소통 채널 중 하나인 노사협의회를 통해 생산공장 여성직원 증가에 따른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을 확인하고 임산부 전용 시설 보완 및 이용실태 지속 점검 추진
- 임직원의 고충처리 신청 건에 대하여 종결 시까지 경과 사항 담당자 모니터링을 통해 밀착 지원

해외

- **중남미권역본부**
  주기적으로 고충 데이터를 활용해 취약 분야 파악하여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보고, 구성원 교육, Survey 문항 재검토 실시
- **튀르키예생산법인**
  매월 주요 고충 및 조치 계획 보고서를 경영진과 유관 부서에 전달하고 피드백 공유해 개선 및 유사 사례 재발 방지
- **체코생산법인**
  직원 50명당 1명을 소통 창구로 선정해 정기적 미팅을 실시하고 고충 관련 의견 청취

인권경영 및 인적자원 관리

전략

전략적 인사 관리

인재채용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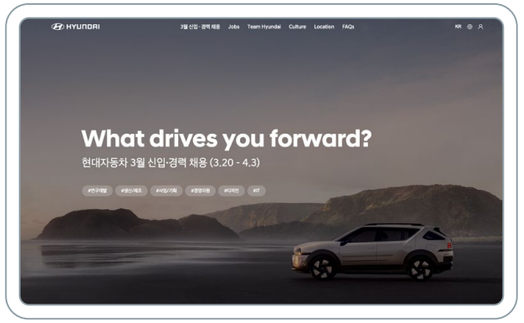
프로세스 및 시스템 현대자동차는 지원자 관점을 고려하여 매년 채용 절차를 개선하고 있으며, 직무 특성과 사업 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채용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재학생은 물론 아세안을 비롯한 글로벌 인재를 대상으로 다양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대자동차에서 실무를 경험하고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는 현업 부서가 요구하는 역량, 자격, 기술 등 전문성을 사전에 정의하고, 선발기준을 수립하여 현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직무 중심의 우수 인재를 적시에 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이러한 채용 프로세스 전반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채용 지원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채용 담당 HR부서와 현업부서 등 채용 관련 의사결정자가 함께 참여하여 지원자의 전문성과 적합성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차별 발생 방지를 위해, 면접위원 가이드에 관련 유의사항을 명시하고 면접위원 교육 시 관련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접위원 교육 미이수자는 면접위원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평가자의 전문성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 전형 단계마다 지원자 선발의 공정성을 자가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운영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채용 과정 이후에는 정기 내부감사를 통해 채용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공정성 및 신뢰성 이슈가 발견될 경우 즉시 개선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원자가 채용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채용 홈페이지와 시스템을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취업보호대상자(장애, 보훈 등)는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우대하고 있습니다.

신사업·신기술 분야 인재 확보 전략 현대자동차는 미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신사업 및 신기술 분야 인재를 능동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인재 소싱을 비롯하여 다양한 채용 전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사업 전략에 맞는 선제적 인재풀을 구축하고자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인재를 발굴하고 외부 우수인재와의 접점을 넓히는 활동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 Tech 기업'으로서의 채용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사내공모 및 전환배치 현업부서의 인력소요에 대한 충원과 직원들의 경력개발을 위해 수시로 전환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사내공모 제도'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내공모 제도를 통해 직원들은 희망하는 부서와 직무에 지원할 수 있으며, 부서장은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스카우트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서 이동을 희망하거나 스카우트를 제안받은 직원들은 서류 검토와 인터뷰 등의 선발과정을 통해 전환배치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현대자동차는 사내공모와 전환배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임직원들의 경력 개발과 인재 육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채용 홈페이지

성과평가 제도 현대자동차는 성과와 일하는 과정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일반직·연구직 직원을 대상으로 목표 기반의 성과 평가 및 과정 평가를 시행하며, 상시·정기 피드백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 목표와 개인 목표 수립을 병행해 임직원이 동일한 방향성 안에서 성과 달성을 위해 도전하도록 장려합니다. 조직별 KPI를 수립하고 목표 공유회를 통해 조직 목표를 직원들에게 공유하며, 이 내용을 캐스케이딩(Cascading)하여 개인 목표도 수립합니다. 목표를 기반으로 업무 수행 방식과 결과를 상시 점검하며, 그 과정을 기록해 평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성과관리와 피드백** 임직원 성장과 조직문화 향상을 위해 쌍방향 소통을 지원하는 다양한 피드백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더로부터 피드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모든 임원이 상위 리더와 함께 1:1 코칭세션을 실시합니다. 또한 리더와 구성원 간에 의견 교류와 피드백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시·정기 피드백 제도를 운영합니다. 구성원은 리더에게 업무 진행상황과 지원 필요사항 등을 공유하고, 리더는 중요 시점별로 구성원의 성과뿐만 아니라 동료와의 협업, 조직 기여 등 업무 수행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칭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피드백 과정을 통해 리더와 구성원이 함께 업무성과를 확인하고 리더의 공정한 성과관리, 구성원 동기부여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시점별 설문조사를 실시해 피드백 과정에 대한 임직원 의견을 정기적으로 청취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합니다.

- **360° 다면진단** 리더와 구성원을 대상으로 다면진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더들은 매년 1회 LSV(리더십 다면진단, Leadership Surround View)를 통해 360° 피드백을 확인하여 객관화된 자기 인식과 리더십 향상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성원들 간에는 상·하반기 PSV(동료 피드백, Peer Surround View)를 실시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상호 성장과 협업 문화 발전을 위해 다양한 협업 동료 간에 적극적인 피드백을 나누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및 인적자원 관리

전략

인재 육성 및 전문 역량 확보

현대자동차는 비즈니스 전략 방향성 내재화와 직무 역량 등 핵심 역량 향상을 위하여, 현대자동차 구성원이라면 갖추어야 할 'SENSE'라는 의미의 'H-SENSE' 브랜딩 하에 다양한 학습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중장기 전략과 연계하여 H-SENSE를 통한 현대자동차 임직원의 인재 육성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H-SENSE 콘텐츠의 글로벌 확대를 통해 비즈니스 전략 및 일하는 방식 등을 'Global One Message'로 전파하고, 해외 법인별로 특화된 H-SENSE 솔루션 맵을 수립하여 핵심 역량을 내재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전사 필수 콘텐츠 80% 이상 이수, 해외법인 대상 온보딩·리더십 표준 콘텐츠 및 H-SENSE 솔루션 전파 후 활용도 8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핵심 비즈니스 전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글로벌 임직원 필수 콘텐츠인 'H-SENSE Must-see'를 정기적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HR 제도와 연계하여 임직원의 승진, 직책 보임 등 역할 전환 시 직급 및 직책별 프로그램을 통해 현대자동차의 일하는 방식인 Hyundai Way와 그룹 헤리티지 등 '현대차다움'을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미래 디지털 전환 역량을 강화하고자 연중 DX Academy를 운영하여 AI, 데이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전환(DX) 관련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본부에서는 임직원의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 직무 핵심역량을 도출하고, 이와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커리어 개발 프로그램은 글로벌 감각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우수인재를 해외 거점에 파견하여 글로벌 현장조직을 리드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임직원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미래 사업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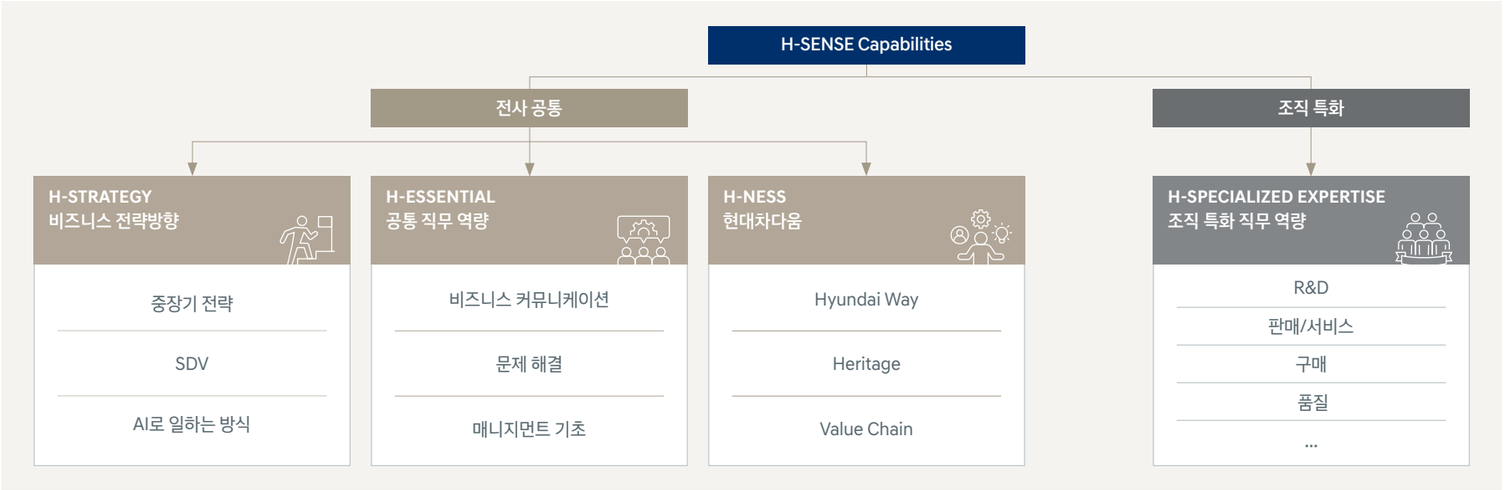
러닝라운지 및 러닝랩 '러닝라운지(Learning Lounge)'는 자기주도적 성장을 위한 학습 시스템으로, 임직원들이 미래 성장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학습 솔루션을 추천받아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공통 직무 역량과 관련된 온라인 콘텐츠를 포함하여 약 1만 9천 건의 학습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임직원들이 변화를 주도하고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러닝라운지에 등재된 온라인 교육 콘텐츠는 정규직 및 계약직, 파견직 등 모든 근로자에게 리더십 및 디지털 전환, 문화 등 직무 역량개발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상시 학습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러닝랩(Learning Lab)'은 연결을 통해 성장하는 구성원의 자발적인 학습 모임입니다. 직무 역량 향상이 필요한 주제, 일정, 학습 방법을 결정하여 약 3개월간의 러닝랩 활동을 통해,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사내 상시 학습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신기술에 대한 연구와 특허 발명을 위한 연구 등 다양한 학습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러닝라운지 제공 교육 (2025년 말 기준) (단위: 개)

구분	제공 교육
전사공통 관련	비즈니스 전략 방향(496), 공통 직무 역량(3,440), 현대차다움(38)
조직 특화 직무 역량 관련	연구개발(3,412), 생산/생산기술(2,388), 사업 관련 등 기타(5,165)
리더십 관련	상시 학습(1,254), 정규 학습(1,239)
법정교육	준법/보안(237), 화재/안전 등 기타(1,049)

H-SENSE 프레임



인권경영 및 인적자원 관리

전략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현대자동차는 비즈니스 성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더가 아닌 모든 직원을 위해 온라인 학습 시스템 '러닝라운지'를 통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리더십 관련 콘텐츠를 상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규 책임급 인원이 회사 내에서 'Player Coach'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간 관리자 리더십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리더 역할을 맡게 된 신규 보직자 대상으로는 각 직책별 역할을 인식하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신임 직책자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장 및 팀장 대상으로 구성원과 함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목표 수립, 피드백, 평가 등 실질적인 성과 관리 스킬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리더 간의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함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학습 조직인 리더스 러닝랩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며, 최고 리더들은 비즈니스 관점을 넓힐 수 있도록 인사이트 포럼과 글로벌 인사이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리더 역할을 수행하는 직원들을 위해 주재원 부임 과정과 해외 법인장 과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교육 유형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리더십 관련 상시 학습 콘텐츠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 콘텐츠	모든 직원
신임 직급/직책 교육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사 차원의 전략을 실행하는 사람이자 조직의 중간관리자로서 새로운 역할에 대한 리더십 교육	책임급 승진자
	새로운 직책에 따른 리더 역할 인식 및 조직 운영에 필요한 리더십 역량 교육	신임 팀장, 실장, 사업부장
성과관리 교육	구성원 성장 지원을 위한 성과관리 단계별 리더십 교육 (성과목표 설정, 중간점검, 피드백, 평가면담 등)	팀장, 실장
비즈니스 인사이트 및 글로벌 역량 강화 교육	미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Insight) 및 통찰력(Foresight) 함양을 위한 교육 (리더 DX 교육, 리더스 러닝랩, 인사이트 포럼 등)	팀장 이상 보직자
	해외 비즈니스 수행을 위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이문화 역량 강화 교육 (해외 주재원 및 법인장 대상자 교육, 글로벌 협업 역량 강화 교육)	해외 주재원, 법인장 및 글로벌 협업 업무 수행 임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 프로그램 현대자동차는 특정 직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격증 취득과 변화하는 모빌리티 산업에서 요구되는 데이터 분석(DA) 및 데이터 기반 AI 모델 관련(DS) 역량을 평가하는 HDAT[1] 자격 인증 대비 교육 과정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사업장 보건안전 관련 업무 담당자를 위한 산업안전(산업)기사 국가 기술 자격증 취득과정 수료자 총 1,346명이 시험에 응시하고, 1,117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83%의 높은 합격률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일반직·연구직·법무직 대상 HDAT-DA Fast Track 교육은 총 14개 차수 415명이 수료하였으며, 총 366명이 HDAT-DA 자격 인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속가능성 내재화 교육 현대자동차는 임직원이 각자 맡고 있는 업무에 지속가능성을 접목하고자 지속가능경영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협력사 관리를 위해 인권·안전·환경·품질 분야의 ESG 교육을 운영하여 임직원의 지속가능성 내재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각 업무별 담당자 특화 ESG 교육을 통해 임직원의 지속가능성 마인드셋 구축과 지속가능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속가능성 교육 프로그램 (2026년 3월 기준) (단위: 개)

	인권	안전	환경	품질	합계
운영 교육 개수	36	1,991	1,231	1,238	**4,496**

* 러닝라운지 내 키워드 검색 시 조회되는 교육 개수

[1] HDAT(H-Data Analytics Test): 데이터 분석 및 AI 실무 역량 보유 인재를 선발/육성하기 위한 민간 자격 인증 시험, 관심있는 일반인 누구나 응시 가능.

인권경영 및 인적자원 관리

전략

퇴직자 지원 제도

퇴직 예정자 교육 현대자동차는 임직원의 정년퇴직 이후 노후설계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령대와 직군에 따라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과 전문 컨설팅을 5,236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상시 경력 전환 프로그램 현대자동차는 만 50세 이상의 간부 사원을 대상으로 재직 중과 퇴직 후에 걸쳐 전직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직 중에는 생애 설계, 창업, 재취업,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의 장기적인 경력 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1:1 상담, 선배와의 대화, 창업 특화 Day, 소그룹 간담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퇴직 후에는 약 1년간의 전문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변화 관리, 경력 대안 탐색, 자격증 과정 등을 포함한 공통 교육과 특화 교육을 제공합니다. 또한, 전문 컨설팅과 사후 관리를 통해 새로운 경력 목표를 안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상시 경력 전환 프로그램을 통해 현대자동차는 임직원들이 퇴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025 퇴직 예정자 미래설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성과

구분	매니저급		
과정명	미래설계 60과정	미래설계 전직특강	내:일가치 58,59과정
교육 대상	만 60세	만 60세	만 58세, 59세
수료 인원	1,331명	1,914명	632명
내용	• 생애경력과 연계한 인생설계 진로설계서 작성 • 변화 관리, 생애 점검, 건강	• 제2의 인생설계 지원을 위한 연금 등 퇴직 안내	• 재무 관리 • 나의 일을 가치 있게

구분	책임급	
과정명	미래설계 기본 과정	미래설계 전문 과정
교육 대상	만 59세	만 60세
수료 인원	478명	398명
내용	• 퇴직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전환 및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경력 탐색 • 강의: 자산 관리, 자격증 • 컨설팅: 경력, 재무	• 퇴직 후 전직 준비를 위한 핵심정보 습득 및 구체적 실천계획 수립 • 강의: 자산 관리, 행정 처리 • 컨설팅: 재취업, 창업, 사회 공헌, 귀농귀촌

구분	카마스터	
과정명	미래설계 59과정	미래설계 60과정
교육 대상	만 59세	만 60세
수료 인원	332명	151명
내용	• 변화 관리, 재무 설계, 경력 탐색과 확장 및 재취업 등 퇴직 이후 생애설계 지원	

공정한 전환

공정한 전환의 개념 및 현대자동차의 접근 국제노동기구(ILO)는 공정한 전환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와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게 가능한 한 공정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leaving no one behind)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파리협정에서도 명시적으로 언급되었으며,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부정적 영향을 선제적으로 인식하고, 노동자와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러한 공정한 전환의 기존 개념인 녹색 전환에서의 이해관계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더 나아가, 그 범위를 한 차원 확장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동화 중심의 사업모델 전환, 로봇·AI 시대의 도래 등 모빌리티 산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고객에게 미치는 복합적 영향까지 포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 혁신이 가속화되는 시대에 어느 누구도 전환의 과정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한다는 현대자동차의 공정한 전환 전략의 핵심 방향입니다.

인권경영 및 인적자원 관리

전략

전동화 시대를 대비한 인력 역량 강화 및 리스킬링 현대자동차는 친환경 모빌리티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선제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인력 교육 및 재배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연기관(ICE)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온 연구개발 인력이 전동화 전환(Electrification Transition)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기술 역량 강화와 심리적 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전동화 비전 및 기초 교육** 2025년 현대자동차는 연구소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동화 시대에 대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먼저, 전동화개발담당 부사장이 직접 강단에 서는 임원 특강을 통해 향후 사업 방향성을 공유함으로써, 구성원들이 변화의 맥락을 이해하고 전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외부 전문 교수진과 사내 강사가 협업하여 진행하는 5일 과정의 엔진 기초 교육에서는 엔진 작동원리, 연구개발 동향, 주요 시스템에 대한 심화 학습과 함께 HMG 엔진 개발 사례를 다루었습니다. 또한 5일 과정의 변속기/HEV 기초 교육을 통해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기초 원리, HMC 변속기 시스템(ICE/HEV)의 구조, 변속기 성능시험 사례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HEV 변속기 심화과정** 전동화 시장에서 HEV 변속기의 비중이 날로 커짐에 따라, 개발 인력의 TMED-II(Transmission Mounted Electric Device) HEV 변속기에 대한 이해가 핵심 역량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대자동차는 5일간의 이론 및 실습 병행 과정을 별도로 편성하여, 변속기 정의 및 레버 해석법, 변속 통합이론, 변속 제어 전문가 특강, HEV 구동계 해석 실습 등을 포함한 심화 리스킬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ICE 영역에서 축적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HEV 개발 역량으로 자연스럽게 확장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동화 트랙 교육 과정

구분	주요 교육 내용
구동 시스템	모터 이론, 변속기, 감속기, 파워모듈, 모터 핵심부품, 모터 해석
전력 변환	인버터, 전동기 제어, 파워모듈, 전기전자, 전력전자
배터리	배터리 모듈/팩, LIB, 차세대 배터리, BMS, 충전 시스템
열 관리	구동모터 열 관리, PE부품 열관리, 냉각 시스템, 공조 시스템, 통합 열 관리

- **전동화 핵심부품 과정** 연구소 R&D 임직원이 확보할 수 있는 공통 역량으로 전동화 핵심부품 교육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모터, 인버터, 배터리 등 전동화의 핵심 기술 영역을 포괄하며,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직무 심화 및 도메인 특화 과정은 센터 단위로 별도 편성하여 맞춤형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동화 분야별 온라인 학습 플랫폼(러닝라운지)을 통해 전기전자 기초, 교류회로, 모터 기초이론, 전력변환 기초, 제어이론 등 자기 주도 학습 환경도 구축하였습니다.

AI·로보틱스 전환에 발맞춘 제조 인력 리스킬링 현대자동차는 전동화 전환뿐만 아니라 AI, 로보틱스 등 급격한 기술 변화에 발맞추어, 전통적인 제조 전문 인력들이 새로운 기술 환경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30년 중장기 목표인 '24시간 무인 자동화 공장' 구현을 위해, 기존 생산기술 전문가들의 직무를 완전히 전환하기보다는 그들의 풍부한 제조 노하우에 데이터 분석, AI, 로봇 제어 등 소프트웨어(SW) 역량을 더하는 방향으로 재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조 현장에 필수적인 9대 핵심 SW 직무 역량(데이터/AI, 비전, 로봇 및 설비 제어, 통신/네트워크 등)을 체계적으로 함양하는 '제조 SW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무 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데이터 부트 캠퍼스'를 통해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약 1,500명의 임직원이 해당 과정을 이수하였으며, 데이터/AI Lv.2 이상 역량 보유자 비율 25% 달성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2026년에도 약 1,000명의 인재 육성을 목표로 제조 SW 역량 내재화를 지속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노동조합과의 사회적 대화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단체교섭에서는 '노사 미래 동반 발전을 위한 특별협약'을 체결하는 등 전동화 전환 과정에서의 울산EV공장 인력 배치, 품질 확보, 작업자 안전 확보 등 국내공장의 미래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노사 간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단체교섭 등을 통해 구성원들이 산업 변화에 따른 고용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기술 변화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 산업 변화 교육, 전기차 직무교육, 제조기술 변화교육, 울산EV공장 배치 직원 특별교육, 부품협력사 산업전환 공동훈련 등의 교육 방안을 노사가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을 위한 공동 노력도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및 인적자원 관리

전략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조직문화 개선

조직문화 진단 현대자동차는 직원의 높은 몰입도가 기업의 성과와 인재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진단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단 지표는 긍정적인 직원 경험이 조직 성과로 이어지는 프레임워크에 기반하여, 조직 내 동료 및 리더와의 상호작용에서 느끼는 요소를 측정합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일·조직·회사'에 대한 만족 수준을 측정하며, 총 7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 조직문화 진단에는 전체 임직원의 87%가 참여하여 시행 이래 가장 높은 참여율을 기록하였고, 평균 점수는 전년 대비 0.8점 상승한 80.2점으로 최초로 80점대를 달성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영역이 상승세를 보인 반면 회사의 중장기 방향성에 대한 공감도는 다소 하락하였는데, 이는 비전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과 커뮤니케이션 강화가 필요하다는 임직원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현대자동차는 전사적 성과 공유회 및 목표 공유회를 통해 임직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2026년부터는 각 부서에서 조직문화 진단 결과를 활용하여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팀장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조직의 변화 추진을 담당하는 변화혁신담당을 중심으로, 조직문화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도출하고 조직 특성에 맞는 변화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조직문화 진단을 통해 반복적으로 개선 필요 영역으로 도출된 조직구조·프로세스를 핵심 개선 테마로 선정하고, 역할 및 책임(R&R) 명확화 및 협업 문화 구축을 중심으로 조직별 맞춤형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구매본부는 'Connect & Collaborate' 워크숍 개최 등 구체적인 개선 활동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협업 관련 문항 점수가 전년 대비 3.4점 상승하는 의미 있는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기업문화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일하는 방식 '현대 웨이(Hyundai Way)' 현대자동차는 2024년에 일하는 방식 'Hyundai Way'를 글로벌 론칭하여 전사적인 변화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Hyundai Way는 현대자동차그룹 5대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전세계 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총 10개의 일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으며, HR 제도(채용, 육성, 평가, 진단, 포상) 연계 및 수시 포상제도 'Hyundai Icon' 신설 등 각종 제도에 내재화하여 임직원들의 업무 몰입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조직문화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비전과 전략에 대한 임직원 공감대 강화를 위해 개인의 일과 회사의 방향성을 연결하는 활동을 전사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성원이 현대자동차의 일하는 방식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Hyundai Way Week'를 운영하고 있으며, Hyundai Way가 일상업무 속에서 잘 실천·발현된 글로벌 우수 사례를 담은 'Hyundai Way Deck 2.0'을 전파하여 전 세계 구성원이 공통된 기준으로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유연한 근무제도 운영 현대자동차는 임직원들이 장소가 아닌 일에 몰입하여 자율적으로 근무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근무제를 도입하였습니다. 'H-Work Station' 거점 오피스를 통해 임직원들이 업무 공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근무 만족도와 업무 효율을 동시에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이러한 변화는 현대자동차의 미래 지향적인 조직문화를 반영합니다. 또한, 전일제(Full-time) 방식으로는 업무 수행이 어려운 근로자들이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별도의 계약직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및 가족 마음 건강 케어 직원의 건강한 회사생활 및 가족챙김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오은영 아카데미'와 협업하여 자녀 양육, 부부관계, 가족관계 테마의 1:1 상담·평가·코칭·검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운영 중인 가족챙김 프로그램은 심리적 고충 경감을 위한 실질적 솔루션을 제공하여 직원들의 선호도와 만족도가 높으며, 현대자동차는 앞으로도 직원의 가족챙김과 마음 건강 케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장

국내 노동조합 커뮤니케이션 현대자동차는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헌법에 의거하여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단체교섭 협의체와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인 노사 교섭을 통해 임금 및 근로 조건 개선 사항에 대해 성실히 논의하고 있으며, 단체교섭, 임금교섭(보충교섭) 및 노사협의회(부문별, 사업부·지역별 협의 포함) 등을 통해 결정된 사항을 바탕으로 2년 마다 단체협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미적용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종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단체협약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또한 간부사원 등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 중이며,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준수하여 운영합니다.

2025년에는 총 5명의 전문가로 7기 고용안정위원회 자문위를 구성하였습니다. 전동화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글로벌 경쟁과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자문위원회는 직원들의 고용 문제, 미래 지향적인 임금 체계 개선, 대내외 리스크 극복 방안 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였으며, 노사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중재자 역할도 수행하였습니다.

글로벌 노동조합 커뮤니케이션 현대자동차 해외법인 중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법인은 체코, 브라질, 인도 법인입니다. 중국지역 해외법인은 노동자 대표 조직인 공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법인은 현지 노동관계 법규에 따라 노동조합과 임금/단체교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원과 회사가 원윈할 수 있는 근로조건 및 복지제도 수립을 위해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를 실시하며, 이를 기반으로 합리적이면서도 노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관점에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인권경영 및 인적자원 관리

전략

미국,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법인에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지만,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소통을 중심으로 사전 예방적 ER(임직원 관리)을 통해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체코법인, 브라질법인, 인도법인 등 유노조 사업장의 경우 단체교섭으로 인한 협약 체결 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과 유사한 개념으로 비조합원까지 단체협약의 효력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가별로 교섭방식은 상이하며, 특히 브라질법인은 산별 교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노조가 존재하지 않는 사업장은 단체교섭 및 협약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법인 자체적으로 근로자 협의체 운영 혹은 직원대표 선임을 통해 복리후생 및 기타 근로조건(임금성 제외)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튀르키예 지역의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와 높은 인플레이션 및 물가 인상을 감안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사 차원에서는 2년마다 해외 생산법인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 자부심 제고를 위한 개선 활동을 진행합니다. 아울러, 각 해외법인별로 직원-경영진과의 정기 간담회 실시, 고충상담실 운영, 현장 순회 등을 통해 직원들의 고충과 요청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과거에는 교섭 관련하여 노사 이견 발생시, 노조는 파업 등 단체행동권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여 생산차질이 다소 발생하였으나, 최근에는 노사관계가 한층 더 성숙되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관행이 정립되고 있습니다.

미래 변화 대응 위한 노사 공동 노력 현대자동차는 산업 전환기 속 노사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사공동TFT 및 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래 자동차 산업 변화 대응을 위해 국내 투자 및 경쟁력 강화 등 자동차 산업 발전 방안 구체화를 위한 노사 공동 노력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사는 미래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 조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비롯하여, 부품 협력사와의 상생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당사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등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보상 및 복리후생

성과 보상 체계

현대자동차는 개인의 업무 성과에 따른 변동급 지급은 물론, 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임직원에게 다양한 형태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성과 기반 보상 현대자동차는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며, 급여의 인상폭은 대내외 경제 여건, 시장 상황, 사업 성과를 고려하여 조정합니다. 기본급 설정 및 인상 과정에서 임직원 간 불합리한 차별을 두지 않으며, 글로벌 모든 사업장에서 법정 최저 임금 이상의 급여를 정해진 일자에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임직원의 변동급여는 업무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책정됩니다. 성과 평가 기반의 변동급 외에도 매년 경영 성과에 따른 초과 이익을 모든 임직원에게 배분하여 조직 발전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사주제도 현대자동차는 직원의 근로의욕 고취, 업무몰입도 제고, 사업 목적과 개인의 가치를 일치시키고자, 성과급의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우리사주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중 지급한 회사출연 우리사주는 1,529,994주이며, 모집한 개인출연 우리사주는 236,026주로 총 1,766,020주입니다. 우리사주제도를 통해 현재까지 지급한 총 주식은 7,848,797주이며, 2025년말 기준 보유 주식은 6,771,922주(지분율 3.33%)입니다. 당사 전체 인력의 약 90% 이상인 정규 직원은 모두 우리사주제도 및 우리사주 매입제도의 대상입니다.

우리사주제도 운영 현황

구분		2024년	2025년
신규 출연	회사 출연	1,510,345	1,529,994
	개인 출연	246,294	236,026
합계		**1,756,639**	**1,766,020**
소유주식 수 (지분율)		5,394,300 (2.58%)	6,771,922 (3.33%)[1]

[1] 보통주·우선주 합산 기준이며, 2025년 사업보고서(VII. 주주에 관한 사항) 보통주 기준 지분율은 2.96%

임직원 복리후생 제도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운영 현대자동차는 임직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영하며, 경조금, 휴가, 상조 서비스 등 경조사 지원과 자녀 학자금, 차량 구매 할인 등 맞춤형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법적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육아휴직 관련 지원하여 임직원이 안정적으로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또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을 통해 직원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복지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건강 지원 현대자동차는 임직원 건강 관리를 위해 본사, 울산/아산/전주공장, 남양연구소 내 임직원 전용 피트니스 센터(짐나지움) 및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사의 경우 사옥 노후시설 리노베이션과 더불어 짐나지움 시설도 최신 시설로 리뉴얼하여, 임직원이 보다 쾌적한 시설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현대자동차는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스스로 효율적인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직군은 의무 근무시간을 제외한 선택 가능 시간대 내에서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간, 1일의 근로시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직(국내)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 근로시간을 준수한다면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초과근무가 가능하고 그 외 시기에는 의무 근무시간만 근무해도 되는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임직원 스스로 효율적인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통하여 현대자동차는 임직원의 업무 몰입을 높이고 성과 창출을 지원합니다.

근로자 소득 손실 보장 지원 현대자동차는 산업재해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가 불가능한 임직원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장되는 보상금 외에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따라, 직원이 산업재해로 인해 휴직하는 기간 동안 법령에 의해 보장되는 휴업급여 외에도 회사에서 추가 소득을 지원합니다. 또한, 산업재해로 휴직한 후 복직하는 근로자 중 장해가 남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장되는 장해급여 외에 장해 정도에 따라 추가적인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및 인적자원 관리

전략

다양성 포용

현대자동차의 다양성과 포용

현대자동차는 전 세계 200개가 넘는 국가에서 비즈니스를 전개하며, 다양한 문화와 가치, 경험을 지닌 임직원과 함께 성장해 온 글로벌 기업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사업 환경 속에서 다양성은 이미 자연스럽게 축적되어 왔으며, 이를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배경과 관점을 존중하는 문화를 글로벌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현대자동차의 일하는 방식 'Hyundai Way' 중 하나로 '다양성 포용'을 포함하고 글로벌 전 임직원과 지속적으로 공유해 오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글로벌 공통의 Diversity & Inclusion(D&I) 중점 영역과 목표를 설정해 전사적으로 실행한 결과, 글로벌 다양성 인식 개선 교육, 여성 리더십 확대, 장애인 고용 등 주요 과제에서 수립한 목표를 모두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국내외 외부 평가를 통해서도 인정받았습니다. 국내에서는 가족친화 인증을 2014년부터 12년 연속 유지하는 가운데, 2026년에는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해외에서는 장애인 고용 분야에서 최초로 'Best Inclusive Company with Disability Hiring'을 수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수의 글로벌 사업장이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Great Place to Work, Top Employer'을 획득하며 포용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글로벌 경영진이 참여하는 D&I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보다 도전적인 중장기 목표를 중심으로 전 세계 사업장이 함께 실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다양성 및 포용성 정책

성별

현대자동차는 전 세계 다양한 사업 환경 속에서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이 역량을 발휘하며 성장할 수 있는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글로벌 사업 환경에서, 성별 다양성은 조직의 판단과 실행의 폭을 넓히는 중요한 경쟁력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반으로 확산되는 여성 리더십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전 사업장에서 여성 인력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장 기준 여성 임직원 비율은 3년 연속 상승해 2025년 17.3%를 기록했으며, 이러한 변화는 어느 한 지역이 아닌 글로벌 조직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 인력 기반의 확대와 더불어 리더십 파이프라인의 다양성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여성 임원 비율은 7년 연속 증가해, 주요 의사결정 구조에서도 성별 균형이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여성 리더십의 문화적 기반 현대자동차는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과 성별 다양성을 포용하는 문화 실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성 리더십 교육과 특강, 국제기념일 International Women's Day와 연계한 각 법인의 다양한 메시지와 네트워킹 활동들을 통해 여성 리더의 역할과 성장 사례를 공유하고, 교류와 학습의 흐름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성 친화적 근무환경 현대자동차는 임직원이 개인의 생애주기 변화 속에서도 경력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건강한 커리어 성장과 가정 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국내 기준 육아휴직 복귀율 99%, 복귀 이후 유지율 98%를 기록하며, 관련 제도가 인재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휴가 등 현지 법에서 규정한 수준 이상의 유급휴가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및 육아기 단축근로를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임신·출산·육아기 직원을 포용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국내뿐 아니라 모든 해외 법인 임직원에게도 각 국가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SPOTLIGHT

인도권역본부

최초 여성 임원 배출, 준비된 변화의 결과

인도권역본부는 역량 있는 여성 인재를 대상으로 여성 리더십 육성 프로그램(TrailblazHER)을 운영하며, 역량 개발과 멘토링, 커리어 확장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 리더 후보군이 내부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그 결과 2025년 인도 권역 최초의 여성 임원이 배출되었습니다.

TrailBlazHer



체코생산법인

리더십 파이프라인 연속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체코생산법인은 여성 리더십 확대를 일회성 과제가 아닌, 리더십 파이프라인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내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더십 교육과 멘토링을 통해 여성 인재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육아휴직 이후에도 경력 흐름이 단절되지 않도록 복귀 시점에 맞춤형 지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23년 8.3%에서 2024년 16.7%로 두 배 이상 확대된 이후, 2025년에도 16.9%로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및 인적자원 관리

전략

아울러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임직원들이 자유롭게 유급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휴가(Leadership Build-up Break, 하이파이브(Hi-Five) 휴가 등)와 샌드위치 휴가 사용을 독려하고 있으며, 특히 하이파이브 휴가제도를 통해 장기휴가 시 복지포인트를 지원하여 장기휴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핵심 비즈니스 영역으로 확장 현대자동차 여성 인력은 '지원'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연구·STEM·수익 창출 등 비즈니스 전반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정 직무에 편중되어 있는 제조산업의 일반적 인력운영 흐름과는 대비되는 변화로,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재 파이프라인에 성별 다양성을 포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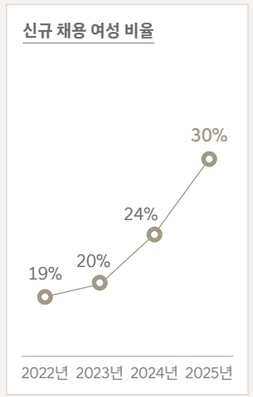
성별 임금 격차 현대자동차는 임직원이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의 업무 경험과 성과에 기반해 임금을 지급합니다. 매년 성별 임금 격차를 분석해 변화 추이와 발생 사유를 관리하며, 인사제도 전반에서 성별에 따른 구조적인 임금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와 승진 등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리더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SPOTLIGHT

미국기술연구소

미래 엔지니어 양성 허브

북미지역 내 연구조직인 HATCI(Hyundai America Technical Center)는 여성 엔지니어를 주요 인재군으로 인식하고, SWE, Women in Automotive Network(WAN) 등 전문 네트워크와 대학·지역 기반 커리어 페어와의 연계를 통해 채용 접점을 넓혀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기준 HATCI 신규 유입 연구직 인력 중 여성 비율은 30%를 기록하며 기술조직 내 여성 인재 유입이 눈에 띄게 확대되었습니다. 여성 인력이 연구·기술 조직의 초기 유입부터 안정적으로 확보되며 중장기적 리더십 파이프라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탄탄하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역별 남성 대비 여성 임금

- **국내**
  - 일반직 기준으로 2025년 매니저급은 남성 대비 여성 임금이 7.8% 높게 나타났습니다. 책임급(G3~G4)은 남성 임금이 각각 5.5%, 3.9% 높게 분석되었고, 책임급 전체 성별 임금 격차는 전년과 유사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성별 임금 격차는 연차 차이 등에서 주로 발생하나,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대비 2025년 전체 격차는 1.6%p 감소하였습니다.
- **해외**
  - 주요 해외 사업장인 북미권역본부 기준, 매니저급에서는 남성 임금이 여성 대비 4.4%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책임급에서는 여성 임금이 남성 대비 1.5% 높게 분석되었습니다.
  - 직급별로 살펴보면, Grade 4·5·8에서는 여성 임금이 각각 10.8%, 5.5%, 1.6% 높게 나타났으며, Grade 6·7·9[1]에서는 남녀 보상 수준이 사실상 유사해 격차가 1% 미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 G6 이하: 국내 매니저급과 유사, G7~G9: 국내 책임급과 유사

SPOTLIGHT

북미권역본부

기념을 넘어, 함께 배우고 연결되는 세계 여성의 날

북미권역본부는 International Women's Day와 Women's History Month를 연계해, 3월 한 달 동안 학습과 연결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회복탄력성을 주제로 한 온라인 정신건강 특강을 통해, 스스로를 돌보며 지속적으로 성과를 만들어가는 리더십의 기반을 함께 살폈습니다. 이어 모터스포츠 사례를 중심으로 한 토크 세션에서는 포용적인 엔지니어링 문화가 실제 성과와 혁신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여성 리더와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리더십과 커리어 여정에 대한 경험을 나누며, 개인의 이야기가 조직의 학습으로 이어지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가족친화 제도 운영 성과

현대자동차는 임신·출산·육아기 직원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친화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2014년부터 12년 연속 가족친화 인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며, 제도의 실효성이 외부 평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가족친화 우수기관
Best Family Friendly Management

인권경영 및 인적자원 관리

전략

국내 출산·육아·가족돌봄 지원 제도

구분	지원사항	주요 내용
출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직원의 임신 초기(12주 이내) 또는 임신 후기(32주 이상) 1일 근로시간 중 2시간 단축 제공 • 시업 후 2시간, 종업 전 2시간 또는 시업 후 1시간 + 종업 전 1시간 중 선택 가능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임신 전 기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
	출산 전·후 휴가	• 출산 예정인 여직원에 대해 출산 전후 90일간의 보호 휴가 지원 (다태아 임신의 경우 120일, 미숙아 출산의 경우 100일) *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초 60일 유급 휴가 부여, 잔여 30일에 대해서도 회사가 정부 급여와 통상임금 간의 차액을 추가 보전하여 90일 전 기간에 걸쳐 유급 휴가를 보장
	유·사산 휴가	• 임신 중 유산, 사산 등 임직원 건강을 위하여 임신 주수에 따른 휴가 일수 부여
	난임휴가 및 난임시술비	• 난임 시술 시 연간 6일 난임휴가(5일 유급, 일 단위) 부여 • 본인 및 배우자 난임시술 시 실비 지원
	태아 검진	• 태아 검진 시 28주까지는 4주에 1회, 29주~36주는 2주에 1회, 37주 이후는 1주에 1회 유급 근태 지원
	아이행복여행	• 본인/배우자 임신 및 출산 시 임신 6개월~출산 2년 내에 회사 지정 호텔 숙식 제공 (최대 2박)
	배우자(보조양육자) 출산휴가	• 배우자가 출산한 남직원 대상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20일 지원 * 근로기준법에 따라 20일 유급 휴가 부여
육아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남녀 직원 모두에게 자녀 한 명당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유급휴직 1년(최대 3회 분할 가능) 외 무급휴직 1년(최대 1회 분할 가능) 추가 부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남녀 직원 모두에게 자녀 한 명당 최대 2년간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가능 (1개월 단위 분할 가능) •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총 2년 사용한 직원에 한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추가사용 가능 • 시업 후 2시간 또는 4시간/종업 전 2시간 또는 4시간/시업 후 2시간 + 종업 전 2시간 중 선택
	육아시간 부여	• 생후 1년 미만의 영아가 있는 여직원에 대하여 1일 120분의 유급 수유시간 제공
	사내 어린이집	• 본사, 강남, 울산/아산/전주공장, 남양연구소 등 총 6곳 운영
	유아교육비	• 만 4~5세 자녀의 유아교육비 지원
	엄마아빠 바우처	• 자녀 출생 및 입학 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가족 돌봄	가족돌봄 휴직	• 부모나 자녀,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90일 지원
	가족돌봄 휴가	• 부모나 자녀,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대 10일 휴가 사용 가능
	주재원 배우자 동반 휴직	• 육아휴직과 별도로 사내부부 중 1인이 해외주재원 선발되어 배우자가 1년 이상 연속하여 동반 거주하는 경우 (단, 주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주재기간의 50% 이상 연속 동반거주) 배우자의 정규 주재기간에 한하여 휴직 사용 가능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제도는 글로벌 모든 사업장에서도 현지 법적 기준을 충족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

현대자동차는 장애인이 수행 가능한 다양한 업무 영역에서 장애인 인재를 발굴하고, 함께 일하는 조직으로의 변화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장애인 임직원이 업무와 조직 생활 전반에서 제약 없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채용 이후에도 근무환경, 조직문화까지 고용 전반을 살피고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및 근로환경 개선 장애인 고용을 인원 확대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업무 영역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구조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직접 고용을 중심으로 채용 규모와 직무 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추진해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근무하며 성장할 수 있는 고용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채용 이후에도 장애인 임직원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무 특성과 근무환경을 고려한 배치와 함께 재택근무, 단시간 근로 등 다양한 근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역량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근무 방식의 선택지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채용 이후에도 장애인 임직원이 불편이나 제약 없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전반의 접근성을 세심하게 살피며 개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개인의 어려움이 한계가 되지 않는 근무 환경** 현대자동차는 실제 근무 환경에서 마주할 수 있는 물리적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 공간과 이동 동선 전반에 걸친 접근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과 주출입구·주차장 경사로를 정비하고, 호출벨과 점자블록 설치, 전용 주차구역 및 보행통로 조성은 물론,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모션 데스크 등 보조 장비를 지원하는 등 일상적인 업무와 생활 환경에서의 불편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은 특정 대상을 위한 별도 지원이 아니라, 누구나 불편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근무환경 정비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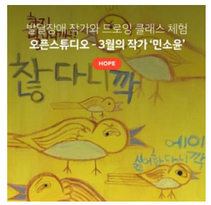
- **외부기관과의 파트너십으로 이어지는 변화** 2025년 4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고용 확대와 함께 장애인 임직원의 실제 근무 경험과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내부 점검에 더해,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시선을 통해 근무환경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및 인적자원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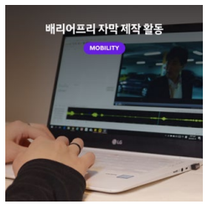
전략

장애인 인식 개선 현대자동차는 함께 일하는 구성원의 인식과 태도 역시 포용적 근무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법정 필수 교육인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 더해, 장애인 신규 직원이 배치된 조직을 대상으로 맞춤형 인식 개선 특강을 추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특강은 영문 자막을 포함해 상시 학습 콘텐츠로 제공되며, 구성원들로부터 '편견 없이 차이를 이해하는 계기',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장애인 입사자가 조직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 일하는 동료들 대상으로 신규 입사자 소개와 소통 가이드를 공유하며, 장애보다 '함께 일하는 동료'로 먼저 인식될 수 있도록 섬세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넘어 사회로 확장되는 포용의 가치 현대자동차는 포용의 가치를 조직 내부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습니다. 임직원이 회사 밖의 일상 속에서도 직접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원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 예술가의 작품을 함께 감상하고 작가와 교류하는 드로잉 클래스, 점자 동화책 제작 및 기부, 청각장애인을 위한 배리어 프리 자막 제작 활동을 통해 임직원은 돕는 주체가 아니라, 함께 참여하며 배우는 경험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포용을 메시지로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임직원의 참여를 통해 사회로 확장되는 실천의 가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SPOTLIGHT

중남미권역본부

환경부터 문화까지, 함께 일하도록 설계

중남미권역본부는 청각장애인 고용 비중이 높은 지역적 특성에 맞춰, 장애 유형과 업무 특성을 반영한 근무환경과 지원 체계를 구축해 온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신규 입사 단계부터 수어 통역을 포함한 맞춤형 온보딩과 교육을 운영하며, 장애인 임직원이 초기 적응 과정에서부터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토론모임인 'Discussion Circle'을 통해 장애인 임직원을 포함한 구성원의 의견을 직접 듣고, 근무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필요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이 참여하는 근무환경 평가를 통해 작업 환경과 동선, 접근성을 점검하고, 실제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안전 담당자 및 리더를 대상으로 기초 수어 교육과 포용적 리더십 교육을 운영하고, 장애를 가진 운동선수를 초청한 특강 등을 통해 편견과 차별 없는 협업 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생산법인

포용적 장애인 고용 실행 성과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생산법인은 법적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의 장애인 고용을 달성하며, 장애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과 포용적인 고용 실행 성과를 인정받아 'Best Inclusive Company with Disability Hiring' 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는 장애인 고용을 제도 준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채용과 근무환경 전반에서 꾸준히 실행해 온 노력이 외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문화적 포용

현대자동차는 서로 다른 문화와 국적, 경험을 지닌 구성원이 함께 일하며 글로벌 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이러한 문화적 포용은 글로벌 협업과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고 조직혁신과 다양한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은 물론, 이를 제도와 인재 운영, 협업 방식 전반에 반영해 왔습니다.

글로벌 다양성을 '함께 일하는 힘'으로 글로벌 사업장이 분산되어 있는 구조 속에서도 현대자동차는 이를 제약이 아닌 다양성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고 있으며 인재 전략, 제도, 일하는 방식 전반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SPOTLIGHT

무의식적 편견 없애기

현대자동차는 조직 내 차별을 예방하고 공정한 의사결정과 협업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무의식적 편견(Unconscious Bias)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북미 판매·연구조직 등 일부 해외법인에서는 이미 이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성원들이 일상적인 업무와 리더십 활동에서 자신도 모르게 하는 편향을 인식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함께 일하는 환경에서 무의식적 편견에 대한 교육이 중요한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에서도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당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권경영 및 인적자원 관리

전략

SPOTLIGHT

해외지사별 ERG 활동

현대자동차는 공통적인 다양성 배경을 지닌 임직원이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문화를 교류함으로써 선도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성별, 문화, 연령, 출신지역을 비롯한 공통의 관심사를 지닌 임직원들이 함께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는 직원 리소스 그룹(Employee Resource Groups: ERG)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개인 또는 팀 차원의 경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 기반 멘토링, 지역사회 참여 등 외부 연계활동을 통해 현대자동차 내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까지 긍정적 영향력이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mployee Resource Groups

사회적 소수자	Inclusion@HAC HMMIERG Community	DEI&B Committee
여성	We Are (Women in Automotive) Group Empodera Women@HAC Women's Community Wconnect@Hyundai	Mujeres informadas Red de Mujeres Women's Alliance Group Women@Hyundai
일하는 부모	Parent@HAC	H.ARMony
종교	Mosque muslim council	HMMI worship
인종	Group Ascendencia Boston Dinamicos Amigos Unidos	Hyundai Asian Network Alliance Hyundai Soul
장애	Group Habiliverso	Hyundai Cares
LGBT+	Group Somos Pride Group	Drive Equality
보훈	Veterans Group	Stars & Stripes
세대	Group Conexão Young Professional Group	Young Leaders

- Talent Development: 다양성 기반의 미래 인재 양성 현대자동차는 인재가 특정 지역이나 배경에 편중되지 않도록, 미래 리더십 파이프라인을 균형 있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Succession Plan과 인재 수요·공급(Talent Demand & Supply) 논의를 통해 다양한 지역과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인재가 리더십 파이프라인 전반에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점검하며, 글로벌 관점과 다양한 시각이 중장기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다양한 국가의 인재를 대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비즈니스 과제를 통해 글로벌 업무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025년에는 전년 대비 외국인 인재 선발이 30% 이상 증가했으며, 글로벌 인재 풀 확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Recognition: 글로벌 다양성을 조직의 경쟁력으로 현대자동차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임직원들이 각자의 고유한 관점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서 글로벌 아이디어 공모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배경의 인재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Hyundai Honors Award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해외 조직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글로벌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시행 이후 최초로 해외 연구소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으며, Hyundai Honors에서도 인도기술연구소, 중국기술연구소, HMGICS 등 글로벌 조직이 최우수를 수상하는 등 조직의 다양성이 자산으로 축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Way of Working: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협업 구조 현대자동차는 각 지역 HR 리더가 참여하는 글로벌 HR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별 주요 이슈와 제도 운영 사례를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검증된 HR 운영 사례는 글로벌 Best Practice로 전사에 확산되어, 각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이 축적된 제도와 경험이 개별 법인에 머무르지 않고 조직 전체의 혁신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포용적인 글로벌 근무환경 현대자동차는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이 구성원의 일상적인 근무 경험 속에서 자연스럽게 존중받고, 협업하며 강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일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SPOTLIGHT

Global Mobility Framework – 확장되는 개인의 성장과 조직의 역량

현대자동차는 Global Mobility Program을 통해 글로벌 각 조직의 인재를 지리적 제약 없이 연결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 조직은 필요한 시점에 적합한 역량을 확보하고, 임직원은 한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무대에서 경험과 역할을 확장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인재 이동을 통해 개인이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는 특정 법인에 한정되지 않고 글로벌 조직 전체의 자산으로 순환되며 글로벌 다양성에 기반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Change Agent – Global One Team Spirit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Change Agent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특성과 조직 과제를 반영한 변화 관리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2024년부터 일부 사업장에서 파일럿으로 운영된 이후, 2년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2026년부터 전 세계 사업장으로 공식 확대되었습니다.

Change Agent는 조직문화 진단 결과와 구성원 의견을 바탕으로, 전사적 방향에 맞는 법인별 실행 과제를 도출하고, Best Practice에 대해 상호 교류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및 인적자원 관리

전략

SPOTLIGHT

글로벌 Hyundai Way Week – 다름을 연결하는 One Culture의 실천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지닌 글로벌 조직에서, 서로 다른 구성원이 같은 언어의 일하는 방식으로 연결되는 것이 포용의 출발점입니다. 이에 2025년에는 현대자동차의 일하는 방식인 Hyundai Way를 전사적으로 공유하되, 각 지역이 환경과 문화에 맞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Hyundai Way Week를 운영했습니다.

[글로벌 주요 활동]

- **본사:** 실천 사례 공유와 참여형 전시를 통해 일상 업무 속 Hyundai Way 조명
- **인도·중남미:** 직원 참여형 프로그램과 워크숍을 통해 구성원의 이해와 공감 확산
- **미주·유럽:** 온·오프라인 활동으로 협업과 실행 중심의 일하는 방식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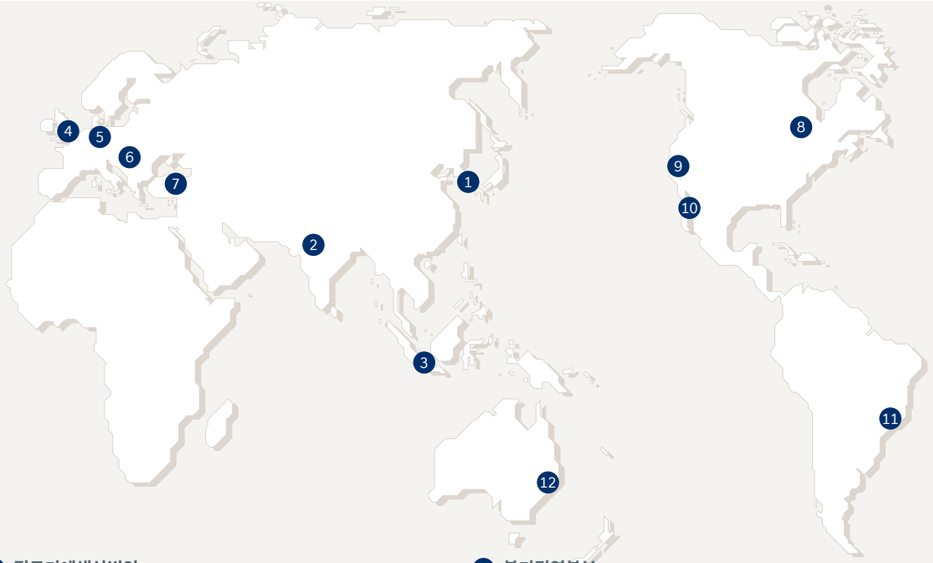


사우디생산법인

다양성이 포용되는 One Team 협업 문화 구축

2025년 신설된 사우디생산법인(HMMME)은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인력이 함께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협업 방식을 함께 정립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문화적 차이를 협업의 장벽이 아닌 전제로 받아들이고, One Team 협업 문화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현지 임직원과 주재원을 포함한 다양한 구성원의 인식과 경험을 사전 진단과 리더십 인터뷰를 통해 점검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협업 원칙(Rules of Engagement)을 도출했습니다. 이어 컬처 워크숍을 통해 문화적 차이와 소통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다문화 환경에서도 함께 일할 수 있는 협업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외부 이니셔티브 참여 및 수상/인증 내역



1 본사

WIN (Women in INnovation) 어워드 수상 NEW	2025
가족친화 우수기관 NEW	2026

2 인도권역본부

Top Employer Certified	2026

3 인도네시아생산법인

Best Inclusive Company with Disability Hiring NEW	2025
HR Asia Award NEW	2025
TOP Human Capital NEW	2025

3 인도네시아판매법인

HR Asia Award NEW	2025

4 영국판매법인

Great Place to Work Certified NEW	2025

5 유럽권역본부

Top Employer Certified NEW	2026

6 체코생산법인

Sodexo Employer of the Year 1st place	2025

7 튀르키예생산법인

Brandon Hall Awards NEW	2025

8 캐나다판매법인

Great Place to Work Certified	2025
Best Workplaces with the Most Trusted Executive Team NEW	2025
Best Workplaces for Giving Back NEW	2025
Greater Toronto's Top Employers NEW	2025
Canada's Best Diversity Employers NEW	2025

9 북미권역본부

Great Place to Work Certified	2025

10 현대트랜스리드

Great Place to Work Certified	2025

11 중남미권역본부

Great Place to Work Certified	2025
Great People (Mental Health) Certificated NEW	2025

12 호주판매법인

Great Place to Work Certified	2025

* 2025년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이후 새롭게 수상하거나 인증된 내역은 'NEW'로 표기

인권경영 및 인적자원 관리

위험 관리

인권 리스크 관리

인권 실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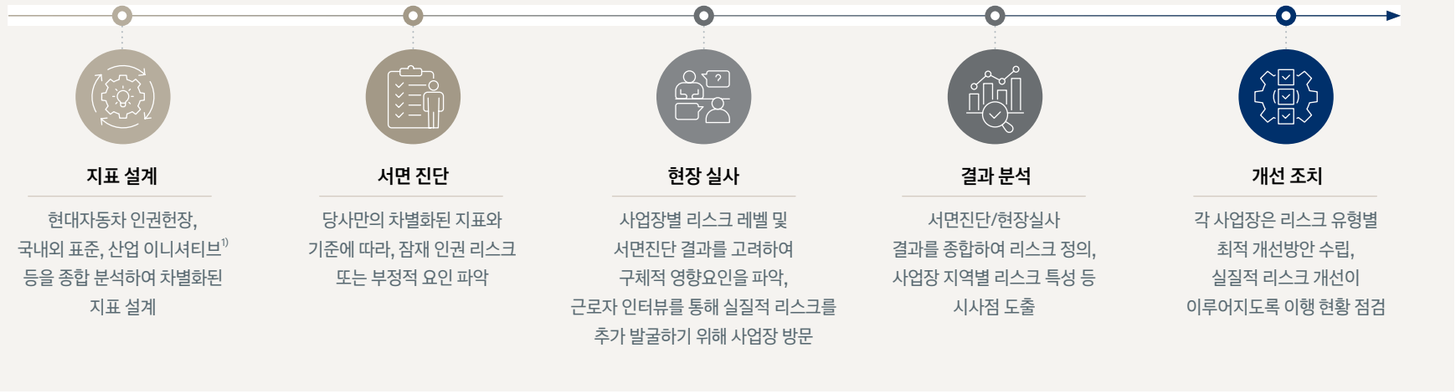
인권 리스크 평가 범위 현대자동차는 주요 비즈니스와 각 법인 사업의 연관성, 관리체계, 리스크 수준(Risk Level)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권 실사 대상을 선정하며, 그 범위에는 생산법인, 연구소, 해외 권역본부 및 국내외 사업법인 등이 포함됩니다. 2025년에는 완성차 제조 공급망과의 연계성을 반영해 총 47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사를 실시했으며, 일부 법인에 대해서는 제3자 심사기관과 함께 현장실사를 진행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러한 인권 리스크 평가를 통해 사업장 수준의 잠재 리스크를 식별하고, 확인된 미비점을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권 리스크 취약 계층 임직원 구성 현황, 사업운영 방식 및 지역, 생산·판매하는 제품 및 서비스, 환경 및 지역사회 영향력, 공급망으로부터 조달받는 제품 및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직원, 지역사회, 여성 및 아동, 이주·계약 노동자, 협력업체를 주요 인권 리스크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당사 신규 사업 관계(합병, 인수, 신규계약 등)로 인한 공장 신·증설 투자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ESG 체크리스트 검토 과정을 통해 취약 계층 인권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 예방하고 있습니다.

인권 리스크 평가 지표 설계 현대자동차는 당사 비즈니스 영역 안팎으로 잠재되어 있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인권 리스크를 정확히 식별하고자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 현대자동차 인권헌장을 기반으로 국내외 인권경영 표준, 산업 이니셔티브의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인권 리스크 평가 지표를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과거에 인권 관련하여 접수·처리된 고충 유형 분류, 임직원 의견 청취, 제3자 전문기관의 검토 과정을 거쳐 당사만의 인권 리스크 진단·실사 지표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 리스크 사전 예측 인권 리스크 서면진단 및 현장실사를 수행하기 전, 국가별 인권 관련 법·제도 현황, 국내외 기관 및 언론의 조사자료, 산업 이니셔티브의 문헌자료, 사업장 담당자 인터뷰 등 내·외부 환경을 조사하여 임직원, 여성, 아동, 이주 노동자, 협력사, 지역주민 등 다양한 계층에서 발생가능한 인권 리스크를 사전에 예측합니다. 예측 결과는 사업장별, 계층별 진단·실사 지표를 차등하여 적용하거나, 리스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별 기준을 보완·강화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권 리스크 평가 절차



인권 리스크 사전 예측 결과

● 잠재 위험 ○ 낮은 위험

국내	임직원	협력업체	지역사회	여성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	○	○	○
차별 및 직장 내 괴롭힘	●	●	○	●
근로조건 준수	●	●	○	●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장	○	●	○	○
산업안전 보장	●	●	○	●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 인권	○	●	●	●
환경권 보장	○	●	●	○

해외	임직원	이주/계약 노동자	협력업체	지역사회	여성	아동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	●	●	○	○	●
차별 및 직장 내 괴롭힘	●	●	●	○	●	○
근로조건 준수	●	●	●	○	●	○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장	●	●	●	○	○	○
산업안전 보장	●	●	●	○	●	○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 인권	○	●	●	●	●	●
환경권 보장	○	○	●	●	○	○

[1] UNGPs,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및 실사 가이드라인, RBA, Drive Sustainability 등

인권경영 및 인적자원 관리

위험 관리

2025년 인권 리스크 사전 예측 결과는 2023년과 유사하게, 국내는 협력업체의 근로조건(급여, 근무시간 등), 차별 및 직장 내 괴롭힘, 산업안전 등에서 잠재적 인권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해외의 경우에는 이주·계약 노동자와 협력업체에서 강제노동 및 근로조건 준수, 결사의 자유 등과 관련한 잠재위험이 확인되었으며, 여성과 아동은 차별·괴롭힘 및 아동노동(특히 공급망) 측면에서 추가적인 관리 필요성이 있는 영역으로 판단했습니다.

인권 리스크 서면진단 현대자동차는 당사 사업환경 및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된 인권 리스크 진단·실사 지표에 따라, 설문 형식으로 서면진단을 시행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잠재된 인권 리스크를 식별하고 있습니다. 서면진단 시에는 각 사업장의 원활한 답변 작성을 위해 진단 기준과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진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면진단을 통해 파악된 잠재 리스크는 현장실사 과정을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검증합니다.

2025년에는 총 8개 항목에 대해 서면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세부 문항은 85개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평가 결과에 따라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당사 사업장 내 잠재된 인권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적절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서면진단 지표는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인권 리스크 현장실사 현대자동차는 서면진단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장 소재 지역, 운영형태, 근로자 구성, 지역사회 영향 등 Risk Level을 고려하여 현장실사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면진단 결과 잠재 인권 리스크가 확인되거나,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사업장도 현장실사 대상 선정 시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현장실사는 독립적인 제3자 심사기관의 주도 하에 HR·조직문화 등을 담당하는 내부 전문가가 참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노무·법률 등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 현장에서는 근로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각종 문서자료를 검토하고, 근로환경을 검증하기 위한 현장순회도 진행합니다. 특히 임직원 고충 청취 및 인권 리스크 식별을 위해 각 사업장별 임직원 및 담당자 인터뷰를 독립적인 공간에서 별도로 진행하였습니다.

인권 리스크 서면진단 지표

1. 인권 및 노동 리스크 (64개 문항)		2. 윤리 (12개 문항)	
1-1	인권 및 노동 리스크	2-1	윤리경영 시스템
1-2	인권경영 시스템	2-2	그린워싱 리스크 관리
1-3	인권 리스크 관리		
1-4	근로환경 개선		
1-5	공급망 인권/노동 관리		
1-6	생활환경 인권 관리		

2025년 사업장 인권 리스크 평가 (단위: %)

구분		결과
사업장	인권 리스크 평가 실시 비율[1]	100
	리스크 있는 사업장 비율[2]	6.4
	개선조치 및 개선활동 이행 비율	100

[1] 인권 리스크 평가 수행 사업장 수 / 인권 리스크 평가 대상* 사업장
* 본사, 권역본부 및 국내외 생산, 판매, 연구 사업장(해외의 경우, 본사 지분 50% 이상, 50인 이상 사업장)

[2] 현장실사 수행 결과 리스크(non-conformance)가 식별된 사업장

인권 실사 결과 및 개선조치

당사 사업장 서면진단 결과 현대자동차는 2025년 국내외 사업장 및 합작회사를 포함하여 전체 47개 사업장의 인권 리스크를 진단하였습니다. 이 중 해외 사업장은 북미·중남미·유럽·인도·중국 등 42개입니다. 진단 결과 국내외 전체 사업장의 평균 지표 준수율은 약 86.2%였으며, 전년 대비 인권 및 윤리 영역 전반에서 준수 수준이 개선되었습니다. 한편, 해외 연구소 및 판매법인은 일부 지표에서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어, 개선 우선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당사는 제도·운영 측면의 보완 필요 사항을 반영해 인권·윤리 기본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법인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해외 사업장의 인권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사 사업장 현장실사 결과 2024년에는 중남미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5개 생산법인을 대상으로, 2025년에는 북미와 중국 지역의 4개 생산법인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수행했습니다. 이번 현장실사를 통해 약 70여 개의 지표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요구사항을 충족했으며 근로자 인터뷰에서도 높은 근무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고충처리 채널의 투명성 강화 및 하청업체 노동 리스크 관리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고충처리 채널의 외부 공개 및 내부고발자 보호 정책 명문화, 현장 하청업체에 대한 본사 기준 준수 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요청하였으며, 정기 점검을 통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2026년에는 유럽과 국내 지역의 생산법인 현장실사를 수행할 예정이며, 권역별 정기적 실사를 통해 국내외 전체 생산법인의 인권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인권 리스크 개선조치 각 사업장 담당자는 서면진단 및 현장실사에서 발견된 리스크 기반으로 개선과제를 도출하며,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치를 취합니다. 개선조치 이행 계획은 추진 시기, 방식, 예상되는 추가 리스크 등을 포함합니다. 본사에서는 각 사업장이 개선과제를 계획에 따라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며, 실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거나 규정·제도 개선 또는 대규모의 투자 및 구조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전사 단위 과제로 상정하여 중장기 관점의 이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인권경영 및 인적자원 관리

위험 관리

2025년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사업장의 인권·윤리 경영 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사내도급사를 포함한 인권 리스크 관리 체계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해외 사업장에 인권·윤리 경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제도 및 프로세스상 미흡 사항은 우수 사업장 사례 공유와 교육 강화를 통해 개선함으로써 현지 법규 준수와 인권 리스크 예방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발견 이슈별 개선 활동

인권/윤리 운영체계 구축	• 사업장 웹사이트 내 윤리제보 채널 구축 및 처리절차 공개 • 정기 인권/윤리 교육 시행 및 채용 담당자 대상 인권 교육 도입
협력사 ESG 관리	• 협력사 행동규범 개정 및 준수서약서 체결 등 ESG 요구사항 반영 • 협력사 대상 인권/환경 교육 실시
사내도급사 인권 관리	• 사내도급 계약서 인권 보호 조항 반영하여 개정

지역별 인권 리스크 진단 결과



유럽

공급망 실사 지침 등 최신 규제 동향을 반영하여 당사 사업장 및 공급망 전반에 걸친 인권 실사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권헌장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성별·민족·연령·인종 등에 대한 차별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인권 리스크 발생 시 임직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장실사를 통해 법인별 인권정책 현지화, 교육/전파, 고충처리채널 등 기본 관리체계 구축 수준을 점검하였습니다.

북미

연방법 및 주(州) 행정법 상 인권보호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각 사업장에서도 현지 법규를 충족하는 수준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5년 실사 결과, 사업장 내에서 주목할만한 미흡 사항은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중남미

인권보호 정책 수립 및 임직원 전파,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노동 관련이슈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정책 및 법이 규제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 실사 결과, 사업장 내에서 주목할 만한 미흡사항은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인도

공식적으로 카스트 제도가 철폐되었으나 사회 전반적으로 신분제의 영향이 남아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비교적 미흡하지만 사내 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엄중히 처벌하고 있으며, 모성보호 차원에서 산전후 휴가 보장 및 사내 탁아소 운영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장실사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 및 사내도급 근로자 등의 권리 보호를 점검하고 개선조치를 이행하였습니다.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을 통해 노동자의 차별 금지와 평등한 권리 보장이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중국 내 다수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임직원의 권익과 관련한 의무/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2021년 기업의 성희롱예방의무를 도입한 개정 민법의 취지에 맞추어 사내 규정 정비(징계포함) 및 임직원 대상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장실사를 통해 고충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협력사 ESG 관리 현황을 점검하여 필요한 개선조치를 이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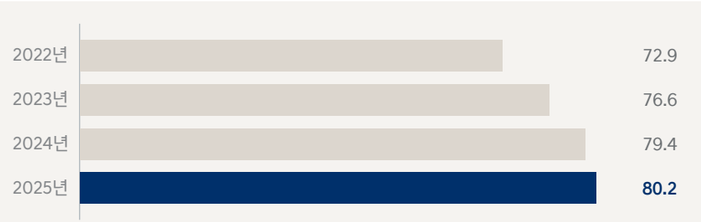
지표 및 목표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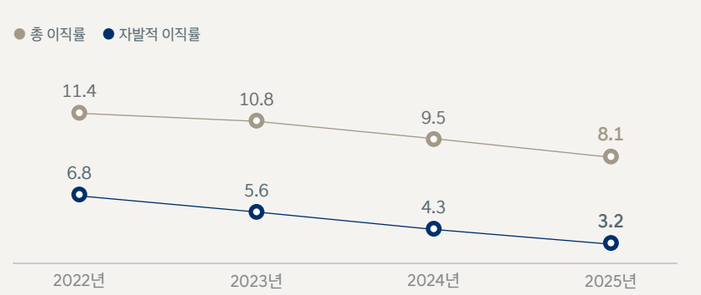
직원 만족도 및 이직률

현대자동차는 임직원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성과는 주요 지표의 긍정적인 변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조직문화 진단 결과는 2025년 80.2점을 기록하며 최근 3년간 꾸준한 상승세(총 7.3점 상승)를 보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조직의 건강성과 인재 유지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인 자발적 이직률은 2022년 6.8%에서 2025년 3.2%로 절반 이상(53%)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는 현대자동차의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 혁신과 임직원 소통 강화 노력이 실제 직원들의 만족도 향상과 장기 근속 의지로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조직문화 진단 결과 (단위: 점)



이직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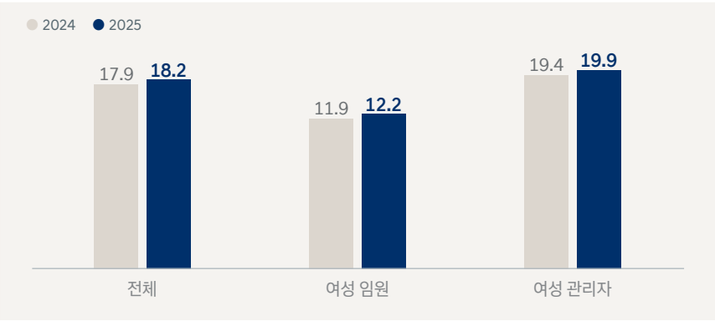
인권경영 및 인적자원 관리

지표 및 목표

여성 관리자 비율

현대자동차는 여성 인재가 리더십 역할과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넓혀갈 수 있도록, 여성 관리자 비율을 핵심 지표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사적인 여성 인력 확대와 핵심 비즈니스 경험의 축적을 바탕으로, 여성 인력의 관리자 및 리더십 비중도 함께 확대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기준 해외 여성 관리자(임원 포함) 비율은 18.2%로 전년 대비 상승했으며, 관리자와 임원 단계 모두에서 증가 흐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여성 인력 확대가 특정 직급에 머무르지 않고, 리더십 파이프라인 전반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해외 여성 관리자(임원 포함) 비율



목표

여성 관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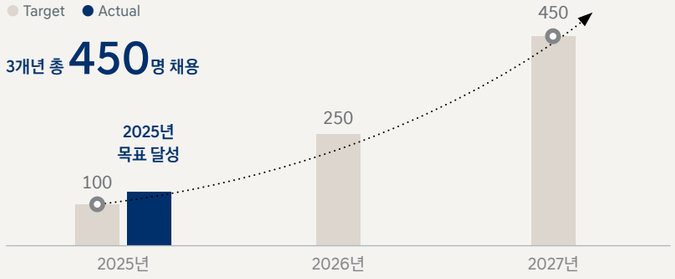
2030년까지 국내 여성 관리자 비율 15%, 해외 여성 관리자 비율 27% 라는 도전적인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고, 매년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글로벌 각 권역의 경영진이 참여하는 운영 체계를 구축했으며, 리더십의 책임 아래에서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내 여성 관리자[1]	해외 여성 관리자[2]
2030년 목표 15 %	2030년 목표 27 %
(2025년 9.5% 달성)	(2025년 18.2% 달성)

[1] 책임급 이상 일반직, 연구직, 별정직, 임원 포함 (자문역 제외)
[2] 조직 일반 운영업무를 관리하며, 때때로 독립 업무/프로젝트를 담당 혹은 리딩하는 직급 이상

장애인 신규 채용(국내)

장애인 고용은 채용 그 자체보다, 채용 이후 얼마나 안정적으로 업무에 적응하고 근무를 이어갈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채용을 출발점으로,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개인의 상황이 제약이 되지 않도록 근무 환경 전반을 보다 세밀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적 포용

현대자동차는 문화적 포용에 대한 인식이 실제 구성원의 행동과 조직 운영의 변화로까지 이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조직문화 진단(Culture Survey) 내 포용 관련 문항을 관리 지표로 설정하였고, 2025년 기준 전사 평균 81점으로 매우 긍정적인 수준임을 확인했습니다. 나아가 2030년까지 글로벌 모든 법인 평균 75점('그렇다') 이상 달성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전 법인 일관된 문화적 포용 수준을 확보할 것입니다.

포용성 문항 점수

2030년 목표 75 점 이상
(전 법인(100%) 대상)

[관련 문항]

- 우리 조직의 리더는 편견이나 차별 없이 구성원을 대합니다. (세대, 성별, 문화적 차이 등)
- 우리 조직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현대자동차는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에 기업의 정보 자산과 고객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인식하고,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경영층 주관의 정보보안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CISO·CPO 및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전사적 보안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파기까지 전 과정에서 법적 기준을 준수하며,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ISO 27001, ISMS-P, CSMS 등 국내외 정보보호 인증을 취득·유지하고, 임직원 대상 보안 교육·훈련을 상시 운영하여 보안 문화를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모든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선제적 보안 대응과 투명한 정보보호 실천이 조직 전반에 뿌리내리는 보안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거버넌스

경영진

정보보안 협의체 및 전담 조직

현대자동차는 경영층 주관의 보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정보보안위원회'를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주요 유관 부문(HR, 감사, 법무, 연구소, 생산공장 보안 등) 임원들이 회사보안과 관련한 주요 안건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의사결정 사항이 전사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를 '정보보안1실장'으로 지정하여 정보보안 전반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세 활동으로는 보안전략 및 거버넌스 수립, 사이버 보안 침해 위협 대응, 보안 아키텍처 및 기술 로드맵 수립, 임직원 보안 인식 제고 및 문화 강화, 규제 준수 및 경영진 커뮤니케이션, 연 1회 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 내부감사 등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정보보안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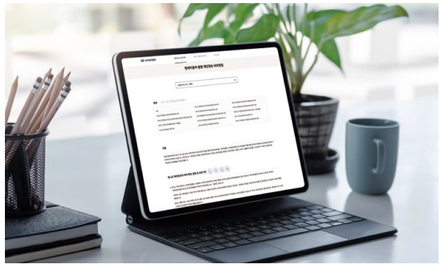
개인정보보호 전담 조직

현대자동차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을 준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보안경영지원실장) 및 전담 조직(개인정보보호팀)을 공식 지정하여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각 서비스 주관부서와 함께 대내외 동향 및 주요 안건을 논의하는 개인정보보호 협의체를 연 1회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제품 및 서비스 제공과 품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는 사전 동의(Opt-in 방식) 원칙을 기반으로 수집됩니다. 즉, 고객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며, 고객은 언제든 처리 정지 및 동의 철회(Opt-out 방식)를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현대자동차는 고객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상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프라이버시센터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2025년에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정보주체에게 공개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데이터가 사용된 건수는 0건입니다.

현대자동차 개인정보보호 정책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조직 구성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전략

영향, 위험 및 기회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식별 결과

현대자동차는 고객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부정적 영향과 위험을 식별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정보보호 관리가 부적절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고객의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고 재정적·심리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과징금 및 손해배상 비용이 발생하며, 고객 신뢰 하락으로 인한 매출 감소와 브랜드 가치 하락, 사고대응 및 보안 체계 개선 비용 발생 등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정보보안

정보보안 관리 체계

현대자동차는 스마트 모빌리티 체제로의 전환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고도화된 정보보안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안전담 조직을 통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해킹 및 정보 유출 위협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모니터링해 왔으며, 차량 설계부터 운행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사이버 보안 체계를 수립하여 2022년 유럽에서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CSMS)' 인증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6년부터 현재까지 ISO 27001 인증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고객 홈페이지 및 커넥티드카 서비스에 대해 2020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한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2025년에는 ISMS-P 인증을 취득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검증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내부 임직원 대상의 보안 정책을 운영하고 이를 연 1회 검토하고 있으며, 임직원의 보안 의식 향상을 위해 보안정책에 대한 교육 및 보안 뉴스레터, 보안의 날 캠페인, 악성메일 대응 훈련 등 다양한 보안 예방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보보안 관련 활동

1. 해외법인 보안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 및 점검활동 강화
2. 보안 모니터링시스템 고도화 및 자체 침투활동을 통한 보안 위협대응 강화
3. 정보보안 관련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에 따른 재해복구 절차 수립 및 연 1회 이상 재해복구 모의훈련 실시
4. 연 1회 이상 임직원 피싱메일 훈련 및 감염자 악성코드 감염 예방 교육 실시
5. 월 1회 이상 전 임직원 대상 보안 뉴스레터 배부 및 부서 보안의 날 시행 등 보안 인식 제고 활동 수행
6. 인프라/서비스 영역별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이행 관리, 보안성 검토 프로세스 고도화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관리적 조치

현대자동차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가이드를 수립·운영하며, 전사 임직원 및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과 오남용 모니터링을 통해 잠재적 취약점을 즉각적으로 개선하며, 개인정보 처리 서비스 및 시스템 구축·변경 시,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관련 영향과 침해 요소를 검토하여 위협을 최소화하는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 권리 보장

현대자동차는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해 프라이버시센터를 운영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정기적으로 현행화하고 있습니다. 고객 또는 법정대리인은 웹사이트 및 앱의 마이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처리 정지 등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지체 없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내부 점검 및 외부기관 인증

개인정보보호 법률 및 내부규정 준수를 위해 내외부 점검 및 수탁사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자체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부터 현재까지 ISO 27001 인증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고객 홈페이지 및 커넥티드카 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와 시스템에 대해 2020년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ISMS 인증을 취득하여 유지함으로써 글로벌 인증기관으로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고유식별정보 실태조사,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조사, 연계정보 이용기관 실태점검 등 매년 프라이버시 정책 준수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위험 관리

위험 관리 프로세스

정보보안 사고 위험 관리 체계

현대자동차는 사이버 침해, 정보유출 등 정보보안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정보보안 사고 대응 체계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 사고 인지·신고, 원인 및 영향도 분석, 사고대응, 사후조치까지의 전 단계를 절차화하여 이행·관리하고 있으며, '정보보안 사고 대응 지침'에 따라 연 1회 이상 침해사고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도출된 개선 사항을 보완하여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보 자산 취약성 분석

현대자동차는 업무 시스템의 안전한 구축과 운영을 위해 전산 시스템에 대한 보안성 검토 절차를 수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보안 취약점을 관리하고, IT 기술 발전에 따라 보안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모의 해킹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인 공격 가능성과 대응 체계를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주요 대내·외 시스템과 주요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모의 해킹 취약점 점검을 진행하였으며, 발견된 보안 취약점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조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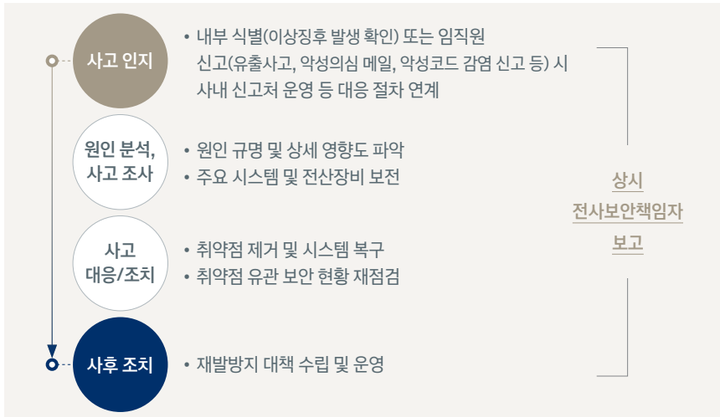
개인정보 사고 위험 관리 체계

현대자동차는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 대응 절차와 역할 체계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사고 인지, 초기 대응, 관계 기관 신고 및 정보주체 통지, 사후 조치까지의 절차를 매뉴얼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사고 대응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실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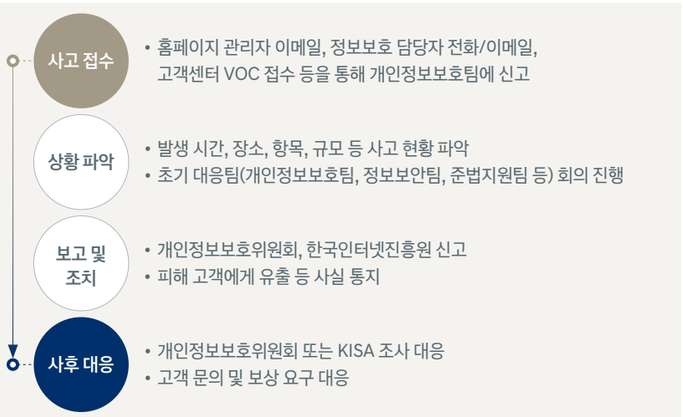
개인정보보호 기술적 조치

현대자동차는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필요 최소한으로 부여하여 개인정보 유·노출을 예방하고, 개인정보 송수신 구간 및 고유식별정보 등 중요정보는 암호화를 통해 외부 공격에 의해 유출되더라도 활용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신 및 침입 차단·탐지 시스템 등 보안 솔루션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며,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해킹 등 외부 침입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법률 및 정보보호 인증 등에서 요구하는 보호조치를 적용 및 운영 중입니다.

정보보안 사고 처리 절차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절차



지표 및 목표

지표

정보보안/개인정보 위반 건수*

현대자동차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위반 건수를 주요 관리 지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개인정보 사고와 정보보안 사고가 모두 발생하지 않아, 내부 예방 관리와 보안 통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구분	단위	2023년	2024년	2025년
개인정보 사고 건수	건	0	2	0
정보보안 사고 건수	건	0	0	0

* 규제기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현대자동차㈜가 과태료·과징금·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기준으로 하며, 건수는 해당 처분의 납부가 완료된 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함

2차 목적 고객 데이터 사용 비율*

당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수집된 고객 데이터가 수집 목적 외로 사용되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2차 목적 데이터 사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고객 데이터는 동의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구분	단위	2023년	2024년	2025년
2차 목적 고객 데이터 사용 비율	%	0	0	0
2차 목적 고객 데이터 사용 건수	건	0	0	0

* 연도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정보주체에게 공개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데이터가 사용된 건수 기준으로 산정함

목표

현대자동차는 정보보안 사고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외부 위협 대응과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관·파기 전 과정에서 법적 기준을 준수하며 임직원 교육과 점검을 통해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보보안 사고 목표
0 건

개인정보 유출사고 목표
0 건

CSV 이니셔티브

CSV 추진 체계

CSV 전략 추진

현대자동차는 2022년 발표한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글로벌 CSV(Creating Shared Value, 공유가치창출) 이니셔티브 'Hyundai Continue'를 2025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Hyundai Continue는 친환경, 모빌리티, 미래세대 세 가지 중점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 사업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장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CSV 전략 체계

비전	Progress for Humanity		
미션	공유가치 창출(CSV)을 통한 사회 임팩트 확산과 지속가능한 기업 생태계 구축		
CSV 이니셔티브	Hyundai continue		
중점 영역	**Earth** 지구와 사람의 공존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Mobility** 자유로운 이동과 연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Hope** 미래세대의 희망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추진 방향	생태계 복원, 자원순환,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이동약자/소외지역 이동 지원, 교통안전기술 지원, 미래 모빌리티 연계 활동	미래세대 교육, 건강 및 성장 지원, 인재육성 활동

CSV 이니셔티브

친환경 (Earth)

CSV 프로젝트

폐기물 수거 및 업사이클링

해양 생태계 보존 해양 생태계 보존을 위해 현대자동차는 2021년부터 유럽, 한국, 미국에서 해양 폐기물을 수거하고, 이를 재활용하는 업사이클링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력 파트너 헬시 씨즈(Healthy Seas)와 함께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유실 어망 및 해양 폐기물을 수거하여 해양 생태계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류 과정을 거친 뒤 재활용이 가능한 폐어망은 다른 폐나일론 소재와 함께 섬유 생산업체 아쿠아필(Aquafil)에서 에코닐(ECONYL®)이라는 나일론 섬유로 재탄생됩니다. 에코닐은 유럽 내 판매되는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아이오닉 9, 인스터, 싼타페, 넥쏘 등 6개 차종의 플로어 매트 소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해양 환경 교육과 인식 제고 활동도 함께 추진하며, 해양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헬시 씨즈와 함께 2025년 기준 누적 320.9톤의 해양 폐기물을 수거하고 4,861명에게 해양 환경 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 주요 성과 유럽, 한국, 미국 등 10개국에서 해양 정화 활동을 통해 41.6톤의 해양 폐기물을 수거하였으며, 버려진 양식장인 '고스트 팜(Ghost Farm)' 제거를 추진해 해양 생태계 복원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헬시 씨즈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 1,493명이 VR 콘텐츠 등을 활용한 해양 환경 교육을 받았으며, 이러한 노력은 UN 해양총회에서도 소개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수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해양 환경 정화에 기여하는 한편, 다양한 업무 협약을 통해 폐어망 수거 인프라를 확충하고 친환경 소재 양산을 지속하고자 하며, 튀르키예로 활동 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7년까지 누적 400톤의 해양 폐기물을 수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환경문제 개선 인도네시아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 8월부터 폐플라스틱 수거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브카시(Bekasi) 지역에서는 기존 폐기물 재활용 센터 기능을 확대한 지역주민 주도형 리사이클링 센터를 개소하여 폐플라스틱 수거, 세척·분쇄, 재생원료 생산·판매까지 수행하는 통합 거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센터는 지역주민협동조합이 운영 전 과정에 참여하고, 발생 수익을 시설 운영에 재투자하는 구조를 통해 장기적 운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굿네이버스와 협력해 협동조합 구성과 인력 채용 및 운영 교육을 지원하고, 현지 폐플라스틱 원료 공급 기관과 함께 지역주민 대상의 리사이클링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카르타 지역에서는 세이브더칠드런과 협력해 순환경제 사업을 추진하며, 2022년부터 중·고등학교와 아동친화공간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및 순환경제 교육을 운영하고, 폐플라스틱 수거함 설치와 연계한 인식 제고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누적 29톤의 폐플라스틱을 수거·재활용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2025 주요 성과 브카시 지역 내 플라스틱 펠릿 공장 1개소를 설립하고, 생산 설비 및 원재료 운반 차량을 지원하여 재생원료 생산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학교 대상 인식개선 활동(26개교), 폐기물 관리 교육(142명)을 진행해 지역사회 인식 제고와 참여 확대에 기여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2026년에는 지역주민 기반의 운영조직을 구성하고,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생산·운영 역량을 확보함으로써 운영 기반을 안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반기에 지역사회 폐기물을 활용한 재생원료를 월 10톤씩 생산하여 지역사회 폐기물 관리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이오닉 포레스트

현대자동차는 2016년부터 미국, 브라질, 독일, 튀르키예, 필리핀, 인도 등 13개국에서 숲을 조성하는 '아이오닉 포레스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아이오닉 9 씨드볼 드론 스테이션을 신규 구축하고,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협력하여 울진 산불 피해지를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산림 생태 복원을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에 구축한 아이오닉 5 드론 스테이션과 연계 운영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생태계 복원과 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사업장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110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했으며, 베트남에서는 IUCN(세계자연보전연맹)과 함께 훼손된 메콩강 삼각주의 맹그로브 숲 복원에 나섰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아이오닉 포레스트 프로젝트를 통해 2025년까지 총 약 222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앞으로도 현대자동차는 지구와 사람의 공존이라는 가치 아래, 전 세계 다양한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나무 심기, 산불 피해지 복구 등 폭넓은 친환경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2025 주요 성과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생태 복원을 위해 아이오닉 9 씨드볼 드론 스테이션을 신규 구축하였으며 국내, 미국, 베트남, 인도 등에서 한 해 동안 131만여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10주년을 기념한 '나무 특파원'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203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3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예정입니다. 한국, 미국 등의 산불 피해지 숲을 복원하고 사업장 인근 지역 등에 숲을 조성함으로써 생태계 복원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이오닉 5 및 9 드론 스테이션 글로벌 확장 전개를 통해 친환경적이고 효과적인 산림경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CSV 이니셔티브

모빌리티
(Mobility)

CSV 프로젝트

착용로봇(X-ble MEX)[1] 활용, 보행 재활 지원

현대자동차는 로보틱스 기술을 바탕으로 하반신 마비 환자의 재활을 지원하며, 이동약자의 신체적 한계 극복과 이동성 향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국립재활원 및 서울아산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료용 착용 로봇 '엑스블 멕스(X-ble MEX)'를 활용한 재활 치료 및 연구 협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해당 의료기기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선택지로 제공되고 있으며, 협력 의료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로봇 재활 치료의 효과를 검증하고 사용성 평가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개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X-ble Medical Exoskele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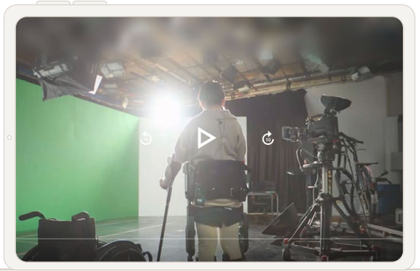
이를 통해 불완전 척수손상 하반신 마비 환자에게 로봇 재활 치료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치료사의 물리적 부담과 인력 의존도를 줄이고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치료 진행 및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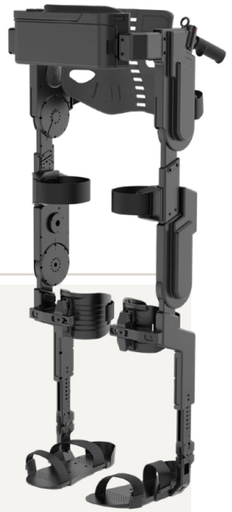
2025년 세계 장애인의 날에는 X-ble MEX로 재활 치료를 받은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KBS 9시 뉴스 일일 기상 예보에 직접 참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넓히고, 기술이 인간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포용적인 메시지를 사회에 전달했습니다.





Hyundai X-ble MEX





2025 주요 성과 국립재활원 및 서울아산병원과의 협업을 통해 X-ble MEX 재활 치료 연구를 완료하였으며, 결과 논문은 학계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X-ble MEX는 2025년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3등급 의료기기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X-ble MEX가 많은 환자분들에게 새로운 재활 치료 선택지로 제공될 수 있도록 병원 기증 및 협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셔클(모빌리티 서비스) 활용, 이동약자 지원

현대자동차는 인공지능을 결합한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셔클'을 활용하여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안산시, 경기교통공사, 경원여객,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과 '안산시 이동약자 이동케어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대부도에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Demand Responsive Transit)을 활용한 이동케어 '똑버스'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똑버스는 대부도 내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탑승객은 셔클 플랫폼 '똑타' 애플리케이션 및 전화호출, 주요 시설 내 설치된 키오스크를 활용해 탑승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쏠라티 특장차량 2대를 기부하였으며, 똑타 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똑타는 셔클을 기반으로 개발된 경기도 맞춤형 모빌리티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이용자가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실시간 수요 및 교통상황을 반영해 차량이 배차되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대자동차는 기술을 활용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활동에 앞장서며, 앞으로도 다양한 모빌리티 기술을 적극 활용해 일상 속 이동이 더욱 편리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025 주요 성과 현대자동차의 기술을 활용한 이동약자 지원 서비스를 통해 이동 편의성을 개선하였으며, 지난 한 해 동안 누적 이용 횟수는 노약자 8,518회, 청소년 9,660회입니다. 서비스 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 4.86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충청남도 서산시에서 셔클 기반 이동약자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약자 차량 개발과 퍼스트·라스트 마일 지원을 통해 차량 대기시간을 줄이고 이동 편의성을 더욱 높일 예정입니다.

CSV 이니셔티브

미래세대 (Hope)

CSV 프로젝트

현대 호프온휠스

현대 호프온휠스는 1998년부터 현대자동차 미국법인(HMA)에서 시작되어 28년째 운영 중인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2025년까지 미국 내 누적 기부금은 약 2억 7,700만 달러에 달하며, 미국 내 3대 소아암 기부 단체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대차 딜러가 판매 대수 1대당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현대차가 기부금을 더하는 공동기금 형태로 소아암 연구와 치료, 일상회복, 소아암 인식 개선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랜 시간 성과를 이뤄온 현대 호프온휠스는 2024년을 시작으로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호주와 한국에서 딜러와 함께하는 어린이 건강 지원 활동을 현대 호프온휠스와 연계하였으며, 2025년부터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포함한 북미 지역으로 활동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더불어 2025년 현대자동차는 현대 호프온휠스의 글로벌 확장을 본격화하며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공개하였습니다. 손바닥 자국(핸드프린트) 안에 날개, 하트, 나뭇잎을 더해 희망(Hope), 사랑(Love), 회복(Recovery)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현대차와 딜러 네트워크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현대 호프온휠스는 전 세계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현대자동차는 어린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소아암 치료와 연구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5 주요 성과 미국에서는 현대 호프온휠스 27주년을 기념하여 소아암 연구 및 환자 지원을 위해 2천7백만 달러를 기부하였으며 2025년에 총 98개의 기관, 108명의 소아암 연구진을 통해 총 45건의 논문 발간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호주, 한국에 이어 2025년 캐나다, 멕시코에서 현대 호프온휠스를 신규 런칭하고 글로벌 누적 3억 2천만 달러를 모금하여 소아암 연구와 치료,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2026년에는 글로벌 확장을 계속하여 유럽과 인도에도 소아암 어린이 지원 프로그램을 신규 런칭할 계획입니다. 2026년에도 소아암 환아 치료비 지원뿐 아니라 치료 연구를 위한 후원과 소아암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겠습니다.

모빌리티 교육

미래 모빌리티 학교 현대자동차는 2016년 교육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교육 프로그램 '미래 모빌리티 학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이론 학습과 실습 및 체험 활동을 통해 모빌리티 산업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관련 직업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미래세대의 모빌리티 산업 이해도 향상을 위해 스마트 시티, 클린 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기술 및 지속가능성 등의 주제를 다루는 완성도 높은 수업자료와 교구재를 제작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진로교육 기회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원 대상 선정 시 농어촌 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등의 소규모 학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PCEIU)과 협업하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등 아세안 국가에서 해외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 주요 성과 2025년에는 국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326개교 및 해외학교 18개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및 교육부와의 협업으로 아세안 국가와의 교육 교류를 지원하면서 라오스까지 대상 국가를 확대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다양한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 모빌리티 인재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STEM 교육 현대자동차는 미국 앨라배마, 캘리포니아, 조지아, 미시간 등 주요 사업 거점 지역사회에서 STEM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RC카 설계·경주 대회인 '조지아 수소 그랑프리(Georgia Hydrogen Grand Prix)'를 비롯한 체험형 공학 교육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지원하고, 남부 로스앤젤레스 지역 초등학생들이 청정에너지와 지속가능 모빌리티 개념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교육 지원을 넘어, 현대자동차가 추구하는 'Progress for Humanity' 비전 아래 지역사회의 인재 육성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현대자동차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2025 주요 성과 2025년 2,098명의 교육생과 12명의 교사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연료전지, 로보틱스 등 현대자동차 고유 기술과 연계된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미래 모빌리티 인재 양성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H-모빌리티 클래스 현대자동차는 2020년부터 국내 이공계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인재 양성 프로그램 'H-모빌리티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H-모빌리티 클래스는 미래 전략기술인 파워트레인, 전동화, 에너지 솔루션, 자율주행, 로보틱스 총 5개 과정에 대한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화교육의 경우 학습 내용을 내재화하고 실전 역량까지 갖춘 모빌리티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실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5 주요 성과 2025년 1,600명의 교육생이 H-모빌리티 클래스에 참가하였고, 과정 몰입도 및 프로그램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교육과정 리뉴얼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2026년에는 AI 기술을 활용한 실습 설계 고도화 및 최신 트렌드 반영을 토대로 기술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모빌리티 선도 기업으로서 체계적 육성 지원을 통해 모빌리티 인재 저변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Governance



견고한 지배구조와 책임 있는 경영은 기업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합니다.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기준의 선진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책임 있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중심의 책임 경영을 기반으로 다양성·독립성·전문성을 갖춘 의사결정 체계를 운영하며, 경영진에 대한 균형 있는 감독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바탕으로 주주와의 신뢰를 강화하고, 윤리·준법 경영 체계를 강화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사 리스크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주요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성장의 기회로 전환함으로써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In This Section

이사회 책임 경영
주주 친화 경영
윤리·준법 경영
리스크 경영

이사회 책임 경영

현대자동차는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고자 '이사회 다양성 및 사외이사 독립성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다양성, 독립성, 전문성을 갖춘 이사를 선임하며,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하고 더 나은 거버넌스 체계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현대자동차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정관을 기반으로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성장을 목표로 운영되며, 경영진에 대한 감독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와 같은 이사회 책임 경영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자동차는 기업가치 극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 현황

현대자동차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법에 의거하여 이사회 총 인원의 과반수 이상인 7명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경영, 회계, 금융, 법률, 미래·산업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성별, 인종,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이사 선임 및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현대자동차의 모든 이사는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선임됩니다. 사외이사의 경우,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유능하고 책임 있는 인사를 균형 있게 선임하기 위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중에서 선임됩니다. 당사는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보유한 이사를 선임하여 경영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 승계 후보군은 주요 경영진이 협의하여 선정하며, 단기/중장기 내부 후보군 외에 외부영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후보군 중 적임자를 선정하여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독립성 및 겸직 제한

현대자동차는 국제적 표준을 적용한 엄격한 독립성 가이드라인을 통해 대한민국 상법이 요구하는 이사회 관련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모니터링하며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며, 상법에 따라 당사 외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에 이사, 집행임원 또는 감사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타기업 겸직을 허용받기 위해서는 겸직하려는 직무 관련 내용을 이사회에서 사전 승인받아야 합니다.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성명	직위	경력		최초 선임일	성별	국적
사내이사	정의선[1)]	대표이사·회장	現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2010.03.12	남성	대한민국
	호세 무뇨스	대표이사·사장	現 현대자동차 담당사장		2023.03.23	남성	미국·스페인
	최영일	대표이사·부사장	現 현대자동차 국내생산담당, 안전보건 최고책임자(CSO)		2026.03.26	남성	대한민국
	진은숙	사내이사·사장	現 현대자동차 ICT담당		2025.03.20	여성	대한민국
	이승조	사내이사·부사장	現 현대자동차 재경본부장		2024.03.21	남성	대한민국
사외이사	심달훈	사외이사	現 우린 조세파트너 대표	前 중부지방국세청장	2021.03.24	남성	대한민국
	이지윤	사외이사	現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前 미 항법학회 이사	2021.03.24	여성	대한민국
	장승화	사외이사	現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現 국제중재법원(ICC) 중재인	2023.03.23	남성	대한민국
	최윤희	사외이사	現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現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비상임이사	2023.03.23	여성	대한민국
	김수이	사외이사	前 CPPIB 글로벌 PE부문 대표		2025.03.20	여성	대한민국
	도진명	사외이사	現 케어메디 기타비상무이사	前 퀄컴 아시아 부회장	2025.03.20	남성	미국
	벤자민 탄	사외이사	前 GIC 아시아 포트폴리오 매니저		2025.03.20	남성	싱가포르

* 2026년 3월 말 기준 1) 이사회 의장

사외이사 비율

58.3%

여성이사 비율

33.3%

이사회 책임 경영

이사의 임기

2026년 3월 말 기준, 이사회 총 12명의 평균 재임기간은 3.4년이며, 한국 상법에 의거하여 사외이사의 재임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6년 3월에 선임된 이사는 사내이사 3명(재선임 2명, 신규선임 1명), 사외이사 2명(재선임 2명)입니다.

이사회 운영 및 활동 평가

현대자동차는 매년 사외이사에 의한 자체적인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서 논의함으로써 이사회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현대자동차 이사회의 발전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이사회 및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 및 사외이사회 신설

당사는 2025년 4월, 이사회 의사결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선임사외이사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외이사만이 참석하는 회의체인 사외이사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 대표로서 사외이사회를 소집 및 주재하고, 사외이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사회에 개진하며, 이를 통해 주주·이사회·경영진 간 더욱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당사는 선임사외이사가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인력을 배치하는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대 선임사외이사로는 심달훈 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이사회 구성 다양성 및 사외이사의 전문성

현대자동차는 성별, 국적, 인종, 종교 등 다양성을 존중하여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말 기준, 이사회에는 3명의 외국 국적 이사(호세 무뇨스, 도진명, 벤자민 탄)와 4명의 여성 이사(진은숙, 이지윤, 최윤희, 김수이)가 있습니다.

심달훈 이사는 약 30년 동안 국세청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회계 및 세무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회계·재무 전문가이며, 이지윤 이사는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이자 지능형 교통 및 자율 무인 시스템 안정성 보장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입니다. 장승화 이사는 국제거래법 분야 전문가이며, 다양한 국제 기구 및 정부 기관에서의 경험을 보유한 국제 통상 전문가입니다. 최윤희 이사 또한 법무 전문가로 중앙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활동 등 노사관계 관련 풍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수이 이사는 오랜 기간 CPPIB 등 글로벌 금융기관에서 축적한 경험과 폭넓은 안목을 보유한 글로벌·금융 전문가이며, 도진명 이사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퀄컴에서 아시아 부회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한 전문 경영인입니다. 벤자민 탄 이사는 주요 글로벌 연기금 중 한곳인 GIC(싱가포르투자청)에서 오랜 기간 아시아 지역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며 글로벌 비즈니스 및 금융시장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전문성을 보유하였습니다.

이사회 다양성 및 사외이사 독립성 가이드라인

2025년 이사회 참석률

평균 참석률	사내이사 참석률	사외이사 참석률
98.9%	97.4%	100%

이사회 역량 구성표(BSM)

역량 지표	사내이사					사외이사						
	정의선	호세 무뇨스	최영일	진은숙	이승조	심달훈	이지윤	최윤희	장승화	김수이	도진명	벤자민 탄
리더십	●	●	●	●	●	●	●	●	●	●	●	●
회계·재무·경영	●	●	●	●	●	●			●	●	●	●
산업·기술	●	●	●	●	●		●			●	●	
법률·정책			●			●		●	●			
글로벌 역량	●	●			●	●	●		●	●	●	●
ESG	●	●	●	●	●			●	●	●	●	●

이사회 책임 경영

이사회 산하 위원회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위원회 제도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법에서는 위원의 선임과 구성에 대하여 엄격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선임되어야 하고,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1명 이상의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서 분리선출 되어야 하며,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1명 이상의 회계·재무 전문가 선임이 필요합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상법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5명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이지윤 사외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서 분리선출 되었습니다. 당사는 제5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개정 상법을 선제적으로 정관에 반영하여 감사위원회 분리선출 인원을 2명으로 규정하였으며, 장승화 사외이사를 동일 주주총회에서 추가로 분리선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역할 현대자동차의 감사위원회는 법무, 금융, 회계·재무, 미래기술 등의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5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활동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기업재무활동에 대한 건전성과 타당성 및 재무보고의 정확성을 감독하며, 외부감사인의 선정 및 변경·해임 관련 주주총회 보고, 기타 법령 및 정관,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 체계'에 근거하여,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결과를 받았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 현황

구분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성명	심달훈	이지윤	장승화	김수이	도진명
전문분야	재무·회계·세무	미래·산업 기술	국제통상·법무	글로벌·금융	글로벌·경영

비감사용역 승인

현대자동차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업무는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수행되고, 활동 중 확인된 중요사항은 감사위원회에 보고된 이후 매 분기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 체결 시, 사전에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내역

사업연도	계약일	용역내용	수행기간	용역보수 (백만 원)
제58기	2025.03.10	계동사옥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환급 지원	2025.02 ~ 종료 시점	145
	2022.06.23	한-캐나다 APA 갱신 자문 업무	2022.08.05 ~ 타결 시까지	150
	2023.12.20	한-스페인 상호합의 및 쌍방 APA 지원	2023.12.20 ~ 타결 시까지	180

보수위원회

보수위원회 구성 2019년 정기주주총회에서 보수위원회 설치를 위한 정관 개정 이후 제4차 정기이사회에서 보수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보수위원회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하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보수위원회 3명의 위원은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수위원회 역할 현대자동차의 보수위원회는 등기이사 보수 결정 과정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기이사의 보수한도 및 사내이사의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및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 구성 현황

구분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성명	최윤희	심달훈	장승화
전문분야	노동법·법무	재무·회계·세무	국제통상·법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현대자동차는 관련 법규와 회사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의거하여 회사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3명과 사내이사 1명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총 인원의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역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 전에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추천 후보의 전문성과 개인적 역량이 주주의 이익과 부합하는지,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의 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기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후보자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현황

구분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내이사
성명	이지윤	도진명	벤자민 탄	호세 무뇨스
전문분야	미래·산업 기술	글로벌·경영	금융·주주소통	경영전반 총괄

이사회 책임 경영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구성 현대자동차는 2021년에 투명경영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지속가능경영위원회로 발족하였습니다. 기존에 4명으로 구성되었던 투명경영위원회가 지속가능경영위원회로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사외이사 7명과 사내이사 1명을 포함하여 총 8명의 위원으로 확대하여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벤자민 탄 사외이사는 GIC(싱가포르투자청)에서 재직했던 글로벌 금융 전문가로서 현대자동차의 관련 정책에 대한 전문가적 식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인 최윤희 사외이사를 준법경영 담당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준법경영 및 이사회의 준법감시기능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역할 현대자동차의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ESG 정책·계획·주요 활동 등을 심의·의결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ESG 경영의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투명경영위원회의 역할을 넘어 점차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안전·보건 관련 주요 계획 및 이행 점검 등에 대해서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이사회의 투명성 강화 및 주주소통 확대 노력, 임직원 관련 윤리적 이슈 점검 등 내외부적으로 현대자동차의 지속가능경영 실천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구성 현황

구분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성명	심달훈	이지윤	장승화	최윤희
전문분야	재무·회계·세무	미래·산업 기술	국제통상·법무	노동법·법무
구분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내이사
성명	김수이	도진명	벤자민 탄	호세 무뇨스
전문분야	글로벌·금융	글로벌·경영	금융·주주소통	경영전반 총괄

이사회 보수 지급

이사 보수 지급 기준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한도 내에서 집행되며, 보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사내이사는 직무, 직급, 리더십, 회사 기여도, 인재육성 등의 평가 요소를 반영하여 급여를 책정합니다. 상여는 회사 재무성과(매출, 영업이익 등)와 개인 성과 등을 종합하여 책정한 성과 인센티브를 기초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경우, 독립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고정 보수로 지급하며, 별도 경영 성과급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수 지급내역

(단위: 백만 원)

구분	CEO[1]	이사회[2]	사외이사	직원	CEO-직원 보수 비율
1인당 평균 보수액	9,729	1,974	152	131	74.3배

* 상세 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2025년 사업보고서를 참고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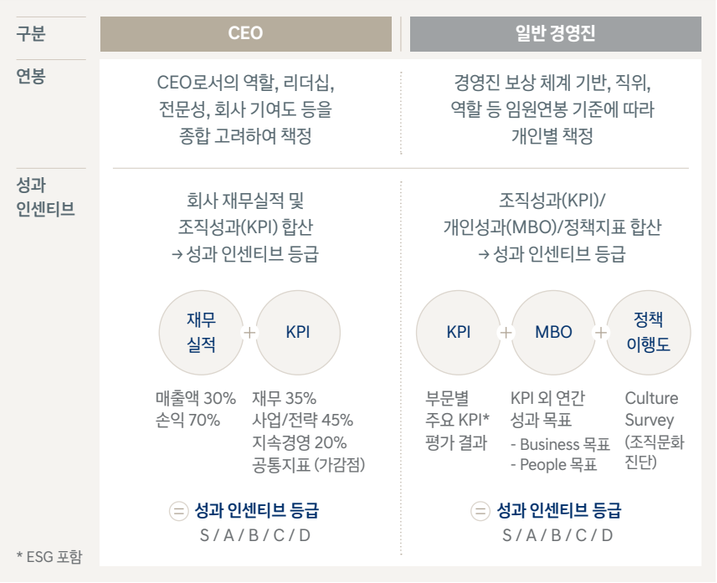
[1] CEO 로서의 역할 및 리더십, 전문성, 회사기여도, 인재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에 따라 보통주 3,333주 및 기타 상여 지급 (근로계약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25년 7월 31일 보통주 3,333주를 지급하였으며, 모두 현대차가 보유한 주식으로 지급)

[2]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전원 포함 기준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현대자동차 경영진의 보수는 직급 및 직책에 기반하여 책정되는 연봉과 당해 연도의 성과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 인센티브로 구성됩니다. 연봉은 당사의 경영진 보상 체계를 기반으로 직위, 직책(역할) 수준에 따라 개인별로 책정되며, 경영진 보상체계는 산업 환경, 사업 규모, 동종업계의 보상 트렌드 등을 종합하여 설정됩니다. 성과 인센티브는 회사의 사업 실적과 개인의 성과평가 등급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연봉의 0~200%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대표이사의 성과는 재무실적과 KPI를 반영하고, 일반 경영진의 성과는 KPI와 MBO, 그리고 정책 이행도를 반영하여 5단계 등급으로 평가됩니다. KPI 평가에는 대내외 ESG 평가결과 및 ESG 중점 개선과제 수행 성과 등 지속가능경영 항목을 반영하여, ESG 경영 내재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경영진 성과연계 보수지급



주주 친화 경영

현대자동차는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하고, 주주의 가치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의사결정 과정과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경영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 국내 상법에 규정된 주주의 이익 분배 참여권,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 정기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을 기본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NDR 등의 적극적인 IR 활동을 통해 주주와 소통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주주환원 정책

주식발행 현황

현대자동차의 발행 주식의 총수는 265,390,108주이며, 보통주 204,757,766주, 우선주 60,632,342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600,000,000주(1주의 액면가액: 5,000원)이며, 이 중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의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150,000,000주입니다. 2025년 말 기준, 보통주 외에 3종의 우선주를 발행하고 있으며, 우선주에 대해서는 잔여재산 분배, 상환, 전환 등에 대한 권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최근 3년간 우선주 주주총회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주주총회 소집 및 통고

현대자동차에서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 매 결산기 종료 후 3개월 내에 정기주주총회를,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지 않는 한, 미리 주주에게 통지한 회의 목적사항 외에는 결의할 수 없으며,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일로부터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총회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 또는 전자문서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법 규정에 의하여 일정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하는 방법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주주에게 충분한 기간을 두고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2020년부터 정기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1주 1의결권 부여)

현대자동차의 주주는 상법 및 정관에 근거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종류와 수에 따라 그 소유 주식 1주당 1개의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주는 다른 주주를 대리인으로 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주주총회 개회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식발행 현황

구분		발행가능 주식 수	발행 주식 수	가결 여부
보통주		450,000,000	204,757,766	의결권 있음
우선주	우선주	150,000,000	23,340,960	의결권 없음
	2 우선주		34,963,930	
	3 우선주		2,327,452	

* 2025년 말 기준

주주 현황

합계
204,757,766



주주명	종류	지분율 (%)	주식 수
1 현대모비스	보통주	22.36	45,782,023
2 국민연금공단	보통주	7.76	15,879,702
3 정몽구	보통주	5.57	11,395,859
4 우리사주조합	보통주	2.96	6,069,002
5 정의선	보통주	2.73	5,598,478
6 기타	보통주	58.62	120,032,702

* 2025년 말 기준
** 정부기관 보유 지분 중 황금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소유주식 수는 최근 소유자 명세(2025년 말 기준) 등을 토대로 기재하였으므로, 실제 주식 소유 현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주 친화 경영

의결권 행사 및 위임

현대자동차의 주주총회에서는 주주의 직접 참여 및 의결권 대리행사, 의결권 대리행사권유에 의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주 1의결권을 원칙으로 주주총회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고 주주총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임장 용지를 주주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혹은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교부하고 있습니다.

제52기 정기주주총회부터는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주주에게 의결권 행사의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주주총회 시 안건별 찬반 주식수를 공개하는 등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 선임 개별 안건 상정

현대자동차는 이사의 선임을 개별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의 동의에 의해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주주환원 정책

현대자동차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배당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배당 규모는 향후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와 경영실적 및 Cash Flow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 및 주주신뢰 강화를 위해 2023년 4월 25일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공시하였습니다. 배당의 가시성 확대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 연간 연결 지배주주 귀속순이익 기준 25% 이상의 배당성향(우선주 포함)을 달성하고, 2023년 2분기부터 분기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보유 자사주 중 발행주식 수의 3%에 해당하는 물량을 지난 3년간(2023년~2025년) 1%씩 소각하는 등 적극적인 자사주 소각 정책을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8월 28일 CEO Investor Day에서 펀더멘털 개선에 대한 자신감과 이사회, 경영진의 강력한 주주환원 확대 의지를 반영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주주환원율 (TSR: 배당금 + 자사주 매입/소각) 기준 최소 35%를 달성하고, 3년 평균 ROE 11~12%를 지향하며, 연간 최소배당금 10,000원(분기배당 2,500원)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배당을 결의한 이사회 당일 거래소에 해당 사실을 공시하고, 정기보고서에도 배당에 관한 사항을 충실히 기재하여 주주분들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가 결산배당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제 55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였고, 분기배당 또한 배당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제 57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여 주주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윤리·준법 경영

현대자동차는 윤리·준법 경영을 확산하고 공정거래를 준수함으로써 고객, 주주, 협력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경제적·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이행의 총괄 감독과 더불어 윤리경영 관련 주요 정책 및 실천규범 개정 관련 의결은 2021년 3월 확대 개편된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위원회가 담당합니다.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 등을 제정하여 임직원의 윤리적인 업무 수행을 도우며, 준법경영지원시스템, 준법 자가점검, 준법 가이드라인, 준법 뉴스레터 등을 통해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강화를 위한 경영진의 의지를 전사적으로 전파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의사결정기구

이사회

현대자동차 이사회는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과 관련한 법적 리스크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준법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회사의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있으며, 준법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법률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준법경영 담당 이사로 지정하여 이사회 차원의 감독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준법지원인이 수행한 준법지원활동과 그 유효성 평가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받아, 회사의 준법경영 체계가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와 관련해서도 사업장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실적과 차년도 계획을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통해 보고받으며, 전사적 공정거래 준수 현황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는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통해 윤리경영 관련 주요 사안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내부거래 투명성 및 윤리경영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윤리경영 관련 정책과 윤리규범의 제·개정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윤리헌장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의 이행 여부는 반기별 정기감사 및 상시감사를 통해 점검되며, 그 결과는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 보고됩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는 부패 및 뇌물 수수 등 윤리규범 위반 예방과 관련한 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경영진

전담 조직 - 준법지원

현대자동차는 준법지원인이 회사의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준법지원 활동을 실시하고, 그 내역 및 유효성 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각 부서의 장을 준법지원책임자로 임명하여 이들이 소속 부서의 준법통제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

현대자동차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은 구체적인 실천 강령으로, 윤리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윤리경영 관련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리규범은 부패 및 뇌물, 차별, 정보 비밀 유지, 이해관계 상충, 독점 금지 및 반경쟁적 관행, 자금세탁 및 내부거래, 환경, 보건 및 안전, 내부고발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

반부패 및 뇌물 정책

현대자동차 반부패 및 뇌물 정책은 부패 및 뇌물 관행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고 구성원이 윤리·도덕적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모든 형태의 뇌물 및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급행료를 근절하며, 정치적 목적의 기부 및 후원을 금지하고, 자선기부 및 후원에 대한 내부 집행기준 및 절차 등의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 및 뇌물 리스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전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접근이 가능한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위반 사항 발생 시 즉각 필요 조치를 이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반부패 및 뇌물 정책

전략

영향, 위험 및 기회

윤리·준법 경영 관련 식별 결과

현대자동차는 윤리 및 준법경영과 관련하여 가치사슬 전반에서 영향 및 위험을 식별하였습니다. 기업문화 측면에서는 윤리 경영 체계 및 내부신고자 보호 제도 운영, 준법교육 실시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패 예방에 기여하는 긍정적 영향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패·비윤리적 행위 발생 시 사회적 신뢰 저하 및 거래 질서 훼손으로 이어지며, 핵심 기술 유출 시에는 기술 경쟁력 약화라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합니다. 재무적 관점에서, 부패·기술 유출 사건 발생 시 법적 제재, 소송 비용, 평판 훼손에 따른 고객 이탈 및 투자자 신뢰 하락 등 재무적 위험이 수반됩니다. 공급업체 관계 관리 측면에서도 불공정 거래 발생 시 법적 제재·평판 훼손 및 대체 공급망 확보 비용 증가 등의 재무적 위험이 식별되었습니다.

윤리·준법 경영 확산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부패 및 뇌물 수수 등) 위반 신고 대응 및 위반사항 처리 절차

담당부서인 감사실은 사이버 감사실을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공정 거래 행위, 금전, 금품 또는 향응의 부당한 요구나 제공, 직권 오남용 및 청탁행위 등 윤리경영에 위배되는 행위 제보를 접수받고 있으며, 제보 활성화를 위하여 제보자의 익명성 보장 및 책임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사내 제도·정책 게시판을 통해 임직원에게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예방 관련 내용과 One-Click HR을 통한 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One-Click HR 시스템을 통해 관련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제보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부서에 이관하거나 직접 점검을 실시하여 그에 따른 시정 또는 징계조치 의견을 담당부서에 전달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주관부서의 의견을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윤리·준법 경영

전략

현대자동차 직장윤리규정 제 11조 '윤리규범 위반에 대한 징계'에 의거하여, 윤리규범 위반자는 내부 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해고, 정직, 감봉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윤리규범 위반 사실을 접수한 부서는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인사담당 부서에 즉시 통보하며, 인사담당부서는 통보받은 사항을 검토한 후 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라 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협력업체가 연루되었을 경우,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거래중단, 변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윤리규범(부패 및 뇌물수수 등) 신고 대응 및 위반사항 처리 프로세스

1. 제보 접수 — 온라인 (사이버 감사실), 전화 등
   * 제보자 보호 준칙 준수
2. 사전 조사 — 제보 내용의 구체성 확인 및 근거 확보
   * 사전 조사계획 보고 및 승인 후 조사 착수
3. 감사 — 대상자, 유관 부서, 협력업체 등 조사를 통한 사실 확인
4. 조치 의뢰 — 개선방안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징계 조치 의뢰
   내부 보고 후 유관 부문에 의견 전달



주요 제보 채널*

사이버 감사실
현대자동차 사이버 감사실



전화 제보
+82-2-3464-3500



팩스
+82-2-3464-8813



서신 접수
현대자동차그룹 감사실



* 글로벌 주요 법인별 비윤리 신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국가별 현지 언어로 이용 가능

제보자 보호

현대자동차는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과 직장윤리규정 내규에 임직원 윤리 및 준법 관련 내부신고자 보호 조치를 명문화하고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내부신고자 보호 조치로는 내부신고자 및 관련 정보 비밀 유지, 불이익 처분 및 보복 행위에 대한 엄격한 금지 등이 있습니다. 윤리규범 위반 행위자가 신고자에 대한 보복 및 색출을 시도하거나 그 밖의 2차 가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직장 윤리규정 제3장 제9조 (윤리규범 위반사항 신고)에 따라 가중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행위자 및 참고인에게 보복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안내하고 내부신고자 보호 및 비밀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보자 보호조치

1. 비밀 보장	제보자 동의 없이 제보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 금지
2. 신분 보장	제보,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의 이유로 거래관계 또는 소속부서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해 보호
3. 책임 감면	제보와 관련하여 제보자의 과실 또는 오류가 발견된 경우 해당 제보자에 대해 징계를 감면



준법문화 확산

현대자동차는 다양한 방식 및 콘텐츠로 준법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임직원에게 법률 자문, 계약 검토, 준법 지원 등을 상시 제공하고 있으며, 업무 영역별 표준계약서(국문 계약 39개, 영문 계약 24개)를 제공하여 임직원들이 법을 준수하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임직원 참여활동으로 상반기에 '공정거래 CP 임직원 목소리 청취 주간', 하반기에 '컴플라이언스 위크'를 실시하여 임직원들이 준법·CP활동에 보다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책임급 이상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준법·윤리 경영 실천서약을 실시하여 94.3%의 높은 서약률을 달성함으로써 준법의식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해외법인 컴플라이언스 전개의 일환으로, 본사와 해외법인 간의 상시 협력 채널인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허브를 조성하였으며, 해외법인의 자율적 준법문화 정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준법교육 실시

현대자동차는 신규 입사자, 승진자, 보직자, 해외 주재원 등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수시 준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일반직·연구직·법무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임대차보호법을 주제로 한 온라인 준법교육을 운영하였으며, 반기 단위로 자율준수협의회 위원, 자율준수담당자, 주제별 유관 부서를 대상으로 '공정거래 CP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업무에 특화된 준법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임원을 포함한 모든 임원을 대상으로 임원 준법교육을 시행하여 총 375명의 임원이 이수함으로써 90.4%의 높은 이수율을 달성하였으며, 경영진의 준법의식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격월로 발송하는 준법 뉴스레터를 카드뉴스 형식으로 개선하여 접근성을 높였고, 연 2회 임원진 대상 별도의 리더 준법경영 뉴스레터를 제작·배포하였습니다.

윤리·준법 경영

전략

공정거래 자율준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현대자동차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최고경영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를 전 임직원에게 전파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행동지침을 제작하여 실제 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공정거래 관리·감독을 위해 자율준수관리자를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분기별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 실적 및 차년도 계획을 이사회 내 위원회인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전사적으로 다양한 공정거래 교육 실시 및 정기 소식지 발송을 통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교육

현대자동차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교육 운영지침(제 7조 교육실시)에 따라 교육대상자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교육에 포함되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은 고위험부서, 임원 및 경영진, 자율준수 프로그램 위반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고위험부서는 업무상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부서(구매, 영업, 재경 등)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고위험부서인 구매본부 및 부품개발사업부(하도급법 유관 부서)를 대상으로 경영간섭 준법교육(대면 2회, 온라인 1회)을 실시하여 384명이 참여하였으며,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구매본부 대상 온라인 교육을 추가 실시하여 1,25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AI 윤리

책임 있는 AI 거버넌스 및 윤리 원칙

현대자동차는 AI 기술의 혁신과 윤리적 책임의 균형을 추구하며, 고객과 사회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책임 있는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6년 AI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2025년 'AI 법률 종합 안내서'를 배포하여 임직원이 AI 개발 및 활용 전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법적·윤리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개인정보 보호, 편향성 방지, 투명성 확보, 인간 중심의 AI 설계를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 및 설명·거부권을 보장하며, AI 개발·서비스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 기준, 가명정보 및 합성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개인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할 경우에도 프롬프트 및 출력 필터링, 접근통제, 안전한 저장·관리, 언러닝(Unlearning) 등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편향성 및 차별 방지를 위해 채용, 인사평가 등 고영향 의사결정 AI에 대해서는 사전 검증 및 정기 점검을 실시하며, NIST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AI RMF) 및 TTA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안내서 내용을 반영하여, 유해한 편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완전히 자동화된 의사결정에는 가급적 인간의 감독(Human Oversight)을 의무화하여 고객의 인적 개입 요구권을 보장하며, 특히 EU AI Act의 고위험 AI 및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고영향 AI에 대한 의무 등 국내외 규제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용자 신뢰와 직결되는 핵심 서비스 영역을 시작으로 AI 생성 콘텐츠 및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명확한 라벨링과 고지 의무를 이행하며,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 절차,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EU AI Act의 투명성 의무 및 학습데이터 요약 공개 요구에 부합하도록 AI 시스템의 작동 원리와 데이터 출처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내부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EU AI Act의 위험기반 분류 체계를 참고하여, 회사의 역할별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NIST AI RMF의 책임성(Accountability) 원칙에 따라 문서화 및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AI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명확한 경계를 정의하고, EU AI Act의 위험기반 분류(금지 AI·고위험 AI·투명성 대상 AI·최소위험 AI)에 따른 사용 범위 제한과 목적 외 사용(Mission Creep) 방지를 위한 통제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EU AI Act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잠재의식적 조작, 사회적 점수 매기기, 공공장소에서의 무분별한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RBI) 등의 AI 활용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AI 시스템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중요한 책임 요소로 인식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 모델 최적화, 불필요한 학습 및 운영 제한 등을 통해 AI의 생태학적 발자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감한 AI 기능에 대한 접근 제한

현대자동차는 안면인식, 생체인식,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등 윤리적 또는 프라이버시 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 민감한 AI 기능에 대해 '제한적 접근(Limited Access)' 제도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감한 AI 기능은 사전 승인된 인원 및 부서에만 접근 권한이 부여되며, 사용 목적, 데이터 범위, 보안 조치를 명시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유관 부서의 검토를 거치는 프로세스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특히 고객 동의 없는 생체정보 수집, 공공장소에서의 무분별한 실시간 안면인식, 인간 검토 없는 완전 자동화된 중요 의사결정,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행동 패턴 추적 등은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윤리·준법 경영

전략

임직원의 생성형 AI 활용과 관련해서는 정보보호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 검증을 거친 공식 승인 도구만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규 AI 도구 도입을 희망하는 조직은 통합보안센터의 보안성 검토와 AI 거버넌스 TFT 내 AI 과제 심의체의 윤리성·프라이버시 평가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승인 외부 생성형 AI 서비스에 기밀정보, 개인정보, 기술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민감 AI 기능의 접근 및 사용 이력은 전자적으로 기록·보관되며, 정기적으로 AI 거버넌스 TFT에서 사용 현황을 검토하고 통제 정책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AI 생성 콘텐츠 및 AI 주도 결정의 결과에 대한 명확한 라벨링

현대자동차는 AI 시스템이 생성한 콘텐츠 및 AI 주도 결정의 결과에 대해 명확한 라벨링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며, 이용자가 AI 생성 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상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성 확보 책무가 발생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공식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마케팅 채널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생성하거나 편집한 이미지, 영상, 텍스트 콘텐츠에는 'AI 생성', 'AI 편집' 등의 라벨을 명시적으로 표시합니다. 특히 차량 렌더링 이미지, 컨셉 디자인, 마케팅 캠페인 콘텐츠 등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경우 콘텐츠 하단 또는 캡션에 AI 활용 사실을 적절히 고지할 예정이며, C2PA(Coalition for Content Provenance and Authenticity) 표준 기반의 Content Credentials 도입을 적극 고려하는 등 법적 테두리 내에서 콘텐츠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 및 커넥티드 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생성형 AI 기반 챗봇, 음성 비서, 추천 시스템 등에는 인앱 공시(In-product Disclosure)등 방법을 통해 사용자가 AI 시스템과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사전에 알립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고객센터의 AI 챗봇은 대화 시작 시 'AI 상담원과 대화한다'는 취지의 안내 메시지 또는 로고를 표시하며, 필요 시 인간 상담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딜러 및 영업 조직이 활용하는 내부 AI 도구에서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응대 스크립트 생성, 영업 제안서 작성 지원, 고객 데이터 분석 등에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경우, 산출물에 'AI 생성 초안' 표시를 명시하고 인간의 검토와 승인을 거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고객 신용평가, 보험료 산정, 리스 승인 등 고객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AI 주도 결정의 경우, 결정 통보서에 '본 결정은 AI 시스템이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하며, 이의 제기 시 인간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문을 포함하여 고객의 알 권리와 이의제기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대자동차는 AI 생성 콘텐츠 라벨링 정책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C2PA 등 국제 표준 도입을 적극 고려하고, 사용자와 고객이 AI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AI 활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AI 기반 고객 응대 및 이의 제기 수용 프로세스

현대자동차는 고객 민원 처리 및 상담 과정에 대형언어모델(LLM) 등 AI 기술을 도입하여 신속한 응대를 제공하는 동시에, AI 결정에 대한 투명한 이의 제기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I 상담 과정에서 접수된 고객의 이의 제기 및 불만 데이터는 AI 기반 VOC 분석 시스템을 통해 자동 분류되어 제품 품질 개선 및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피드백으로 직접 반영됩니다.

나아가, AI 챗봇 및 보이스봇 서비스 등에서는 '인적 개입(Human-in-the-Loop)'을 통한 이의 제기 보장 구조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향후 도입될 시스템에도 고객이 AI 응대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즉각적으로 전문 상담 인력에게 연결(Handoff)되는 구조를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여 AI 시스템의 책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단체(한국소비자원, 소비자연맹 등)를 통해 접수된 민원 대응 과정에서도 전문 인력의 검토 및 처리 결과를 기반으로, AI가 관련 법규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반영하여 객관적 기준에 기반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고객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추가 해명이 필요한 경우, 대외단체 내부 절차에 따라 재검토 및 대응이 이루어지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I 모델 성능 저하 및 드리프트 대응을 위한 지속적 학습 체계

현대자동차는 인공지능 기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의 성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운전자의 주행 데이터에 기반한 지속적 학습 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독자 개발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머신 러닝(SCC-ML) 기술은 전방 카메라와 레이더 등 센서를 통해 다양한 주행 상황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ADAS 제어 컴퓨터로 전달하여 운전자의 주행 습관과 성향을 기계학습 알고리즘으로 분석합니다.

해당 시스템은 앞차와의 거리, 가속성, 반응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속도 구간과 주변 차량과의 거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1만 가지 이상의 주행 패턴을 구분함으로써 운전자의 최근 주행 성향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반영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현대자동차는 자율주행 보조 기능이 운전자의 실제 주행 특성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운전 성향에도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운전을 크게 벗어나는 주행 성향은 학습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설정해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앞으로도 이러한 지속적 데이터 업데이트와 학습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모델의 드리프트와 성능 저하를 관리하는 메커니즘을 강화해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리·준법 경영

전략

AI의 윤리적 사용 및 보안에 대한 직원 교육

현대자동차는 임직원이 AI 기술을 윤리적이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연내 운영할 계획이며, 전사적인 AI 역량 강화 활동을 추진하여 조직 내 책임 있는 AI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AI 거버넌스 TFT 내 'AX 역량 육성 분과'가 관련 교육의 기획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진행되는 모든 교육 활동은 기 공표된 'AI 실행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당사는 AI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임직원의 실질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직책자 대상의 교육 과정 내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부장 대상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AI 기본법, 관련 사례 및 판례 등을 다루고 있으며, 팀장 및 실장 대상의 'AX 리더 기본 과정'에서도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 임직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내 교육 플랫폼인 '러닝라운지'를 통해 상기 내용이 포함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임직원들이 실무에서 직면할 수 있는 AI의 환각, 편향성, 윤리적 문제 등을 사전에 인지하고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관련 자료 배포 및 설명회를 추진 및 예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내재화 활동의 일환으로 'AI 과제 추진 프로세스'에 대한 전사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하여 안전한 AI 활용 기준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필요에 따라 각 본부별 설명회를 진행하고, 그룹 전체의 AI 컴플라이언스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험 관리

위험 관리 프로세스

윤리 관련 위험 예방 및 모니터링

현대자동차는 당사 및 협력사 임직원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과 반부패 및 뇌물정책 리베이트를 포함한 뇌물 및 관행적 수수료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임 임원, 신규·경력 입사자, 부임 전 주재원 등 새롭게 준법교육이 필요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적시에 윤리규범(반부패/뇌물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여 반부패/뇌물 리스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2025년에는 총 43회의 반부패/뇌물 관련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준법경영지원시스템을 통해 반부패/뇌물 관련 수시 법률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임직원들이 업무 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업무상 배임/횡령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반부패/뇌물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매년 명절을 앞두고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관련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하여 관련 법령 준수를 도모하고, 부적절한 관행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상담센터(시스템, 전화, 이메일)를 통해 임직원들의 윤리규범 위반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제보받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반기별 정기감사 및 상시감사를 통해 임직원 윤리규범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준법 관련 위험 예방 및 모니터링

현대자동차는 공정거래, 반부패, 개인정보 등 다양한 법 영역에 관해 준법 자가점검을 실시하여 각 부서 및 임직원이 스스로 업무 관련 법적 리스크를 진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견된 리스크를 각 부서에 안내하여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공정거래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공정한 업무수행(청탁금지법 등)에 관하여 준법자가점검을 실시하였고, 책임급 16,202명, 임원 37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더불어, 2025년에는 국내 컴플라이언스 고도화를 목표로 리스크 진단을 최초로 시행하였습니다. 입법 동향과 당사 현황을 반영한 질문지를 통해서 공정거래 관련 부서 69개의 팀장/실무자 대상으로 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총 21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한 자가점검 및 리스크 진단 문항을 통해 현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준법 자가점검 및 리스크 진단 결과를 향후 준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감소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지표 및 목표

윤리규범 위반에 대한 징계 조치

윤리규범 위반 행위에 대해 유형별 징계 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위반 유형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재발 방지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징계 건수 (건)	구분	징계 건수 (건)
부패 또는 뇌물 수수	6	이해관계 상충	0
차별 및 괴롭힘	9	자금세탁 또는 내부자거래	0
고객 정보보호 위반	0		

공정거래 교육 현황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횟수 및 참여 인원을 기반으로 교육 이행 수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스크 수준을 고려한 직무별 특화 교육을 통해 준법문화 내재화를 추진합니다.

교육 횟수	참여 인원
13회	31,556명

리스크 경영

현대자동차는 핵심 리스크 지표와 연동된 성과 평가 및 교육을 진행하는 등, 전사 리스크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핵심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지속적인 관리 프로세스 강화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로벌 리스크 관리 체계

리스크 거버넌스

현대자동차는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에 따라 이사회, 경영진, 임직원들이 리스크 식별·평가·우선순위 선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이사회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과 책임이 있으며, 미래 리스크 요인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ESG 리스크를 사전에 완화하고 예방하기 위해 ESG 리스크 대응과제 추진방안과 이행 현황도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8개 리스크 대응과제가 선정되었으며, 과제 추진계획 및 이행실적도 지속가능경영위원회 보고를 통해 관리·감독되고 있습니다.

경영진 전사 경영전략을 총괄하는 경영전략담당 중역이 전사 리스크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CEO를 포함한 C-level 경영진으로 구성된 '경영위원회'가 운영됩니다. 경영위원회는 매달 발생가능성이 높고 재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중대 리스크를 선별하여 점검하고, 리스크로 인한 영향 분석결과에 대해 검토하며,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 리스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미흡할 경우 사업활동 제약, 재무 손실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요 리스크 사전 예방과 완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담 조직 현대자동차는 BRM(Business Risk Management)팀에서 전사 리스크 관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리스크를 점검하고 식별된 리스크에 대한 현업 대응체계 및 수준을 점검하며, 사업본부 내 선정된 리스크 관리 담당자들을 중심으로 해당 본부 내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리스크 대응 체계가 미흡하거나 부재할 경우, 리스크 대응 내부 조직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여 리스크 대응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센싱 조직 BRM협의체는 마켓인텔리전스센터, R&D본부, 경제정책연구실 등 현대자동차그룹 내 여러 부문에서 센싱하는 리스크와 관련하여, 매월 진행현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하는 회의체입니다. 여러 잠재 리스크들에 대해 예상되는 영향 및 검토 필요 사항들을 파악하고, 유관 부문에서 적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부별 리스크 관리 현대자동차는 전사적 차원 외에도 본부별로 세분화된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치사슬별(연구개발-구매-생산-판매)로 구성된 본부 내 기획팀에서 리스크 담당자가 선정되어 해당 본부 내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판매의 경우 미주, 유럽, 인도 및 아시아, 중국 등 권역별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권역 내 기획담당 조직에서는 해당 지역의 시장에서 발생되는 시장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식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치사슬별 사업본부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리스크 관련 조직에는 법규 및 소송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무실, 재무·노무·품질 등을 관리하는 기능별 전문조직, 거시·미시 시장 리스크 분석을 담당하는 경영연구원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본부별 리스크 관리 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임직원 리스크 식별·보고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확인된 리스크는 주·월·상시 리스크 및 업무 점검회의를 기반으로 점검하며, 보고 및 선제 대응하는 순서로 관리합니다.

리스크 관리 체계



리스크 경영

리스크 선호도 결정 프로세스

현대자동차는 '리스크 식별 - 영향(중요도)/발생가능성 분석 - 우선순위 설정 - 리스크 선호도 결정 -대응 추진'의 프로세스를 통해 회사를 둘러싼 리스크의 선호도를 결정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영전략담당 내 BRM팀의 자체 리스크 센싱 체계에서 식별된 주요 리스크들에 대해 재무적·사업적 영향을 기반으로 영향(중요도) 및 발생 가능성을 분석 및 평가합니다. 이러한 분석 및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대응 우선순위를 설정합니다. 우선순위가 높은 리스크에 대해서는 1) 현대자동차 비전과 목표 및 미래 경영전략(2030 전략)과의 부합성, 2) 시장 내 입지 및 재무적 능력을 포함한 리스크 감내 능력, 3) 잠재적 손실 또는 이득 규모 등의 3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리스크 선호도를 결정합니다.

주요 리스크 노출도 및 대응 현황

구분		주요 리스크 내용	리스크 노출도 평가		대응 조치
			발생가능성	크기	
비재무 리스크	규제 리스크	환경, 안전 등을 포함한 제품과 사업장 관련 규제 리스크. 특히 주요국의 플릿 평균 CO_2 배출규제 및 기업 평균 연비규제가 지속 강화되고 있으며, EU는 2035년까지 신규 판매 차량 CO_2 배출량 감축 목표 도입	중	상	차량 CO_2 규제 대응을 위해 사업계획에 규제대응 물량 반영. 전기차 라인업 및 판매를 지속 강화하고, 단기·중장기 판매물량 계획 시 전기차 물량을 포함한 규제 대응 물량을 산출하여 반영
	지정·지경학적 리스크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정책 변화로 인한 리스크. 2025년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보편적 관세 부과, IRA 철회 및 전기차 세제 혜택 폐지 추진 등 정책 리스크가 확대	상	상	현지 생산비중 증대 및 자급자족적 현지 생산체계 구축 추진. 주요국 정책·정치 리스크 모니터링 전담 조직 운영 및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파악하고, 현대자동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대응
	거시 경제적 리스크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신차 수요 감소 리스크. 자동차는 경기에 민감한 대표적인 소비재로, 주요국의 통화긴축 정책으로 인한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영향으로 경기부진이 가시화	중	중	경기로 인한 수요변화 예측력 강화 및 글로벌 경제 시나리오 분석 시행. 경기선행지표 기반 수요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글로벌 경제위기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생산·판매 조정, 대체시장 발굴 등으로 대응
	소재·부품 조달 리스크	조달비 상승 리스크 및 공급 지연·중단 리스크. 차량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와 같이 특정 부품의 수급불안이 전체 생산 지연으로 확대 가능,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	중	상	전략 소재와 핵심 부품에 대한 적정 재고 확보, 핵심 부품 내재화 추진 및 전략 소재 직접 구매 확대. 시황 변동 상시 모니터링과 손익 영향 자동 산출시스템을 구축하여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익 리스크에 대응
	운영 리스크	제품·기술 개발, 생산, 판매 등과 연관된 리스크	중	하	각 본부별 기획부문에서 운영 리스크 파악, 분석, 대응
재무 리스크	환 리스크	외화로 표시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통화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 (주요 통화는 USD, EUR, JPY 등)	중	중	외화의 유입과 유출을 통화별·만기별로 일치시킴으로써 외환 리스크를 제거하고, 환율전망에 따라 외화자금 수급의 결제기일을 조정
	금리 리스크	변동이자율부 금융상품의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위험 노출	중	중	단기차입금의 경우, 고정이자율 차입금과 변동이자율 차입금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장기차입금의 경우, 미래 현금흐름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정금리차입을 원칙으로 운영
	유동성 리스크	경기민감도가 높은 산업 특성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따라 현금 유동성 부족 리스크 노출	하	중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예측현금흐름과 실제현금흐름을 계속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만기구조를 관리

주요 리스크 지표 연동 보상 체계

CEO 등 C-level의 경영진 KPI에는 재무 리스크 지표(수익성, 현금유동성, 부채 비율 등)와 지속가능성 리스크 지표(안전, 품질, 정보보안 등)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를 바탕으로 매년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C-level의 보수 체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사 리스크 교육

사외이사의 사업 이해도 증진 및 리스크 관리 관련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매년 다양한 잠재적 리스크를 주제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미국 관세 관련 당사 대응 현황,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 현안 및 대응 방안, 공정한 전환 관련 전략 과제 등 당사에게 영향을 주는 여러 가시적 리스크 관련 교육을 진행하여,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지원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ESG 이슈와 리스크 관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순환경제와 공정한 전환 관련 리스크에 대해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연구원과 마켓인텔리전스 센터에서는 주요 리스크 관련 전망과 인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임직원에게 공유하여, 당사가 마주할 핵심 리스크와 이에 대한 대응 원칙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제품 개발 과정에서의 리스크 점검

현대자동차는 제품 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리스크 점검 활동을 수행하며 잠재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신기술 도입 시에는 고장 유형 및 영향도를 분석하여 기술적 리스크를 조기에 식별하고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조립 작업, 조작/작동성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리스크를 확인 및 개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제작된 시작 부품을 검사하여 기능/성능/내구력 만족 여부를 확인하는 등 체계적인 리스크 점검 프로세스를 통해 제품의 양산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품질 경쟁력 확보와 BIC(Best In Class) 수준 달성을 위해 전사 차원으로 내구/품질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및 체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경영

잠재 리스크

사이버보안 위협 증가 및 차량 데이터 보호 규제 강화 리스크

RISK CONTEXT

커넥티드카 확산과 차량 소프트웨어 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글로벌 자동차 산업 전반의 사이버보안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차량의 네트워크 연결 범위가 넓어지면서 랜섬웨어, 원격 침입, 소프트웨어 취약점 악용 등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업계와 규제 당국의 관리 요구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주요 자동차 제조사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사고 사례가 보고되면서 차량 원격 제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데이터 보호와 관련한 규제 논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UN ECE(유엔 유럽경제위원회) R155(사이버보안) 및 R156(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규정이 신규 차량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완성차 제조사는 차량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사이버보안 위협을 관리하고 안전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체계를 운영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동차 데이터 보안 관련 규제를 통해 차량 데이터의 저장 및 처리 요건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요 데이터의 국외 이전 시 별도의 절차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을 바탕으로 커넥티드 카 보안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차량 부품 및 소프트웨어 공급망 전반에 대한 보안 검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요 시장을 중심으로 차량 사이버보안과 데이터 보호 규제가 확대·고도화됨에 따라,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는 기술적 대응을 넘어 인증, 운영, 공급망, 데이터 관리 체계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응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시장에서 커넥티드카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기반 기능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요 시장의 사이버보안 및 데이터 보호 규제 강화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UN ECE R155 미준수 시 EU 시장에서 해당 차종의 형식 승인이 제한되어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중국 데이터 보안 규제 위반 시에는 현지 커넥티드 서비스 운영 제한 및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차량 원격 제어 기능이 침해되거나 고객 데이터가 유출될 경우, 대규모 리콜, OTA 서비스 일시 중단, 집단 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브랜드 신뢰도 하락과 직접적인 매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HYUNDAI'S APPROACH

현대자동차는 여러 유관 부문 내 보안 전문팀을 구성하여 전사적인 대응 체계를 수립 및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차량 개발부터 양산 후 모니터링까지 전체 차량 라이프사이클에 대한 사이버보안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 강화되는 차량 사이버보안 및 데이터 보호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사적 보안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UN ECE R155 및 R156 등 국제 규제 요구사항에 기반한 CSMS(Cyber Security Management System)와 SUMS(Software Update Management System)를 구축하고, 유럽과 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 요구되는 인증 및 운영 요건에 부합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차량과 서비스 전반의 보안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기획, 개발, 검증, 양산, 판매 이후 운영 및 서비스에 이르는 전 수명주기 관점에서 보안을 고려한 개발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 및 전장 시스템 개발 단계에서부터 보안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잠재적인 위협 시나리오와 취약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여 설계 단계부터 보안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차량 출시 이후에도 고객의 안전과 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안전·보안 이슈를 조기에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목소리(VoC)를 포함한 품질 정보와 차량·서비스 운영 데이터, 보안 취약점 신고 채널을 통해 접수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차량 및 서비스 전반의 취약점과 이상 징후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 역량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인한 공급망 리스크

RISK CONTEXT

2026년 3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촉발된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 이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주요 대응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및 해상 운송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 고조는 국제 유가와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며, 글로벌 경제 전반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자동차 산업에 원가, 물류, 공급망 측면에서 간접적인 리스크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변동성 확대는 철강, 플라스틱, 화학 소재 등 자동차 핵심 원자재와 제조 공정 전반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해상 운송 여건 악화는 부품 조달 일정과 물류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생산 및 공급망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해상 물류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운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송로로,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국제 유가 급등과 함께 철강·플라스틱·화학 소재 등 자동차 핵심 원자재의 조달 비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동 경유 해상 운송 노선의 우회·지연으로 인해 유럽·인도 등 주요 생산거점으로의 부품 조달 일정 차질과 물류비 증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차량 제조 원가 상승과 생산 계획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아가 에너지 비용 상승이 협력사 비용 구조에 전이될 경우, 공급망 전반의 원가 부담이 확대되어 차량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HYUNDAI'S APPROACH

현대자동차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로 인한 생산 차질을 예방하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를 통한 부품 및 원소재 공급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분쟁 인접 국가 등 고위험 지역에서 조달되는 부품과 원소재를 선별하여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주요 품목에 대해 글로벌 대체 공급선 발굴 및 우회 물류 루트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및 합성고무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Naphtha)의 수급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원소재 공급망 분석 및 리스크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품목별 최소 안전 재고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유관 기관과 지속적 소통하며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Sustainability Factbook

In This Section

지표 및 데이터
인증 및 특허 현황
GRI Index
TCFD Index
SASB Index
Global Network
제3자 검증의견서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보고서 개요

지표 및 데이터

재무

요약 재무제표(연결)

구분		단위	2023	2024	2025	비고
재무상태						
	자산총계	십억 원	282,463	339,798	368,845	
	부채총계	십억 원	180,654	219,522	241,197	
	자본총계	십억 원	101,809	120,276	127,648	
재무성과						
	매출액	십억 원	162,664	175,231	186,254	
	영업이익	십억 원	15,127	14,240	11,468	
	판매비와 관리비	십억 원	18,357	21,510	22,749	
	당기순이익	십억 원	12,272	13,230	10,365	연결당기순이익 비지배지분 포함
수익성 지표						
	영업이익률	%	9.3	8.1	6.2	
	순이익률	%	7.5	7.5	5.6	

요약 재무제표(별도)

구분		단위	2023	2024	2025	비고
재무상태						
	자산총계	십억 원	85,065	96,144	98,580	
	부채총계	십억 원	24,277	26,921	28,612	
	자본총계	십억 원	60,787	69,223	69,969	
재무성과						
	매출액	십억 원	78,034	79,061	78,767	
	영업이익	십억 원	6,671	6,599	3,515	
	판매비와 관리비	십억 원	9,600	11,728	11,803	
	당기순이익	십억 원	7,343	12,241	4,055	
수익성 지표						
	영업이익률	%	8.5	8.3	4.5	
	순이익률	%	9.4	15.5	5.1	

경제적가치 배분(연결)

구분		단위	2023	2024	2025	비고
합계		십억 원	**113,645**	**115,982**	**121,582**	
	배당금총액(주주 및 투자자)	십억 원	2,999	3,148	2,618	
	이자비용(주주 및 투자자)	십억 원	558	451	572	연결재무제표 주석 중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참고
	종업원급여(임직원)	십억 원	12,078	13,480	13,360	연결재무제표 주석 중 '비용의 성격별 분류' 참고
	원재료비(협력사)	십억 원	93,205	94,516	101,400	연결재무제표 주석 중 '비용의 성격별 분류' 참고
	법인세(정부)	십억 원	4,627	4,232	3,477	연결재무제표 주석 중 '법인세' 참고
	기부금(지역사회)	십억 원	178	155	155	연결재무제표 주석 중 '기타수익/비용' 참고

경제적가치 배분(별도)

구분		단위	2023	2024	2025	비고
합계		십억 원	**65,468**	**65,366**	**65,018**	
	배당금총액(주주 및 투자자)	십억 원	2,999	3,148	2,618	
	이자비용(주주 및 투자자)	십억 원	116	112	139	재무제표 주석 중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참고
	종업원급여(임직원)	십억 원	7,861	8,559	8,385	재무제표 주석 중 '비용의 성격별 분류' 참고
	원재료비(협력사)	십억 원	52,031	50,405	53,195	재무제표 주석 중 '비용의 성격별 분류' 참고
	법인세(정부)	십억 원	2,332	3,043	595	재무제표 주석 중 '법인세' 참고
	기부금(지역사회)	십억 원	129	99	86	재무제표 주석 중 '기타수익/비용' 참고

연구개발 투자

구분	단위	2023	2024	2025	비고
연구개발비용 계	백만 원	3,973,573	4,589,424	5,535,385	
정부보조금	백만 원	(4,708)	(2,977)	(7,853)	
연구개발비/매출액 비율	%	2.4	2.6	3.0	연구개발비용 계/당기매출액 x 100

지표 및 데이터

재무

투자기여(연결)

구분	단위	2023	2024	2025	비고
총자본지출(CAPEX)	십억 원	6,455	7,252	6,828	본사 및 해외 사업장 기준
감가상각비(Depreciation)	십억 원	4,946	4,287	5,016	연결재무제표 주석 중 '비용의 성격별 분류' 참고
총 자본지출-감가상각비	십억 원	1,509	2,965	1,812	
자사주 매입	십억 원	0	232	705	
배당금+자사주 매입	십억 원	2,999	3,380	3,323	

국가별 조세 보고(2025년)

국가	법인명	주요 활동	총 임직원 수 (명)	매출액[1] (백만 원)	세전이익[1] (백만 원)	법인세비용[1] (백만 원)	미지급법인세[1] (백만 원)
한국	현대자동차 주식회사(HMC)	완성차 제조 및 판매	73,335	78,766,791	4,650,362	595,484	96,280
미국[2]	미국판매법인(HMA)	완성차 및 부품 판매	632	50,848,272	1,668,084	364,854	0
	미국생산법인(HMMA)		4,425	16,583,652	484,698	98,249	(669)[3]
독일	유럽권역본부(HME)	마케팅 및 완성차 판매	287	17,705,947	49,584	13,668	6,009
체코	체코생산법인(HMMC)	완성차 및 부품 판매	2,720	10,414,656	459,237	68,893	0
튀르키예	튀르키예생산·판매법인(HMTR)		2,206	5,046,722	297,099	117,875	0
인도	인도권역본부(HMI)	완성차 제조 및 판매	8,507	11,078,124	1,277,611	329,467	0
브라질	중남미권역본부(HMCSA)		3,193	4,311,563	110,824	52,910	14,847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생산법인(HMMI)		1,795	1,614,016	75,177	901	0
캐나다	캐나다판매법인(HACC)		274	6,834,720	284,197	76,023	0

[1] 해당 재무정보는 별도재무제표 기준(내부거래 제거 전)이며, 전년도와 보고경계가 동일함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 108% 수준)
[2] 미국판매법인(HMA)은 북미권역본부(HMNA), 제네시스미국판매법인(GMNA)과 동일한 법인격을 공유하며, HMA의 임직원 수에는 HMNA 및 GMNA 인원이 포함됨
[3] 기납부세액이 당기법인세부담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미수법인세

생산/판매

생산 현황

구분		단위	2023	2024	2025	비고
합계		대	**4,289,776**	**4,146,335**	**4,116,506**	
	국내	대	1,947,351	1,858,136	1,846,837	
	인도	대	765,000	767,000	772,830	
	중국[1]	대	241,300	165,338	194,600	
	미국	대	369,000	361,632	427,320	
	체코	대	340,500	330,890	276,175	
	브라질	대	204,300	209,538	214,139	
	튀르키예	대	242,100	245,000	197,000	
	베트남[1]	대	46,835	55,251	42,540	
	인도네시아	대	79,580	85,750	70,900	
	싱가포르	대	581	640	287	
	기타[2]	대	53,229	67,160	73,878	

[1] 중국: 승용 완성차 기준, 베트남: HTMV(승/상용)
[2] 기타: HTBC(중국상용), HTCV(베트남상용), CKD(승/상용) 등

판매 현황

구분		단위	2023	2024	2025	비고
합계		대	**4,216,898**	**4,141,959**	**4,138,389**	
	국내	대	762,077	705,010	712,954	
	해외	대	3,454,821	3,436,949	3,425,435	

지표 및 데이터

Environmental (환경)*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사용량

구분	단위	2024[1]	2025	비고
합계[2]	MWh	**7,352,542**	**7,666,194**	
전기(비재생)	MWh	3,105,244	2,548,848	
전기(재생)	MWh	629,173	1,399,122	
LNG	MWh	3,289,091	3,312,847	
디젤, 등유, 휘발유	MWh	175,847	192,497	
스팀, 열	MWh	106,264	117,464	
기타 연료	MWh	46,922	95,414	프로판, 부탄 등
에너지 집약도	MWh/대	1.77	1.86	

[1] 2024년 에너지 사용량은 SBTi 승인 기준과 연계하여 기준년도(2024년) 사용량을 재산정함에 따라 직전년도 보고 데이터와 차이가 발생함.
[2] 2024년 대비 2025년 산정 대상 해외법인 5개(HMGICS 등) 추가됨.

온실가스 배출량

구분	단위	2024[3]	2025	비고
Scope 1+2 합계[4]	tCO_2-eq	**2,198,406**	**1,911,084**	2025년 배출 목표: 2,044,518tCO_2-eq
Scope 1	tCO_2-eq	729,974	720,642	
Scope 2	tCO_2-eq	1,468,432	1,190,442	시장 기반 기준
Scope 1+2 집약도	tCO_2-eq/대	0.530	0.464	
Scope 3	tCO_2-eq	203,863,854	199,704,253	Scope 3 Category별 배출량은 p.38 참조

[3] 2024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SBTi 승인 기준과 연계하여 기준년도(2024년) 배출량을 재산정함에 따라 직전년도 보고 데이터와 차이가 발생함.
[4] 2024년 대비 2025년 산정 대상 해외법인 5개(HMGICS 등) 추가됨.

환경투자 및 녹색구매

구분	단위	2023	2024	2025	비고
환경투자 비용[5]	억 원	8,611	9,716	19,438	
녹색구매 실적[6]	억 원	5,653	6,599	7,013	

[5] 전동화 차량 개발비와 사업장 환경개선 시설 투자비 포함 (단, 사업장 환경개선 투자비의 경우 국내 사업장만 포함)
[6] 녹색구매 실적은 환경마크 등 친환경 인증을 취득한 제품의 구매 실적이며 현대자동차는 내부 녹색구매지침을 기반으로 환경마크 인증 제품, 우수 재활용 마크 제품, 유해물질 저감 제품 등 친환경 인증 제품을 구매하고 있음

전동화 차량[7] 매출 비율

구분	단위	2023	2024	2025	비고
합계	%	**21.6**	**22.3**	**27.5**	
EV	%	9.9	7.4	8.4	
HEV	%	9.7	13.1	17.1	관리회계 기준 총 매출 대비 비율
PHEV	%	1.6	1.2	1.4	
FCEV	%	0.4	0.6	0.7	

[7] 전동화 차량 기준: EV, HEV, PHEV, FCEV

Full-LCA 수행 차종 판매 비율

구분	단위	2023	2024	2025	비고
Full-LCA 수행 차종 판매 비율	%	40.9	62.2	83.0	판매대수(선적) 기준

* 기후변화 대응 섹션을 제외한 환경 데이터의 보고 범위는 국내 전 사업장 및 해외 14개 생산법인입니다.
** 모든 대당 집약도는 생산대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표 및 데이터

Environmental (환경)

순환경제와 자원사용

주요 원자재 사용량[1] 및 스크랩량

구분	단위	2023	2024	2025	비고
철 사용량	톤	1,230,799	1,238,092	1,133,401	
철 스크랩	톤	410,665	407,423	469,495	
알루미늄 사용량	톤	156,930	138,184	161,801	
알루미늄 스크랩	톤	39,116	40,963	43,422	

[1] 생산 공장 내로 반입되어 공정에 직접 투입된 양을 기준으로 하며, 외부에서 구매한 반제품, 부품 등의 원자재량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폐기물 발생량

구분	단위	2023	2024[2]	2025	비고
합계	톤	**1,026,599**	**910,206**	**927,556**	
일반 폐기물	톤	549,853	538,153	534,532	
지정 폐기물	톤	43,223	55,423	47,237	
건설 폐기물	톤	433,523	316,630	345,787	
폐기물 전환량	톤	960,536	834,571	845,177	기타 전환을 포함한 전환량
폐기물 전환율	%	93.6	91.7	91.1	

[2] 일부 사업장이 과거 데이터를 수정하여 사업장 합산 수치를 정정하여 공시함

폐기물 유형별/처리방식별 처리량

구분		단위	2023	2024	2025	비고
일반 폐기물[3]		톤	**549,853**	**538,153**	**534,532**	
	소각 (열회수)	톤	14,079	16,207	15,175	
	소각 (열미회수)	톤	6,520	6,270	5,449	
	매립	톤	19,466	20,775	21,036	
	재사용/재활용	톤	508,522	491,603	478,682	기타 전환을 포함한 전환량
	기타	톤	1,267	3,298	14,191	생분해 등
지정 폐기물		톤	**43,223**	**55,423**	**47,237**	
	소각 (열회수)	톤	13,850	18,017	16,724	
	소각 (열미회수)	톤	3,144	3,067	3,841	
	매립	톤	1,886	2,407	1,761	
	재사용/재활용	톤	19,205	26,462	20,729	기타 전환을 포함한 전환량
	기타	톤	5,138	5,470	4,182	생분해 등
건설 폐기물		톤	**433,523**	**316,630**	**345,816**	
	소각 (열회수)	톤	0	0	0	
	소각 (열미회수)	톤	0	0	0	
	매립	톤	710	121	15	
	재사용/재활용	톤	432,809	316,506	345,767	기타 전환을 포함한 전환량
	기타	톤	3	3	5	생분해 등

[3] 일부 사업장이 과거 데이터를 수정하여 사업장 합산 수치를 정정하여 공시함

지표 및 데이터

Environmental (환경)

오염 및 수자원

오염물질 배출량

구분	단위	2023	2024	2025	비고
대기오염물질 합계[1]	톤	**1,591**	**1,738**	**861**	
SOx	톤	62	54	53	
NOx	톤	501	588	411	
PM	톤	1,028	1,096	397	
대기오염물질 집약도	kg/대	0.371	0.419	0.209	
수질오염물질 합계[1]	톤	**533**	**600**	**1,075**	
TOC(COD)	톤	343	410	594	
BOD	톤	124	137	355	
SS	톤	66	54	126	
수질오염물질 집약도	kg/대	0.12	0.14	0.26	
VOCs 및 THC[2]	톤	9,204	8,398	3,118	
VOCs 및 THC 배출량 집약도	kg/대	2.15	2.03	0.76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톤	9,316	9,184	10,154	

[1] 일부 사업장이 과거 데이터를 수정하여 사업장 합산 수치를 정정하여 공시함
[2] 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 휘발성 유기화합물, THC(Total Hydrocarbon): 총 탄화수소

용수 취수량[3]

구분	단위	2023	2024	2025	비고
합계	톤	**20,910,931**	**20,450,611**	**20,603,304**	
상수도 및 공업용수	톤	19,223,472	18,524,027	18,755,600	
표층수	톤	1,206,895	1,461,597	1,412,496	
지하수	톤	468,297	456,966	426,279	
해수담수	톤	12,267	8,022	8,929	

[3] 일부 사업장이 과거 데이터를 수정하여 사업장 합산 수치를 정정하여 공시함

용수 사용량[4]

구분	단위	2023	2024	2025	비고
용수 사용량[5]	톤	11,223,441	11,382,647	10,243,259	
물 스트레스가 높은 지역 용수 사용량[6]	톤	3,311,025	3,339,619	2,892,611	
용수 방류량	톤	9,687,490	9,067,964	10,360,045	
용수 재활용량	톤	1,799,380	1,684,054	1,569,871	
용수 재활용 비율	%	16.0	14.8	15.3	
용수 사용량 집약도	톤/대	2.62	2.75	2.49	

[4] 일부 사업장이 과거 데이터를 수정하여 사업장 합산 수치를 정정하여 공시함
[5] 용수 사용량은 취수량에서 방류량을 뺀 값임
[6] WRI Aqueduct Water Risk Atlas Tool을 활용한 평가 결과, 인도권역본부 첸나이 공장 및 푸네 공장, 북경현대기차 및 현대상용기차, 튀르키예생산법인, 멕시코생산법인, 인도네시아생산법인 그리고 국내 전주공장이 물 스트레스가 높은(High 이상) 것으로 나타남

지표 및 데이터

Environmental (환경)

사업장 유형/공급원별 취수량

구분	단위	2023	2024	2025	비고
생산공장 합계[7]	톤	**18,152,491**	**17,666,589**	**17,679,555**	
상수도 및 공업용수	톤	16,505,059	15,790,700	15,888,928	
표층수	톤	1,206,895	1,461,597	1,412,496	
지하수	톤	428,270	406,271	369,202	
해수담수	톤	12,267	8,022	8,929	
연구소 합계	톤	**1,992,256**	**2,054,039**	**2,197,980**	
상수도 및 공업용수	톤	1,992,256	2,054,039	2,197,980	
표층수	톤	0	0	0	
지하수	톤	0	0	0	
해수담수	톤	0	0	0	
판매/서비스 합계	톤	**246,475**	**250,057**	**249,348**	
상수도 및 공업용수	톤	225,189	226,269	226,811	
표층수	톤	0	0	0	
지하수	톤	21,286	23,788	22,537	
해수담수	톤	0	0	0	
기타(본사,연수원) 합계	톤	**519,709**	**479,926**	**476,421**	
상수도 및 공업용수	톤	500,968	453,019	441,881	
표층수	톤	0	0	0	
지하수	톤	18,741	26,907	34,540	
해수담수	톤	0	0	0	

[7] 일부 사업장이 과거 데이터를 수정하여 사업장 합산 수치를 정정하여 공시함

지역/공급원별 취수량

구분	단위	2023	2024	2025	비고
한국 합계[8]	톤	**14,219,435**	**13,824,929**	**13,682,252**	
상수도 및 공업용수	톤	14,175,433	13,767,408	13,587,365	
표층수	톤	0	0	0	
지하수	톤	44,002	57,521	94,887	
해수담수	톤	0	0	0	
유럽 합계	톤	**844,406**	**808,390**	**768,180**	
상수도 및 공업용수	톤	734,280	708,065	680,333	
표층수	톤	0	0	0	
지하수	톤	110,126	100,325	87,847	
해수담수	톤	0	0	0	
미주 합계	톤	**2,033,620**	**2,449,966**	**2,615,101**	
상수도 및 공업용수	톤	1,598,773	1,992,304	2,220,025	
표층수	톤	120,679	158,542	151,530	
지하수	톤	314,169	299,120	243,545	
해수담수	톤	0	0	0	
아시아 합계[8]	톤	**3,813,470**	**3,367,326**	**3,537,771**	
상수도 및 공업용수	톤	2,714,987	2,056,250	2,267,876	
표층수	톤	1,086,216	1,303,055	1,260,966	
지하수	톤	0	0	0	
해수담수	톤	12,267	8,022	8,929	

[8] 일부 사업장이 과거 데이터를 수정하여 사업장 합산 수치를 정정하여 공시함

지표 및 데이터

Social (사회)

안전보건

안전보건

구분	단위	2023	2024	2025	비고
임직원 사망 사고자 수	명	2	2	0	
사내 협력사[1] 사망 사고자 수	명	0	0	0	
산업재해자 수	명	596	566	539	업무상 질병 146건, 업무 관련 사망사고 0건
산업재해율	%	0.58	0.57	0.54	
임직원 LTIFR[2]	건수/백만 근로시간	1.90	1.92	1.54	
사내 협력사 LTIFR[2]	건수/백만 근로시간	2.03[4]	2.41[4]	0.82	
임직원 TRIR[3]	건수/이십만 근로시간	0.97	1.79	1.34	
사내 협력사 TRIR[3]	건수/이십만 근로시간	0.41[4]	0.48[4]	0.21	

* 데이터 집계 범위: 국내 사업장(공장, 연구소, 국내사업) 및 해외 생산법인
** HMGICS 추가 집계로 인한 임직원, 사내 협력사 재해율 지표 정정 공시함
[1] 현대자동차 사업장 내 상주 협력사
[2] 근로손실재해율(LTIFR, Lost-Time Injuries Frequency Rate) = (사고성재해건수 x 1,000,000)/연 근로시간
[3] 총기록가능한산업재해율(TRIR, Total Recordable Incident Rate) = (기록 가능한 사고 건수)/(총 작업시간) x 200,000
[4] 사내 협력사 근로시간 집계 오류로 2023년, 2024년 데이터 정정 공시함

고객경험 혁신

품질

구분	단위	2023	2024	2025	비고
품질지수 (J.D. Power 설문조사 기준)					
미국 내구품질지수 (현대)	순위 (점수)	일반 6위 (170점)	일반 9위 (198점)	일반 12위 (222점)	
미국 신차품질지수 (현대)	순위 (점수)	일반 10위 (188점)	일반 3위 (161점)	일반 2위 (173점)	
미국 내구품질지수 (제네시스)	순위 (점수)	고급 2위 (144점)	고급 5위 (200점)	고급 7위 (213점)	
미국 신차품질지수 (제네시스)	순위 (점수)	고급 5위 (176점)	고급 3위 (184점)	고급 3위 (183점)	
품질관리 시스템 인증	%	100	100	100	국내·외 전 사업장 ISO 9001 인증

고객만족

구분	단위	2023	2024	2025	비고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고객만족도 - 현대고객경험지수(HCXI)	점수	72.2	71.0	71.9	판매 및 서비스 만족도 종합 점수
외부기관 평가 - 국가고객만족도(NCSI)	순위	전 부문 1위	전 부문 1위	전 부문 1위[1]	
외부기관 평가 -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순위	10개 부문 1위 (총 14개 부문)	12개 부문 1위 (총 14개 부문)	12개 부문 1위 (총 15개 부문)[2]	
외부기관 평가 - 한국산업의 고객 만족도 (KCSI)	순위	전 부문 1위	전 부문 1위	전 부문 1위[3]	
국내 정비서비스 만족도 (HCXI)	점수 (순위)	72.5 (1위)	73.0 (1위)	73.3 (1위)[4]	
해외 판매 고객 만족도 (NPS)	점수 (실시국가)	90.6 (35개국)	93.8 (34개국)	93.4 (34개국)	
해외 정비서비스 만족도 (NPS)	점수 (실시국가)	78.8 (35개국)	82.3 (34개국)	84.3 (33개국)	

[1] 컴팩트 승용, 중형, 준대형, 대형, 컴팩트 RV, 대형 RV, 전기차
[2] 승용 전 부문, 전기차, 럭셔리 세단 D/E 세그먼트, 자동차 AS 등 12개 부문
[3] 승용, RV, 경형, 전기차, 프리미엄
[4] 직영/블루핸즈 종합점수 평균값

지표 및 데이터

Social (사회)

인적자원 관리

글로벌 성별 인력 현황

구분			단위	2023	2024	2025	비고
국내 합계			명	**74,203**	**75,819**	**73,335**[1]	2025년 12월 31일, 직접 고용 인원 수 기준 (휴직·해외주재 등 당해년도 국내 근로소득이 없는 인원 수 포함)
	남성		명	69,076	70,114	67,395	
	여성		명	5,127	5,705	5,940	
해외 합계			명	**50,706**	**50,588**	**50,025**	
	남성		명	42,797	42,108	41,360	
	여성		명	7,909	8,480	8,665	
	북미 합계		명	19,389	18,805	18,327	
		남성	명	15,518	14,603	13,958	
		여성	명	3,871	4,202	4,369	
	유럽 합계		명	7,655	7,654	7,335	
		남성	명	6,328	6,256	5,982	
		여성	명	1,327	1,398	1,353	
	- EEA 합계		명	N/A	4,589	4,811	EEA(European Economic Area)[2] 인력 현황은 2024년부터 집계
		남성	명	N/A	3,789	3,816	
		여성	명	N/A	800	995	
	중국 합계		명	7,745	7,606	7,603	
		남성	명	6,160	6,041	6,026	
		여성	명	1,585	1,565	1,577	
	인도 합계		명	10,935	11,475	11,646	
		남성	명	10,599	11,039	11,174	
		여성	명	336	436	472	
	기타 합계		명	4,982	5,048	5,114	
		남성	명	4,192	4,169	4,220	
		여성	명	790	879	894	

직군별 인력 현황

구분		단위	2023	2024	2025	비고
합계		명	**124,909**	**126,407**	**123,360**	
	임원	명	792	813	922	임원 직급 중 연구위원 13명 제외
	연구위원	명	20	13	13	
	연구직	명	18,245	20,008	20,599	
	사무직	명	24,248	25,645	25,513	
	기술/생산/정비직	명	64,381	61,856	60,312	
	영업직	명	7,503	7,186	6,681	
	기타직	명	9,720	10,886	9,320	자문역, 별정직, 촉탁 등

[1] 2025년 12월 31일 기준 기간제 근로자 수(당해년도 국내 근로소득 없는 인원 포함): 8,746명
[2] EEA(European Economic Area)는 유럽연합(EU)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일부 국가가 합쳐 구성된 경제협력지역으로 해당 인력 현황은 2024년부터 집계

지표 및 데이터

Social (사회)

성별 임직원 비율

구분	단위	2023	2024	2025	비고
합계	명	**792**	**813**	**922**	
여성 임원	명	59	64	80	
국내	명	21	21	25	
미주	명	26	27	39	
유럽	명	6	8	9	
중국	명	5	3	2	
인도	명	0	1	1	
기타	명	1	4	4	
남성 임원	명	733	749	842	
여성 임원 비율	%	7.4	7.9	8.7	여성 임원/총 임원 수 * 100
남성 임원 비율	%	92.6	92.1	91.3	남성 임원/총 임원 수 * 100
합계	명	**124,909**	**126,407**	**123,360**	
여성 임직원	명	13,036	14,185	14,605	여성 임원 + 직원
국내	명	5,127	5,705	5,940	
미주	명	3,871	4,202	4,369	
유럽	명	1,327	1,398	1,353	
중국	명	1,585	1,565	1,577	
인도	명	336	436	472	
기타	명	790	879	894	
남성 임직원	명	111,873	112,222	108,755	남성 임원 + 직원
여성 임직원 비율	%	10.4	11.2	11.8	여성 임직원 수/총 임직원 수 * 100
남성 임직원 비율	%	89.6	88.8	88.2	남성 임직원 수/총 임직원 수 * 100

연령별 인력 현황

구분	단위	2023	2024	2025	비고
합계	명	**124,909**	**126,407**	**123,360**	
30세 미만	명	26,979	27,564	24,752	
30세 이상 ~ 50세 미만	명	62,376	64,402	65,580	
50세 이상	명	35,554	34,441	33,028	

국적별 인력 현황(국내 기준)[3)]

구분	단위	2023	2024	2025	비고
합계	명	**74,160**	**75,753**	**73,270**	
총 관리직 수	명	18,024	18,955	19,768	
대한민국	명	74,077	75,647	73,163	
관리직	명	17,961	18,887	19,699	총 관리직 대비 99.65%
미국	명	48	63	60	
관리직	명	38	40	39	총 관리직 대비 0.20%
캐나다	명	15	17	18	
관리직	명	12	14	14	총 관리직 대비 0.07%
중국	명	10	12	13	
관리직	명	6	6	7	총 관리직 대비 0.04%
독일	명	10	14	16	
관리직	명	7	8	9	총 관리직 대비 0.05%

[3)] 인원 수 기준 상위 5개 국적별 인원 수

소속 외 근로자 현황(국내 기준)[4)]

구분	단위	2023	2024	2025	비고
합계	명	**4,688**	**4,615**	**4,706**	사업보고서 기준
남성	명	2,438	2,310	2,388	
여성	명	2,250	2,305	2,318	

[4)] 소속 외 근로자는 파견, 하도급 등 근로자를 포함

지표 및 데이터

Social (사회)

신규 채용 현황

구분	단위	2023	2024	2025[5]	비고
합계	명	**25,419**	**23,631**	**14,253**	
성별					
남성	명	22,467	20,228	12,217	
여성	명	2,952	3,403	2,036	
연령대별					
30세 미만	명	16,551	14,531	5,782	
30세 이상 ~ 50세 미만	명	5,900	5,293	5,088	
50세 이상	명	2,968	3,807	3,383	
국적별(국내 기준)					
한국	명	10,741	11,056	8,522	인원 수 기준 상위 5개 국적별 인원 수
미국	명	9	10	4	
영국	명	0	3	2	
독일	명	0	2	2	
중국	명	1	2	2	

[5] 글로벌 수요 감소로 인한 신규 채용 및 자연퇴직자 대체 충원 축소

내부 충원 현황(국내 기준)

구분	단위	2023	2024	2025	비고
내부충원 비율	%	96.4	96.5	95.8	사내공모 및 전보 포함, T/O 대비 배치 비율

정기 성과평가 적용 비율

구분	단위	2023	2024	2025	비고
전체 적용 비율[6]	%	N/A	100	100	2024년부터 공시
남성	%	N/A	100	100	남성 적용 인원 수 / 남성 임직원 수
여성	%	N/A	100	100	여성 적용 인원 수 / 여성 임직원 수

[6] 일부 예외자 제외 (계약직, 신규 입사자 등)

이직률

구분	단위	2023	2024	2025	비고
연초 임직원 수	명	121,608	120,233	120,982	
국내	명	70,902	69,645	70,957	당해년도 1월 31일 기준
해외	명	50,706	50,588	50,025	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
총 이직률	%	10.8	9.5	8.1	
자발적 이직률[7]	%	5.6	4.3	3.2	
국내 이직률	%	5.4	4.9	5.8	
성별 이직자 수					
남성	명	3,694	3,294	3,997	
여성	명	122	123	126	
연령대별 이직자 수					
30세 미만	명	524	140	403	
30세 이상 ~ 50세 미만	명	385	197	305	
50세 이상	명	2,907	3,080	3,415	
직급별 이직자 수					
최고관리자	명	8	35	134	
중간관리자	명	540	574	556	
비관리직	명	3,268	2,808	3,433	
국내 자발적 이직률[7]	%	0.81	0.39	0.42	
해외 이직률	%	18.3	15.7	11.3	
성별 이직자 수					
남성	명	8,213	5,863	4,381	
여성	명	1,078	2,089	1,266	
해외 자발적 이직률[7]	%	12.4	10.3	7.0	

[7] 자발적 이직: 정년퇴직 혹은 해고 등의 사유가 아닌 임직원 본인의 자발적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

지표 및 데이터

Social (사회)

교육 현황(국내 기준)

구분	단위	2023	2024	2025	비고
총 교육비용	억 원	806	851	604	
인당 교육 비용	만 원	108.7	112.2	82.3	총 교육비용 / 전체 인원 수
직급별					
최고관리자	만 원	323.8	122.0	75.0	
중간관리자, 신입사원, 비관리직	만 원	109.2	114.0	82.4	
성별					
남성	만 원	108.6	113.6	81.9	
여성	만 원	134.5	119.9	87.8	
연령대별					
30세 미만	만 원	106.1	118.0	85.9	
30세 이상 ~ 50세 미만	만 원	179.3	128.1	90.6	
50세 이상	만 원	38.8	95.7	70.1	
인당 교육 시간	시간	46.7	40.8	37.5	직원에게 제공한 총 교육시간 / 전체 인원 수
직급별					
최고관리자	시간	33.5	30.1	20.5	직급별 총 교육시간 / 직급별 인원 수
중간관리자, 신입사원, 비관리직	시간	47.5	41.6	37.6	
성별					
남성	시간	45.6	40.7	37.4	
여성	시간	72.0	51.1	38.3	
연령대별					
30세 미만	시간	77.5	65.4	61.7	
30세 이상 ~ 50세 미만	시간	52.8	44.1	39.3	
50세 이상	시간	31.2	28.2	25.7	
인당 교육 일수	일	5.8	5.1	4.7	인당 교육시간 / 8시간 (1일 근로시간 8시간 적용)

조직문화 진단

구분	단위	2023	2024	2025	비고
직원 참여도	%	79.8	81.1	87.2	조직문화 진단에 응답한 직원 비율
직원 만족도(진단 결과)	점	76.6	79.4	80.2	

노동조합 가입 현황(국내 기준)

구분	단위	2023	2024	2025	비고
가입대상 인원 수[8]	명	43,092	42,220	40,356	
가입인원 수	명	40,985	39,662	37,829	매년 12월 말 기준
가입 비율	%	95.1	93.9	93.7	

[8] 단체협약에 근거한 조합원 가입 대상 인원 수

파업 발생 현황

구분	단위	2023	2024	2025	비고
총 파업발생 건수[9]	건	1	1	1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10]	일	1	2	3	1천명 이상의 근로손실 발생일 기준

[9]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생산중단' 발생 건수 기준. 2023~2024년 금속노조 주관 정치 파업 참여 각 1건 및 2025년 단체교섭 관련 파업 1건
[10] 파업발생 건당 지속 일수 합산 수치 (2024년: 부분파업 2시간 × 2일, 2025년: 부분파업 2시간 × 2일, 4시간 × 1일 발생)

지표 및 데이터

Social (사회)

여성 리더십 인력 현황

구분	단위	2023	2024	2025	비고
총 여성 임원(최고 관리자) 수	명	59	64	80	
총 여성 임원(최고 관리자) 비율	%	7.4	7.9	8.7	총 여성 임원 수 / 총 임원 수
총 관리자 수	명	26,477	27,990	29,093	관리자: 책임급 이상 전체
총 여성 관리자 수	명	2,759	3,277	3,605	
총 여성 관리자 비율	%	10.4	11.7	12.4	총 여성 관리자 수 / 총 관리자 수
국내 관리자 수	명	18,043	18,502	19,300	
여성	명	1,360	1,576	1,827	
해외 관리자 수	명	8,434	9,488	9,793	
여성	명	1,399	1,701	1,778	
총 하급 관리자 수	명	20,140	21,604	22,453	하급 관리자: 책임급 이상 중 비보직자
총 여성 하급 관리자 수	명	2,276	2,642	2,929	
총 여성 하급 관리자 비율	%	11.3	12.2	13.0	
국내 하급 관리자 수	명	14,327	15,207	15,887	
여성	명	1,198	1,408	1,631	
해외 하급 관리자 수	명	5,813	6,397	6,566	
여성	명	1,078	1,234	1,298	
수익창출 부서 임직원 수[11]	명	120,020	120,452	116,686	
여성	명	12,278	13,254	13,483	
수익창출 부서 여성 임직원 비율	%	10.2	11.0	11.6	
STEM 직책 임직원 수[12]	명	23,292	25,496	26,307	
여성	명	2,320	2,692	2,866	
STEM 직책 여성 임직원 비율	%	10.0	10.6	10.9	

[11] 수익 창출 부서 기준: 기획, 상품, R&D, 구매, 생산, 판매, 마케팅, 품질, 서비스 등 비즈니스 관련 부문
[12] 2025년 산출 기준 변경: R&D, 구매, 품질, ICT, 공장 등 과학/기술/공학/수학 관련 부문의 일반직, 연구직, 임원

장애인 근로자 현황

구분	단위	2023	2024	2025	비고
합계	명	N/A	1,932	1,921	
국내	명	1,701	1,530	1,423	12월 신고 인원 기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해외	명	N/A	402	498	해외 장애인 임직원 수 2024년부터 집계
장애인 고용률	%	N/A	1.62	1.56	장애인 근로자 수 / 총 임직원 수 * 100
국내	%	2.50	2.19	2.08	장애인 근로자 수 / 국내 상시 근로자 수 * 100
해외[13]	%	N/A	0.79	0.99	장애인 근로자 수 / 총 해외 임직원 수 * 100

[13] 집계 대상 해외 임직원 수는 현지 법률상 장애 여부 파악이 가능한 법인에 한하여 산출

육아휴직 현황(국내 기준)

구분	단위	2023	2024	2025	비고
육아휴직 사용 인원 수	명	661	639	935	
남성	명	301	292	551	당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휴직 연장 포함)
여성	명	360	347	384	
육아휴직 사용 비율	%	16	15	20	
남성	%	7	7	12	당해 출생일로부터 1년 내 자녀가 있는 근로자 중 당해 출산 이후 1년 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비율
여성	%	96	91	96	
복귀율					
남성	%	95.4	97.4	98.6	당해 복직예정자 중 당해 복직한 인원 비율 (휴직 연장 인원은 복직예정자에서 제외)
여성	%	98.0	98.5	99.0	
유지율					
남성	%	97.3	96.6	96.9	직전 해 육아휴직 복귀 인원 중 '12개월 이상' 근속한 인원 비율
여성	%	94.7	97.5	97.9	

지표 및 데이터

Social (사회)

성별 임금 현황(2025년)

구분	단위	남성	여성	비고
임직원 평균 총급여[14]	백만 원	132	118	
성별 임금 격차				
경영진				
평균 기본급	원	352,172,552	318,708,333	
평균 총급여[14]	원	513,418,265	471,883,287	
관리직				일반/연구직 책임급
평균 기본급	원	104,283,218	95,973,637	
평균 총급여[14]	원	162,545,555	142,515,038	
직원				일반/연구직 매니저급
평균 기본급[15]	원	61,349,839	64,089,100	

[14] 기본급 및 성과급 등을 포함한 연간임금총액
[15] 급여 및 상여 포함

CSV 이니셔티브

사회공헌

구분	단위	2023	2024	2025	비고
유형별 지출					
현금 기부	백만 원	125,133	94,221	81,258	
현물 기부	백만 원	4,546	5,246	5,217	
임직원 봉사	백만 원	911	1,249	1,146	임직원 봉사 시간의 금전적 가치 환산[16]
경영 비용	백만 원	14,929	20,655	11,658	
영역별 지출					
지역사회 투자	백만 원	113,358	86,067	71,280	
단순 기부	백만 원	15,424	12,620	14,641	
상업용	백만 원	15,826	21,435	12,212	
권역별 지출					
국내	백만 원	144,608	120,122	98,133	
해외	USD	27,896,064	33,153,512	47,079,470	
임직원 자원봉사 실적(국내 기준)					
봉사횟수	회	613	1,074	1,033	
봉사인원	명	7,436	8,207	6,029	
봉사시간	시간	19,005	19,345	16,724	

[16] 임직원 연간 봉사시간 x 임직원 평균 시급(평균연봉/연간근무일수/시간)

지표 및 데이터

Social (사회)

기부/출연/후원단체

구분	단위	2023	2024	2025	비고
기부금/출연금 유형별 지출 합계	백만 원	6,009	4,674	7,201	
협회 및 비과세 단체	백만 원	6,009	4,674	7,201	산업 유관 협회·단체
로비 및 이익 단체	백만 원	0	0	0	
정치 기부금	백만 원	0	0	0	
기타	백만 원	0	0	0	
주요 후원 단체별 지출					
K-모빌리티 브릿지 재단	백만 원	10,972	12,794	10,846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백만 원	2,453	2,360	2,439	
한국자동차연구원	백만 원	230	237	232	
한국수소연합	백만 원	200	200	400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백만 원	100	120	120	

Governance (거버넌스)

윤리·준법 경영

준법교육

구분		단위	2024	2025	비고
총 교육 횟수		회	54	48	
교육 주제별	특별 준법교육	회	25	21	공정거래 포함, 해외법인 포함
	상시 준법교육	회	29	27	신임 임원, 신규입사자, 경력입사자, 주재원 등 대상
교육 방식별 총 횟수	온라인	회	11	19	
	오프라인	회	43	29	
교육 방식별 시간	온라인	시간	14	30	
	오프라인	시간	45	19	
준법 리스크 중점 모니터링 교육		명	395	243	구매본부 대상 하도급법 기술자료 관련 대면교육

주요 법규/규칙 위반[1]

구분		단위	2023	2024	2025	비고
개인정보 사고 건수[2]		건	0	2[3]	0	
정보보안 사고 건수[2]		건	0	0	0	
표시/광고 위반 건수		건	0	0	0	
환경 관련 제재 현황[4]	환경 관련 위반 건수	건	1[5]	2[6]	1[7]	
	금전적 제재 현황	백만 원	4,023	45,724	12,575	

[1] 법규 및 규칙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보고서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을 참고
[2] 규제기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현대자동차㈜가 과태료·과징금·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기준으로 하며, 건수는 해당 처분의 납부가 완료된 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함
[3] 2022년 7월 침해사고 1건과 9월 유출사고 1건 발생했으며, 2건에 대해 2024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행정처분 받아 10월에 과태료 납부를 완료함
[4] USD 10,000 이상의 환경법규 위반 건수만 포함됨
[5] 미국판매법인(HMA) 및 미국기술연구소(HATCI) 판매 차량 제어기 변경 인증 자진 신고 누락으로 벌금을 지불했고, 재발방지 위해 제어기 변경 신고 프로세스 및 업무 매뉴얼을 개선함
[6] 독일(2024년 5월), 한국(2024년 7월)에서 환경 관련 건으로 아래와 같이 벌금을 지불함
- 독일: 유럽권역본부(HME)와 독일판매법인(HMD), 유럽기술연구소(HMETC)의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한 일부 디젤차량의 실도로에서 Euro 5, 6b 기준대비 배출가스 초과 배출로 독일 질서위반법 위반으로 질서위반금(약 2,989만 유로)을 지불함. 조사를 통해 고의성은 없었음을 확인받았으며, 재발 방지 위해 내부 기술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강화함
- 한국: 울산공장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3천만 원)을 지불함. 재발 방지 위해 환경 전문기관 컨설팅 실시로 문제 진단/개선방안 도출 및 환경법규 준수 프로세스 강화 등을 시행함
[7] 유럽권역본부(HME)와 유럽기술연구소(HMETC)는 유럽 폐차 재활용 담합 건과 관련하여 EU 집행위원회 과징금 중 해당 법인 부담분 약 746만 유로를 납부 완료하였음 (2025년 6월)

인증 및 특허 현황

사업장별 인증 현황 (ISO Certification)

구분		인증 유효 기간	비고
ISO 14001 (환경경영)	국내 사업장	2024년 - 2026년	국내사업장 통합 인증[1]
	미국생산법인(HMMA)	2024년 - 2026년	
	북경현대기차유한공사(BHMC)	2024년 - 2027년	
	인도권역본부(HMI)	2023년 - 2026년	
	중남미권역본부(HMCSA)	2024년 - 2027년	
	체코생산법인(HMMC)	2024년 - 2027년	
	튀르키예생산법인(HMTR)	2024년 - 2027년	
	인도네시아생산법인(HMMI)	2022년 - 2025년	
	현대상용기차(중국)유한공사(HTBC)	2023년 - 2026년	
	싱가포르글로벌혁신센터(HMGICS)	2023년 - 2026년	
	베트남생산법인(HMTV)	2024년 - 2027년	
	HTWO광저우법인	2024년 - 2027년	
	현대 멕시코(HYMEX)	2024년 - 2027년	
ISO 45001 (안전보건경영)	국내 사업장	2024년 - 2027년	국내사업장 통합 인증[1]
	미국생산법인(HMMA)	2024년 - 2026년	
	북경현대기차유한공사(BHMC)	2024년 - 2027년	
	인도권역본부(HMI)	2023년 - 2026년	
	브라질생산법인(HMB)	2024년 - 2027년	
	체코생산법인(HMMC)	2024년 - 2027년	
	튀르키예생산법인(HMTR)	2024년 - 2027년	
	인도네시아생산법인(HMMI)	2022년 - 2025년	
	현대상용기차(중국)유한공사(HTBC)	2023년 - 2026년	
	싱가포르글로벌혁신센터(HMGICS)	2023년 - 2026년	
	베트남생산법인(HMTV)	2024년 - 2025년	
	HTWO광저우법인	2024년 - 2027년	
	멕시코 생산법인(HYMEX)	2024년 - 2027년	

[1] 본사, 생산공장(울산/아산/전주), 연구소, 국내사업본부 포함

구분		인증 유효 기간	비고
ISO 27001 (정보보안경영)	국내 사업장	2024년 - 2027년	
ISO 9001 (품질경영)	국내·외 사업장	2024년 - 2027년	
ISO 50001 (에너지경영)	북경현대기차유한공사(BHMC)	2025년 - 2028년	인화/양진공장
	인도권역본부(HMI)	2024년 - 2027년	첸나이공장
	튀르키예생산법인(HMTR)	2025년 - 2027년	
	인도네시아생산법인(HMMI)	2023년 - 2026년	

특허 현황

지표명		단위	2023	2024	2025
특허보유 건수 (누적)		건	37,788	39,385	39,152
신규특허 출원 (연도별)	총 신규특허 출원 수	건	6,853	7,436	7,932
	미래기술 (자율주행, 커넥티비티)	건	729	799	666
	환경기술 (전동화, 수소에너지, 재활용, 바이오 소재,CCUS[1])	건	1,702	2,151	3,042
	기타	건	4,422	4,486	4,224

[1] 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GRI Index

Universal Standards

GRI Standards No.	GRI Standards Title	Page	Note
2-1	조직의 세부정보	159, 167	
2-2	조직의 지속가능성보고에 포함된 기업		사업보고서 p.512-518
2-3	보고기간과 빈도, 그리고 연락처	167	
2-4	정보의 재기술	38, 47, 66, 136, 137, 140	
2-5	외부 검증	160-166	
2-6	활동, 가치사슬 그리고 기타 비즈니스 관계	5-8, 12, 16	
2-7	고용 유형별 임직원, 그리고 성별/지역별 현황	141-142	사업보고서 p.472
2-8	임직원이 아닌 근로자[1]	142	
2-9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버넌스 구조 및 구성	10-11, 119-122	
2-10	거버넌스 기구의 임명 및 선정	119	
2-11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의장	119	
2-12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영향을 관리하는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역할	10-11, 22, 122	
2-13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영향을 관리하는 책임의 위임	22, 122	
2-14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역할	16, 122	
2-15	이해충돌 방지 및 완화를 위한 장치	119, 121, 123	
2-16	중요 이슈에 대한 최고 거버넌스의 의사소통		사업보고서 p.428-430
2-17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지식, 기술 및 경험 향상	11	
2-18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성과평가	122	
2-19	최고 거버넌스 구성원 및 고위 임원진에 대한 보상 정책	122	
2-20	최고 거버넌스 구성원 및 고위 임직원에 대한 보수 결정 프로세스	121	
2-21	연간 총 보상의 비율	122	
2-22	지속가능경영 전략 성명서	3, 4	
2-23	책임 있는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정책적 약속	48, 54, 61, 69-70, 86, 91, 101, 111, 120, 125	
2-24	책임 있는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정책적 약속 통합 및 이행 방법	40-41, 48, 60, 74, 105	
2-25	조직이 기여한 것으로 확인된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세스	21, 62, 65, 108-109	

[1] 미공시 사유: 기밀제한 / 피고용자가 아닌 근로자에 대한 데이터는 관리하고 있으나, 당사 임직원이 아닌 근로자의 정보를 공시하는 것은 회사규정상 어려움.

Universal Standards

GRI Standards No.	GRI Standards Title	Page	Note
2-26	책임 있는 비즈니스 활동을 위해 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 프로세스	15, 51, 57, 75, 93, 125-129	
2-27	법·규정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147	사업보고서 p.504
2-28	가입 협회	147	
2-29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접근방식	14, 15	
2-30	단체협약에 포함되는 전체 근로자 수 및 비율	144	
3-1	중요 이슈를 결정하는 프로세스	16	
3-2	중요 이슈 목록	17-20	
3-3	중요 이슈 관리	17-20, 60-89	

101 Biodiversity

GRI Standards No.	GRI Standards Title	Page	Note
101-1	생물다양성 손실을 중단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	53-58	
101-2	생물다양성 영향 관리	53-58	
101-3	접근 및 이익 공유	56-57	
101-4	생물다양성 영향 식별	54-55	
101-5	생물다양성 영향이 있는 위치	54-55	
101-7	생물다양성 상태 변화	56-57	
101-8	생태계 서비스	56-57	

GRI Index

Topic Specific Standards – Economic

GRI Standards		Page	Note
No.	Title		
201-1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 창출과 배분	134	
201-2	기후변화의 재무적 영향과 사업활동에 대한 위험 및 기회	22-36	
201-4	정부로부터 받은 재정적 지원	134	
202-1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최저 임금과 비교한 성별 기본 초임 임금 비율	-	
202-2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현지에서 고용된 고위 경영진의 비율	141-142	
203-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와 지원 서비스의 개발 및 영향	146	
203-2	중요한 간접적 경제 효과	146	
205-1	부패 위험을 평가한 사업장의 수 및 비율, 파악된 중요한 위험	125-129	
205-2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공지와 훈련	125-129	
205-3	확인된 부패 사례와 이에 대한 조치	125-129	
206-1	경쟁저해행위, 독과점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125, 129	사업보고서 p.506
207-1	세금에 대한 접근법		현대자동차 조세 정책
207-2	조세 거버넌스, 통제 및 리스크 관리		현대자동차 조세 정책
207-3	국가별 조세 보고	135	

Topic Specific Standards – Environmental

GRI Standards		Page	Note
No.	Title		
301-1	사용 원재료의 중량이나 부피	47, 137	
302-1	조직 내부 에너지 사용량	39, 136	
302-3	에너지 사용량 집약도	136	
302-4	에너지 소비 절감	24-25	
303-1	공유 자원으로서의 용수 활용	50, 52	
303-3	용수 취수량	138-139	
303-4	용수 방류량	138-139	
303-5	용수 사용량	52, 138-139	
304-1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구역 또는 주변지역에 소유, 임대, 관리 중인 사업장	53-58	
304-2	활동, 제품, 서비스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53-58	
304-3	보호 또는 복원된 서식지	53-58	
304-4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에 서식하는 IUCN 적색목록 종과 국가보호종	55	
305-1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38, 136	
305-2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2)	38, 136	
305-3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3)	38, 136	
305-4	온실가스 배출량 집약도	38, 136	
305-5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23-33	
305-7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그리고 다른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38	
306-1	폐기물 발생 및 폐기물 관련 주요 영향	43-46	
306-2	폐기물 관련 주요 영향 관리	43-46	
306-3	폐기물 발생량 및 종류	47, 137	
306-4	폐기물 재활용 현황	47, 137	
306-5	매립 외 기타 폐기물 처리 현황 (에너지 회수 여부)	137	
308-1	환경 기준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	69, 77-78, 80	
308-2	공급망 내 부정적인 환경적 영향 및 이에 대한 조치	69, 77-78, 80	

GRI Index

Topic Specific Standards – Social

GRI Standards No.	GRI Standards Title	Page	Note
401-1	신규채용자 수 및 이직자 현황	143	
401-2	임직원 복리후생 제도	99, 103, 105	
401-3	육아휴직 사용, 복귀, 유지	103, 145	
403-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60	
403-2	안전보건 위험성 평가, 산업재해 조사	61, 65	
403-3	안전보건 개선 활동	61-62, 65	
403-4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 커뮤니케이션	61-66	
403-5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63-64	
403-6	근로자 건강증진 프로그램	103	
403-7	사업운영과 직결된 안전보건 영향 예방 및 완화	61-65	
403-8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적용 대상 근로자	60	
403-9	임직원, 협력사 재해 및 부상발생 현황	140	
403-10	임직원, 협력사 질병발생 현황	140	
404-1	임직원 1인당 평균 교육 시간	144	
404-2	임직원 역량 강화 및 전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95-98	
404-3	업무성과 및 경력개발에 대한 정기적 피드백을 받은 근로자 비율	143	
405-1	범주별 거버넌스 기구 및 근로자의 구성 현황	119, 141-142	
405-2	남성 대비 여성의 기본급 및 보상 비율	146	
406-1	차별 사건 및 이에 대한 조치	93, 129	
407-1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침해 위험이 있는 사업장 및 공급업체	77, 107	
408-1	아동 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및 공급업체	77, 107	
409-1	강제 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및 공급업체	77, 107	
411-1	원주민 권리 침해 사건 수	-	침해 사례 없음
413-1	지역사회 참여, 영향평가 그리고 발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14, 53-58, 114-117	
413-2	지역사회에 중대한 실질적·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	55, 57	
414-1	사회적 기준을 바탕으로 한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	69, 77-78, 80	
414-2	공급망 내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 및 이에 대한 조치	69, 77-78, 80	
415-1	국가별, 수령인 및 수혜자별 기부한 정치자금의 규모	147	정치자금 기부 사례 없음

GRI Standards No.	GRI Standards Title	Page	Note
416-1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보건 영향평가	82	
416-2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보건 영향에 관한 규정 위반 사건	89, 147	
417-1	정보 및 라벨을 위해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 정보 유형	86-87	
417-2	제품 및 서비스 정보와 라벨링에 관한 법률규정 및 자율규정을 위반한 사건	124	위반 사례 없음
417-3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규정 위반	147	위반 사례 없음
418-1	고객 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고객 데이터 분실과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건수	147	

TCFD Index

Indicator No.	Title	Page	Note[1]
지배구조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	10, 22	이사회 산하 위원회인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 보고 및 검토 CDP 연계 문항: 4.1.2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경영진의 역할	10, 22	Management Committee Meeting을 통해 추진방향 및 실행계획 논의, 이행현황 및 성과 점검 CDP 연계 문항: 4.3
전략	조직이 단기, 중기 및 장기간에 걸쳐 파악한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	23-33	CDP 연계 문항: 2.1, 3.1, 3.1.1, 3.6, 3.6.1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가 조직의 사업, 전략 및 재무 계획에 미치는 영향	23, 34-36	CDP 연계 문항: 3.1.1, 3.6.1, 5.1.2, 5.2, 5.3.1, 5.3.2
	2°C 이하의 시나리오를 포함하여 다양한 기후변화와 관련된 시나리오를 고려한 조직 전략의 회복탄력성	34-36	CDP 연계 문항: 5.1, 5.1.1, 5.1.2
위험관리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조직의 프로세스	37	CDP 연계 문항: 2.1, 2.2.1, 2.2.2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의 프로세스	37	CDP 연계 문항: 2.1, 2.2.1, 2.2.8, 2.2.9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조직의 전반적인 위험 관리에 통합되는 방식	10, 37	CDP 연계 문항: 2.1, 2.2.1
지표와 감축목표	조직이 전략 및 위험 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지표	38-41	에너지 사용량, 차량 판매 현황, 매출액 등 CDP 연계 문항: 7.52, 7.54, 7.54.1, 7.54.2
	Scope 1, Scope 2 그리고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및 관련 위험	38, 136	CDP 연계 문항: 7.6, 7.7, 7.8, 7.8.1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 기회 및 목표 대비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조직이 사용하는 방식	13, 23, 40-41	CDP 연계 문항: 7.53, 7.53.1, 7.53.2, 7.54, 7.54.1, 7.54.2

[1] CDP 2026 문항 기준

SASB Index

Accounting Metric			Page	Note
제품안전	TR-AU-250a.1	NCAP(신차안전도평가) 5-star 획득 차종의 비율 (지역별)	82	한국: 100%, 유럽: 66.7%, 미국: 76.7%, 호주: 66.7%
	TR-AU-250a.2	안전 관련 결함 컴플레인의 수, 컴플레인 중 실제 조사받은 비율	83, 86	국토교통부(한국), NHTSA(미국 도로교통안전국) 고객 불만제기 이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및 잠재 문제 인지 즉시 자발적 리콜 시행(100%)
	TR-AU-250a.3	리콜 차량 수	89	2025년 225만 대 (자발적 리콜)
노동관행	TR-AU-310a.1	노동조합 등 단체교섭 직원 비율	144	2025년 93.7% (국내 기준)
	TR-AU-310a.2	(1) 파업 등 1천명 이상의 근무 단절의 수, (2) 총 손실일수	144	2025년: 1천 명 이상 근무단절의 파업 1건 및 총 손실일수 3일 발생 (국내 및 해외 기준)
연비&사용단계배출	TR-AU-410a.1	판매비중 기준의 평균 승용차 연비 (지역별)	28	유럽 평균 탄소 배출량, 중국/미국 평균 연비실적

구분		2022	2023	2024	2025
EU 평균 탄소 배출량 (단위: g/km)		106.0	105.7	111.3	98.6
중국 평균 연비실적 (단위: L/100km)		6.28	6.19	6.24	6.22
미국 평균 연비실적 (단위: mpg)	승용	45.1	47.7	51.7	49.2
	경트럭	36.1	35.0	35.7	36.2

연비&사용단계배출	TR-AU-410a.2	(1) 무배출 차량, (2) 하이브리드, (3)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량	8	2025년 전동화 차량 판매대수 및 비중 (단위: 천 대)

구분	HEV/PHEV	EV	FCEV	총계
Global	679(70.6%)	276(28.7%)	7(0.7%)	962(100%)

연비&사용단계배출	TR-AU-410a.3	연비 및 탄소 배출 리스크와 기회의 관리 전략	26-28	전동화 차량 판매 확대 및 내연기관 연비 개선 추진
원자재조달	TR-AU-440a.1	주요 원자재 사용과 관련된 위험 관리	44-45, 70, 78-79	보고서 해당 페이지 및 현대자동차 책임광물 보고서 내 상세 내용 수록 현대자동차 책임광물 보고서
원자재효율&재활용	TR-AU-440b.1	제조 시 발생하는 총 폐기물, 재활용 비율	47, 137	2025년 기준 사업장 총 폐기물 발생량: 927,556톤, 재활용비율: 91.1%
	TR-AU-440b.2	폐차(End-of-life) 후 재사용/활용되는 자재의 무게(ton), 재활용 비율	45, 47	2025년 폐차(End-of-life) 후 재사용/활용되는 자재 무게: 약 20.6만 톤 (국내 기준) 2025년 폐차 재활용률: 열회수 제외 시 82.8%, 열회수 포함 시 92.0% (국내 기준)
	TR-AU-440b.3	판매 차량의 평균 재활용 가능률	46	차량 재활용 가능률: 열회수 제외 시 85%, 열회수 포함 시 95%
활동지표	TR-AU-000.A	차량 생산대수	5	4,116,506대
	TR-AU-000.B	차량 판매대수	5	4,138,389대

Global Network

현대자동차는 해외 주요시장에 생산공장과 판매법인, 연구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글로벌 판매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 고객에게 자동차와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1 Europe (유럽)

• 권역본부	1
• 생산	2
• 판매	12
• 연구	1
• 기타	5

2 India, Middle East & Africa (인도, 중동, 아프리카)

• 권역본부	2
• 생산	1
• 판매	1
• 연구	1
• 기타	1

3 China (중국)

• 권역본부	1
• 생산	2
• 판매	2
• 연구	4
• 기타	5

4 North America (북미)

• 권역본부	1
• 생산	5
• 판매	5
• 연구	1
• 기타	6

5 Asia & Pacific (아시아 태평양 지역)

• 권역본부	1
• 생산	6
• 판매	8
• 연구	1

6 Central and South America (중남미)

• 권역본부	1

권역본부	생산	판매	연구	기타
7개	16개	28개	8개	17개

* 인도권역본부, 중남미권역본부 : 생산, 판매 통합(단일) 법인

제3자 검증의견서

㈜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이하 'DNV' 또는 '당사')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 또는 '회사')로부터 2026 현대자동차 지속가능성 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대한 독립적인 제한적 검증 업무를 의뢰 받았습니다. 본 검증 의견서의 사용대상은 현대자동차의 경영진과 이해관계자입니다.

검증 기준

검증 활동은 당사의 전문적인 경험과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1]가 제정한 국제인증업무기준(ISAE 3000)[2] 등 국제 규격을 반영한 DNV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검증 프로토콜인 VeriSustain™ 6.0과 AccountAbility사의 지속가능성 검증 기준(AA1000AS v3)에 따라 Type 2 제한적 수준의 보증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DNV는 보고서가 AccountAbility 원칙 기준(AA1000APS (2018))의 4가지 원칙과 VeriSustain의 신뢰성, 완전성 및 중립성 원칙을 준수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검증 범위'에 기술된 바와 같이 '특정 지속가능성 성과 정보의 신뢰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당사의 프로토콜은 당사가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제한적 또는 합리적 보증을 얻기 위해 검증을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한적 검증 업무 절차의 성격과 시기는 합리적 검증 업무 절차와 차이가 있으며, 절차의 범위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이에 따라 제한적 검증을 통한 보증 수준은 합리적 검증을 통한 보증 수준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이에 DNV는 검증 의견을 제공함에 있어 근거가 된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작업을 계획하고 수행함으로써 당사의 의견에 오류가 있을 위험을 줄였으나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았습니다.

DNV는 이번 보고 기간 동안 보고서 외부 또는 현대자동차 웹사이트에 게시될 수 있는 기타 정보에 대해 어떠한 검토나 작업도 수행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결론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검증 범위

당사는 보고서에 대한 독립적인 제한적 검증 업무 및 특정 지속가능성 성과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 업무 수행을 의뢰 받았습니다.

- 당사는 현대자동차의 중대성 평가를 통해 식별된 중요 주제(Material Topics)와 관련된 GRI 주제 기준(Topic Standards)을 검토하였습니다.
  - 기후변화 완화: 305-1~4
  - 에너지: 302-1, 302-3
  - 제품 관련 자원 순환: 301-1, 306-1
  - 소비자 안전: 416-1, 416-2
  - 임직원 안전 보건: 403-1~9
  - 공급망 노동인권: 408-1, 409-1, 414-1~2
- '특정 지속가능성 성과 정보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Scope 1&2 배출량) 305-1~2, (임직원 안전 LTIFR) 403-9, (원자재 사용량) 301-1, (육아휴직) 401-3의 품질 및 신뢰성을 검토하였습니다.
- 이 밖에 보고서에 나와 있는 GRI 주제 기준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중에는 (물소비) 303-5, (폐기물) 306-1~5, (성별기본급 및 보수 격차) 405-2를 포함합니다.

의견, 관찰 및 권고사항

검증 수행 결과, DNV는 AA1000APS(2018)의 4가지 원칙과 VeriSustain의 신뢰성, 완전성 및 중립성 원칙 측면에서 현대자동차의 보고서에 수록된 정보 및 데이터가 부적절하게 기술되었다고 판단할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성과 데이터의 신뢰성 측면에서, 보고된 데이터가 현대자동차의 운영 중 관리된 실무 데이터와 적절히 대조되지 않았거나 적용된 가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DNV는현대자동차의 보고서가 중대성 관점에서 GRI Standards의 'in accordance'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합니다.

검증 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증 범위'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DNV의 관찰 의견을 AA1000APS(2018) 원칙과 VeriSustain 원칙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제공합니다:

포괄성: 이해관계자 참여 및 의견 제시

현대자동차는 고객, 딜러,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정부, 주주 및 투자자 등을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으로 정의하고 각 그룹에 대한 세부정의와 커뮤니케이션 채널 및 주요 이슈 등을 보고서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수렴된 주요 관심사항은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에 반영하여 회사 주요 정책에 대한 이해 관계자 참여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중대성: 중대한 지속가능성 주제에 대한 식별 및 보고

현대자동차는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중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이중 중대성' 원칙에 따라 중대성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가치사슬 관점의 산업별 중요성을 고려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영향 평가와 외부 이해관계자가 현대자동차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위험 및 기회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026년 평가 결과, 기후변화 완화, 에너지, 제품 관련 자원 순환, 소비자 안전, 임직원 안전보건, 공급망 노동인권을 포함한 6개의 중대 주제가 도출되어, 해당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적절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대응성: 중대한 지속가능성 주제 및 관련 영향에 대한 투명한 대응

현대자동차는 중대성 평가를 중심으로 관리내역과 핵심지표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활동을 보고서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 지속가능경영 주요 활동 및 성과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중대 주제에 대한 관리 전략 및 경영진 보상 연계에 대해서도 밝힘으로써 지속가능성 주제 및 관련 영향에 대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대 주제인 소비자 안전 및 임직원 안전 보건에 대해서도 다른 중대 주제들과 마찬가지로 중장기 세부 목표 등을 더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관련 주제에 대한 대응 수준을 제고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영향: 조직 활동이 조직 및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측정 및 설명

현대자동차는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회사 및 공급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식별된 핵심 영역과 관련 주제/영향 및 실행 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있으며, 적절한 성과 지표를 통해 영향을 측정, 평가 및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특히 ISO 14001 및 45001을 국내 및 해외 사업장에 적용하여 환경, 안전·보건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는 전체 1차 부품사, 핵심 2차사 및 주요 비부품사를 대상으로 100% 서면진단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127개 업체에 대해 ESG 현장 실사를 진행하였습니다. DNV는 회사 활동이 회사 및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측정 및 설명이 보고서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 International Auditing and Assurance Standard Board
[2] International Standard on Assurance Engagements (ISAE) 3000 - 'Assurance Engagements other than Audits and Reviews of Historical Financial Information' (revised)

제3자 검증의견서

신뢰성: 보고서에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 비교 가능성 및 기본 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품질
샘플링 기법을 통해 데이터 수집 및 가공 과정, 근거 문서와 기록을 확인하였으며, 검증 결과로 판단하였을 때 보고서에 기재된 지속가능성 성과 정보에 의도적 오류나 왜곡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지속가능 성과의 출처와 의미를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었으며, 검증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나 명확하지 않은 표현은 최종 보고서 발간 전 모두 수정되었습니다.

완전성: 조직과 그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정보로 확인된 모든 정보 중 보고되는 정보
현대자동차는 식별된 중요 주제의 운영 경계에 대해 적절한 GRI 주제별 기준 공시항목을 사용하여 중대 이슈와 관련된 2025년 보고 기간 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현대자동차의 주요 비재무적 공시사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중립성: 보고서가 조직의 성과에 대해 중립적인 어조로 균형 잡힌 설명을 제공하는 정도
현대자동차는 보고 기간 동안 회사의 성과, 과제, 이해관계자 우려 사항을 중립적이고 일관되며 균형 잡힌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적격성, 독립성 및 품질 관리
DNV는 ISO/IEC 17029:2019[3] 적합성 평가에 따라 품질 관리를 위한 자체 관리 표준 및 규정 준수 정책을 적용함으로써 윤리적 요구사항, 전문적 기준, 해당 법률 및 규제 요구사항 준수에 관한 문서화된 정책 및 절차를 포함하여 포괄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을 유지합니다.

DNV가 수립하고 있는 정책 및 절차는 DNV 및 그 임직원,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다른 모든 인원(DNV의 타법인 임직원 포함)에게 독립성 요건을 적용하고,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본 검증 활동은 지속가능성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검증팀에 의해 실시되었습니다. DNV는 2025년 현대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보고서 검증에 대한 독립성이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한계점
검증은 DNV에 제공된 현대자동차의 데이터 및 정보가 완전하고, 충분하며, 사실이며, 중요한 왜곡 표시가 없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실시되었습니다. 한편, 표본추출(샘플링)과 내부 통제 절차 및 시스템에 대한 기타 내재적 제한들로 인해 중대할 수 있는 오류 또는 불규칙성이 감지되지 않았을 수 있는 리스크가 불가피하게 존재합니다.

보고서에 언급된 현대자동차의 종속기업, 협력사 및 제3자의 지속가능경영, 성과 및 보고 관행 등은 본 검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DNV는 검증 활동 중 외부 이해관계자 면담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DNV는 보고된 재무 데이터, 거버넌스 및 관련 정보가 별도의 독립적인 법정 감사 프로세스의 적용을 받는 법정 공시 및 감사된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재무 공개 및 데이터는 검증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며, 검증은 정의된 보고기간 내의 범위에 있는 데이터 및 정보로 제한되며 해당 기간 이외의 데이터는 검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DNV는 본 의견서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어떠한 배상 책임 또는 공동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현대자동차 관리자 및 검증기관의 책임
현대자동차는 보고서 내용에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데이터 수집, 분석, 집계, 준비, 정보의 공정한 표시, 데이터에 중요한 왜곡이 없음을 보장하는 내부 통제의 설계, 구현 및 유지가 포함됩니다.

DNV의 책임은 '검증 범위'에 기술된 관련 정보가 보고 요구사항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제한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업무를 계획 및 수행하고 이를 취합한 증거에 기반하여 독립적 검증의견서 형태로 현대자동차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당사의 성명은 독립적 의견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현대자동차의 경영진과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DNV는 본 의견서를 제외하고 보고서에 포함된 어떠한 진술이나 데이터의 작성에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의견 판단 기준
본 검증 활동은 위험 기반 접근방식(Risk-based approach)에 따라 현대자동차의 사업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관련성이 높은 중요 이슈들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제한적 검증 절차의 일환으로 다음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 보고 기간 동안 현대자동차와 관련된 지속가능성 이슈를 식별하기 위한 피어 리뷰 및 미디어 검토 등
- 중대성 평가 절차와 결과, 주제 기준과 관련된 관리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요구사항에 따른 공시 내용 검토
- 보고서에 수록된 정보 및 KPI를 통합, 관리 및 보고를 위한 주요 시스템, 프로세스 및 통제에 대한 이해와 평가
- 보고 원칙 및 요구사항 준수를 뒷받침하는 문서에 대한 검토
- 정보 모니터링, 데이터 집계 및 보고 전반에 책임이 있는 ESG팀 및 관련 부서 담당자들과의 인터뷰 수행
- 현대자동차 본사(서울) 방문을 통해 사업장별 지속가능성 데이터 샘플링 및 전략 이행 관련 관리체계 검토

㈜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대한민국 서울
2026년 6월 29일

윤창록	박상연	김소현
검증팀장	검증팀원	기술검토자

AA1000
Licensed Report
000-10/V3-4IL3A

DNV그룹의 일원인 DNV Business Assurance Korea는 certification, verification, assessment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고객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Conformity assessment — General principles and requirements for validation and verification bodies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2025년도 국내 사업장 Scope 1 & 2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서문

주식회사 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이하, DNV)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2025년도 온실가스 명세서(이하, 명세서)에 대해 제3자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회사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5-64호)"에 근거하여 명세서를 준비할 책임이 있으며, 명세서 내용에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DNV는 본 검증 의견서와 관련하여 계약 조건에 따라 검증 계약당사자를 제외한 제 3 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검증범위

본 검증에서 다루어진 온실가스 배출량은 회사가 주무관청에 제출한 명세서를 바탕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조직경계 :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국내 사업장
- 운영경계 : Scope 1(직접배출), Scope 2(간접배출)
- 보고대상 기간 : 2025.01.01 ~ 2025.12.31

검증 방식

본 검증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 2025-64 호)"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고시 제 2025-165 호)"의 검증 원칙과 기준에 따라 합리적 보증수준 하에서 수행되었습니다. DNV는 회사가 보고한 명세서의 완성에 대한 검증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검증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검증결론은 중요성 평가 기준 2.5%를 적용하여 의견을 도출하였습니다. 검증 프로세스의 부분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 온실가스 데이터 관리 및 수집, 배출량 산정 및 보고 프로세스의 적정성
- 온실가스 명세서는 측정값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보고된 데이터의 수치를 계산, 추정, 확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유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

DNV

결론

회사의 온실가스 명세서와 관련하여 정보가 보고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산정 및 보고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적정' 의견을 제시합니다.

구분	온실가스 배출량(tCO_2-eq)			에너지사용량(TJ)	
	직접배출(Scope 1)	간접배출(Scope 2)	총 배출량	재생 에너지 사용량	총 에너지 사용량
지역기반	479,697	1,084,648	1,564,345	114	32,378
시장기반		1,084,521	1,564,218		

※ 상기의 '총배출량'은 소수점 처리로 인해 직접 및 간접 배출량 합산 값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지역 기반(Location-based)은 국가 전력망을 기준으로 한 전력 사용에 따라 산정된 Scope 2 배출량임.
** 시장 기반(Market-based)은 GHG 프로토콜을 적용하며, 회사가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한 재생에너지 전력량을 Scope 2 온실가스 배출량에 반영함. 공표된 잔여 배출계수가 없으므로 잔여 전력량에 대하여는 국내 전력 배출계수를 적용함.

일자: 2026년 6월 15일
대표이사 이 장 섭

㈜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DNV

[표 1] 2025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국내 Scope 1, 2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산정방식	TJ		
		직접(Scope 1)	간접(Scope 2)	총배출량(Scope 1,2)
울산공장	지역기반	334,683.517	579,139.909	913,823
	시장기반	334,683.517	579,012.832	913,696
아산공장	지역기반	42,949.866	118,339.029	161,288
전주공장	지역기반	38,348.957	81,504.835	119,853
연구시설	지역기반	50,287.661	254,463.270	304,750
본사자가건물	지역기반	6,260.359	21,380.731	27,641
서비스센터	지역기반	4,713.356	14,126.439	18,839
판매자가건물	지역기반	2,446.052	14,518.076	16,964
제네시스부문	지역기반	8.645	1,178.87	1,187
합계	**지역기반**	**479,697**	**1,084,648**	**1,564,345**
	시장기반	**479,697**	**1,084,521**	**1,564,218**

* 상기의 '총배출량'은 사업장 단위 절사 후 업체 단위 합산 기준 적용에 따라 총 배출량과 사업장 배출량 합계는 차이가 있음.

[표 2] 2025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에너지 사용량 요약

사업장명	에너지사용량(TJ)		에너지사용량(MWh)	
	재생 에너지 사용량	총 에너지 사용량	재생 에너지 사용량	총 에너지 사용량
울산공장	40.9	18,918.7	10,906	3,153,708
아산공장	43.7	3,343.1	12,132	499,332
전주공장	9.9	2,453.6	2,738	385,857
연구시설	19.9	6,345.0	5,523	841,650
본사자가건물	-	569.0	-	84,089
서비스센터	-	383.0	-	55,132
판매자가건물	-	340.9	-	42,030
제네시스부문	-	24.8	-	2,613
합계	**114**	**32,378.0**	**31,298**	**5,064,411**

* 전력의 경우 한국 배출권거래제(K-ETS) 기준 순발열량인 9.6 TJ/GWh를 적용하였으며, 기타 에너지 항목에 대해서는 일반 전환계수인 3.6 TJ/GWh를 적용함.

본 외부 검증인의 검증의견서는 의견서 발행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의견서 발행일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본 검증의견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2025년도 해외 사업장 Scope 1 & 2, 글로벌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이 검증의견서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와의 상호계약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검증 기준 및 범위

로이드인증원(LRQA)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2025년도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에너지 사용량(이하 "보고서")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 제공 요청을 받았습니다. 본 검증은 아래 검증 기준에 따라 ISAE 3000 및 ISAE 3410를 활용하여 제한적 보증 수준 및 5%의 중요성 기준으로 수행되었습니다.

검증 범위에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글로벌 법인 운영 및 활동이 포함되었으며, 특히 다음의 요구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 World Resources Institute 및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GHG Protocol[1], A Corporate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revised version) 및 GHG Protocol, Corporate Value Chain (Scope 3)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의 준수 평가
- 해외 법인들의 직접 온실가스 배출(Scope 1),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 배출(Scope 2) 그리고 에너지 사용에 대한 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 평가
- 글로벌 법인들[2]의 그 밖의 간접 온실가스 배출(Scope 3)에 대한 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 평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글로벌 법인들의 주요 활동은 자동차 생산 및 판매이며 온실가스 배출은 운영관리접근법을 사용하여 통합되었습니다.

로이드인증원의 책임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해서만 국한됩니다. 로이드인증원은 마지막 주석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타인 혹은 타 조직에게 어떤 의무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고 데이터와 정보의 수집, 취합, 분석 및 제시, 그리고 보고 시스템에 대한 효과적인 내부 통제 유지에 대한 책임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게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고서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책임이 됩니다.

로이드인증원의 의견

로이드인증원의 접근 방법에 기초한 검증 결과, 모든 중요 측면에서 하기 제한 사항에 의한 영향을 제외하고, 아래 표에 요약된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이 정확하지 않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보고서가 GHG Protocol, A Corporate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revised version) 및 GHG Protocol, Corporate Value Chain (Scope 3)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의심을 줄 만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일부 연구 법인들의 시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 의견은 제한적 보증 수준의 검증에 바탕을 두며, 5% 중요성 기준에 기초하여 도출되었습니다.

Note: 제한적 보증 수준의 검증에서 증거 수집 범위는 합리적 보증 수준의 검증보다 작습니다. 제한적 보증 수준의 검증은 사업장에서 원시데이터를 직접 확인하기 보다는 취합된 데이터에 초점을 둡니다. 결과적으로 제한적 보증 수준의 검증은 합리적 보증 수준의 검증보다 보증 수준이 현저히 낮습니다.

로이드인증원의 권고사항

- 공조시스템 냉매 누출, 차량용 연료 및 전기 사용, 하폐수처리장 운영, 생산공정 중 기상폐기물의 소각 및 바이오매스 기원 배출원으로부터의 온실가스 배출 정량화 및 보고를 위한 프로세스를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는 Scope 3 배출 중 Category 6 출장 및 Category 7 직원 출퇴근에 대한 배출 보고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제외된 교통 수단에 대한 모니터링 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트 내에서 오류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약점을 식별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 온실가스 배출 보고에 책임이 있는 관련 인원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보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 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로이드인증원의 접근 방법

로이드인증원의 검증은 로이드인증원의 검증 절차에 의거하여 수행됩니다. 본 검증을 위해 증거 수집의 일환으로 다음의 활동들이 수행되었습니다.

-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 데이터 및 기록 관리 책임이 있는 핵심 인원들과 면담하였습니다.
-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 데이터 및 기록의 통제와 관련된 프로세스를 검토하였습니다.
-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계산에 사용된 파라메타가 인정받는 출처로부터 참조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 2025년도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 데이터 및 기록들을 취합 수준에서 검증하였습니다.
- 본사에 대한 방문 심사 및 해외 법인에 대한 원격 심사를 통해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증거들을 검토하였습니다.

[1] https://www.ghgprotocol.org
[2] 판매 부문의 경우, Scope 3 Category 2, 5, 6 및 7은 권역별 판매 부문 본사만 포함되었음.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로이드인증원의 자격 및 독립성

로이드인증원은 ISO 14065(온실가스 — 온실가스 타당성 평가 및 검증기관 인정 또는 인증에 관한 요구사항) 및 ISO/IEC 17021(적합성평가 - 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의 인정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포괄적인 경영시스템을 이행 및 유지하고 있으며 품질관리기준서1(ISQC1: International Standard on Quality Control 1)의 요구사항과 국제윤리기준위원회(IESBA: International Ethics Standards Board for Accountants)의 공인회계사 윤리 강령을 준수합니다.

로이드인증원은 자격, 훈련 및 경험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자격이 부여된 검증심사원을 선정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적용된 접근 방법이 엄격히 지켜지고 투명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모든 검증 및 인증 평가의 결과는 내부적으로 경영진에 의해 검토되고 있습니다.

로이드인증원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해 본 검증 심사만을 수행하였으므로 독립성 및 공평성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김태경
검증팀장
로이드인증원(LRQA)을 대표하여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2길 30, T타워 2층

일자: 2026년 6월 5일

LRQA 계약번호: SEO000001622

표 1. 2025년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해외 법인, Scope 1 및 Scope 2 온실가스 배출 요약

온실가스 배출 보고 범위	tCO_2-eq								
	북미	남미	유럽	인도	아중동	아태	중국	일본	합계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1)	74,862	9,664	65,413	34,603	391	15,128	40,873	11	**240,945**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2, 지역 기반)	227,913	4,067	65,762	252,964	172	73,387	149,352	632	**774,249**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2, 시장 기반)	2,078	1,018	611	0	172	7,841	93,659	542	**105,921**

Note: Scope 2의 지역 기반 및 시장 기반은 GHG Protocol Scope 2 Guidance (2015)에 따른 용어임.

표 2. 2025년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글로벌 법인, Scope 3 온실가스 배출 요약

온실가스 배출 보고 범위	tCO_2-eq
그 밖의 간접 온실가스 배출(Scope 3)	199,704,253
Category 1.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 - 부품 소재 (트레일러 제외) 및 일부 1차 협력회사	30,976,380
Category 2. 자본재 - 건축물, 기계류, 차량, 사무실 가구 및 비품, 사무기기, 컴퓨터 및 통신기기	2,013,738
Category 3. 연료 및 에너지 관련 활동	639,111
Category 4. 업스트림 운송 및 배송	2,345,209
Category 5. 운영으로 인해 생성된 폐기물	231,554
Category 6. 출장	118,532
Category 7. 직원 출퇴근	2,316,276
Category 10. 판매된 제품의 가공	9,470
Category 11. 판매된 제품의 사용 - 승용차 (20만km) 및 상용차(40만km) 기준	157,799,559
Category 12. 판매된 제품의 최종 처리	1,711,368
Category 13. 다운스트림 임대 자산	11,546
Category 14. 프랜차이즈	25,376
Category 15. 투자	1,506,134

Note: Category 1에는 한국에 위치한 1차 협력회사 중 현대자동차가 자체적으로 정의한 다배출사들이 포함되었음.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표 3-1. 2025년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해외 법인, 에너지 사용 요약 (TJ)

에너지	TJ								
	북미	남미	유럽	인도	아중동	아태	중국	일본	합계
총 에너지 사용량	3,420.8	485.7	1,774.6	1,904.0	7.0	630.8	1,137.9	5.7	**9,366.5**
재생에너지 사용량	2,101.2	238.1	645.3	1,333.0	0	289.6	316.2	0.8	**4,924.2**

표 3-2. 2025년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해외 법인, 에너지 사용 요약 (MWh)

에너지	MWh								
	북미	남미	유럽	인도	아중동	아태	중국	일본	합계
총 에너지 사용량	950,217	134,908	492,938	528,894	1,938	175,231	316,079	1,579	**2,601,784**
재생에너지 사용량	583,663	66,133	179,255	370,278	0	80,438	87,842	215	**1,367,824**

LRQA Group Limited, its affiliates and subsidiaries, and their respective officers, employees or agents are,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referred to in this clause as 'LRQA'. LRQA assumes no responsibility and shall not be liable to any person for any loss, damage or expense caused by reliance on the information or advice in this document or howsoever provided, unless that person has signed a contract with the relevant LRQA entity for the provision of this information or advice and in that case any responsibility or liability is exclusively on the terms and conditions set out in that contract.

The English version of this Assurance Statement is the only valid version. LRQA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versions translated into other languages.

This Assurance Statement is only valid when published with the Report to which it refers. It may only be reproduced in its entirety.

Copyright © LRQA, 2026.

보고서 개요

보고서 작성 기준

본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 국제 보고 가이드라인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지속가능경영 설명의무를 담고 있는 AA1000APS(Accountability Principles Standard)의 4대 원칙인 포괄성(Inclusivity), 중요성(Materiality), 대응성(Responsiveness), 영향도(Impact)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와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의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고 범위 및 경계

본 보고서의 재무정보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상의 현대자동차 연결재무제표 기준과 일치합니다. 환경 및 사회 관련 정보는 연결재무제표의 일부로 자동차 부문(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제조 및 판매, 차량정비 등의 사업)에 해당되는 국내 본사, 생산 공장, 기술연구소, 서비스 및 물류센터와 해외 생산 및 판매법인 등 자동차 부문 해외 종속회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외 보고 항목별로 위에서 언급한 보고 범위와 다른 경우는 해당 정보의 보고 범위를 별도로 표기하였습니다.

또한, 지속가능성 정보이용자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획득 가능한 중대한 영향, 위험 및 기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스트림 활동(예: 광물 채굴, 부품 제조, 운송)부터 다운스트림 활동(예: 자동차 판매, 폐차 처리)에 이르기까지, 접근 및 수집이 가능한 관련 정보를 말합니다.

보고 기간

본 보고서의 보고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일부 비재무적 성과의 경우에는 2026년 상반기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성과의 연속적인 추세 파악이 필요한 경우 최근 3개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의 보고 주기는 1년으로 이전 보고서는 2025년 6월에 발간되었습니다.

보고서 검증

본 보고서의 작성 프로세스 및 제반 정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독립적인 검증기관인 DNV의 제3자 검증을 받았습니다. 재무 정보는 독립 감사법인의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되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검증은 독립된 검증기관인 DNV와 로이드인증원(LRQA)을 통해 수행되었습니다. 상세한 검증 결과는 제3자 검증의견서 및 온실가스 검증의견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행처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 본사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양재동)
발행일	2026년 6월
보고서 제작 (문의처)	현대자동차 지속가능기획팀 • 이메일: ESG@hyundai.com
보고 기준	GRI Standards, TCFD, SASB
보고 경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일부 성과는 현대자동차그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고 범위	경제(K-IFRS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 환경 및 사회, 지배구조 전반
보고 기간	2025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일부 성과는 2026년 상반기를 포함합니다.)
보고 주기	매년 (지난 보고서: 2025년 6월)

UN Global Compact

UNGC(UN Global Compact)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강조하기 위해 2000년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이 제안한 국제협약으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4개 분야 10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UNGC의 10대 원칙을 지지하는 한편, 경영 전반에서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COMMUNICATION ON PROGRESS

This is our **Communication on Progress** in implementing the Ten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and supporting broader UN goals.

We welcome feedback on its contents.

미래 예측 진술(Forward-Looking Statements)

본 지속가능성보고서에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이 아닌 미래와 관련된 사실을 서술하는 '미래 예측 진술(Forward-Looking Statements)'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래 예측 진술은 주로 "예정이다", "추진하다", "기대하다", "목표", "전략", "추정"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현대자동차의 탄소중립 및 전동화 목표,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목표, 대외 지속가능경영 관련 약속 및 향후 사업 전략과 관련된 진술이 이에 해당합니다. 본 지속가능성보고서의 미래예측진술은 발간일 현재 당사가 이용 가능한 정보 및 합리적인 가정과 분석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나, 실제 결과가 해당 진술과 일치한다는 보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투자 권유 또는 특정 투자 판단을 위한 자료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예측 진술과 지속가능성 성과 데이터의 추정치는 글로벌 경제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정책 및 규제 환경 변화, 기술 변화, 시장 수요 변동, 원자재 가격, 공급망 불확실성 등 당사가 통제할 수 없거나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내재적 위험과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실제 결과는 미래 예측 진술에 명시되거나 암시된 내용과 크게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지속가능성 관련 지표 및 데이터는 측정 방법론, 가정 또는 추정에 기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적 또는 규제 의무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대자동차는 새로운 정보나 미래 사건 등으로 인해 본 보고서의 미래 예측 진술을 업데이트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HYUNDAI